

터이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재의 조선 인구는 아무리 적어도 1억<sup>63)</sup>은 되어 있지 않으면 셈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문헌을 조사해도 그 시대의 남자 수는 3백만 이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논법으로 간다면, 오늘날의 조선 인구는 3천억<sup>64)</sup>! 즉 전 세계인구의 백5십 배가 되는 어설픈 만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자생존의 법칙을 끄집어내어서 반박하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가난뱅이는 많을 뿐아니라 ‘적자’만큼 몸도 튼튼해서 아이도 쓸데없이 많이 낳는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아주 오래전에 저는 아버지로부터 빛나는 그 족보라는 것을 1권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 자리에서 찢어 없앤 것입니다.

조선인 전부가 그러하듯이, 지금 제 몸에는 이씨 계의 피, 장가의 피, 민성의 피, 무슨 무슨 피가 섞여 있으며, 몽고인의 피, 아이누의 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피, 야마토(大和)의 피, 구마소(熊襲)의 피, 그리고 무슨 무슨 피 하는 식으로 온갖 피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동성동본인 두 사람의 박 씨가 있다고 해도 몇 대인가 전에는 한 쪽이 다나카(田中) 씨이고 또 한 사람은 최 씨였을지 모르며, 또 거기있는 정, 이의 두 사람이 몇 백 년인가 전에는 피 씨의 집안의 형제였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조시대에는 관직을 매매했을 뿐만 아니라 족보와 성도 사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족보를 사는 일도 흔히 있었고 족보쟁이에게 부탁해서 무연불(無緣佛: 연고가 없는 망령) 뿐인 족보를 창작한 것도 무수히 많습니다. 창작료 또는 도작(盜作)의 금액에 따라서 그 망령들의 관록이 달라진 것도 굳이 나무랄 수는 없겠지요.

얼마나 불쌍한 우리들 조선의 과거였었던가요.

## 5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야 우리는 우리의 조상 집에 돌아와서 내지의 동포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 우리 나라의 종가인 황실을 위로 받들고 희망에 찬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우리들 반도의 적자(赤子)는 폐하의 그 깊은 인정 아래에서, 의붓아들로서 지나를 봉공해 온 저 시대에 익숙해진 나쁜 버릇이나 보기 싫은 습관을 다시 고쳐서 하루라도 빨리 내지의 형제와 다르지 않은 건전한 아이가 되려고 힘써 왔습니다.

최근 지나사변 이후 우리 반도의 형제들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거의 내지의 형제를 쫓아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고쳐야 할 점이나 배워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사는 형제는 예를 들어 말도 서로 통해야 할 테고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라거나 기타 여러 풍속·습관이 닮아 통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우선 기본 상으로도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어버이 나라의 말 즉 ‘국어’<sup>65)</sup>를 공부해 왔던 것인데 그래도

63) 계산으로는 1조가 맞음.

64) 계산으로는 3조가 맞음.

65) 일본어.

이름을 붙이는 방식까지 내지인과 형제다워지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최근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의 유래가 어떻다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까지 써 왔던 지나식 성으로서는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 때문에 또 실생활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모두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당황하여 그렇군! 역시 내지인 식의 씨를 쓰는 것이 일거양득이 되겠다 하며 소란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어는 우리가 어버이 나라로부터 떨어지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었던 말이 시대와 문화가 진보함에 따라 차차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국어를 쓰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말을 쓰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지인들의 성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지로부터 떠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결같이 붙였던 이름이 시대와 문화의 진보와 함께 차차 발달하여 생긴 것일 뿐입니다. 즉 조선인이 내지인 식의 성씨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의 유풍(遺風)을 따른다는 것일 뿐입니다. 유풍이라고 하는 것이 세태에 맞지 않아서 뭔가 폐단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 나가는데 대단히 편리하고 또 도리에 맞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이것을 이용하고 응용해야 할 것입니다.

×씨 집에 소중한 외동딸이 있다. 어버이 인정상 당연히 이 딸에게 가산을 상속하고 선조의 대를 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선에서는 동성동본은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바보 같은 풍습이 있다.(왜 바보 같은가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성동본이 아니면 양자를 삼을 수 없다는 역시 바보 같은 법도가 있다. 결국 부모의 골육(骨肉)에서 태어난 딸은 마음에도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남에게 시집 가 버리고, 이 ×씨의 집 상속은, 얼핏 보아 딸이 되는 듯 동성동본이지만 정말은 몇 십대인가 전에는 △집안의 비륜(非倫)의 자식인지, 아니면 ○선생 댁의 ‘비첩’의 씨앗인지 알 까닭도 없는 어떤 청년을 의붓자식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선조의 뒤를 잇게 한다 식의 관습.

이렇게 괴상한 윤리학이 세계의 어느 나라에 또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풍습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 시라도 빨리 내지 식의 성씨를 설정해야 합니다.

## 6

몇 년인가 전에, 도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젊은 남녀가 있었다. 남자는 그 여자 말고는 자신의 처가 될 사람을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었다. 여자도 역시 그 남자를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하다가 드디어 여자는 그 남자의 씨를 배었다. 그렇게 된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동성동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남자는 대대로 평양에 살고 있는 집안의 자식이며 여자는 수백 년 동안 마산을 고향으로 한 집안의 딸이라고 한다. 어디를 보아도 전혀 관계없는 남이며, 어떤 도덕에 비추어 보아도 결혼해야 할 두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동본 불취(不娶)라고 하는 동방예의지국의 철칙인지 서양야만지국에도 없는 이러한 질곡(桎梏) 때문에, 결국 그 젊은 애비와 어머니는 하늘을 등지고 땅을 배반하며 인간 세상의 희생이 되어야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이 남녀는 “생피 붙었다”(넓은 뜻의 비륜)고 하는 더러운 죄목으로 그 부모들 까지 얼굴을 내밀 수가 없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지에서도 3등친 이내의 근친결혼은 법률이 금하고 있을 정도로, 윤리적으로도 우생학적으로도 그

러한 것은 피해야겠지만, 아득한 먼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는 상황에 따라 결혼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민사령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당국이 동성의 혼인을 허락한다고까지는 하지 않는 것은, 조선 재래의 관습을 중히 여기는 아버이 마음에서이지만, 더 높은 아버이 마음에서 본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그러한 유습은 오히려 법률적으로 타파해야 할지 모릅니다.)

요컨대 혼 불혼의 경계선은 촌수를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성씨나 본관에 들 문제는 아닙니다. 법무국 발표에 의하면 성씨는 절대 불변성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선의 성씨의 역사적 위상이나 족보 등의 가치를 너무 높여 매긴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논법으로 말하면 남자 쪽의 성으로 불리는 내지인은, 모두 남편을 고를 수 없는 괴상한 처의 소산이 되는 셈이 아닌가. 터무니 없는 소리다!

옛날 일본 내지에는 가바네(姓)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가바네는 어떤 한 혈족의 관등(官等)에 붙는 명칭이었습니다. 공후백자남(公候伯子男)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관록(官祿)을 구별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소위 성씨는 후세에 와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독특한 기능, 혹은 또 그 사람이 사는 곳의 이름을 따라서, 예를 들면 활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궁조(弓造)’ 같은 성씨를 붙여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씨의 종류도 많아지고 자연히 서로 같은 성씨의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씨 중에서 핏줄 상 가장 가까운 사람 몇 사람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소위 “이에(家)”를 만들고 하나의 “이에”에는 하나의 “묘지(苗字)”를 붙여서 갑가(甲家)와 을가(乙家)와를 구별했던 것입니다. 이 “이에”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일가(一家)”보다는 범위가 좁고 단순하여 사회의 한 단위 또는 국가의 한 세포가 되기에는 매우 이상적이고 잘 맞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일가 중에는 예를 들면 할머니의 성과 손자의 성이 서로 다르다든지, 며느리의 성과 사촌 여동생의 성이 다르다든가 하는 식으로 일가이면서 그 성별이 혼잡하여 무척이나 까다롭고 마치 한 나라에 임금이 10명, 20명이나 있는 것 같아서, 인정 상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와 달리 내지의 “이에”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성씨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집의 인간 즉 가족이 되면 그 집의 성씨로 부르게 됩니다. 묘지는 즉 그 “이에”의 “종손”(후계자)의 “성씨”라고 간주해서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에”를 “구니(國)”라고 비유한다면 씨는 나라이름이고 성은 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칭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그런데 사회가 차차 복잡해짐과 함께 가족제도 즉 “이에”라고 하는 단체의 내용과 외형이 더욱더 정돈되고 충실해짐에 따라서, 하나의 “이에”에 가호(家號) 즉 우지(氏)와 종손 호(號) 즉 묘지(苗字)의 두 가지 칭호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종손 호 즉 묘지 하나만으로 그 집의 가호(家號) 즉 “우지”를 겸하고 쓰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바야시(小林)라는 의사의 딸이 우에다(上田)라는 변호사의 집에 시집을 갈 때 이 아가씨는 이 ‘이에’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에다라는 성씨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나라에 군주의 이름은 있어도 그 국명이 없는 것과 같이 조선에는 ‘종손’ 한 사람의 칭호가 있고 그 종손이 대대로 살아서 이것을 다스려 나가는 ‘이에’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즉 성씨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피이면서 아들과 어머니의 혈족적인 칭호 즉 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감정이나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비극마저 낳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혈족적인 칭호라고 하는 “성(姓)”이 과연 그 글자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액면 그대로의 혈족적인 칭호인가 하면, 이미 설명한 것처럼, 백이면 백 거의 전부가 엉터리이거나 동성동본이 이성(異姓)이본(異本)인 동지보다도 대개는 혈연이 멀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증명되므로, 엉터리 이상의 난센스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불선(不善)을 버리고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편한 성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꼭 필요한 우지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민사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앞으로는 조선동포도 씨를 설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므로, 지금 곧바로 면사무소나 경찰서 또는 학교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씨를 만드는 방법이나 그것에 대한 의견 등을 묻고, 경사스러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수속하도록 합시다.

## 8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집의 호주 성이 예를 들면 박 이라면 박을 그대로 성으로 하고, 그 호주의 호주 권 아래에 있는 가족(처나 며느리 등)의 성을 전부 박 성(姓)으로 고쳐서 이것을 박 ‘씨’로 통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의견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총독부에서 발표한 문서를 보아도 예를 들면 오노(大野), 시오바라(鹽原), 미야모토(宮本) 하는 식으로 내지식의 씨(氏)를 붙이는 것이 싫은 사람(호주)은 종래의 성이 박이라면 박, 황이라면 황을 그대로 씨(氏)로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총독부에서는, 가령 조선인이 내지 식의 씨(氏)를 설정해도 재래의 ‘성’과 ‘본(本)’은 그대로 호적에 남겨 두겠다고도 합니다.

생각건대 총독부의 이러한 방침은 총량한 제국신민이 된 반도 2천 3백만 신민의 참답고 현실적인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내지의 제도를 본받아 조선에서도 ‘씨(氏)’라고 하는 가호(家號)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풍습이라고는 해도 오랫동안 지켜 온 그러한 뼈에 사무친 관습을 갑자기 없애면 혹시나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개중에 또 우리들의 뿌리 깊은 인습을 무시한다며 분개(憤慨)하는 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응, 그래그래, 성과 본은 호적상에는 언제까지라도 그대로 둘 테니 안심하세요”라는 입장에서 입안된 법령이 아닌가 하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2천 3백만 동포여! 우리가 언제까지 지나의 행랑방 살이를 하던 시대에 습득하고 익힌 인성, 풍습, 인습을 그대로 연장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상의 나라인 대일본제국의 진실

한 국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를 나누고 태어난 자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 온 이상 옛날 의붓자식으로 서 봉공하던 그 시절의 풍속이나 관습을 과감히 씻어내고, 친형제와 일심일체가 되어 하나의 풍속으로 살아가야 우선은 아버지 된 자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지요, 형제의 정도 깊어지고,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사랑스럽고 행복한 민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9

그 뿐만 아니라, 박 성(姓)이나 이 성(姓) 같은 것을 그대로 박 씨 이 씨로 바꾼다고 한다면, 실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또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원래 내지인이 사족(士族), 평민 등의 계급 차별이 없고, 직업이나 전래의 출생지 등의 구별 없이, 모든 민초가 대등하게 묘지(나중에 씨와 합쳐진 것)를 가지게 된 것은 187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해 메이지천황께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 그 광고(曠古 : 전례가 없는 것)의 어심(御心)에서, “이제부터 신민(臣民)인 자들은 모두 묘지를 쓸 것”이라는 뜻의 정관포고(政官布告)를 내리셨고 이 빛나는 법령에 온 국민은 기뻐하며 누구든지—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묘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각자 호주권 아래에 있는 가족을 각각 그 하나의 묘지로 통일하고 이것을 그 집안의 칭호로 삼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농사꾼이 위쪽 마을에 살고 있었으므로 우에무라(上村)라고 묘지를 정하고, 그 차남은 솔장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가마야(釜屋)이라는 묘지를 붙였다 하더군요. 그렇게 해 본 결과 일본 전국에는 몇 만 몇 십만의 다른 묘지가 만들어져서 각자의 집과 가족을 구별하기가 매우 좋아졌고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호적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조선처럼 10명이 모였을 때 받은 김 아니면 이인 식으로는 그 김이나 이가 어느 집안의 자손인지 누구의 부인인지를 짐작이 안 가는 불편이나 폐단이 없고 가끔 있다고 해도 조선에 비하면 극히 드뭅니다.

마침 이 1870년 내지에 내려진 태정관(太政官) 포고와 같은 법률이 고맙게도 70년 후인 오늘날 조선에도 내려졌으니,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 역사적인 기회를 어찌 우리가 못 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고(上古) 때 우리 선조의 나라였던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야 완전한 황국신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황국신민이 지나식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라시대 이전의 조선인은 모두 내지인과 같은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혈통적인 조상을 위해서라도 지나식의 성명을 버리고 황국신민에 어울리는 씨명을 붙이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인구의 태반이 이나 김이 아니면 박, 최, 정 …… 정도인 것으로 볼 때—거기다가 또 조선팔도의 성을 남김없이 굶어모아 보아도 현재 경성에 살고 있는 내지인의 씨 숫자의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이니 불편하여 틀리기 쉽고 게다가 조선의 성이나 성 철학이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엉터리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길은 자연히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 성(姓)을 그대로 박 씨로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고집은 부리지 말고, 묵묵히

누구든지 호주인 자와 또 장남이 아닌 차남 삼남 이하는 되도록 법률적인 형식상 분가를 하여, 10인 10색의 내지식 묘지(苗字)를 만들고 이것을 그 사람(각 호주)의 '이에(家)'의 가호(家號) 즉 씨로 정하기로 결심합니다.

10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저는 소위 내지인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며 오로지 '진심' 하나로 숨이 막힐 정도로 조선을 열애(熱愛)하고 조선동포에게 몸을 바치며 앞으로도 일생을 우리 조선의 행복을 위하여 싸울 것을 피와 목을 걸고 맹세한 순수한 한 사람의 조선인입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성명을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는 그 지나식의 의붓자식시대에 흉내 낸 성명은 이미 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쓰지도 않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글자로 내지식의 씨명을 만들었소? 나도 참고하고 싶으니 보여 주시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독부에서는 성과 본은 어차피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둘 테니, 없던 씨만을 만들어서 가호(家號)로 삼아 달라, 고까지 말했으나, 이름까지 바꾸라든지 새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법률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새 법령에 대해서 조선인인 저는 적지 않게 불만을 느낍니다.

첫째로 성과 본을 남겨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씨(氏)가 내지 식으로 설정되면 이름도 그 씨에 걸맞도록 내지 식으로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의 불만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만, 지금 다시 한 번 간단히 되풀이 한다면 1, 조선의 성은 지나 성을 흉내낸 것이라는 사실, 2, 어디의 김씨, 어디 이씨라고 본을 넣어서 그 가계의 혈통을 기록한 족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예외 없이 엉터리라는 것, 3,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폐단이나 비극이나 무서운 죄악 같은 것이 도처에서 생긴다는 것, 4, 김이나 이가 기무라(木村), 이노우에(井上) 등의 내지식 묘지로 고쳐서 이것을 자신의 씨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의붓아버지의 의붓아 이로서의 성을 버리고 친부모 사이인 조상의 뒤를 이어 받아서 황국신민에 걸맞은 풍속을 따르는 것이므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5, 씨의 제정은 현실생활에서 극히 합리적이며 또한 합목적적이라는 것 등입니다.

그러면 왜 이름까지 고칠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양복 윗도리에 조선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거지 꼴 같아서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윤리적 이유는 지금 말한 성(姓)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동포는 법률이 어디까지 개량이 되고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가는가에 상관없이, 자유의사로 씨(氏)와 이름을 새롭게 정하여, 내용적으로나 형식상으로 황국신민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제 씨명을 밝힐 단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한 마디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씨

명을 제정하는 방법은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장이나 교장,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이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평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씨와 이름을 따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또 자신의 '본'과 성명에서 한 자씩 따 와서 그럴듯하게 새로 하나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고향이나 직업 같은 것을 암시하는 무엇인가 거슬리지 않는 것을 하나 창작하는 방법도 있을 터이니 제정 방법은 결코 한 가지나 두 가지 뿐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제 씨는 오에(大江)이며 이름은 류노스케(龍之助)입니다. 참고삼아 오에 류노스케(大江龍之助)의 유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구(大邱)에서 태어나서 도쿄 즉 에도(江戸)에서 성장하고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언제였던가 작년 11월의 어떤 밤의 일입니다. 용산(龍山) 역앞에서 나라에 목숨을 바치고 백골이 되어 돌아오는 수백의 황군장병의 명령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저는 몹시 감격해서 주위도 신경쓰지 않고 사나이 울음에 눈이 툭툭 부운 일이 있습니다. 눈물에 흠뻑 젖은 채로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것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나쁜 일-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꼴불견 짓을 하는 것 같은 버릇이나 습관은 일체 버리고, 뒤에 나의 일생을 우리 조선의 조국인 일본과 이 일본의 주인이고 종가(宗家)이며 또한 부군(父君)이신 만세일계의 천황폐하께 받들어 바치자! 고 하는 것을 천지신명에게 굳게 맹세한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대구(大邱)의 대(大)자와 에도(江戸)의 강(江)자를 따서 오에(大江)라는 씨를 만들고, 용산(龍山) 역 앞에서 결심한 사나이라고 하는 뜻으로 용(龍)자 하나를 따고 조(助)를 보태서 류노스케(龍之助)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흔히 개, 조 또는 웅(雄), 부(夫), 남(男), 랑(郎) 같은 글자가 남자 이름에 붙는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 大江龍之助를 '대강용지조'라고 읽어도 또한 격식이 맞지 않습니다. 역시 내지 식으로 '오에 류노스케'라고 불러야 풍속이나 예의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를 해 두자면, 이제부터는 제국신민인 자는 누구든지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씨를 설정할 때 물론 그 양식은 자유가 되겠지만, 제령(制令) 제20호에도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역대 천황의 휘명(諱名)이나 어명(御名)은 씨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궁호(宮號) 등도 씨명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황국신민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황실과 관계가 깊은 집안의 씨를 흉내 내는 것도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저는 신문에 발표된 일부 민사령 개정내용일반을 소개하고 조선인으로서의 저 한 개인의 감상과 이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말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우선 먼 우리 조상의 풍속·습관을 되돌아보고, 그것들의 종가적·합리적 발전 형태인 오늘날의 내지의 모든 풍습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용감하게 귀환함으로써 나아가 조국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실로 2천 6백년의 기원절을 앞에 두고 우리 반도의 신민이 외칠 수 있는 합창의 한 구절입니다.

(필자는 조선문인협회 간사)

〈출전 : 金文輯, 「合理的發展的歸還を論ずの言, 氏設定を主題に, 半島風習のその祖國への, 『總動員』 1940년 3월호, 36~47쪽〉

## 2) 김용제(金龍濟, 金村龍濟)

### (1) 스승과 형에게 드리는 말(1~3)

1

오늘날은 이미 내선일체의 가능성이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논의의 시대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현실적인 과제는 지나사변 이래 우리 반도의 2천3백만 민중이 자발적인 애국활동에서 실제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현상(現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의 모든 진실의 뜻에서 이 내선일체의 장엄한 표방은 실천으로 상징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내선일체의 현 단계와 문화 활동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 몇 개의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논문과 같은 형식에 구애 받는 문장이 귀찮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렬에 불타고 있는 흥금을 열고 솔직하게 진실의 말을 이야기 하고 싶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고통과 희망을 감격의 눈물 속에서 직접 호소하고 싶은 뜨거운 충동에 쫓겨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예적인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직접 관계하고 있는 문예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이 문장의 문예적인 형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저는 내선일체의 지도자여야 할 모든 내지인 특히 조선에 와 주시고 있는 내지인 분들을 스승이라고 부르며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도이며 아우가 되었으면 하는 관계를 혈연적으로 가치는 매기는 것의 그리움을 국민적인 행복과 신념적인 만족 속에 실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총이 있는 스승 앞에서 친밀한 형 앞에서라면 어떠한 “어리광”의 말을 못할까요. 저의 말에 만약에 아침이 있다면 경멸 해 주십시오. 만약에 비뚤어졌다면 야단을 쳐 주십시오. 그리고 개중에는 올바른 것이 있다면 어깨를 두들겨서 동감 해 주십시오. 혹은 거짓말이 있다면 따귀를 아얏 할 정도로 두들겨 주십시오. 저는 슬픈 눈물에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가령 야단을 맞아도 좋으니까 이제부터는 기쁜 눈물에 젖어서 울고 싶은 기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불만스러운 제 말씀은 물론 제 개인의 신념에서 튀어나오는 양심의 고백이나, 이 말씀의 주위나 배후에는 몇 개인가의 자리수로서 해야될 수 있는 저와 마찬가지로의 생도나 아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신네들을 스승이라고 부르며 형이라고 부르는 이 역사적인 혈연관계가 맺어져서 벌써 30년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극히 최근까지 서로의 사이에는 불행하게도 사상적인 미움이나 감정적인 골 때문에 이렇게 그리운 사제관계나 형제관계가 특하면 잊기 쉬운 알미운 탈선을 해 온 것과 같이 기억이 되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마저도 그와 같은 경향이 잠재적으로 타성이 말끔히 청산되지 않는 감이 있는 사실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간성의 약점으로부터 오는 동기나 결과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날의 명제로서 국가적인 입장과 내선일체의 견지에서 엄밀하게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나 그 원인 같은 것을 서로 용서하는 데 국민으로서의 아량이 없으면 안 되며,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약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통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젊고 세상을 몰랐습니다. 고향도 잊고 집을 버리고 불행한 방랑아 처럼, 같은 하나의 국가 안에서 스스로 “식민지적”인 사상 감정의 비뚤어짐에 사로 잡혀 사도(邪道)를 방황한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 2

저는 그 책임의 대부분이 저희들 자신의 무계도적인 맹동(盲動)에 있다는 것을 통절하게 자기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책임의 얼마인가는 당신들의 스승으로서 형으로서의 따뜻한 친밀함이 모자랐다는 것에도 있다는 것을 간언(諫言)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책임에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동의 과실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으면, 외람되나 “일한합병”의 성지(聖旨)에도 충분히 봉답(奉答)하지 않았던 적자(赤子)의 죄로서 서로가 참사(慙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어떤 잡지사의 좌담회 석상에서 총독부의 직원인 내지인과도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 내신일체의 축진의 열쇠는 이론적이고 사상문제 보다도 서로의 사이에 나타나는 감정문제가 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국가적인 관념과 적나라한 인간적인 기분 속에서 완전히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론적인 사상문제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다 더 진한 인간적인 감정문제는 참으로 그리워 할 정도로 복잡 미묘한 것으로, 냉정한 이론 만으로서는 해결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남기 쉬운 성질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현재도 남아 있는 경향이지만) 조선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조선을 스스로 “식민지”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서 스스로 자기가치를 짓밟으며, 혹은 그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서 투지를 북돋우워 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식민지적”인 불행한 근성이여! 우리 반도 앞에 2천3백만의 새로운 일본국민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또 조선통치의 근본정신으로 보아도 도덕적으로 보거나 또는 조선통치의 근본정신으로 보아도 결코 “식민지”는 아니며, 또 “식민지민족”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제국의 국시이며 우리들의 양심이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저기 서양식의 불유쾌한 관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식착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본국 자아(自我)주의의 독점욕 때문에 끊임없는 침략과 착취를 마음대로 하는 대상으로서의 영토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조선은 어떠한 뜻으로도 그와 같은 일은 최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이는 이와 같은 악성(惡性)의 식민지 근성을 스스로 품어 왔던 것입니다. 모든 오해로부터 생긴 폐단인 것입니다. 다만 그 오해의 원인요소에 동정해야할 점이 없는 것도 현명한 우리 사형(師兄)들은 이미 앞에서 비판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유주의사상이 일본의 전 사상계를 풍미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경제현상으로서, 소위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내지자본의 조선 투하(投下)가 약간 투기적인 성질과 식민지성을 띄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나, 이러한 폐단은 굳이 조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며, 일본전체가 그러한 경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재벌을 배경으로 한 정당정치라는 것도 조선으로의 영향을 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오늘날에는 전체적인 국가주의의 입장에서부터 급격하게, 혹은 점차적으로 개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이 자급자족의 경제균형을 파괴하는 것 같은 내지자본의 자유경쟁은 저지되어 가는 동향이 현저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서 내지에 본점을 갖는 백화점 같은 것을 조선지점 진출이 금지되는 소식에서도 알 수가 있으며, 만주국으로 개인적인 자본투자가 금지되어서, 그것이 국책 선에 따르는 것인가 일만 협동체의 주의에 맞는 것이 아니면 허가가 되지 않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3

이상과 같이 보아오면 사상, 경제, 정치면에서 반도에 대한 식민지적인 것의 오해의 암영(暗影)은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문제의 기분으로부터 오는 암류(暗流)적인 것 - 나타나는 민족적인 편견이나 그것이 따르는 바의 일체의 감정적인 때를 깨끗이 말끔히 씻어낼 필요로, 이것 없이는 문화적이나 또는 이간생활로서의 내선일체의 미과(美果)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현상이나 전통의 흐름에 뒷받침 되는 바의 “생활 냄새”라는 것은 단시일에 변화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가치로 있는 것임으로, 나쁜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것들이 좋은 자연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의식이라거나 감정이라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것으로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순수함과 천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인의 일반적인 성격과 조선인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각각 공통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수한 의미로 다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소위 감정 이전의 것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을 오해에 의하여 오는 심리적인 마찰이라는 것은 성격상 다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그 성격을 서로 이해하지 않는 생활태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 개성이나 성격도 다른 것이 자연적이며, 사람들은 그런 채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친숙한 사교와 이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작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씨이며 문예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맛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인간적인 교류와 따뜻한 동포적인 이해, 이것만이 서로의 사이에 불 유쾌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해(有害)한 감정적인 박테리아를 퇴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인의 좋지 않는 기질로서, 사대사상적인 것이 있으며, 거기에서 흘러나온 바의 격정(激情)성이라는 성격상의 결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나쁜 경향보다 많은 성격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에는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생활상의 침착함과 건실한 맛이 함양되는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金龍濟, 「師への言葉 兄への言葉(1~3)」, 『京城日報』, 1939년 4월 21~23일〉

### 3) 윤두헌(尹斗憲, 平沼文甫)

#### (1) 더욱 높이 더욱 멀리

아무런 구애받을 것도 없고 무력무력 순수하게 자랄 터인 자네에게도 고민거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자네의 편지를 읽고 알게 되었네. 그리고 그 고민거리는 일견 아무런 악의도 없는 단순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자네들을 간단히 판단하기 쉬운 어른들을 반성시키는, 자네들 세대의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하네. 자네의 조숙함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조숙한 탓에 하게 되는 고민이라면 만숙(晩熟)한다 해도 언젠가는 부딪히게 마련이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감정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라져가는 감정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믿고 있네. 자네들 세대에서 짝이 나고 미래를 향해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과거에 짝이 나서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 성장하고 번성하고 쇠락하고 있었던 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

자네가 그런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자네의 크기가 그 범위내 국한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생활의식이 가정 내에 국한되어 있는 아이는 형제지간에 싸우기도 한다네.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생활의식이 커지고 자기중심에서 가정중심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발전하기 마련이네. 딱딱한 표현을 쓰자면, 종(種)의 개념은 발전과 더불어 유(類)의 개념 속에 녹아든다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역사의 법칙이라네. 우리가 반도 안에 몇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을 무렵, 오늘날에는 동일한 생활감정인 우리 선조들이 각각 작은 분립체를 옹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싸운 사실도 있지. 그러나 이제 와서 누구 하나라도 “너는 신라의 후예다, 너는 백제의 후예다”라며 서로 반목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의 생활감정을 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일상생활의 구체적 사실이네. 하지만 그것은 아집이 강한 인의(人意)에 의한 것이고, 인의 그 자체는 천의(天意)를 거스를 수 없다네.

천의(역사의 법칙)는 개인의 반(反)법칙적 만류(挽留)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네. 우리가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할 것은 인의에 좌우되는 오늘날 현실생활의 말단의 사실이 아니라 천의를 따르는 영원한 법칙이네. 일시적 현상에 현혹되어 영원한 법칙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네.

관제품(官製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겹고, 그때그때 일에만 매달리는 오늘날의 사상에 나도 자네와 마찬가지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네.

상승기의 현상으로서 가장 생기발랄해야 할 문화와 사상이 생기를 잃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상이 높은 곳을 붙잡고 영원을 믿고 독립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을 올바른 상태로 정돈하고 순화시킬 힘이 있었다면, 더 생기 있는 것이 되었을 것이네.

하지만 그 또한 쓸데없는 짓일지도 모르겠군. 가슴 속에 진정성만 있다면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이네. 역사는 옆에 서서 이런저런 이치를 따지는 자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네. 역사와 하나가 되어 굳세게 살아가는 자만이 역사의 동력이라네. 그와 동시에 이치로 발견할 수 없는 역사의 법칙도 진정성으로 체득할 수 있네.

나는 일전에 농촌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날 농촌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속에서 미래의 인간을 보았다네. 그들은 이치를 따지지 않고, 의심은 더더욱 없었네. 그저 곧고 굳세게 자랄 뿐이지.

사상을 한다면 높은 곳을 지향하고 영원을 생각하게. 눈앞의 불쾌한 것에 정신을 빼앗겨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사상이 아니라 그저 뒤틀린 것일 뿐이네. 불쾌한 현실적 사실이라면 아직 학창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네보다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훨씬 더 많이 부딪히고 있을 걸세.

이번에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듣거나 본 것인데, 국민학교 아이들이 몹시 소년항공병이 되고 싶어 하더군. 그 중에는 학력과 체력 모두 항공병이 되기에는 부족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시험을 치더라도 떨어질 것 같은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지원을 만류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만류하면 훌쩍훌쩍 울어서 곤혹스럽다는 말을 했었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보다 행복한 소년들이라는 생각을 했네.

굳이 이치를 따질 필요는 없다네. 그저 이 소년들처럼 곧고 굳세게 살아가면 되지. 학자는 학문에, 농민은 땅에, 기술자는 연구에, 사상가는 실천에 몰두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오늘날 우리 문제는 일본 내지와 조선을 구별할 필요는 없네. 옳지 않은 내지인(일본인)보다는 일본인의 마음을 지닌 조선 출생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지. 일상적인 현실생활 속의 불합리를 내지인 혹은 조선인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민족적 차별을 생각할 필요는 없네. 내지인이나 조선인 할 것 없이 올바른 것은 일본인이고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인에 적(籍)을 둔 외국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일 뿐이네. 천업보익(天業輔翼)<sup>66</sup>의 대명(大命)을 따르지 않고<sup>67</sup> 천의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일 것이네.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사상을 하지 말게. 그저 일본의 본질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세.

〈출전 : 平沼文甫, 「より高くより遠く」, 『東洋之光』 제6권 제4호, 1944년 4월호, 11~13쪽〉

#### 4) 이석훈

##### (1) 새로운 결의 - 성지참배로부터 돌아와서(상·중·하)

조선문인협회 간사 목양(牧洋)<sup>68</sup>

친애하는 ×군!

성지참배 여행으로부터 나는 돌아왔다. 이번 내지 여행에는 2주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일이었으나, 10여 년 전의 나의 수년간의 동경 유학 때보다도 오히려 보다 많은 것을 나에게 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 만큼 이번 여행은 매우 감동적이었으며, 또 교훈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

66) 천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돕는다는 뜻.

67) 원문에는 '拜して=받들어'라고 되어 있으나 '排'의 오자로 보인다.

68)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의 편린(片鱗)은 지난 날 정성일보 지상에 게재한 나의 여행처로부터의 단신(短信)으로 곧바로 엿볼 수가 있었다고 믿는다.

친애하는 군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리라고 생각하나, 남보다도 배 이상 비뚤어진 자네이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짧은 문장이 바보스럽게 “감동”이라거나 “감탄”이라거나 “감격”이라거나 하는 “감(感)자 투성이에 얼마나 문학청년적인 감상(感傷)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하고 크게 쓴 웃음을 지었을 것인가. 나는 모모야마고료(桃山御陵), 아쓰다(熱田)신궁 그 외에 그때마다 심한 감동에 엄습(掩襲)되어 어쩔 수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져 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 이 문장을 쓰면서 “무어라고 지껄이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자네의 건방진 낯짝을 바로 보는 것 같으나, 그러한 자네의 거친 마음을 친우로서 또 동포로서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다.

평소에 느끼는 것이나 우리 조선인들은 도대체 걱정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더 어감을 강하게 말한다면 너무나도 눈물이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감상(感傷)이라고 하는 진짜 가치를 이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아름다운 감정까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애국심이라거나 의리나 의협(義俠)이라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현상도 추궁해 보면 하나의 감동 내지는 감격인 것으로,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의 극치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한 감상의 아름다운 면은 비상한 때이면 때일수록 가장 바람직한 걱정의 일면으로서 우리 사회가 거칠어져 있으며, 살풍경한 것은 그것의 결핍에 기인하는 것이다.

내가 이번 여행으로 종종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격적이었던 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군데의 신궁이나 신사에서 상하를 통하여 오늘날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가, 또 신궁 앞에서 신사에 반영된 내지인들의 정서가 자상한 것 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면 모모야마고료에서는 마침 이왕 전하의 참배와 때를 같이 하는 영광을 입고 지척에서 전하의 모습을 배알할 수 있었으나 그때 전하를 맞이한 많은 상이병(傷痍兵) 중에는 팔 하나 다리 하나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전하의 참배 태도도 보통 이상으로 진지하였으며, 그들 상이병의 태도도 매우 진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참다운 진지함이 한결 몸에 스며드는 곳에 전하도 상이병도 우리들도 일체가 되어 신일본건설의 대제(大帝)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은 사실을 생각하면 그 순간은 일체의 변명을 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다. 태평양의 물결이 바야흐로 거칠어지려고 하는 오늘날 긴박한 시국인 만큼 그 자리의 엄격하게 긴장한 분위기에는 가령 적일지라도 웃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네가 만약에 이러한 것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무시한다면 나는 자네의 인격을 경멸하는데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상 상〉

#### 친애하는 ×군

내가 이번 내지여행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신사(神社)가 있는바 수림이 무성하고 청정하였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조상을 숭상하고 불교가 또한 얼마나 성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인 것이다. 한 예로 교토에만 1천8백20십의 신궁과 신사와 불각(佛閣)이 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놀라운 분량은 내지의 사람들의 정신생활의 깊이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양적(量的)

으로 질적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풍부한 것일까. 불교 같은 것은 차치(且置)하고 신도(神道)의 내용은 천황을 중심으로 결정(結晶)하고, 국민과 국토 사이를 결합하고 국민상호간의 단결의 유대를 가져서 조상숭배의 단순하고 소박한 정신으로 어느 나라에도 있을 법한 일이나, 사실은 일본 독특한 것으로 세계에 자랑하는 정신문화의 원천인 것이다.

이러한 위대한 부(富)를 인식하지 않고 쓸데없이 미국의 물질력을 높이 평가하고 시국의 전망에 비관적인 관측을 하는 인텔리가 있다면 인식부족이 심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지인의 정신생활에 비교하면 우리들 조선인들의 정신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공소(空疎)하며 너무나도 삭막한 것이라고 하는 기분이 더는 것이다. 내가 앞 회에서 우리는 정서가 모자란다고 했으나, 그것은 요는 정신생활의 무내용에 의하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태평양문제를 앞에 하고 내지는 긴장한 정신생활을 하는데 비하면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방관적이고 규율이 없는 점이 많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인텔리가 이 시국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무감각적이며 무정견인 것 같다.

〈이상 중〉

비근한 예를 가지고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내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복을 입지 않는다. 두발도 하이칼라인 채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서 이쪽 인텔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시국이라거나 신체제라거나 하는 것은 조선만의 일종의 구호만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에 도피의 길을 찾아내고 안온하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참으로 피상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늘날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 구질서에 대신하여 신질서가 아무래도 교대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계사적인 필연성을 생각한다면, 곧바로 눈치 챌 것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쇼와(昭和)유신이 신체제 아래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속도는 느리나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저기 러시아혁명과 같이 많은 인명을 희생하거나 심각한 기근에 엄습되거나, 국내적으로는 백군(白軍)과 적군(赤軍)과 싸우거나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없음으로 일반에게 강하게 인식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 쇼와유신은 참으로 평화스러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네가 잘하는 조롱이나 비꼴을 말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사이에 벌써 그것은 완수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인류적인 편견으로 어디까지나 일본을 제2류라거나 제3류의 지위에 차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만약에 3천6백년 사이에 한 번도 외적에 의하여 침입되지 않았던 빛나는 역사를 갖는 1류 민족이, 2류 내지 3류의 국민으로 떨어진다면 나머지 많은 아세아 백성의 일은 미루어서 알지 않겠는가. 그때야 말로 자네나 나는 크게 결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친애하는 ×군!

내가 성지를 참배하고 느낀 가장 크게 갖게 된 새로운 결의는 참으로 이러한 것이었다. (끝)

〈이상 하〉

〈출전 : 牧洋, 「新しき決意-聖地參拜より歸りて(上·中·下)」,  
『京城日報』, 1941년 12월 9·11·12일〉

## 5) 장혁주(張赫宙)

### (1) 황도조선의 완성

1

내선일체는 조선의 황도화를 근본이념으로 하고 황도조선이 완성 되었을 때 궁극의 상태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만선일여(日滿一如) 등과 같은 말이 포함하고 있는 바의 단순한 민족의 협화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민족의 협화가 구미류의 착취정신에 의하는 것이 아니며, 각 민족이 각각 자주상황에서 협화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론할 여지는 없으나, 내선일체의 이념이 이러한 협화사상을 이제 한 층 높이고 깊게 하는 곳의 민족동화라는 것에 우리들은 성스러운 이상을 피내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주종관계를 되풀이 하는 동안에는, 투쟁은 불멸이며 민족 즉 국가를 이루고 있는 바의 서구 여러 나라의 현상을 볼 때, 전쟁 그 자체 대해서도 아무런 희망을 가지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만약에 민족만을 단위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인류의 이상으로 한다면, 세계에는 참으로 무수한 국가가 발생하고, 새로운 민족과 국가는 끊임없이 계속 나타날 것일 것은 반도에서만 대해서도, 적어도 세 개의 국가가 발생할 것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즉 전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백제 족이 재흥(再興)하고, 경상, 충청, 강원 여러 도에는 신라인이 부활하고, 기타 지방에서는 고구려가 대두할 것이며, 서툼 리면 함경도에 여진족이 우리들도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나, 반도내부의 여러 지방 사람의 지방적인 편견이 뜻밖에도 심각하고 또한 치열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의 조선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과거 반도의 여러 민족이 여러 가지 멸사(滅私)적인 고난을 거쳐서 그들 사이에 치르진 전쟁을 융합의 진통으로서 새로운 것을 창생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진무(神武)천황이 휴가(日向)의 다카치호(高千穂)의 궁을 나오셔서 야마토(大和)의 가시하라(橿原)궁에 황국의 기초를 닦을 때에 일본의 변방에는 아직도 황화(皇化)되지 않는 수많은 민족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팔굉(八紘)을 감싸고 우(宇)로 만들고자 하는 선탁(宣託)으로, 그 숭고한 이상이 2천6백여 년 동안 연면하여 발양되고, 오늘날의 일본인을 창성한 것이다. 즉 일본역사는 끊임없는 황국민 창성의 역사였던 것이다.

일본국체가 만방에 비할 데 없는 사연을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명청하게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각을 가지고 확실한 인식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국체의 본의가 첫째로 천황 중심이며,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중심을 받드는 국가라는 것, 그리하여, 천황의 자리가 신의 자리이며, 천황과 신민과의 사이에 절대적인 간격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군신일체를 제2의 본의로 하고 있는 곳에 존귀함이 있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반도민중은 병합과 동시에 일본국기조직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얻을 길은 열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민족을 단위로서 국가조직에 참가한 것이 아니며, 각자 개인의 위치인 채로 국민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거기다가 종래에 가져왔던 사심을 버려서, 그 국체의 본의에 살며 천황 마음에 돌아가서 받들 때에 비로소 내지인과 완전히 마찬가지로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반도민중은 병합당초의 반도 측의 [예를 들면 일진회(一進會)처럼] 숭고한 이상으로, 일본국가라고 하는 일대 가족 속에 새로운 가족으로서 참가한 것이며, 서구식의 피통치 구역이 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병합의 조서에 이미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오해하고 본의를 잊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틀린 조치를 했다면 반도인이든 내지인이든 불문하고 참으로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 2

내선일체라는 것이 확실히 표면에 나오기까지의 20수년간도 역대의 총독통치가 이것을 목표로 추진해 온 것은 대국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으나, 이 준비기간 동안 경험해 온 여러 가지 사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내선인이 함께 해 온 노력이, 아무리 그때마다의 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만전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또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커다란 조건에도 아직 혜택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주사변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성을 주는 동기가 된 것을 여기서 확실히 확인하는 동시에, 지나사변에 이어서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것이 우리들 노력에 더욱 더 커다란 박차가 된 것은 명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커다란 외환이라는 것, 그리하여 그 외환에 협력하고 협력해 준 것이 민족융합에 절대적인 애정과 자신을 가지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내선인의 결합의 노력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이는 지금 이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것은 하늘의 배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조선에 징병령을 펴는 데 영단이 이루진 것은 조선이 이 천혜의 호기를 잡기 위한 커다란 은혜로서, 반도민중은 이러한 호기를 완전히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이때야말로 반도인이 황민으로서의 정신을 충분히 터득하고, 내지인이 참다운 일체감으로써 반도인을 받아들이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다.

본지 7월호의 스즈키 마사후미(鈴木正文)<sup>69)</sup>씨의 「조선 시정의 신 단계」 안에,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아세아의 공동건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선의 정치, 문화, 경제 특히 그 경제에 있어서, 세계성의 고차원화 - 전일본경제와 함께 고차원화 - 따라서 내선의 동차원화 -가 기초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의 이념으로서 아무도 반대할 턱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도상에는 조선의 관료의 사고방식, 여러 법규, 경제의 여러 정책에 상당한 변혁과 새로운 창조에의 노력이 이때에 한 층 보편적으로 단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69) (1899~1978). 일본의 정치가.



라고 하는 것처럼 참다운 일체화, 즉 스키 씨의 소위 내선 동차원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에 있어서의 관료의 사고방식, 여러 법규, 경제의 여러 정책에 상당한 변혁과 새로운 창조에의 노력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과 병행하여 반도민중 자신의 온전한 황민화와, 적어도 내지인과 동등한 충성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충성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을 가장 잘 발양(發揚)할 시기는 이번 대동아전쟁에서 밖에 없는 것이다.

종래에 조선에 주어진 여러 기구 - 정치, 경제, 문화-가 내선이 동차원이 아니고, 특수 사정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은, 역시 조선의 황도화의 미완성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러한 특수 사정은 반드시 조선자체에 불리한 결과만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내선 동차원화를 염원하고 있는 자의 눈에는 꽤나 싫은 감정을 갖게 했으며, 이러한 특수 사정에 익숙한 내지인에게는 장차 내선 동차원화가 된다는 것을 망각할 동기가 되고 있으며 내선일체가 미나미(南) 전 총독에 의해서 제창되었다는 말썽스러운 향간의 설을 생기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

내선일체가 제창된 직후에는 반도민중이 놀라움과 기쁨으로써 맞이한데 반하여 반도에 사는 내지인에게 뜻밖의 생각을 일으킨 것도, 또 시일이 지남에 따라 느리면서도 다소의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반동이 또 내지인 사이에 일어난 것 같이, 완전히 이상과 같은 사실에 의하는 것이었다.

내지인 이야기는 잠시 두고, 반도민중의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상황에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우려해야 할 것이 있었다.

지식인이 아닌 일반민중은 무지에서 오는 무자각 무인식의 상태에 있었던 자 이외의 많은 서민은, 같은 반도인인 필자마저도 눈물겹게 생각할 정도로 충실한 협력을, 내선일체가 제창된 이후의 여러 제도 - 예를 들면 창씨나 지원병이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2, 3 지방에서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의 일부가 이것에 대하여 아직도 얼마간의 비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준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먼저 반도의 여러 시설이, 아직도 내선 동차원화가 성립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장래에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은 피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징병령 시행의 발표 전과 후는 대단히 사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반도의 황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과거의 한 시기의 사례로서 쓸데없는 자극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가 내선일체라는 말의 자구(字句)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 둘째로 여러 제도의 특수 사정이 재빠르게 변혁이 안 된데 대한 불만인 것, 셋째는 전반적으로 깊은 의혹과 국수론적인 비판의 태도였다.

가령 내선일체에 대해서 오늘날 아직도 비판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는 지식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심리상황은 이상의 것 밖에는 이심(異心)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오해와 비인식에 대해서는, 국민총력연맹이 제작한 『내선일체의 이념과 그 구현방책요강』에 확실한 해답이 나와 있으며, 조선총독부의 보안과장 후루카와 가네히테(古川兼秀) 씨가 이것을 부연한 책자 『내선일체의 구현』에 남김없이 명쾌하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소책자는 모두 비 일반배포가 되어 있으나, 이것을 용단을 내려서 일반배포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숙독을 권장한다면 여러 가지 어두운 먹구름은 걷힐 것이다. 즉 조선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제도의 특수사정 - 대우상의 문제, 도항문제, 의무교육문제, 특수 법령문제 등등에 대해서 모든 의혹을 완전히 닦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앞에 든 책자 『내선일체의 이념과 그 구현방책요강』의 제1조 제1항 중에,

이 정신을(註=내선일체) 실현하는 길은 2천 3백만의 반도민중이 명실 공히 참다운 황국신민이 되는데 있다. 참다운 황국신민이 되는 길 밖에 달리 없다. 사심을 버리고 공의 대의에 살며, 황운부익(皇運扶翼)의 광영의 무상한 감격으로서, 대어심(大御心)에 귀일하여 받든다는 말인 것이다. 아직 이 길을 걷지 않고 함부로 내선일체를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이 길을 걷는 자를 하여금 내선일체를 의심하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으면, 모든 의문은 석연하게 풀릴 것이다. 특히 끝에 있는 부연을 읽을 때마다 존엄한 기운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다.

후루카와 씨의 『내선일체의 구현』에서는, 현존하는 특수 사정이 어떻게 해서 개변되는가를 현실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요는 반도민중이 완전히 황민화 하는 것이다. 황민화가 완성하여 내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될 때는 모든 특수 사정은 해제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도민의 완전한 황민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나중에 문화문제로서도 말하고자 생각하나, 생활양식의 내지화만을 궁극의 목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도민이 황민화할 것의 목표는, 일단 내지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갖추게 됨으로, 어느 정도의 내지화는 필요할 것이다. 말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어(즉 표준어)를 상용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으로서, 예의범절 등 기타 일상생활에 근사성(近似性)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문화가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촉진될 것이다. 허나 생활양식의 내지화가 즉 황민화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강제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도민의 의식주 속의 장점은 내지 쪽에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황민화의 마지막 단계적인 조건은 참으로 대어심에 귀일하여 받들게 되었는데의 여부에 정해지는 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대어심에 귀일하여 받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충분히 연찬회득하여, 우리들의 뼈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이다. 국체의 본의를 잘 못하지 않고, 사심을 없애고 공의에 집착하며 그리하여 이 국체에 참다운 애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반도민이 여기까지 오기 위한 자기연성은 대단한 노력을 요하며, 부화하는 이상의 고통을 앓을 것이다. 2천 6백여 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서 연성해 온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영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병합 후 30년의 역사는 너무나 짧은 것이다. 반도민이 이와 같이 고단하게 연성을 할 때 내지인은 무관심으로 지내도 좋을 것인가.

### 3

조선인이 이미 하나의 민족단위는 아니게 되었으며, 조선이라는 지방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지인도 아마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민족과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양쪽을 합쳐서 일본민족이라

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만약 한 민족 한 국가를 표방하여 피의 순수 유지론의 전통을 존중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 국체에 있어서는 잘 못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내선인은 동종의 혈통이며, 병합에 의해서 이미 황국신민이 된 반도인인 것이다. 중앙정부가 인구정책 기타에서 반도인을 제외하는 것 같은 일은 절대로 없음을 후루카와 씨는 『내선일체의 구현』 안에서 역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 같은 편견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일본역사가 과거 3천 년간에 왕권이 미치지 않던 민족을 끊임없이 황민화의 연성을 해 온 사실에 장님이며, 국체의 본의를 잊고 불충이 매우 심한 것이라고 책망 당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지금도 아직 구체제적인 생각의 잔재를 갖고 있는 내지 지식인이 어떤 안이한 동정의 기분에 움직여져서, 더러는 외지통치의 한 의견이라도 되는 것처럼 갑자기 꼬집어 낸 말이 얼마나 많으며, 또 커다란 영향을 반도인에게 미칠 것인지를 알아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그 지식인 또는 작가를 많이 경모하고 있는 반도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나, 그러한 것이 동정은커녕 광명이 있는 유일한 진로마저도 막는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에 어찌해서 눈치 채지 못하는 것일까.

그중에는 소위 정치가마저, 대동아전쟁에서 새롭게 편입된 신통치구역과 조선의 현실을 혼동하여 조선이 오늘날 어떠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방언을 굳이 하고 있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야 말로 한 층 절실하게 조선을 재인식하도록 절규하고 싶은 것이다.

지식인 이외의 일반서민의, 조선에 대한 인식의 불충분은 어떤 특수한 감격적인 사실의 누적이라고 하는 선전에 의하면, 인식부족의 시작이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 시정도 간단한 것이다. 허나 지식인의 경우는 그들 자신의 자기평가도가 강한 만큼 인식의 시정은 한 층 곤란하며 따라서 이것과 같은 성질을 갖는 바의 반도 지식인에게 주는 영향은 큰 것이다.

여기에 반도 지식인의 잘 못된 비판성의 조장은 많은 내지인 측의 언동에 직접 간접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황민화 연성을 위해서는 반도민이 지불하고 있는 노고는, 반도민 자신의 자주적인 연성이 아니며 내지인으로부터 받는 바의,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심적인 갈등과 싸우는 것도 역시 매우 큰 것을 내지 사람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4

반도민의 황민화 연성을 위하여 내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애정을 보이고, 손을 잡고 교도해 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은 없지만, 더욱이 앞 장에서 쓴 것처럼 조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반도민의 황민화 연성의 진보도상에서 올바른 상황을 낱날의 상태가 아니고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 층 의의가 있는 것이다. 반도민은 결국은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신의 황민화에 노력하지 안 된다는 것을 끝내는 자각할 것이다.

그 황민화의 연성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등생이 되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보통의 성격이 아니고 우등한 성적을 보인다면, 그만큼 내지인에게 올바른 인식을 주며, 애정을 얻는 속도는 빨라지는 것이다. 일단 이 길을 밟고 나간다고 자각한 이상에는 이것은 아무래도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다

가 자신의 황민화 연성에 열중해서 노력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결코 그에 대한 보수를 구하지 않도록 바란다. 구하지 않아도 줄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 것만큼 주어지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일본정신의 서구제국과 다르다는 사연인 것이다.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만 있을 뿐으로, 결코 많은 말은 하지 않으나, 일본고유의 사상이고, 다변(多辯)이라거나 유세라거나 책략이라고 하는 지나식, 구미식의 정신은 아마도 비 일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단계에서의 반도민, 특히 지식인은 조금 다변이 지나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창씨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 당초에 있어서 지식인이 받아들이는 쪽은 대체로 다변적인 것이었으며, 심리작용이 너무 복잡했다. 그것이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심한 심리상황과 자신의 다변에 자기망각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시국은 벌써 몇 걸음 앞에 나아가고 있었으며, 당황해서 뒤쫓아 갔을 때는 이미 다른 과제가 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어서는, 보통성적은커녕 열등생으로서 겨우 긴급하다는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되어서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후회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러나 한편에서는 스스로 우등생임을 과시하고, 혹은 기만해서 시국에 앞서서 편승하여 이익 취득을 계획하는 자가 아직도 없다고 할 수 없음으로 본질적으로 갖고 있지 아니한 성적을 과시하며 사칭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비방하는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반도인이 미치는 역효과 때문에 입는 손해를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우등생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보면 금세 폭로될 것이며, 그 시험은 끊임없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에게 고하지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과연 대어심에 귀일하여 받드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돈독하게 생각 해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말없이 실행하고, 오로지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신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5

황도화를 완성한 조선이 단순한 내지화에 머물며, 일본 고래의 문화만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내선일체의 이념과 구현방책요강』에 명시하고 있다.

내선일체는 신문화의 창조인 것이다. 생활감정의 일체화는 문화의 동일성으로써 그 불가결한 모태로 한다. 때문에 내선일체의 실현방책으로서 문화정책이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필요치 않는 것이다. 반도문화정책의 근본은 일본문화의 반도에의 이식과 배양에 있다.(중략)

거기예다가 내선일체의 문화정책은 반도 문화생활의 단순한 내지화를 다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조선 고래의 문화를 하여금 기쁨이 있고 풍류를 맛보는데 있음으로써 일본문화권 내에 육성 배양하고 조성하여 유구한 대륙적인 정서로써 섬세하고 미묘한 섬나라 문화를 보완하는 것은 신일 본문화에 웅휘(雄渾)한 폭과 강인한 탄력과를 더하는 소인(素因)이 되는 것을 잃지 않으며 (하략)

조선은 반도인 것이다, 대륙과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륙에 주어진 여러 문화는 필연적으로 반

도 내에 유입하는 형세였지만, 조선이 결코 대륙문화의 직수입만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신라나 고구려의 조형문화가 이조 중기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완전히 독자적인 것을 만들고 있었다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지나유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또한 이퇴계학설, 이율곡학설을 낳은 데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내지문화에 대해서 보면, 외래문화를 자유로이 흡수하고 독창성이 있는 문화를 만드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한 층 확실한 것이다.

내지문화가 다른 문화를 배격하는 것과 같은 이기적이 아닌 곳에 향상하며 변영의 열쇠가 있고, 또한 독창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점에 우수성이 있다. 그래서 접촉하고 흡수할 수 있는 한, 세계의 어떠한 문화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서구문화를 비판하고자 생각하지 않으나, 유물적인 조건 하에서 발달한 서구문화가, 이미 동양의 모든 문화를 흡수하고 나아가서 우수한 것을 창조하여 자신의 문화로 만들고 있는 일본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동양적인 장점과 서양적인 장점이 혼연 융합을 이루는 신문화가 탄생하는 것은 필연이며, 다른 어떠한 지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단순히 지리적인 조건 만으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과거 일류의 여러 문화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서 난숙해지고, 그 문화를 만든 민족 내지는 주권자와 함께 멸망해 간 것과는 다르며, 일본에서는 가령 시대성에 따른 변모는 있다고 해도 만고불변의 국체와 함께 결코 멸망하지 않는 문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원성이 있는 문화가 먼저 내지에서, 그런 다음에 황민화된 조선을 동일문화권에 넣어서 성장할 때, 거기에 더 한층 조선적인 성격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바의, 아마도 옹혼하고 강인한 신일본문화가 창생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조선의 황도화가 단순한 내지화가 아니며, 또 조선이 고식적으로 고래의 문화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선이 합체하여 신일본문화 즉 신세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더욱 중대한 의의를 깨달으며 커다란 환희를 느낀다.

〈출전 : 張赫宙, 「黃道朝鮮の完成」, 『中央公論』 1942년 10월호〉

## (2) 얽매이지 않는 기분

오늘날에 산다는 기쁨이라는 제목은 마치 나를 위하여 설정된 것 같다. 지나사변 이래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던 기쁨에 몇 번이나 만나게 되지 모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크기는 이 짧은 문장 만으로서 조금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처녀작을 발표하고 12년이 되지만, 그 전반은 동경에 살고 있어도 어쩐지 손님으로 온 것 같아서 참으로 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이 일본이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 해 주지 않는 것에서 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내선 간에 가로 놓여 있는 장벽은 차례차례 제거되어 갔다. 먼저 교육제도가 변하여 내선이 마찬가지로 되었다. 창씨제도가 떨어져 성이 같게 되었다. 나는 12년 전에 필명을 만들 때 성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름만이라도 내선 공통으로 하고자 고생 끝에 혁주(赫宙)를 생각해 냈으나, 창씨제가 폐지자 곧바로 노구치 미노루(野口稔)라고 창씨명했다. 박 씨, 김 씨로 구별되었으나, 내선이 마찬가지로 된 것을 절실하게 기뻐하는 것은 내지에 재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음으로 징병제도로, 뒤쫓아서 징병제도 실시이며, 학도특별지원병제, 해군특별지원병제처럼 차례차례로 문호는 개방되었다.

제도뿐만 아니었다. 일본이 일본 본래의 모습에 되돌아가게 되고 일본고유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오늘날만큼, 조선이 일본이 되는 절호의 기회는 없는 것이다. 일본고유의 정신이란 화(和)의 정신이며 이 화의 정신이란 상고(上古) 조선정신인 것이다. 조선은 자신이 잃어버린 조선고유의 정신을 이 화의 정신에서 찾아낼 수가 있으나, 일본이 일본고유정신에 되돌아 왔을 때, 본연의 화 정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이 마침 그 시기인 것이다. 화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여유는 없으나, 내가 지금 그 저작에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나는, 자신의 문학이 왜곡된 모양이 아니며 참다운 모습으로 끝나가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엑조티시즘(exoticism)이라거나 특수라거나 하는 식으로 불리는 것이 참으로 싫었으나, 오늘날 아직도 그러한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나는 경멸할 담력이 갖추어져 있으며, 또 구애받지 않는 기분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기적이지만 자신의 기분을 확실히 말하면 결국 이런 식이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나는 글자 그대로 기쁨에 젖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출전 : 張赫宙, 「拘りの無い氣持」, 『文學報國』, 1943년 11월 1일〉

## 5. '총후적성'의 선전

### 1) 김기진 · 조용만 · 채만식, 작가 · 화가가 본 싸우는 증산 현지보고(좌담회)

(평북 흑령탄갱 시찰)

작가 조용만(趙容萬) 씨

화가 이진영(李建英) 씨

(함북 북선제지공장 시찰)

작가 금촌팔봉(金村八峰)<sup>70)</sup> 씨

화가 호소카와 준(細川順) 씨

(평북 동양경금속공장 시찰)

작가 채만식(蔡萬植) 씨

70) 김기진(金基鎭, 이명, 金八峯)의 창씨명.

화가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郎) 씨

(불아농장 시찰)

작가 목산서구(牧山瑞求)<sup>71)</sup> 씨

(목포 조선공장 시찰)

화가 김기창(金基禎) 씨

### 갱(坑) 안은 결전장, 인사도 안전하게

기자 : 이번에 여러분은 공장, 광산 혹은 농산 방면 등 여러 가지 부문이 증산을 향하여 정신(挺身)하고 있는 정황을 시찰하셨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를 보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 저는 흑령 탄갱을 보았습니다만, 탄광이라는 곳은 어수선하고 먼지투성이의 안정 안 된 곳이라고 상상하고 갔으나 전혀 반대였습니다. 주택이나 합숙소 등은 청결하고 제대로 정돈되어 있었으며, 밤에 전등이 켜지면, 산 속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갱내는 착암기 소리가 우렁차게 증산보(增産譜)를 연주하고 갱부들은 열심히 그야말로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운 결전풍경입니다.

기자 : 조용만 씨도 아마 이씨와 함께 가셨지요.

조 : 그렇습니다. 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탄기(排炭機)로부터 떨어지는 무연탄진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 옷 전체가 새까맣게 됩니다. 노무자를 여기에서는 광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빨만 하얗게 빛을 내며 온몸이 새까맣습니다. 감독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거수경례를 하기에 물어 보았더니 “안전!”이라고 한답니다. 탄갱생활은 위험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일해 달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광원은 남자 외에 여자도 있습니다. 선탄부(選炭婦)인데요, 꽤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 훌륭한 각오, 광원과 1문 1답

광원의 교대를 쿠리코미(繰込)라고 합니다. 아침 7시와 저녁 6시에 실시되는데 우리가 이 쿠리코미 상황을 보았습니다. 5시 반경, 탄갱 앞의 광장에 모이고 국민의례와 감독의 훈시가 있으며, 규율에 맞춰 입갱합니다. 토요일은 대 출탄(出炭)일라고 부르며, 전원이 힘을 다 해서 석탄을 파내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 출탄일에는 특히 술을 1, 2잔 나눠 준다고 하는데 저녁 근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한두 잔 걸치고 좋은 기분으로 저녁밥을 먹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갱 안에서 젊은 광부를 불러 세워서 약간의 질문을 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와 싸우고 있는가.”

“미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석탄을 많이 파내야 하는가.”

“비행기를 보내는 것도, 탱크를 보내는 것도 석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라도 석탄을

71) 이서구(李瑞求)의 창씨명.

많이 채굴해서 적 미영격멸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훌륭한 대답이며 훌륭한 각오입니다. 그런 각오로 해 달라고 크게 격려했습니다. 그들 노무자의 질이 전쟁개시 후 한층 좋아져서 술을 마시거나 싸움을 거는 사람이 매우 적어졌다고 합니다. 모두 시국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 주택료는 1엔, 완벽한 노무관리

금촌 : 저는 북선 제지회사에 갔습니다. 여기 펄프 공장은 종이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쯤부터 펄프를 만드는 폐액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목재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당분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펄프 쪽보다도 이 알코올 생산에 흥미를 갖고 보았습니다. 펄프공장부터 말씀드리면, 원료인 목재는 함북 백두산 기슭에서 벌목하여 껍질을 벗기고 2미터 정도 길이로 자릅니다. 더 잘게 절단하여 큰 솥에 넣고 썰서 약 20도 쯤의 열로 처리하고 표백·건조시켜서 펄프를 만듭니다. 그 펄프는 인조견사의 원료도 되고 종이의 원료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 반도인 노무자는 이동이 적고 그 중에는 1936년 회사 창립 때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공무(工務)원은 수입도 백8십엔 이상이나 됩니다. 주택설비도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저도 그것을 보고 매우 유쾌했습니다. 주택은 훌륭한 문화주택인데 임대료로 월 1엔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면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 주택도 역시 훌륭하며 월 2엔 5십전이라고 합니다. 모두 2, 3십평 내지 5, 6십평의 뜰이 있어서 여러 가지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설비는 미안할 정도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풀이나 테니스 코트도 있으며 겨울에는 테니스 코트에 물을 끌어와서 스케이트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방면에 대해서도 회사 쪽에서 매우 신경을 써서 간이요양소가 있고, 대개의 병은 여기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병은 읍내의 병원에 입원하도록 설비가 되어 있고 또 가까이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요양소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두 군데 있는데 경성의 목욕탕보다도 훌륭했습니다. 물자 배급도 모두 부족하지 않게 고루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도 두 개가 있고 규율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건조(乾布)마찰을 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데 공원(工員)들의 단 하나의 희망 – 그것은 라디오를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팔방으로 손을 써서 찾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구할 수가 없어서 노무과장이 곤란해 하고 있었습니다.

### 훌륭한 규율훈련, 독서는 일본정신

호소카와 : 저는 금촌 씨와 동행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제 첫인상은 이 공장이 대단히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돈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금촌 씨의 이야기처럼 공원들이 매우 만족하고 유쾌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곳에서는 자유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로 재목을 운반해 와서 산더미처럼 쌓아올리고 있는데 감독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유노동자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공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례, 동작이 대단히 훌륭해서, 설 때도 15, 6세에서 20세쯤의 소년들이 재목 그늘 등에 모여서 경례동작을 연습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또 상급자가 돌아보러 가면, 맨 먼저 본 사람이 경례하며 큰 소리로 호령하며 경례합니다. 이와 같이 대단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노무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각부에서 그 부의 계장이 중심이 되어 총검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구치 : 제가 간 곳은 경금속회사와 금속회사 두 곳입니다. 지금 細川 씨의 이야기처럼 이 공장도 규율이 대단히 올바랐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면 알루미늄이 가루가 잔뜩 날아다녀 새까맣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공원들은 분발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은 곳은 대원들이 묵고 있는 흥아료(興亞寮 : 기숙사)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제가 들어간 방은 마침 그 방을 쓰는 사람이 출장 중으로 비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이 방 주인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궁금해서 벽장을 열어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정신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전진훈(戰陣訓), 군대 전범례(典範例) 같은 것이 깨끗하고 가지런히 있었으며 이상한 소설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잡지는 어떻게 하고 보니 체육에 관한 것뿐이고 고단(講談)클럽<sup>72)</sup>이나 후지(富士)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직원에게 들으니 이 방에 있는 사람은 매우 성실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하고 저는 매우 감탄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원의 경례동작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 바람직한 아버지 마음, 농가의 고생을 알라

기자 : 생산정황은 어땠습니까.

채 : 책임량의 약 2할이나 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설비가 충분하지 않다든가 반도인 측의 기술이 모자란다든가 내지인 기술자의 열의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반도인의 대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가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 목산 씨의 농촌시찰은 어땠습니까.

목산 : 저는 평북에 있는 불이(不二) 농장에 갔습니다. 그곳은 바다를 매립한 곳으로, 대단히 살풍경한 곳입니다. 산도 없고 나무도 없으며 시냇물도 없는 다만 넓기만 한 곳에 집단농장을 만들고 있어서, 조금도 농촌다운 점이 없었으며, 군데군데에 20, 30호쯤의 소작인 취락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의 특색은 기술원(技術員)을 두고 토질에 따라 비료를 주도록 지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안간척지인 관계로 소금기가 아직 남아 있는 곳은 수확이 좋지 않지만, 소금기가 빠진 곳은 예상 이상의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작인은 시국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아직 잘 맞지 않습니다. 지주가 깊은 아버지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작인은 국가에 쌀을 차출한다고 하는 기분으로

72) 講談クラブ. 고단사(講談社)가 발행한 대중문학잡지. 1911년 창간, 1962년 중간.

공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주자인데 저금은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동아전쟁 완수 후 1년 후에 환불한다는 약속으로 한 섬당 5엔 20전씩 저금을 합니다. 이밖에 한 섬에 5엔의 장려금이 정부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지주에게 주지 않고 전부 소작인의 저축으로 합니다. 합계 한 섬에 10엔 20전이 됩니다. 1반보(反歩)<sup>73)</sup>의 평균 수확이 94가마니로, 20정보이기 때문에 4, 5백 엔은 저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부락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배급 등은 그 부락 사정에 맞춰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 그 부락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저 집은 쌀을 감추고 있다, 그 집은 정말 없어서 어렵다 하는 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회지 사람에게 농촌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배를 줄여가면서 증산에 힘을 쓰고, 도회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창작도 이러한 것을 다루고 또한 농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 : 남해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새까맣게 된 강건한 체구의 공원들이 결전에 가장 필요한 선박 증산에 결사적으로 정신(挺身)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제1선 장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옛 로마시대의 거함을 연상시키는 듯한 건조 중인 큰 배는 전투를 기다리는 전함 같았습니다. 안내하는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15, 16세부터 60세까지의 공원들이 약 2백명 있으며 모두 자신이 만드는 이러한 군함이 빨리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 염원에 불타며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한 척의 배를 완성하는데 1년이라는 시일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1, 2개월 만에 완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아우가 죽고 처가 출산해도 돌아가지 않는 사키야마(先山)<sup>74)</sup>

기자 : 증산의 미담은 없습니까.

조 :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작년 10월 4일 비상증산기간 중의 일로 사키야마(先山 : 가장 중요한 곡괭이를 휘두르는 역할)로 정국학모(鄭國鶴謨)라는 청년이 열심히 곡괭이를 휘두르고 있는데 담당자가 와서 아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군가 정국 대신 사키야마를 맡아 정국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정국이 담당자에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증산기간이 아닙니까. 제가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죽을 아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급선무와 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을 모두 마치고 나서 갈 테니, 노무계에 가서 누구에겐가 부탁하여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석탄을 캐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곡괭이를 들어 올렸다. 담당자는 “그래도 아우가 죽는다고 하니 잠깐 가서 보세요. 집도 가깝지 않습니까.”라고 권했으나, 정국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 담당자도 감격하고, 광원들도 감격하여 생산력을 크게 올렸고, 평상시의 반 정도 되는 석탄을

73) 약 3백 평.

74) 탄광의 막장에서 실제로 석탄을 캐는 숙련된 노동자.

더 파내었다.

정국은 다음날 하루를 쉬고 아우의 장례식을 마친 뒤 그 다음날부터 다시 부지런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10월 8일, 그 날은 두 번째 근무로 밤 담당이었습니다. 오후 10시경, 다시 담당자가 정국이 있는 곳에 와서, “정국 씨, 오늘은 일찍 돌아가세요, 부인이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정국은 역시 움직이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기운이 넘칩니다. 내일 아침에 새까만 얼굴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 아이도 그 애비가 든든하다고 하겠죠. 이웃 사람도 있고, 노무계 사람도 도와줄 테니 건강한 아이를 낳기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나는 내일 가겠습니다” 하며 기쁜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국의 처는 이웃 여인들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낳고, 그 다음날 아침, 일이 끝나자 정국은 집으로 달려갔다. 일개 광원으로서 그렇게도 애국심에 불타고, 증산보국(增産報國)에 매진한 사나이는 드뭅니다.

### 역에서 공장으로 달려가서 입영일까지 버티다

금촌 : 북선제지의 알코올 공장에도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건설은 청부한 회사에서 건설을 마쳤을 때, 시운전을 하고 고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사 측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부한 회사가 바빠서 공장건설과 동시에 철수하고 말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설계를 맡았던 다카하시(高橋)라는 청년이 입영 때문에 잠깐 고향에 돌아갔다. 그러나 알코올 공장 일이 매우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급히 돌아왔다. 드디어 기차가 회사소재지에 닿을 때에 공장 쪽을 보니까 불이 밝게 켜져 일을 하고 있는 듯해서 자기 집에 들르지 않고 트렁크를 든 채로 바로 공장에 달려갔다. 가서 보니 시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장장 이하 알코올계가 밤낮으로 수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다카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트렁크를 공장에 내던지고, 그대로 기계에 달려들어 5일 간 자택에도 돌아가지 않고 불면불휴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라고 하는 것은 열송관기라는 것에 금이 가서 거기에서 모로미 …… 펄프의 폐액입니다만 그것이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5일 동안이나 일했기 때문에 발은 퉁퉁 부은 상태입니다. 공장장은 걱정이 되어 입영할 몸으로 병에라도 걸리면 큰일이니 그만두라고 했으나, 그 사람은 제 손으로 수리하겠습니다라며 고집을 부려서 5일간 꼬박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장이 역지로 집으로 돌려보내 무사히 입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책임감은 공장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모범이 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 오락을 보내라, 농촌에는 의료를

기자 : 이런 것을 했으면 혹은 설비에 관해서 이렇게 한다면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이 : 오락 방면을 조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간 탄광에서는 영화를 매우 동경하고 있어서 제가 갔을 때, 순회영화반이 오자 모두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일터에서 지난밤의 영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단히 유쾌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목산 : 농장의 회사 또는 지주는, 소작인을 좀더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회사나 지주에게 감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비를 좋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설비를 한다든지 오락설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 탄광에서는 아침부터 목욕물이 끓고 있습니다만, 비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탄진(炭塵) 때문에 보통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깐 캔버스에 손이 닿는 곳이 어느 사이에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비누가 꼭 필요한데 비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급당국은 그러한 곳에 특히 배급을 잘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배급은 조금 적게 하더라도 그쪽에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노래하기 쉬워 저절로 부르게 될 것 같은 증산가를 작곡해 주고 싶습니다.

기자 :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전 : 「作家 畫家の見た-た,から増産現地報告(座談會)」, 『國民總力』 1944년 7월호, 3~6쪽)

## 2) 증산면과 문학자

### (1) 이서구, 새로운 농촌문화를 위하여

목산서구(牧山瑞求, 마키야마)<sup>75)</sup>

내가 평북 용천군(龍川郡) 부나면(府羅面)의 농촌 현지시찰을 한 것은 마침 춘경(春耕)으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경작에 필요한 소가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이 면사무소를 찾아가 면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보기에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은 큰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곳을 사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농촌의 강인한 저력을 시도해 볼 절호의 기회이다”라며 면장은 진지한 얼굴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때처럼 소도 충분하고 비료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노동력도 남아돈다면 굳이 농촌인에 대해 격려나 감사할 필요도 없고 하물며 영광스러운 전사라는 관사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의 식량 확보는 전황을 좌우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증산이 요망되고 있고, 거기에 비료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소도 부족합니다. 농촌은 이런 온갖 악조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극복해서 지금보다 한 가마니, 한 작이라도 더 많이 내려고 주야로 분투를 하고 있는 농촌인들의 모습은 정말 고귀한 것이며, 이런 상황을 본 자는 그 누구라도 새삼 쌀 한 톨도

75) 이서구(李瑞求)의 창씨명.

소홀히 할 수 없다며—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농촌에서 보내온 백미에 얼마간 잡곡을 혼식하면서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 형국인데, 그 쌀을 자신의 손으로 1년을 들여 만든 본가, 본고장 농촌에서는 바야흐로 춘궁기에 들어서서 잡곡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출을 한 부락에서는 그야말로 도시 사람들로부터 거꾸로 자신들의 식량을 구하면서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마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그것은 무엇보다 육체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치유하기에 충분한 건전한 위락을 적기에 적당한 양을 제공하는 일이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촌 전래의 농악, 민요 등의 재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생각건대 ‘국어’에 대한 완전한 이해, 징병, 의무교육 등 명실 공히 훌륭한 황민(皇民)으로서—농병(農兵)으로서 대동아전쟁의 신성한 전열(戰列)에 서 있는 농촌에는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다음 세대에 남길 만한 재산의 하나가 될 법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양기에는 평야 일대에 울려 퍼지는 커다란 합창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의 모습을 가슴속에 그릴 수 있는 훌륭한 작곡, 훌륭한 작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양인(良人)을 군문(軍門)에 보내는 영광스러운 날에 고갯마루의 소나무가 있는 곳까지 환송하는 데 적당한 용장한 행진곡도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인을 위해서 창작한 가사도 필요합니다. 음악의 형태는 일본 내지의 것도 좋지 않고, 반도 전래의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반도의 농촌에 정말 일치하는 것을 창작해야 비로소 모두 애창하고 다음 세대에도 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위안극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조선연극문화협회의 직영으로 두 개의 이동극단이 조선 전체를 순회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13도에 13극단을 만들어 각 도의 중심지마다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각 도내의 특색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본을 엄선하고 최소 인원으로 최대 노력을 기울여 근소한 경비로 신속하게 농어촌을 돈다면 이동의 어려움도 자연스레 해소되고 경성의 책상 위에서 생각한 것을 13도의 제일선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의 각본을 들고 긴 순회공연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기와 맞지 않는 연극이나 상황과 맞지 않는 대사가 나올 경우도 많을 테니, 각 도 단위로 해서 공연물을 직접 지도자들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합작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시기와 장소에 적합한 것이 만들어져 백발일중이 아니라 일발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작가 및 연출가는 세 반 정도로 조직해 연중 각 도를 돌아다니며 작품을 쓰고 연출을 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또 하나, 농촌인에게 보여주는 연극은 현재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농촌인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일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고, 농촌인들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도리어 도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에는 그동안 농한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한기가 단 하루도 없는 실정입니다. 뚝자리, 가마니를 짜는 데 여념이 없는 농촌에는 한가한 시간조차 없고, 농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아마추어 형태의 극운동을 일으켰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그런 소란을 떠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제대로 된 이동극단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천재적인 기획보다 건실한 실행력을 필요로 하는 이동극단의 운영 문제는 앞으로 농촌에 남길 문화재의 질에 관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면 극단인으로서의 중책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전 : 牧山瑞求, 「増産面と文學者—新しい農村文化の爲めに」, 『國民文學』 1944년 7월호, 61~63쪽〉

## (2) 조용만, 탄갱에서 돌아와

일터는 전쟁터라고들 하나 탄광은 바로 피투성이 전쟁터이다. 전지(戰地)에서 몇 날 몇 시까지 무슨 무슨 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지를 향하여 돌진해서 내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며칠까지 몇 톤을 파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정된 분량을 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전쟁터에서는 항상 적탄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적탄에 당할지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탄갱 내에서도 언제 낙반사고가 있으며, 언제 가스폭발이 있을지 모른다.

내가 흑령(黑嶺) 탄갱의 갱내작업을 견학하고 나온 직후에, 소년이 갱내 사무실에 달려와서 방금 무슨 무슨 갱내에서 낙반사고가 있었다고 급한 전갈을 했다. 감독은 긴장한 얼굴을 하고 급히 준비를 하고 갱내에 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세 사람 정도 파문했으나 다행히 허리까지밖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구해냈다는 것을 듣고 모두 휴우 하고 안심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감독은 웃고 있었다.

흑령에서 경성으로 돌아와서 신문을 펼쳐보니 규슈의 후쿠오카에 있는 이이즈카(飯塚) 탄광에서 가스폭발로 쓰다(津田) 기사가 순직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쓰다 기사는 가스폭발의 진상조사와 재폭발 방지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솔선하여 갱으로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고 죽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쓰다 기사의 용감한 행동을 훌륭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탄광이라는 곳은 전쟁터와 다른 것이 없다는 절실한 인식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탄갱노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일선의 용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혈전(血戰)의 용사이다. 그 노고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흑령 탄갱에서는 아침 7시에 입갱하여 저녁 6시에 출갱하는 첫 번째 조를, 생략하여 갑반이라 하고, 저녁 6시에 입갱하여 아침 7시에 출갱하는 두 번째 조를, 생략하여 을반이라고 한다. 꼬박 12시간의 중노동인데, 증산할 때는 밤낮으로 계속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나는 갱내에 들어가서 보고 그들의 일이 얼마나 심한 노동인가를 통감했으나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역시 직접 곡괭이를 잡아보지 않으면 그 수고로움을 맛볼 수 없다. 아침 6시에 밥을 먹고 갱내에 들어가, 정오에 도시락을 먹고, 저녁 6시까지 기다리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우리처럼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배가 고프는데 그렇게 격심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 증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회지 사람들처럼 배급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깜둥이 같은 소년광원을 붙잡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전쟁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소년은 유창한 ‘국어’<sup>76)</sup>로,

“미, 영과 전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왜 석탄을 파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비행기나 탱크, 군함을 보내기 위해서는 석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 영에게 이기기 위하여 1톤이라도 석탄을 많이 파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각오는 철저하다. 어느 갱에 들어가 보아도, 어느 작업장에 가 보아도 증산의 의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파내는 석탄이 1톤이라도 많으면 그 만큼 비행기, 탱크가 여유 있게 만들어지며 결국 완고한 적 미, 영을 그들이 파낸 만큼 더 격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신념으로써 석탄을 파내고 있다.

나는 우리 도회지 사람들의 하얀 손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우리의 창백한 얼굴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들의 새까만 얼굴과 손발이야말로 총후국민의 얼굴이며, 손발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조선내의 산들에서 이와 같은 수만의 노무자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밤낮으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전선에 비행기를 보내고, 탱크를 보내며, 군함을 보낸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총후국민은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생활과 노고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들 작가들의 임무이다. (5월 20일)

〈출전 : 趙容萬, 「炭坑より還りて」, 『國民文學』 1944년 7월호, 63~64쪽〉

### (3) 김기진, 생산과 문학

금촌팔봉(金村八峰)<sup>77)</sup>

문학 내지 일반예술이 유한계급의 전유물이 된 것은 소위 근대적 사회체제가 완전히 세워진 이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별도로 특정한 예술가사회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고, 고급스러운 향락기관의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다. 팽이를 잡고, 나무를 깎고, 돌을 쪼고, 말을 타며 화살을 쏘는 자가 시화(詩畵)나 무용, 음악의 명수이기도 했다. 그리고 영주나 상인도 자신들의 예술을 향락하거나 생산하는 일에 있어 평등했던 듯하다. 그러나 근대사의 진전과 함께 생활이 분화(分化)함에 따라서 모든 예술은 일부의 소비생활을 위한 도구로 제공되었다. -예를 들어 근세 이후의 서구문학은 뛰어난 몇 작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비자의 문학 그 이상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고 물론 원래 문학(예술)이 소비계급의 향락물은 아니다. 또한 문예가는 그들 자신이 소비자 이어서도 안 된다. 건전한 예술은 어느 시대에도 근로하는 자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만 복(滿腹)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안일하고 나태하며 사치스럽고 독선적인 정신일 뿐이다.

76) 일본어.

77) 김기진(金基鎭, 이명, 金八峯)의 창씨명.

시를 짓는 자는 밭을 갈아라! - 옛 현인(賢人)의 말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땅을 경작하는 마음이 야말로 글 짓는 마음이다. 근로와 노동과 자연 및 인생에 대하여 보은(報恩)·감사하는 경건한 마음과 짐과 끊임없는 반성생활이 인간의 품성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얻게 되는 숭고한 정신은 그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비속한 물질주의자의 말이기는 하나, 여기에도 엄연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연성(鍊成)의 필요성과 봉사의 정신이 양양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운니(雲泥)의 차가 있는 복종정신으로부터 솟아나온 외침이며, 개화(開化) 이래 우리에게 익숙해진 기계주의, 물질주의 등 구미적인 불순한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수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공장, 광산, 농장, 조선소 등의 생산현장에 작가들을 파견하여 증산에 매진하고 있는 현지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작가가 생산근로의 체험을 얻게 함으로써 싸우는 문학과 생산의 밀접한 결부를 도모하였다. 이 기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기꺼이 참가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파견된 곳은 함북 길주 읍에 있는 북선제지주식회사의 펄프공장과 알코올 공장이었던다. 감독관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훈련받은 청소년 공원(工員)들이 결눈질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더할 나위없이 믿음직스러웠다.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는 문학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 중에서 그러한 문학이 생산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문제는 장차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숙제일 것이다.

(5월 25일)

〈출전 : 金村八峰, 「生産と文學」, 『國民文學』 1944년 7월호, 65~66쪽〉

### 3) '조선군 보도반원의 수첩' 중에서

#### (1) 이석훈, 행군

목양(牧洋, 마키 히로시)<sup>78)</sup>

우리를 태운 목탄 자동차는 아주 작은 언덕에도 험뎡거리고 있었는데, 끝내 어느 부락 입구 노상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동네 아이에게 오늘밤 숙박해야 할 목적지를 물어본다. 실은 우리 운전수도 미지의 지점이었던 것이다. 조선어로 물어보자 소년은 '국어'<sup>79)</sup>로,

“아직 10킬로 이상 더 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두 난처하다는 듯 투덜거린다.

“어디쯤이지?”

“저기 보이는 작은 산 뒤쪽입니다.”라며 소년은 동남쪽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잇는다.

78)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79) 일본어.



“청룡국민학교 옆입니다.”라고 가르쳐준다. 시골 소년 치고는 맑은 눈을 가진 깔끔한 얼굴을 한 똑똑한 아이로 보인다. ‘국어’도 제법 깨끗한 발음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는 나왔겠지 생각하고 물어보니,

“아뇨, 국민학교는 안 다녔습니다. 집에서 야학을 조금 했을 뿐입니다.”라는 말에 더욱 놀랐다. 이런 일에도 ‘국어’ 보급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자동차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고친 뒤 따라오라고 말한 뒤 2열중대로 행군을 시작했다. 이는 예정하지 않은 과정으로 우리는 자동차의 고장을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느낀 점이었는데, 고작 10킬로 내외의 행군이긴 했지만 우리는 전선의 병사들의 노고를 행군이라는 각도에서 다소나마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총 무게를 어깨에 느끼면서 10분 정도 걷고 있자 자동차가 뒤에서 털거덕털거덕 뒤따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총을 내리고 탕지만 2킬로도 채 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럼 됐어. 목적지까지 행군이다.”

우리는 자동차를 남겨두고 고원(高原)을 동남쪽으로 뻗은 넓은 길을 총을 어깨에 메고 행군했다. 글자 그대로 적토 밭이 고원 저 멀리까지 종횡으로 펼쳐져 있다. 곳곳에 나무숲이 있고 부락이 있다. 적토에 파란 무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보리밭이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석양이 들판도 보리밭도 모두 일색으로 물들었다. 초여름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운작(雲雀)이 머리 위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우리 그림자가 길게 대지에 드리워져 유령처럼 우리 뒤를 따라 전진했다. 처음에는 서로 얘기를 나눈 전우(!)들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모두 입을 다물게 되었다. 소총 무게가 자칫 체력을 갖고 노는 것 같았다. 공복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즐거웠고 행복했다. 지금 나는 공복과 피로와 세속적인 모든 잡념을 초월한 높은 정신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감상도 없이,

여기는 고향을 몇 백리  
멀리 떨어진 만주의  
붉은 석양에 비치면서  
벗은 들가의 돌 아래

라는 군가를 떠올리고 ‘붉은 석양의 만주’를 이 드넓은 고원에서 보았다. 그때 다른 전우도 나와 같은 감개를 느낀 모양인데,

“이 풍경은 산시(山西) 전선과 꼭 빼닮았군.”라며 슬회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선두를 묵묵히 걷고 있던 우리 지도관도

“정말이야. 황하 북쪽 연안 어딘가를 떠올리게 하는데.”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때 나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 아름답게 그리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전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때의 기억을 먼 미래에 아름답게 추억하는 생애를 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한 붉게 물든 보리밭 쪽을 지났다. 석양과 바람이 보리밭 위에서 찬란하게 노닐고 있었다. 나는 영화 <미완성 교향곡>의 어떤 장면을 떠올리거나 또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사(麥と兵

隊』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런 인상적인 장면 속에 자신을 놓고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해는 막 저물려 하면서 마지막 황금빛을 안타까운 듯 비추었다. 완만한 구릉도 길게 그림자를 옆으로 드리웠고, 대지는 점점 회색빛으로 어둡게 물들어갔다. 행군은 계속 이어졌고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고향을 떠난 지 몇 개월이던가

함께 죽을 작정으로 이 말과

진격한 산과 강

잡은 말고삐에 피가 흐른다

황혼의 정숙은 우리 행군에 의해 깨졌다. 개들이 짖어대고 아이들이 개들과 몰려와 뒤따라왔다. 또 언덕을 넘어 작은 강을 따라 계곡을 내려가 마침내 한밤중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청사에 도착했다. “보조를 맞춰!”라는 반장의 힘찬 호령에 우리는 마지막 장식을 위해 늠름하게 보조를 맞추어 영내에 들어갔다.

〈출전 : 牧洋, 「朝鮮軍報道班員の手帖—行軍」, 『國民文學』 제3권 제7호, 1943년 7월, 52~55쪽〉

## (2) 정비석, 사격

6월 1일, 우리는 대동 창사(廠舍)<sup>80</sup>에서의 이틀째 아침을 맞이했다.

창사 앞의 초원에 내리쬐는 아침 햇볕이 한 여름의 더위를 생각나게 했다. 먼 산에서 뼈꾸기의 울음 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지극히 한가로운 고원의 아침이다.

그러나 우리 보도반원은 한가로운 자연에 어리광을 부리며 늘어진 기분으로 있을 수는 없다. 오전 오전 중의 훈련과목은 ‘실탄사격’인 것이다. 서둘러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전원은 장비를 모두 몸에 달고, 각자 소총을 휴대하여 창사 앞의 광장에 집합했다.

“이제부터 실탄사격이다. 5발 씩 준대!”

“실탄사격이라. 조금 가슴이 떨리네”라고 누군가가 말하자

“좋아 내가 5발 전부 맞춰 보지.”

“무어야 자네가! 자네는 1발만 맞춰도 잘한 거야!”

반원들은 서로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탄사격’은 대부분의 반원들에게는 첫경험이기 때문에 모두의 얼굴에는 농담을 하면서도 희망과 호기심과 불안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긴장하고 진지한 표정이기도 했다.

오전 9시, 우리는 창사에서 2킬로 쯤 떨어진 ○○부대의 사격연습장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이미 보도반원의 사격을 지휘하기 위한 ○○부대의 하사관들이 6, 7명 보였다.

“실탄사격을 할 때는 긴장하기 쉬운데 긴장하면 탄환은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요시나가(吉永) 소위는 말했다. “발사!”라는 호령이 떨어지면 1, 2, 3, 4를 셀 정도의 시간에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80) 군대가 훈련지 등에 임시로 세우는, 사방에 벽이 없는 간단한 건물.

그것이 사격의 기본속도라고 한다.

드디어 4명 씩 사격이 개시되었다. 과녁은 3백 미터 저쪽에 서 있는데 근시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과녁의 크기는 군인이 복사(伏射)의 자세 때, 어깨보다 위의 즉 지상에 나타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크기라고 하는데, 3백 미터나 떨어져 있는 탓인지 고무공 크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윽고 이쪽저쪽에서 탕탕하는 사격소리가 조용한 산야를 힘차게 울렸다. 3백 미터 저쪽의 과녁부근은 펑펑 흙 연기가 일어난다.

4명의 사격수가 5발씩을 쏘고 나니까 조수인 하사관이 붉은 색과 흰 색을 이은 깃발을 높이 흔드는 ‘사격 중지’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과녁 근처의 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병사가 과녁으로 가서 탄환의 명중 도를 조사하고 샷대가 긴 깃발로 이쪽으로 신호를 한다.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맞지 않음, 깃발로 원을 그린다.
- 1발 적중, 깃발을 똑바로 세운 뒤 오른 쪽으로 쓰러뜨린다.
- 2발 적중, 깃발을 똑바로 세운 뒤 왼 쪽으로 쓰러뜨린다.
- 3발 적중, 깃발을 똑바로 세운 뒤 앞 쪽으로 쓰러뜨린다.

전체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해도 과녁으로부터는 멀지 않았다.

이윽고 내 차례였다. 나는 주어진 총을 손에 쥐고 조용히 쳐다보았다. 갑자기 엄숙해졌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진퇴유곡의 기분이었다.

붓을 총으로 나는 바꾸어 진 것이다. 옛날 당나라 시인 위징(魏徵)은 “중원(中原) 또 사슴을 쫓아서 용헌(戎軒)을 섬긴다, 종횡(縱橫)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강개(慷慨)의 뜻은 아직 있다”라고 노래하였다. 오늘날의 문화인은 모두 위징의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함부로 옛날 개념에 근거해 필연(筆研)을 계속하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거편(巨篇)의 시문(詩文)을 완성하는 것보다도 1발의 탄환을 적에게 맞추는 편이 더욱 의의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나는 아니 우리들은 김을 잡을 각오로 붓을 들어야 한다. 나는 복사(伏射)의 자세를 잡고, 과녁을 향하여 목표를 정했다. 곁에서 탕 하고 탄환 소리가 귀를 울렸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런 일에 상관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경우 과녁은 나의 적이었다. 내 안중에는 이미 적의 존재밖에 없었다. 목표를 정하고, 지척의 선상에 적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방아쇠를 조용히 당겼다. ‘조용히’라고 나는 표현했으나, 사실은 내 가슴은 한 없이 떨렸다. 탕 하고 소리가 나는 동시에 반동이 꼭 어깨를 파고들었다. “뭐얏!” 하며 나는 반동을 도로 튕겨내 듯 어깨를 내밀었다. 적을 쏜 반동이라고 생각하니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기분이었다.

과녁 근처에서 흙 연기가 확 올라왔다. 적중했는지 어떤지는 나는 모른다. 나는 다만 진검승부로 적을 노리지 않으면 안 된다.

5발을 사격을 끝마치자 “사격 중지!”라고 곁에 있던 하사관이 명령한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윽고 첫째 과녁부터 차례로 명중의 점검이 시작되었다. 나는 제3과녁의 사수였는데 제1과녁부터

제3과녁까지의 불과 수분간의 점검시간이 나에게서는 영원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내 과녁 점검이다. 깃발이 어떤 식으로 흔들릴까, 나는 두근두근했다. 어떻게든 맞아야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내 과녁을 상세하게 조사한 병사는 이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깃발을 똑바로 수직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자 오른 쪽으로 확 넘어뜨렸다. 나는 흑하고 숨을 쉬었다. 1 발이 적중한 것이다.

나는 똑바로 부동자세를 취하면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  
제3과녁 사수 정비석 반원  
발사탄 5발  
명중 1발  
탄약통 기타 이상 없음

그리고 나는 총을 잡고 방향을 돌려 뒤로 물러났다.

모두 진지했다. 총을 잡으면 아무리 느슨한 인간이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총에는 군인정신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붓을 잡고 있을 때에도 총을 잡고 있을 때의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오늘날의 우리의 존재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출전 : 鄭飛石, 「朝鮮軍報道班員の手帖—射撃」, 『國民文學』 제3권 제7호, 1943년 7월, 55~58쪽〉

#### 4) '조선군보도연습기' 중에서

##### (1) 이석훈, 보도연습에 참가하여

조선군보도반원 목양(牧洋)<sup>81)</sup>

저는 제1회 조선군보도연습에 참가하고, 그 연습의 경과를 다른 각 잡지와 방송을 통하여 발표했으나. 여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해서 소감의 일단을 적어보기로 생각한다.

이번에는 군 당국에서 천명한 것처럼 보도연습이라고 하기보다 그것의 기초훈련으로 말하자면 군이란 무엇인가, 군대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래서 당국이 노린 소기의 목적은 대체로 달성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의 기분으로 미루어 보아서, 군인정신의 태반을 파악했다고 자부하며, 소위 보도전사라는 어느 정도의 각오는 확실히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어서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한다.

81)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 초년병의 가나다

우리는 먼저 “차렷!”하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부터 배웠다. 직접 지휘를 맡은 것은 간부후보인 젊은 사관이었으나, 참으로 씹어서 먹음은 듯 간절함을 다 한 지도 자세는 깊이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상당한 연한(年限) 동안 학교교육을 거쳐 왔음으로 자칫하면 “차렷”쯤이야 하고 무시하는 기분이 속마음으로 없지도 않았으나, 이것을 완전한 경지까지 하는 데는 좀처럼 어려웠다. 이러한 것에도 아무리 사소하다고 해도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교훈을 자각했다.

다음으로 보조(步調)를 취하는 방법, 경례를 하는 방법, 집총하는 방법, 어깨에 메는 방법, 초년병의 가나단을 습득했으나, 어느 동작도 하루나 이틀에 완수할 수 있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의 극히 일부만을 아는데 불과했으며, 그 백분의 일이라도 도달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아침저녁의 점호

군대의 기상시간은 5시 반이다. 우리도 그것에 따랐다. 일어나면 먼저 마른 헌겉 마찰인 것이다. 그것을 불과 5분만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다음으로 마당에 정렬하여 아침 점호를 하고 동쪽을 향하여 궁성요배인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지휘관에 따라서 육해군인에게 주어진 칙유(勅諭)를 봉송(奉誦)하면 어떠한 성전(聖典)을 읽는 보다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 군인은 충절을 다 하는 것을 본분으로 해야 한다.
- 군인은 예의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 군인은 무용(武勇)을 섬겨야 한다.
- 군인은 신의를 중히 여겨야 한다.
- 군인은 검소함을 취지로 해야 한다.

이러한 5개조는 바로 군인 분만 아니라, 우리들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금과옥조인 것이다. 저는 군인의 길은 인간 최고의 길인 것을 깨닫고, 군인정신을 가짐으로서 우리 국민정신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믿기에 이르렀다. 밤에도 취침 전에 저녁 점호를 하는 것이었다.

## 내무반

막사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반에 속하며, 기거(起居)를 같이 하며, 바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무반인 것이다. 내무반의 생활은 먼저 검소를 취지로 하고 청결하게 규율 바르게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전우애는 태어나고 협동정신은 배양된다. 군대생활은 단적으로 말하면 내무반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짧은 기간이면서 이 내무반의 생활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습득했다. 내무반에서는 무엇보다도 과묵(寡默)하는 것이 귀중하다. 바로 침묵은 금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자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부주의를 폭로하기보다 은근히 암시하는 것이 중요

한 것이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야간취침 전에 막 피워대면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튼 깃연 자가 압도적인 다수였기 때문에 아무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극히 사소한 일이나 깃연에 한해서는 저는 언제나 자기가 희생당하는 기분으로 지내 왔다. 그런 심리는 깃연 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담배 공초의 처리를 군 막사만큼 시끄럽게 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깃연 자는 어디에서도 공초처리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담뱃볼로부터 뜻밖의 손해를 인류는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까지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 기타

총을 둘러메고, 약 3십리의 길을 행군을 했으며, 실탄사격도 했다. 부대와 함께 돌격도 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느낀 것은 일선의 군인들이 고생하는 정도인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그것도 연습이라는 작은 규모의 돌격에 거의 비명을 올린 것이 아닌가. 매일 비처럼 오는 적의 탄환 아래서 죽음의 돌격을 되풀이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라. 저는 자신의 작은 체험에서 오직 군인들에게 머리가 숙여질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총후 국민은 안일한 생활을 항상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연습의 마지막 날에는 지원병과 그 외 사람들과 좌담회나 각 부대의 견학이라든지 유익한 시간이 주어졌다. 군 당국의 아버이 같은 마음을 저는 충심으로 감사하면서 다른 곳에 많은 것을 썼음으로 간단히 끝내기로 한다.

〈출전 : 牧洋, 「報道演習에 참가하여」, 『朝光』 제9권 제7호, 1943년 7월, 34~36쪽〉

## (2) 이서구, 보도연습기

### 1. 성장(星章)과 경애

조선군에서 피복과 병기의 대부(貸付)를 받았다. 명일에 거행될 선서식에 먼저 착용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이발관에 들러서 머리를 깎았다. 20년 만에 처음 짧게 깎는 머리다. (중략) 다방 소녀는 나를 내지인인 줄 안 모양이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부엌으로 통한 작은 창문을 열고 '저 헤이 타이상(군인 아저씨) 주문이니 달고 맛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모자에 달린 '별표'가 이렇게 세상의 경애를 받는가. 아이들은 우러러보고, 거리의 사람은 감사해하고 장사치들은 이해를 떠나 위해주려는 이 총후의 믿음성스러운 적성(赤誠)을 내가 몸소 체험할 때 - 더욱이 반도 동포에게서 그 참된 모습을 찾아볼 때 나는 마음속으로 '오-나, 걱정 없다.'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다.

(중략)

### 3. 일본인

(중략)

‘여기서 주저앉으면 일본인이 아니다’

이 소리는 나를 격려해주고 고무해줄 줄 믿는다. 일본군의 공격정신은 정의필승에 통하는 바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연습에 참가해서 새로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지도자 - 즉 교육의 인격이다. 군센 군율과 높은 애정이 순화된 교관의 인격이다. 초년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북돋워 주는 정성이다. 어느 부모가 그러랴! 엄부자모의 두 역할을 한 몸에 맡아서 부하에게 대하는 그 태도에 나는 아들이 백 명 있어도 다- 갖다 바쳐서 훌륭한 인간을 길러지이라고 고개 숙이고 빌고 싶은 생각 까지 들었었다.

### 4. 믿음직한 그 얼굴

(중략)

옛말에 마소새끼는 시골로 보내고 사람새끼는 서울로 보내야 사람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 제는 그 격언에 일대 수정을 해야 한다. 군문(軍門)은 인간대학이라고까지 한다. 아들을 낳거든 군문에 보내라. (중략) 될 수 있으면 군인들의 지방행군을 많이 시켜서 촌사람들로 하여금 군인에 대한 이해와 정을 갖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다. 어느 부모든지 이날 밤 지원병들의 씩씩한 태도, 사내다운 거동을 보았다면 반드시 ‘참 군대가 좋은 데올시다.’ 고개를 숙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출전 : 牧山瑞求, 『報道練習機』, 『朝光』 제9권 7호, 1943년 7월, 39~42쪽〉

### 5) 안석주(安碩柱, 安田榮)

#### (1) 대동아전과 영화인의 임무

조선영화인협회 상임이사 안전영(安田榮)<sup>82)</sup>

12월 8일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날 황군의 미영과의 개전은 제국이 동아의 해방을 위협이니 대미영서전의 찬연한 전과는 이미 필승의 신념을 굳게한 바이나 여기에는 결전체제하에 있어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거둬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 더욱이 문화인들의 사령이 생각되고 이 문화인들의 군센 결의가 있지 않으면 아니되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더욱이 외래문화에 젖어온 사람들로써 과거에 일반의 생활에 있어서 적으나 크나 그릇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에 여기에 문화인들의 큰 반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영화에 있어서 저양키 영□가 풍□했을 때 일반의 일제생활, 더나가서는 그 정신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이 있었는가 이것이 이곳, 양키의 침략수단의 하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82) 안석주(安碩柱)의 창씨명.

과거 반도영화가 그 수효는 적다하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바만 했고 이 결과는 대중의 생활을 □□ 식힌바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여기서 영화인들의 과오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예술의 진화라는 것은 자의(大義의)로 돌아오는 데 있다.

이 예술뿐만 아니라 반도인 전체가 자의를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이 자의라는 것은 곧 황국거민이 되는 것이요 이 황국거민이 되는 때는 일본정신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자기들은 이미 일본국민이면서 일본국민이 가져서는 안될 외래문화에 □□되었던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요 이식할 수 없는 것임에 우리는 그만큼 가까운 세월을 □□했다는 말이다.

더구나 이 대동아전을 계기로 하여 반도의 이천사백만민중과 더 한층 환국거민 다 올게되고 이라는 데는 나(私)를 버리고 폐하의 적자로서 조국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기를 우리러 맹세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영화인들도 거듭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었다 영화인들도 영화정신부대가 되자는 말이다 이것이 오늘의 영화인의 나아갈 길이요 여기서 이 시국에 처한 영화인의 임무라 생각한다. 그것은 금일의 전쟁에 있어서 영화의 사명이 큰 까닭이요 영화는 다른 예술보다도 더욱더 정치를 떠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탄만 무기가 아니다 □□역이 무기라하면 글과 말보다도 영화의 진실성 또는 그 박력은 정확한 보도와 민중을 지도하는데 큰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영화에서 정실히 인식된 바로 여기에 영화의 사명이 크다.

그러나 이 영화를 가지고 대동아공영권과 세계신질서를 위한 성전의 큰 무기가 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그 영화에 종사하는 자의 정신이 그 육체가 전시국가의 이념하에서 출발해야한다.

우리는 동세아의 해방을 위해서 황인종의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싸운다는 이념도 있어야하지만 이 이념위에는 국민을 사랑하옵시고 인뢰 사랑하옵시는 폐하의 대어심이 계심에 이 대어심밑에서 자기의 맘과 몸을 모두 바치는 그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성전에 영화정신부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전 : 安田榮 「大東亞戰과 映畫人の 任務」, 『매일신보』, 1941년 12월 18일〉

## 6) 윤두헌(尹斗憲, 平沼文甫)

### (1) 들판은 전쟁터 - 충남을 둘러보고

평소문보(平沼文甫)<sup>83)</sup>

#### 보리밭기는 여자와 아이들이

일전에 나는 충남 지방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딜 가더라도 총후(銃後) 농촌이 진지하게 싸우는 모

83) 윤두헌(尹斗憲)의 창씨명.



습에 감동을 받았다. 특히 놀란 것은 부인들이 들판에 나가 일하는 모습이였다.

과거에는 안방 깊숙이 틀어박혀 바깥 공기를 맡을 일이 없던 반도의 부인들이 지금은 증산에 공출에, 남자 못지않은 기개로 씩씩하게 일하고 있다.

마침 보리밭기를 할 무렵이었는데, 옛날에는 의례 남자가 하는 일로 여겨지던 보리밭기에 남성은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전부 여자와 아이들이 하고 있다. 나는 곳곳에서 몸빼 차림의 여자들이 쌀쌀한 들판에 나와 보리를 밟고 있는 광경을 보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머지않아 귀여운 아들과 손자를 또는 사랑하는 남편을 오빠를 동생을 전쟁터에 보내고 충후의 가정을 지켜갈 그녀들이었다.

## 농한기는 없다

농촌에서의 싸움은 라바울이나 마살이나 트력의 황군 장병들의 피범벅 싸움 못지않게 격렬하다. 벼, 보리, 면화를 비롯해 가마니, 새끼줄, 도토리, 싸리 껍질에 이르기까지 30종이 넘는 공출을 농촌은 전부 감당해낸다. 30종이 넘는 공출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벼, 보리, 면화 등은 1년 내내 공들여 재배해야 하고, 가마니나 새끼줄도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그들의 일상생활은 매우 궁핍하다. 나라(御国)<sup>84</sup>를 위해 공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쌀이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 석유가 없어서 밤에는 등불도 밝힐 수 없다. 1년 내내 일하고 농한기라는 것도 없다. 그래도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증산에 힘쓰고 있다.

## 손끝을 상해가면서 가마니 짜기

나는 어느 부락에 머물렀을 때 여러 집을 돌아봤는데, 어느 집에 가더라도 방안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젖은 지푸라기로 열심히 가마니를 짜고 있었고 남자는 여자와 아이들이 만든 가마니를 옆에서 손질하고 있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는지 물어보니, “기계로 짜면 하루에 한 사람이 20개는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식이면 두 사람이 달려들어도 10개밖에 못 만든다”며 만면에 소박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저녁에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등불이 없어서 저녁에는 새끼줄밖에 꼬지 못한다”고 했다.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등불도 없는 어두운 방안에서 새끼줄을 꼬고 있는 것이었다.

면사무소가 있는 곳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가마니와 새끼줄이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 있었다. 가마니와 새끼줄을 검사하는 날이 되면, 소나 차가 없는 그들은 남자는 지계를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새끼줄과 가마니를 검사장에 가져 오는데, 그 날은 노인부터 여자와 아이들까지 일가족이 모두 나서서 운반한다.

가마니 검사장에 서서 보니 동서남북의 길이 가마니를 짠 남자와 머리에 올린 여자의 행렬로 하얗다. 보고 있는 동안에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가마니는 광장 한 구석에 커다란 산을 만들었다.

“전부 15만 장입니다”라는 검사원의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어투가 묘하게 들렸다. 15만 장의 가마니

84) 미쿠니 : 일본의 경칭.

산이라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겠지만, 그 한 장 한 장이 농촌의 여자와 아이들의 손끝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그녀들이 등불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손끝이 갈라질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든 한 장 한 장의 가마니가 이윽고 비행기의 부품을 넣고 통이나 탄환을 넣어 남방 전선으로 보내진다.

### 백성은 들판에서 싸운다

옛날 백성은 쌀을 만들고 가마니를 만들었지만, 오늘날의 백성은 비행기를 만들고 탄환을 만들고 있다. 1943년도에는 배의 적재능력이 부족할 때 남방에서 68만 톤의 쌀을 싣고 왔다. 만약 국내에서 68만 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남방에서는 쌀을 운반하는 대신 비행기를 만드는 알루미늄의 원료 보크사이트를 운반해 왔더라면 비행기 2만 3천 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남방 전선에서는 황군 용사들이 비행기가 부족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일의 100대보다 오늘의 1대”이라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2만 3천 대의 비행기를 손해 보는 것은 전쟁 상황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황군 장병들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들판에서 방에서 싸우고 있다. 68만 톤의 쌀을 만들기 위해, 아니 2만 3천대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충남 공주에서는 경지면적 80% 정도에서 2모작을 준비하고 있다.

### 외투를 입지 않는 공무원

공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공주에서는 공무원이 외투를 입지 못하게 되어 있다. 출근 때는 반드시 국민복에 각반(卷脚絆) 차림이다. 그것은 아베(阿部) 군수의 말에 따르면, “민중의 선두에 서서 증산을 독려하고 공출을 독려하는데, 불빛도 없는 방에서 가마니를 짜고 있는 백성들 앞에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고 서 있는 공무원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도 들어줄 리가 없죠. 진두에 서서 부하를 이끌고 사지로 나서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죽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한다.

장기면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는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점심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보건에 문제는 없을까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교원들이 시도했는데 전혀 영향이 없어서 아동들에게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

이는 농촌의 식량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인데, 농민은 참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생은 내일에 약속되어 있는 희망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오늘의 고생은 발가락 끝이 굵는 정도의 상처이다.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면 폐가 굵는다. 발가락 끝이 굵은 것은 발가락 하나 정도 잘라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폐가 굵으면 목숨이 없다. 도리어 오늘의 고생 때문에 가사(假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쟁에 승리하기까지는 온전히 살아남아야 한다. 농촌은 그렇게 싸우고 있다.

〈출전 : 平沼文甫, 『野良は戰場-忠南をめぐるつて』, 『新女性』 제3권 제4호, 1944년 4월, 30~31쪽〉

## (2) 입술에 노래를 담고

평소문보(平沼文甫)<sup>85)</sup>

요즘 증산(增産)이라는 말이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미증유의 기세로 강조되고 있다. 국가가 '황국의 흥패(興敗)'를 내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완승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는 국민에게 내려진 국가의 지상명령으로, 전력을 다해 임무완수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명칭이 말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가 아니라 증산전사이다. 망치와 가래와 팽이를 들고 싸우는 군인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증산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일한 결과로 얻게 되는 제품에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일하는 것 자체의 의의를 잊고 신성하고 즐거워야 할 근로를 싫고 짜증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고마운 특전이다. 노동은 인생의 의무가 아니라 특전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근로는 인생의 가장 숭고한 예술이 될 수 있다. 근로가 사회적 의무이거나 임금이나 부를 얻기 위한 수단일 경우 신성은커녕 그것은 분명 죽을 것 같이 싫어하는 것이 된다.

나는 어릴 적 선생님께서로부터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배웠는데, 그와 동시에 근로예찬자인 선생님은 종종 나에게 나쁜 짓에 대한 징벌로 그 신성한 임무를 부과하였다.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창문을 닦거나 변소 청소를 할 때마다 “노동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신성하다고 한다면 나는 나쁜 짓을 한 대가로 상을 받은 셈이 된다.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선생님이 나쁜 짓에 대해 상을 준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다”라며 흐리하게나마 생각하였다.

그러나 의문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른이 된 뒤, 일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노동이 지닌 의미가 인생의 모든 의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만약 노동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신성한 것이라 한다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한 종족이지만, 그 반대라면 인생의 불행은 선천적인 것으로 죽음 외에는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한다면 근로 그 자체도 즐거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워야 할 근로를 싫어하게 만든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에게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내 생활은 편해지지 않고  
가만히 손을 본다.

85) 윤두현(尹斗憲)의 창씨명.

다쿠보쿠 역시 근대인이었던 모양이다. 이 시에 따르면 일한다는 것은 짜증나는 것이지만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일하지만 전혀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 명인 기질이 있는 정장(丁匠)은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만들고, 만족할 수 없는 제품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부숴버려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가난한 노농(老農)이 목적을 망각하고 근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대의 박래(舶來) 경제학이 의미하는 바에서는 생산이란 결과가 문제이지 그 과정은 전혀 무시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상품을 몇 개 만들었고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자의 정신적 작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드는 자의 기쁨, 일하는 자의 행복감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든 물건의 완성도보다 그 물건을 팔아 얻은 이윤이 목적이다. 잘 팔리는 물건을 되도록 많이 만드는 것, 오직 이 한 가지에 의해서만 경영자는 기업을 하고 노동자는 일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노동은 신성하기는커녕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윤이 목적이고 근로가 수단이 되는 곳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수단이 사용된다. 수단이면서 또한 죽을 듯이 싫어하는 노동을 되도록 적게 하고, 목적인 이윤을 되도록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경제 행위이다.

그리고 물건도 그 가치가 화폐로 결정된다.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쏟은 정성과 그 물건이 생명을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것인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어느 날 친구 집을 방문하자, 그 부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충돌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부인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자, 남편이 말하길, “당신은 경제적인 머리가 없기 때문에 바보야”라고 했다. 그 이유는 아이 옷을 만들기 위해 옷감 〇원 〇십전, 그것을 바느질하기 위한 시간이 며칠, 그것을 계산하면 백화점 등에서 파는 옷을 사서 입히는 게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가격에는 민감하면서도 물건에 들어간 모친의 애정에 둔감한 것은 비단 그 친구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었다. 공업증산을 위해 새로운 기계가 사용되고 농업증산을 위해 좋은 도구가 고안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직장이 활기가 없는 살벌한 곳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증산 광산, 농촌을 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광산이나 농촌이 많은 물건을 만드는 데 여유가 없고, 만드는 자의 기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원인이야 어쨌든, 능률 증진의 요체는 근로 그 자체가 일하는 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의의를 갖도록 해야 한다.

문명이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발달한다는 생각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노동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탄생시키는 데 있다. 인간의 본성은 상대를 정복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탄

생시키는 데 최대의 기쁨을 느낀다.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일을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일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이 있을 경우에는 인간은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능률 증진의 기본 동력이다.

이것을 하면 건강하게 된다는 목적의식만으로 땀을 흘리면서 몰두하여 경기를 하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그저 재미있어서 할 뿐이다. 승리한 뒤 느끼는 쾌감이라는 것은 단지 덤일 뿐이다.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목적의식이 스며들어가 있어서 의식되지 않지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즐겁기 때문에 하게 되는 운동경기는 그야말로 인생의 예술이다.

증산을 위해 목적이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로를 예술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에서 유대인적 이윤 추구성의 추방과 함께 근로를 임금획득의 수단이라는 타락의 나락에서 예술의 왕좌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본디 일하는 곳에는 노래와 춤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일본 내지의 시골에 지금도 남아 있는 축제(마쓰리)나 춤, 조선의 시골에도 희미하게나마 잔영이 남아 있는 민요나 오락은 원래는 근로를 즐기 기 위해, 근로와 결부되어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일하는 것을 즐겼는지 알 수 있다.

경사가 심하고 높은 산에 있는 밭두둑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으면서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라. 마음에 태양을 담고 입술에 노래를 담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는 것은 하루 세끼의 밥보다 즐거운 일이다. 즐겁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된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데서, 증산이 싫어도 증산된다.

〈출전 : 平沼文甫, 「脣に歌をもて」, 『内鮮一體』 제5권 제8호, 1944년 8월, 26~28쪽〉

## 7) 정비석(鄭飛石)

### (1) 지식인

×형

지난번 저는 어떤 용무로 경성에서 25리쯤 떨어진 용인이라는 시골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히 그곳 주민들과 2, 3시간 동안 무릎을 맞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회담 덕분에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의 제 자신을 다시 반성하고 다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을 대하고 먼저 느낀 것은 그들의 순박함이었습니다. 그들 생활의 소박함이 그대로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으며, 물끄러미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연히 이쪽의 마음까지 순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기교를 부리고, 끊임없이 술책을 짜내는 도회지 사람들 - 그중에서 지식인생활이라는 것은 농민들의 생활에 비하면 얼마나 보기에 딱한 허위와 회의로 가득 찬 것일까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도(怒濤)처럼 해변에 다가오는 엄숙한 사실에 직면하고도, 그것을 회의(懷疑)하는 것이나, 그렇게 회의하고 싶은 것은 즉 생활 그 자체가 그만큼 확고하지 않은 증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지식인 생활에서 회의를 마이너스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요. 회의야 말로 지식인의 유일한 생활도구이며, 생명의 활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단안을 내릴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잠깐 진지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확실해지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회의라는 것은 생명력의 낭비적인 소모일 뿐입니다. 철학은 먼저 의심하라고 가르치고, 과학은 의심함으로써 진보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현실을 토대로 살고 있으며, 생물이 이상, 엄숙한 현실을 머리부터 부인하고 텀빈다면, 의심을 위한 의심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고만 있어서는 신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념을 갖지 않는 인간만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신념 없이는 행동이 태어날 리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시골에 가보고 놀란 것도 우선은 농민들이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농민들이 하면 농민들은 먹고 들일을 한다, 말하자면 그것만을 되풀이하는 숨 쉬는 중요한 농기구 같았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열렬한 국가의식 아래, 나라를 위한다면 백번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훌륭한 각오로 부지런히 생산 확충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꿔말하면 위정당국의 지도가 좋았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민들 자신의 자각도 대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행동은 모두 국가에의 봉사였습니다. 그들은 전선의 병사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늦쇠제품헌납운동이 한 번 일어나자, 가난한 살림에도 그들은 앞을 다투어 식기를 서로 내어주며, 어떤 집은 딸의 혼수용 늦쇠대야를 아낌없이 헌납했다고 합니다.

또 쌀 절약을 위하여 모내기 때마저도 점심은 각자가 가져 온 도시락으로 때운다든지 생산 확충을 위하여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자지 않고 가마니를 짠다든지, 듣고 있으면 참으로 눈물겨운 행위들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지식인은 어떻습니까. 겨우 최근이야 시국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아직도 시원찮은 점이 있고,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장황한 듯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을 서두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 한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전쟁에서 지는 것만큼 참혹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알면 회의를 할으며 사는 지식인이라도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그만 회의를 던져 버리고, 필승의 신념을 갖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출전 : 鄭飛石, 「知識人」, 『東洋之光』 1942년 7월호, 88~90쪽〉

## 8) 조용만(趙容萬)

### (1) 차간에서 생긴 일

왜 이렇게 볼품없이 보이는 것일까. 반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흰 옷인데, 내지의 도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도인의 흰 옷은 웬지 눈에 뜨이게 볼품없이 보인다. 땀국이 묻어 있고 아무래도 불쌍하게 보인다. 특히 부녀자의 흰 옷이 더 그렇다. 이런 것도 흰 옷을 폐지해야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오사카에서 교토로 가는 전차 속이다. 비가 오는 탓인지, 사람이 그다지 붐비고 있지 않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있어서 서 있는 사람은 없다. 건너편의 좌석 가장 구석 쪽에 이처럼 볼품없는 반도의 흰 옷을 입은 부인이 한 사람 앉아 있다. 커다란 보자기를 안고, 무표정한 얼굴로 멍청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리려 견딜 수가 없다.

“오사카의 전체 인구의 1할이 반도인입니다, 이들 반도인은 지나사변 후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놀랄 만큼 훌륭해져서 여러 가지 충후봉공(銃後奉公)을 해 왔습니다. 고사포를 헌납하거나 국방헌금을 하는 등 당국을 매우 감격시키고 있어요.”

친구는 내가 지루해 할까봐 끊임없이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인 중에도 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10만 엔 대의 부자는 얼마든지 있고, 백만 엔 대의 부자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반도인의 지위도 차차 향상되고 있지요.”

친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50대 안팎의 양복을 입은 남자가 미소를 띠고 우리 쪽을 흘끔흘끔 몰래 보고 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단다라고 하는 눈초리이다. 아무래도 반도인 같다. 머리를 깎은 모양이나, 옷매무새로 보아 장사꾼 같은데, 장사꾼이라면 어쩌면 지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번 사변으로 10만 엔 대의 부자가 된 사람 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친구는 양복신사가 뻥뻥 쳐다보는 게 무안했는지 이야기를 그만두었다. 비도 차차 그치고 있다. 정거장이 가까워질 때마다 차장이 들어와서 곳곳이 부동자세로 공손하게 모자를 벗고 “다음은 무슨 무슨 역입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나갔다.

갑자기 전차가 이상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면서 급정차를 했다. 차 속의 사람들은 크게 흔들렸지만 다행히 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무표정하던 흰옷의 부인도 이번 만큼은 당황해서 차 안을 두리번거렸다. 친구도 재빨리 창을 열고 차 앞뒤를 살폈으나 왜 급정차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무슨 무슨 역입니다”라고 소리를 치던 차장이 얼굴과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허둥지둥 차 안에 나타났다. “지금 전차 고장으로 급정차했습니다만, 승객 여러분 중에 다친 분은 안 계십니까”

얼굴에 기다란 상처가 생겨서 거기에서 피가 푹푹 떨어지고 손등에도 커다란 상처가 보였지만 차장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승객 중에는 물론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다. 차장은 승객 중에 부상자가 없다는 것을 알자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의 피를 닦고 다시 그 손수건으로 손등을 감았다. 승객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차장으로서 훌륭한 태도이다. 그리고 천천히 승객에게 인사를 하더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부상을 증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명함에 시간과 장소와 부상 정도만 써주

시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느 분인가 -” 이러한 경우 승객의 증명이 있으면 회사 쪽에서 치료도 해 주고, 여러모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차장은 누군가 유지가 없을까 하고 차 안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응하려는 기미가 없다. 나쁘게 말하자면 당신 부상을 누가 상관하겠어 하는 태도이다. 실제로 명함을 내어주면, 나중에 호출을 받거나 하여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모두 잠자코 있는 듯하다. 차장은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역시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맞은편의 그 양복신사가 명함을 꺼내면서 일어섰다. “내가 증인이 되어 드리지요. 명함을 드릴 테니 당신이 좋을 대로 쓰십시오.” 차장은 황송해서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명함을 받았다. 잠깐 명함을 보더니 “아, 반도 분이시군요.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며 한층 감격한 듯 그는 반도인인 양복신사에게 거듭 인사를 올렸다. 차 안 승객들의 시선은 모두 이 반도 신사 쪽으로 집중되었다. 신사는 멧쩍은 듯 약간 얼굴을 붉히고 있다. 구석의 흰 옷을 입은 부인도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목을 길게 빼 신사 쪽을 보고 있다. 나는 어쩐지 어깨를 으쓱하며 유쾌해졌다.

(6월 15일)

〈출전 : 趙容萬, 「車中のこと一」, 『東洋之光』 1942년 7월호, 86~88쪽〉

## 9) 조우식(趙宇植, 白川榮二)

### (1) 보도연습보고 1 -연련일기초(演練日記抄)

조선군 보도반원 백천영이(白川榮二)<sup>86)</sup>

○월 ○일

바쁜 편집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것이 바로 내 생활에 맡겨진 동분서주이다. 이 긴장된 우리들의 총후에서의 문필 생활 속에, 지금은 보도의 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련의 날이 왔다.

조선군 보도부의 배려에 따른 보도 연습 참가다.

총후에서 보도의 첨병으로서 우리들은, 항상 잊지 않고, 대동아전쟁 관철의 필승의 신념을 국민에게 고취하고, 승리를 위한 결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필사의 노력을 바쳐 온 것은 미력이라 할지라도 나의 오늘날의 거짓 없는 말이다.

이번이야말로 나는 굳기, 공격 정신의 진수를 체득하고 싶다. 오로지 이 일념만이 나의 짧은 몸속을 분류(奔流)처럼 머문다. 이 커다란 굳지.

군에서 대여 받은 군복과 성장(星章)의 군모를 갖추고, 병기를 갖고 선서식으로 향하는 나의 감정은 오로지 성스럽고 맑게 개어 있다. 천황폐하 근처야말로 죽음을 넘는 무아(無我)가 있고, 일찍이 천황의 부름을 받아 간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예정 시간 14시 30분에는 무장도 넘직한 보도반원 55명이 정렬했다. 선서식이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

86) 조우식(趙宇植)의 창씨명



는 맹세를 말하는 것이다.

참모장 및 보도부장 각하의 열렬한 훈시. 다시금 나는 진지한 감투 정신에 불타 이 영광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언제나 약해 보이는 직무반원(則武班員)[미쓰오(三雄)]도 오늘은 무척이나 혈색이 좋은 아무진 입술이다. 이 불굴의 연성(鍊成)의 결의는, 그에게 새로운 시정신을 낳게 할 것이리라. 경성의 하늘은 얼마나 아름답고 맑은가.

○월 ○일

비장한 결의를 품고 떠날 아침이 왔다. ……(판독불가)…… 그리고 엄숙한 아침이다. 이 아침에는 심한 일상의 피로가 어찌 된 일인지 가볍게 사라져 버렸다. 흥분한 채 잠들지 못하는 내 상념은 위대한 싸움의 들판에 내던져졌고, 국가로 막 달려가려하는 많은 존엄한 상(像)이, 청춘의 과시를 총 앞에 거는 절대적인 혈액이 흐름에 합류하여 맥동한다. 새 군복을 입고, 배낭을 지고, 각반과 혁대를 나라는 약한 몸에 꼭 매는 순간, 이미 나는 일개의 감정에 살아온 총후의 인간은 아니다. 신병(神兵)에 협력하는, 바쳐진 생명이고, 복종에 살아가는 귀일(歸一)된 일본의 군인이다. 이 감정이 나를 포위하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영겁의 흥분은, 더욱더 나를 굳건한 맹세로 묶게 했다.

꺾이지 않는 고고한 야마토 민족의 진지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 우리들 문화에 삶을 바쳐 온 사람은, 이념 속에서 국가의 장엄한 모습을 찾아 왔던 것이다. 대동아전쟁의 히부타(火蓋. 화승총의 화약을 넣는 부분의 덮개-역자)를 끊은 그날부터, 우리들의 사고는 새로운 모든 신념에 의해서 비약했고, ‘몸으로 배우는……’ 것으로 열의가 바뀌게 된 것이다.

싸움은 이론이 아니다. 전투 정신의 진수는 생사를 초극한 경지에 서서, 앞장서서 몸을 바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아의 정신이다.

나는 당시, 원리를 말하는 것보다 싸움의 들판에 설 수 없는 통렬한 비애에 이를 악물었고, 붓을 쥐는 손끝에 원망(願望)을 담아 참된 국민의 숭고한 정신을, 총후가 되더라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 병기창의 문으로 들어가, 미약하나마 받들겠다고 맹서하고 얻은 감격은 지금도 가슴에 스며들어 넘치고 있다. 이번 보도반원 연습 참가는 내게는 육군에서 봉사하는 두 번째 봉공이다. 1년 전, 우연한 병으로 비분을 남긴 채 자리를 물러난 후, 지금까지 나는 철저하게 군인정신을 품고 총후 생활을 해 왔다.

당시 창문(廠門)에 발을 디더놓고, 부동의 자세로 군인 칙유(勅諭)를 제창하는 나는 싸우는 산업전사로서, 군국(君國)에서 생을 향유하는 기쁨을 어떻게 혈액으로 빨아들였을까.

눈알이 움직이는 것은 정혼(精魂)이 깃들여 있지 않은 것이다. 군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는 그 때 이상의 엄격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군인정신의 진수를 발휘해야 한다. 수련을 더욱 실천화해서 주어진 문화의 첨병으로서의 직분을 완수해야 한다. 기상에서 출근준비의 몸가짐을 제한된 시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 서둘러 보았다. 그렇지만 역시 민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순간 나는 이번 연습으로 한 사람의 완전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결의에 불탔다. 그것은 내 거짓 없는 심회(心懷)이다.

‘군기는 군대의 명맥이다’라고 하는 것은 병기창 당시 엄히 들어온 말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한 집합

시간에 늦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궁(神宮) 뒤 참배길(參道)을 달리는 내 마음은 초조할 뿐이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복종의 정신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 도리이(鳥居)<sup>87)</sup> 밑에 땀이 배이고 호흡이 가빠진 나를 멈춰 세우고, 정연하게 진좌(鎮坐)하는 신 앞에 깎듯이 예를 올리는 나는, 거짓 없는 절대적인 무아였다. 말없이 몸에 스미는 삼천년을 흐르시는 고귀한 신의(神意), 이 경건함 …… 현기증이 났다. 발 안쪽 살이 찢릿찌릿 경련이 났다. 그렇지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 나는 나 자신을 시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 아직 아침 안개가 채 가지 않은 경성 거리를 바라보니, 이 거리의 가장 간소한 휴식이 오늘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이 깊고 깊은 후미진 곳에서 있는 나의 끝없는 감정은, 멀리 포격 소리 나는 저쪽에서 교차하고, 바람(願)의 마음은 목적지 ○○평야로 이어졌다.

나는 쓰러질 때까지 군인의 명예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들 보도반원은 경성에서 열차를 탔다. 싸움의 벌판으로 달려가는 병사다.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연성해야 하는 병사다. 누구에게나 감출 수 없는 흥분과 희망의 색이 넘쳐 있다. 지금까지의 나라는 개인을 버리고 무사(無私)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얻은 귀중한 체험을 총후의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감정으로 가슴이 옥죄는 듯하다.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 열차는 평양역에 도착했다. 곧장, 준비된 세 대의 트럭에 나누어 타는 동안, 평양에 사는 젊은 시인 도쿠야마(徳山文伯) 군이 두 사람의 모르는 친구와 함께 마중 나와 주었다. 그 외의, 편지왕래만 했던 우정이, 여기에서 게다가 남다른 사명의 여행을 떠나는 도중에, 만났다는 것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역사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장한 내 모습을 본 그들은 오늘날까지의 내 시와 대조해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순간 나는 더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내리찍는 열기의 거리를 자동차는 달린다. ○○부대에 도착.

우리들을 말없이 맞이하는 초병들의 얼굴과 눈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곧장 총이 건네졌다. 문장(紋章)<sup>88)</sup>이 붙은 소총. 내가 일찍이 체험하지 않았던 경건한 감정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육체처럼 병사에게는 혈액이 된 총. 그것은 늘 잊을 수 없는, 천황폐하의 미천한(醜. しこ. '나'의 낮춤말 - 역자) 방패가 되겠다는 결의와 결부되는 것은 아닐까? 소총을 눈앞에 본 나는 연습 동안 몸으로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을 쓰러뜨리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라는 것과는 별도로, 나에게 총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이 있다. 나는 소총의 성장과정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의 도쿄 시절에 내 청춘은 경주(傾注)되었고, 소총 때문에 병사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하는 나는 심혈을 기울여 기계와 씨름해서,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손잡이를 선반에 걸었던 것이다.

어쩌면 내 피가 이 총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지나간 그 시절이 확실하게 되살아난다. 악전고투하는 전장의 영상이 또렷이 내 생성(生成)의 기억을 보여 준다. 총을 멘 적이 없는 반원들은 열심히 조종을 배우고 있다. 이미 사념(邪念)은 없다. 오로지 병사로의 길로 들어설 뿐이다. 총을 땀다. 탄창을 부착했다.

87) 신사의 입구에 세운 기둥 문.

88) 집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일정한 표시.

이로써 형태만은 어엿한 한 사람의 완전한 병사다. 그렇지만 트럭을 탈 때까지의 가까운 거리에도 어깨의 총이 휘청거리고 있는 반원이 있다. 이것을 바로하지 않으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세 대의 트럭에 나누어 탄다. 연습지로 향한다. 우리들을 태운 목탄 자동화차는 시내를 빠져 나가 전진한다. 거리를 벗어나니 아름다운 논밭이 맹렬한 먼지의 포장도로를 끼고 전개되었다. 반도에서 태어나 반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나. 다만 여행을 통해 걸핍기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나는 새로운 대상을 만날 때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비애가 가슴에 치밀어 올라오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반도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도시에서 자란 향토인. 그것이 나를 끝없이 처량한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의 이 기회는 그런 기분이 조금도 없다. 오로지 어떻게 군규(軍規)의 진수를 체득해야 하는지에만 필사적이다.

두, 세 번의 고장을 되풀이한 뒤 엄숙한 듯이,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산기슭을 차에서 내려 행군한다. 내 생애를 통해 첫 행군이다. 총 무게가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내 어깨에 스며들고 있는 걸까. 턱이 빠질 듯한 고통은 아직 느낄 수 없었다. 전우들은 ……(관독불가)…… 그 발걸음은 때때로 보조를 흐트려 놓는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지하다. 나는 일상적인 단련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20분도 안 되는 가벼운 행군은 병사에게는 겨우 산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산그늘에 놓인 두 마리 말이 조용히 아무런 사념(邪念)도 없이 풀을 뜯는 정경은, 내가 일관하고자 하는 세찬 생성의 욕구와 실로 대척적(對蹠的)인 목가적 서정이다.

대동평야로 향하는 도중, 길을 잃고, 나누어진 2반은 어디로 갔을까? 전우를 생각하는 동료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몇 번이고 내 귓가를 지나간다. “저기다! 왔다.” 그 환성에, 조금 지치려고 했던 동료들도 원기를 되찾고 있었다. (군화 굵에 박힌 - 역자) 쇠징(鐵鎚) 소리에 행군은 계속된다. 무척이나 고요하게 나란히 서 있는 창사(廠舍). 여기가 우리 ○○명 연무(鍊武)의 땅이다. 부대에서 같이 우리들 화차를 타고 온 젊은 견습사관의 친절한 지휘를 받아, 배낭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제1, 2반의 동료들의 안위(安危)라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그와 비슷한 우려의 말이 화제의 중심이 되어, 휴식하는 우리들의 시간을 차지해 간다.

여기에도 병사의 아름다움이 꽃 피워간다. 우리들은 틀림없이 피로해질 것이다. 그들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주어진 창사 내에 모포를 나란히 깔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들은 한 순간만이라도 규율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다. 고도(後藤) 반장을 중심으로 그것이 결의되었다. 실전의 들판에 서는 병사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동의 밤은 조용히 차분하게 깊어간다. 풍부한 정감을 잉태하고 가라앉는 황혼.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찬가를 만나며 한없는 욕구는 불타오른다. 고마운 일이다. 오로지 나는 황국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소리 내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들벌레들이 밤을 영위하며, 세계를 창조할 병기(兵器)의 안녕을 축복하는 것처럼 엇갈려 뒤섞인다. 여기에 합쳐져 반딧불이 난무한다. 들판의 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찬가이다.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우리들은 아직 오지 않은 동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갖고 온 램프 아래에 모여 담배에 불을 붙였다.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의 담배였다. 지금처럼 담배의 달콤함을 맛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어둠을 깨트리며 들려오는 쇠징의 울림……. “돌아왔다!” 모두의 안색이 환하게 밝아졌다. 건강한 점호의 목소리이다. 돌아온 것이다. 다행이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가지를 떠난 지점에서 이미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행군을 계속했다고 한다. 나는 참으로 유감스러웠다. 행군을 해 보고 싶었다.

실제로 총의 무게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무척이나 피곤한 것 같다. 바로 식사이다. 맛있다. 이것이 밥의 달콤함이라는 것이겠지.

이로써 우리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들은 불굴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

전기가 없는 램프 빛 아래에 장비를 풀고, 오늘 하루 주어진 연무(鍊武)가 마침을 축복하며 식판을 밥을 받는 나의 다행스러움이며, 피곤하지만, 웬지 내 혈맥은 흥분된다. 받은 모포에서 나는 여기에서 태어나야 할 새로운 사과의 약동을 상상해 보았다. 전선의 밤의 생활이 내 어린 시상을 풍만하게 한다. 잠을 자자. 눈을 감으니 많은 기억이 현실화되고, 상상이 그것을 꾸민다. 조용한 밤하늘을 향해 들려오는 불법승(佛法僧)의 목소리가 희미한 여수(旅愁)를 돋운다.

○월 ○○일

기분은 상당히 긴장되어 있지만, 역시 익숙하지 않은 행군이 동료들을 피곤하게 한 것 같다. 크게 코 고는 소리가 나의 무언가 알 수 없는 흥분된 신경을 초조하게 한다. 그렇지만 선잠 자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새롭게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잠자는 위대한 황병의 위대한 안색이 아닐까.

6월의 소리를 듣는 청룡고원의 아침은 하얗게 찬 기운을 띠며 밝아온다. 불침번의 ‘기상’ 하는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젊은 제 3반의 대부분은 잠이 깬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제대로 따르고 있다. 이미 우리들은 군대 규율에 살아가는 병사였기 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딱딱한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기상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복종의 정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담배를 좋아하는 나도, 담배를 피고 싶지가 않다.

오늘 이루어지는 창사의 생활은 전투 중에 일어나는 주둔 생활인만큼 나의 정신적인 긴장은 더욱 엄격한 것이다.

호령이 떨어졌다. 순간 지금까지의 조용함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그려진다. 고도 반장의 호령으로 건포 마찰, 약동하는 육체는 붉은 빛으로 바뀐다.

그것이 끝나자 침상의 정돈, 청소이다. 그 신속한 행동은 실로 전격적이다. 그러한 훈련이 불굴의 황병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광장에서 집합 번호 점호가 끝나자, 건강 상태의 보고, 동방예배(東方禮拜), 군인칙유의 봉송이다. 내 병기창 당시의 기억 때문에 눈이 축축해졌다.

아침 행사는 끝났다. 나는 반장님의 명령으로 취사당번을 맡게 되었다. 모두는 아침 이슬이 아름답게 반사하는 뒷산으로 올라간다. 어디에 병사가 아닌 모습이 있을까. 나는 성심을 다해 세심한 주의를 하며 상을 차린다. 이것이 오늘의 싸움을 위한 식사라고 생각하면 한 톨의 밥, 한 방울의 국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

모두는 산에서 돌아왔다. 상처림은 이것으로 괜찮을까. 어머니가 오늘 나의 생장을 기원하는 마음은 이리했을까. 나도 모르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이 소년처럼 그리웠다.

식사가 끝나자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나의 성냥을 서로 양보하는 반원들. 모두가 뿔어내는 연기가 무언가 일본의 고독한 정신을 상징하는 듯, 투명하게 창(廠) 안을 윤회한다. “맛있다!” 정말로 맛있다. 이런 식으로 담배는 피우는 것일까.

이것이 끝나자 훈련이 시작되었다. 오다(多田) 참모의 전령(典令) 강의—그리고 각개 교련, 총검 찌르기 돌격—.

모든 것은 진지하다. 이것은 뜨거운 들판에서 행해졌다. 가르치는 젊은 하사관들도 배우는 반원도 엄격하다. 잠깐의 틈도 없다.

익숙하지 않은 반원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 누구 하나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포연 너머에 놓여 있을 것이다.

나는 좀더 엄격하게 있고 싶었다. 병기창에서의 훈련이 고마웠다. 몸을 쓰러 넘어뜨리고 싶었다. 총을 쏘 채로 쓰러지고 싶었다. 언제나 나는 전장에 설 수 있을까. 무언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반나절의 교련이 끝났다. 금방 무장한 채로 청룡 청년 특별 연성소로 시찰을 간다. 가는 도중에도 전장으로 달리는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오카시마(岡島)도 그렇게 말했다.

◇ 양해의 말. 여행지에서 본고를 정리하던 중에 갑자기 고열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더 잊지 못하고 우선 여기에서 중단한다. 후반은 아무래도 고쳐서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

〈출전 : 白川榮二(朝鮮軍報道班員), 「報道演習報告 1—演練日記抄」, 『文化朝鮮』 제5권 제4호, 1943년 8월, 23~29쪽〉

## (2) 부여 중견청년수련소 방문기(상·하)

### 부여 중견청년수련소 방문기(상)

편집부에서 받은 현지보고로 출발하기 전에 내가 예비지식으로 수련소의 요강을 읽어보니, 그 취지는 현 시국의 추이에 동반하는 중대한 신국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아시아의 융성이라는 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왕성한 기백에 찬 청년 남녀의 활약을 크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야가 함께 그들의 교양 지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까닭이다. 조선총독부 중견청년수련소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기초로 시작된 것이다.

나는 몇 번의 농촌현지보고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오늘날 농촌은 증산 확충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명 수행에 매진하고자 하는 반면,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고통도 역시 크다. 농촌을 지켜야 할 청년의 농촌 이탈 문제가 가장 그 문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인적 양성의 문제에 대한

위정자의 노력은 크다. 반도 농촌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어야 할 중견층 청년에게 고매한 우리 제국의 국가 개념과 확고한 국민적 신념의 파악, 황국 신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해서 내선일체의 성스러운 이상을 갖추고 실현할 확고한 정신력을 연마하여 갖추게 한다. 또한, 자기 고향에서 아직 깨우쳐야 할 농촌 사람들을 이끌고, 청년이 가진 국가적인 사명을 완수함과 더불어, 모든 사회적인 교화운동 등을 솔선해서, 그 지도를 수행하여 청년의 연성도장으로 태어날 것, 이것이 내가 나가는 중견청년수련소다.

특히 이 수련소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정신 연성이며, 견실한 정신성은 지금까지 반도에 가장 깊이 스며들어 있는 구투적(舊套的)인 음울한 일상을 명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반도의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농업이며, 농업은 옛날부터 조선의 기본 산업이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공업 등의 생산기구가 팽창한 현실에서도 이미 농업은 조선 산업의 중추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확고한 불변의 사실이다.

내가 지금 말할 필요도 없지만, 농업에 대한 생산기구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모두 노력하는 정신적 자각을 부여해, 농촌 총력으로 증산확충에 앞장서서 몸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명랑한 농촌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반도 농촌의 과제는 전시 생활에서의 식량증산의 충실을 도모하고, 농가 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긴급하게 부여된 식량 증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부에서도 기본 시설의 문제로 다루어지듯이 반도 농촌 진흥의 큰 안목은 생산물의 개량 증식을 도모하는 것이다.

1. 기후 토질의 적합 여부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적응 작물을 분포할 것
2. 재래 작물의 품종을 개량할 것
3. 유리한 신 작물을 수입하여 재배 보급을 꾀할 것
4. 비료 증시(增施)를 꾀할 것
5. 수리관개 설비를 개선할 것
6. 미간지의 이용을 증진할 것
7. 가축 가금 및 그 제품의 개량 증식을 행할 것
8. 양잠 및 그 외의 부업 장려를 행할 것

등은 그 합리적인 지도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농민의 지식, 국가적 이념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적극적이 되어, 이제 우리 반도 농촌의 자태는,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보국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기운이 왕성해졌고, 국민의 각성과 농업 개량에 대한 열의는 비장함에 가깝고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러한 열의는 물론 열의뿐이어서 농법은 매우 유치하고 농가 경제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다음의 4대 요강을 근본 방침으로 지난해 이것을 발표했고, 극력 실천하게 하여 착착 증가 추세에 있다.

1. 장려사항이 복잡해지지 않게 할 것
2. 실행을 간편하게 해서 비용 지출은 모두 무 또는 소액으로 할 것
3. 효과가 적확할 것
4. 실지(實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할 것

등으로 이 방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지에서는 이 방면의 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나는 이상, 상당히 긴 전제를 말했다. 이 농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나 자신도 알기 어렵지만, 이번엔 주어진 대로 농민의 지도계발, 농촌의 명량화, 전시 하에서의 식량증산 확보에 앞장서서 몸을 바쳐야 할 국민의 자각을 고취할 중견 청년의 양성이야말로 긴급한 일 중의 긴급한 일일 것이다. 드디어 내년으로 다가온 영광의 징병제에 대비하여, 일찍이 없었던 국가에 대한 헌신은 엄격한 연성이 되었고, 불꽃은 세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인적 자원의 요망이 간절한 오늘날, 나아가 가래를 들고, 흙에 잠재해 있는 동양의 풍부한 성신(性神)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불면불휴의 농지 확보를 위한 노력.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반도 농촌의 구투(舊套)함을 일소하여 비약하는 길을 찾아 연성하는 그들의 열의가 장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고매한 국민적 정신을 함양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긍지를 확보하게 하는 내선일체의 성스런 이상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체득하고 실행해야 할 불굴의 정신력을 연성해서, 농촌에서 지도로 삼아야 한다. 이제 조용히 신이 진좌하고 계시고자 하는 역사적 연고의 땅 충남 부여의 일각에 수련도장의 의의는 뜻 깊게 건설되었다. 이것이 내가 지정받은 조선총독부 중견청년 수련장이었다.

그 목적은 사회에서 지도계급에 서야 할 청년제군에게 부동의 우리 국체의 존엄함, 그 본의의 투철함을 분명히 알게 하여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한 견고한 신념을 함양시키고, 황국신민의 긍지를 자각 체득하게 함으로써, 우리 반도 사회에서 지도의 중견인물이 되어야 할 책임을 연성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원하는 바는 농촌에서의 중견청년의 요망이다.

이 도장의 근본적인 지도 정신은 경신존황(敬神尊皇)의 대의에 서서, 충혼의담(忠魂義膽)의 진심(誠)을 가르침으로써 황운(皇運)의 부익(扶翼)에 노력,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고, 자양분으로 야마토(大和) 정신을 일관하여 내선일체의 열매를 거두고, 심신을 수련해서 실질강건의 기풍을 진작하고, 근검역행으로, 각자의 본분을 다할 것 등. 이상과 같은 세 항목의 수행을 위해서 상당히 엄격한 수련이 행해진다.

다음으로 지도의 중요 요소로 삼은 것은,

1. 수련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련소는 수양의 도장으로, 교양의 요체는 성심, 성의 끊임없는 절차탁마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장 수련생은 늘 성훈(聖訓)을 받들고 협심 협력하여 그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

2. 일본 정신의 정화(精華)를 발휘할 것

이것은 신국 일본의 전통으로 신성(神性)을 지키고 명절을 숭상하고, 엄치를 존중하여 부여받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는 옛날부터 배양된 미덕이며, 직분을 가지는 한 신명을 군국(君國)에 바치고 멸사봉공하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일본 정신의 정화이다. 이것을 항상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 3. 선량한 수련소의 전통(所風)을 수립할 것

규율은 국제 훈련생활의 명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규율의 진작에 노력하고, 모든 개인적인 것을 무아하고,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상하 똑같이 이 규율을 엄수하며 상하 서로 공경하고, 좌우 서로 친화하여 총력을 다해 수련소의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

4. 지기의 진작에 애쓰고, 지기(志氣) 왕성하게 나아가 난국을 맞아 기꺼이 그 책임에 임하는 것이다. 인고의 생활을 기쁨의 생활로 하는 데에서 인간의 정신성이 초래하는 뛰어난 정취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

### 5. 내선일체의 완성을 기할 것

그것은 오늘날 가장 긴급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총력연맹이 강령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황국 일본의 정신을 반도의 구석구석에까지 널리 골고루 국민의 심간(心肝)에 투철하게 하여, 반도의 민중 모두 황국신민의 신념에 불타서, 늘 황실을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신사를 존경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소아를 버려, 국가 유구의 대아에 합체하는 숭고지상의 정신을 현현연성(顯現鍊成)하고, 그것을 발양하는 것은 실로 본 연맹 결성의 최초의 동기이며 최후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상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내선일체의 완성을 꾀하는 것이며, 특히 옛날 내선일체의 열매를 현현(顯現)할 부여의 성역은 그 깊은 역사적 사실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고소대국(高所大局)에 착안할 것

오늘날 세계에서 유물사상은 몰락하고, 모든 양상은 전면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구의 문화는 바로 이제 동양의 땅에서 구축(驅逐)되어, 새로운 동양문화가 태어나려고 한다. 이것이 시대를 등에 업은 것은 모두 청년이며, 세계는 이미 우리 일본에서 생을 받은 자의 무대가 되었다. 청년은 시야를 크게 하고, 대승적인 정신성 속에 대국적으로 착안하여, 새로운 문화건설에 앞장서고 몸을 바쳐야 한다.

7. 수련에 신선미를 있게 할 것이며, 진척해서 시국의 어려움을 타파하여 적극적으로 미래의 발전에 착안해서, 쇼와(昭和) 일본이 목표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 신질서를 수립해야 할 고매한 이상을 생각하고 항상 수련에 애쓰며, 신선한 마음가짐으로 이행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8. 고귀한 사명을 자각할 것

가르치는 것의 진체(眞諦)는 인격의 도야에 있으며, 청년교육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인격 도야는 물론 인격에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지도하는 자는 자기의 엄격한 그리고 고귀한 사명을 자각하고, 항상 감격의 정신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자기의 인격 수양에 최대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9. 사랑의 교육에 입각할 것

교육에서 애정이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며, 자연이 주는 신들의 사랑에 의해서 생형화육(生成化育)되는 인간은 모두 이 심원한 신심(神心)이 보여 주시는 사랑의 정신으로 지도하고 지도받아야 한다.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겸허의 미덕이 생겨나는 것이다.



10. 행학불이(行學不二)의 수련에 힘을 쏟을 것

수양은 모름지기 실제 생활에서 체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청년 교육의 근본적 지도 원리의 첫째는 실로 실제 생활의 연성에 있으며, 미어허위(美語虛僞)의 개념적인 이론으로는 수양이 철저 이루어질 수 없다. 근면 고행의 수련에 의해서만 비로소 그 성과는 거두어진다.

11. 시국에 대한 지도

급박해지는 오늘날의 사회 추이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중대한 시국 처리를 위해서 청년이 맡게 된 책무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숭선수범하여 봉공하는 정신을 갖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출전 : 趙宇植 「現地報告 - 夫餘中堅青年修鍊所訪問記(上)」, 『東洋之光』 제5권 제6호, 1943년 7월, 59~63쪽〉

부여 증견청년수련소 방문기(하)

아침이다. 성역(聖域)에서 우러러 받드는 아름다운 아침이다. 정적의 아침 공기를 깨트리며 울리는 웅장한 북소리. 오전 5시 30분이다. 아무도 늦잠 자는 이도 없다. 정연하게 규율에 연성된 그들은 침구를 개고, 세면장으로 달려간다. 일찍이 내가 체험한 야영 체험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시간은 30분 동안 이어진다. 그것이 끝나면 곧장 집합, 점호한다. 가슴을 펴고 아랫배에서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머지않아 새로이 반도의 약동을 고무하는 지도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끝나면 국기 게양, 국기를 주목해서 엄숙하게 노래를 하는 그들의 맹세. ...또 국기에 주목해서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구름 없는 아침 해의 깃발에 아마테라스(天照)

신의 위광을 받드는 국민

이라는 [메이지(明治) - 역재천황이 지은 노래를 봉송하고, 바로 경례. 이어서 궁성요배(宮城遙拜), 황태신궁요배(黃太神宮遙拜), 절여신사요배(折餘神社遙拜)를……, 이배(二拜), 이박수(二拍手), 기원, 배례로 행한다. 대범하고 느긋한 국민으로서의 긍지는 그 누구의 얼굴에도 생생히 떠올라 있었다.

이것으로 아침 점호는 끝나고, 조용히 행좌실(行座室)로 아침 예배를 위해서 들어간다. 이것이 이 수련소의 근본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난국을 맞이하더라도 항상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예배를 하고 문을 연다. 이것은 물론 정좌의 자세로 진행된다. 그것이 끝나면 목욕재계의 장으로 들어간다.

목욕재계(禊, みそぎ)는 정식 순서에 따라서 행해지며, 정좌법(正座法)에 따라서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정좌법에 기령법(奇靈法)을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조용히 앉아 호흡을 하고, 일정한 음을 듣고 그 소리에 동화해서 천지가 하나가 되는 궁리를 하게 되는 고신도(古神道)의 진혼(鎮魂)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것이다. 우주와 음령(音靈)의 교섭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엄숙함 속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많고, 口 혼이 하나의 혼인 것처럼 …… 무아의 경지에서의 오로지, 신도의 진수를 접하려고 하는 욕구만이 조용히 흐르는 것이다.

“대저 우리나라는 천지와 함께 신이 나타나 앉으시다. 그러므로 나라를 신국이라고 하고, 도를 신도라고 한다. 나라라는 것은 천계(千界)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일본이라는 天竺漢土는 달과 별의 무리이다. 그러므로 월씨진단(月氏辰旦)이라고 한다. 해는 태양, 달은 별의 준기(酸氣)이다. 별은 별의 산기이다. 삼광(三光)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와, 삼신(三神) 이것 위에 드리우다. 신이라는 것은 보통의 신이 아니고, 건곤(乾坤) 보다 앞서신 신. 도(道)라는 것은 보통의 도가 아니라, 건곤을 초월한 도를 말한다. 신성(神性)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며, 영체(靈體) 형태 없이 형태를 짓는다. 이것이 즉 불축의 신체(神體)이다. 천지에 존재하여 신이라 하고, 만물에 존재하여 영이라 하고, 사람에게 존재하여 심(心)이라 하니, 마음은 즉 신명(神明)의 함(含), 혼돈의 궁(宮)이다. 혼돈이란 천지음양 나누어지지 않으며 희로애락이 생겨나지 않으며, 모두 이것은 마음의 근본이다. 심이란 일신(一神)의 근본, 일신이란 우리 국상입존(國常立尊)을 말한다. 국상입(國常立)이란 무형의 형태, 무명의 이름, 이를 허무대원존(虛無大元存)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 대원(大元)에서 일대천계(一大千界)를 느끼고, 일심(一心)에서 대천(大千)의 형태를 나눈다. 하물며 삼라만상, 준동함령(蠢動含靈), 미야코(都. 天皇의 궁궐이 있는 곳 - 역사)에서 일신의 바탕으로부터 비롯되고, 천지의 영기를 느끼기에 이르러, 생성이 한이 없다. 마음의 본원은 일신에서 일어나, 나라의 종묘는 만주(萬洲)를 비춘다. 비유하건대 일수(一水)의 덕으로 만품(萬品)의 생을 키우는 것과 같다. 유불(儒佛)의 이경(二敬)이란 일심의 바탕에서 만법의 흐름을 나눈다. 석가 공자 모두 생명을 천지에서 받고, 덕성을 밤낮으로 베푼다. 대저 우리 신명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는 곧, 신의 성(性), 사람은 곧 신의 주인이다. 초한(梵漢)의 양성심지(兩聖心地)를 화광(和光)에 열어 천지의 일신통화(一神通化)를 속세와 동일하게 한다. 대도일원(大道一元)의 원, 천심일관(天心一貫)의 관, 이것은 우리 신도(神道)가 아닐까? 무릇 개벽의 초운종묘(初運宗廟)의 원유(元由),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그 기원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 근본이 우리 신에 있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공경하지 않겠는가.”

이것의 체득이 시급하다. 이것은 「신도오본의(神道五本意)」에 쓰여 있는 것으로, 이것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수련이 여기에서 행해지는 하라이(祓<sup>89</sup>)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라이의 의례가 끝나면, 이배(二拜), 이박수(二拍手)로 기원하고, 신배(神拜)의 말을 아뢰다. 오미카미 아마테라스(天照大神) 신대어명(神大御名<sup>90</sup>)을 연속으로 봉창한다.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황실의 평안태평을 위하여, 2. 국력의 충실, 국위발양을 위해서, 3. 황군 장병의 무운장구, 4. 유현양계의 살아있는 것이 정의로 반성귀순하기 위해서이고, 5. 수련 중의 청결한 행복을 위해서 ‘천조대신’을 봉창하는 것이다. 이 신배사(神拜詞)에 대해서 야마구치 기교(山口起業)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아마테라스는 고천학(高天學<sup>91</sup>)에 계시고 천지사방 신과 사람과 사물을 주재하여 조림(照臨)의 신덕(神德)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고 학신(學神)의 덕을 합쳐 주신다는 뜻에 의한다.

○ 이 신의 신덕을 공경하여 경공숙배하건대 반드시 이 존함을 찬양해야 하며, 만약에 잘못하여 여러 나쁜 생각을 가지면 이 존함을 찬양해야 하며, 만약에 여러 좋은 생각을 가지면 이 존함을 말해야

89) 신에 빌어 죄나 재앙을 정화함, 또는 그 의식.

90) 일본 신화의 태양신으로, 일본 황실의 조상이라 함.

91) ‘高天原(다카마가하라)’의 잘못.

하며, 만약에 여러 행복을 얻으면 이 존함을 찬양해야 하며, 이와 같이 진심으로 이 존함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쁜 생각은 금방 사라져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좋은 생각은 더욱더 커져서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행복은 더욱더 커져서 자손에게 전해져 재액은 길상이 된다. 평생 □□하여 이와 같이 되면 죽은 뒤 반드시 다카마가하라로 돌아가 무한한 복지를 받고 그 덕이 9족에 걸쳐서 함께 □□를 받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신전을 삼가 읽는 것은 실리진요(實理眞要)의 뜻에 도달하는 것을 가지고 제일 □□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주상함으로써, 아마테라스가 계시는 신의 나라에 마음이 통하여 깨끗해지는 것이다. 신을 찬양하는 말의 주상을 마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천황이 만드신 와카를 봉송한다.

우리나라는 신의 후예여 신을 모시는 옛날 관습을 잊지 말아라.

아마테라스 신의 빛이 있어야 우리 일본은 흐려지지 않는 것이다.

과분한 부담이라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는 꺼려하지 말아라.

바쁜 세상에 선다 하더라도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잊지 말아라.

자신을 닦는 길을 배워라.

생업이 쫓겨 시간이 없더라도

낭랑하게 봉송하는 그 여운은 창 너머로 가장 맑게 벽령(碧靈)의 하늘로 올리고, 또한 머지않아, 반도의 구석구석을 맑게 하리라.

봉송이 다 끝나도 눈알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경건함, 아침 예배는 막힘없이 끝났다. 신성에 생명의 다행을 맹세하고, 오늘 해의 천조대신의 윤광(輪光) 하에, 애쓰고자 하는 것을 다 맹세한 것이다. 경례, 폐문, 경례……

행좌실을 나와서 식당으로 향한다. 아무진 입술. ……조용한 발걸음.

그렇지만, 체내에 고이는 피는 아시아의 힘을 자랑한다. 야마토 남자의 의기가 맥박 치는 듯하였다.

식탁을 향해 바로 앉았다. 2번 박수. 합장, 가슴을 펴고 식전의 말이 임혀지고 천진신국신언(天津神國神言) 나누어 풍수희(豐受姬)의 대신님 산토(産土)의 대신(大神)님의 은뢰(恩賴)를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2번 박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젓가락질을 한다. 이것도 연성이다. 하나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식사는 신속하게 끝났다. 그렇지만 음식을 꼭꼭 씹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 정좌 …… 합장 그리고 식후의 낭송이 제창된다.

아침저녁으로 먹을 때마다 풍수(豐受)의

신의 은혜를 생각하라 세상사람

2번 박수. “잘 먹었습니다.” …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집단생활의 미는 유종의 미에 있는 것이다.

신전예배(神前禮拜), 호례(互禮), 아침 행사는 순조롭게 끝났다. 해산이다.

잠깐의 휴식 후에 바로 집합. 학과이다. 정신 수련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것으로 참으로 짧은 아침 행사를 보았을 뿐이다. 수련시간의 몇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어떠한 것인지는 엿볼 수 있었다.

또 다음 예정지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사자 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했다. 곁핥기식 견학이라 하

더라도 너무 바쁜 것이다. 유감이다.

그렇지만 □□□를 바꾸어서, 나 자신 수련의 몸이 되어 엄격한 그리고 능률한 이 수련 생활을 해 보자.

소장대리, 송화(送化)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하고, 남은 시간이라고는 하나 방종함을 사과하며 수련생 제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성역의 한 쪽 구석에서 엄숙하게 간절히 기도했다. 연무의 도장에 경건한 예배를 바치고, 서둘러 다음 여정으로 향하였다.

내선일체 연고의 땅, 부여, 전설의 고장, 부여. 지금은 우리 반도의 새로운 출발을 기도하는 땅이 되리라. 뜨거운 태양의 방사는 투명하게 파란 하늘을 흰히 보이게 한다. 부소산은 내 앞에 명확히 역사를 말해 준다. 내 가슴은 한없이 풍부하게 그득했다.

지도정신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말을 꺼냈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론만에 의한 지도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며,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무언가를 가지지 않고, 입으로만 지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나는 혼자 이 수련소를 떠나며 열차에서 특히 그것을 통절하게 생각한다. 몸으로 난국을 타파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정신력, 이것을 통해 형성된 지도정신, 이것이 진짜인 것이다.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수련소의 하루를 생각해 보니, 거기에서 행해지는 연성의 체득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 새로운 생애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료생의 일기에 쓰인 것처럼.

제1일 ××월 ×일. 나는 커다란 사랑 속에 싸여 있다는 것을 느낀다. 오늘날까지 나는 너무나도 제멋대로였다. 우선 나의 내 가족에 대한 태도는 가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나는 비로소 자신의 …… (판독 불가) …… 있는 것을 직감한다. 부모의 사랑, 아내의 사랑, 형제 친구의 사랑, 그 외에 수많은 사랑에 싸여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랑에 의해서 평화롭게 사시는 폐하의 황공한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여진다.

제4일 12월 8일.

오늘 전 인류는 환호를 지르는 듯했다. 그것은 사람을 하등동물의 진화라고 생각하고 있던 굴욕으로부터 해탈되어 진정한 정신의 품에 안긴 것이다. 아아 기쁘다. 본부 당국에서는 이 한창 비상시에 반도인의 박약한 경제력을 밀어내고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우리들의 기쁨은 크다. 이 커다란 환희로 대동아의 성전을 이기는 것이다.

(원문 그대로)

참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에 감루하는 이 어설픈 말의 여운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미 이 본인은 입소 이전에 잘못된 도덕관, 정신을 포기하고, 신생(新生)을 맹세하고, 바로 부름을 받고자 하는 농촌 자제의 선두에 서서, 삭육쇄신(削肉碎身), 건전한 농촌문화의 확립에 앞장서서 몸을 바칠 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이 이처럼 신선한 탈피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일본정신의 체득, 땅에 드리워진 신성에 눈뜨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요망되는 인적 자원 함양의 선두에 서는 지도자의 근본이념이 아니겠는가. ……

〈출전 : 趙宇植, 「現地報告 - 夫餘中堅青年修鍊所訪問記 (下)」, 『東洋之光』 제5권 제7호, 1943년 8월, 68~72쪽〉

### (3) 선감학원(仙甘學園) 견학기

집 없는 천사의 황민화

인생에서 가장 청순하고 간결, 천진난만해야 할 소년기를 불행하게 순간적인 잘못으로 슬프게도 그 출발을 잘못된 부랑소년들. 너무나도 고독한 어린 생명들.

그것을 사회는 소년의 심리적 나쁜 폐단이라고 간주하고 포기해 왔다. 소년의 방랑성이 선천적인 소년들의 죄라고 하며, 기대해야 할 그들 소년들의 생장은 비애가 많은 음울한 생활 속에서 항상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의 일반적 폐해에 대해서, 급변하는 사회 정세는, 새로이 그들이 매진한 운명의 내일을 위해 — 그 원인을 추구하고, 사랑이 있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선도의 길을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그러진 소년들의 마음, 그것은 발육기의 소년들에게 주어져야 할 진, 선, 미, 자애가 불행히도 결핍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의식적 발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우리들은 그 유전과 환경의 원인에 바탕을 두고, 이 가련한 아이들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지고한 교화의 손을 뻗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못하고 자란 소년에게 존엄한 야마토(大和)<sup>92)</sup>의 마음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고, 바른 생활의 양식을 줌으로써 연성하고, 새로운 일본을 짊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싸우는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결전 하의 충후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마음 있는 인사는 모든 형태로 애정의 손을 펼쳤고, 모르는 사회인의 멸시와 싸워 왔다. 이 숭고한 교화의 힘은 '오사카 수련원'의 '되돌아보는 탑'에 의해서 결실을 맺었고, 우리 반도에서도 영화 '집 없는 천사'에 의해서, 징병제 실시를 앞둔 부모에게 커다란 심리적 전환을 준 '향린원' 에도 유원(悠遠)한 사랑의 교육이 착착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

반도의 부모들이여, 슬픈 바람에 가득 차 저주받은 눈길로 헤매는 부랑 소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 소년들에게 사랑과 자애의 마음을 기울이고, 갱생의 내일, 넘실한 생장의 길을 기대하자.

기복과 부침이 무성한 불우한 운명에 방해받은 미지수의 소년, 그 교화는 정말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들은 오늘날 국가가 요망하는 인적 자원이다.

#### 아름다운 섬의 학원

그래서 기자는 희미한 봄 햇살이 꾸벅꾸벅 졸며 부두를 빛내고 있는 3월 6일 오전 10시, 인천항의 잔교(棧橋)에서 젊은 시인 K군과 함께, 대부(大阜)행 통통 증기선을 타고, 이 국가적 요망의 소리를 우리 반도에서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펜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선감도(仙甘島)로, 선감학원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아름다운 풍광이 그리는 하늘과 섬, 바다의 너무나도 상냥하고 정숙한 서정은, 얼마나 한없는 바람을 채워 주었을까? 그 아름다운 바다의 아름다운 파도에, 흔들리기를 5시간, 대부도에 도착한 것은 예정보다 늦은 실로 2시간 반, 시각은 이미 15시 반이었다.

92) 일본의 판 이름.

배에서 내리자 마침 목선이 도착해 우리들을 기다려 주었다. 안내하는 교사 와다(和田) 씨에 인솔에 따라 대안(對岸)에 내려서자 거기가 선감학원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찾아오는 선감학원은 약 20분 정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와다 씨의 뒤를 따라 산길을 걷는다. 우리들 외에 한 명의 노파가 꾸러미를 머리에 이고 따라 온다. 물어보니, 자기 아들이 학원에 있는데 아파서, 일단 그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한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가 선감학원에 있다. 그런 사실이 나를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했고, 내 심정을 잠시 암울하게 했지만, 이윽고 자신의 임무로 돌아가서 앞을 걷는 와다 씨에게 학원에 대한 예비지식을 묻기 시작했다. 씨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시작해 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촌 전부를 매입해서, 민가를 개조해서 기숙사로 할당해서 연성하고 있습니다. 수용된 원아의 대부분은 가정이 없는 소년으로, 임시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도 방랑하고 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온후한 용모를 가진 씨는 오른쪽 바다에 눈을 주고 석양이 지는 해면의 깊은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의 황혼이다. 그림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장엄한, 자연미의 극치이다. 저기에 만일 목소리가 있다면 무엇을 내게 말하며 속삭일까. 석양에 비치어 불타는 것처럼 정감을 받아, 말하지 않는 무수한 섬들. 만조의 바닷바람에 안긴 채 밤의 정적으로 흔들리는 영겁의 생명. 이 생명을 향해, 인류는 스스로를 길렀고, 젊은 출정병(征夫)의 노랫소리는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여기에 잉태된 마음을 호흡하며, 말하고자 하는 선감학원 아동의 혁신적인 환경, 비약된 생활은 어떻게 아름다운 정감에 스며들게 되었을까? 기쁘게 신명이 나서 까불고 떠들며, 자연 속에 어두운 포악의 날들을 보내고는, 다가올 희망을 작은 가슴에 품고, 수영하고, 이리저리 달리는 발가벗은 소년들.

고귀한 신화를 그리는 해면을 바라보면서 내 꿈은 한없이 꼬리를 끄는 것이었다. 행복한 섬의 아이들, 변모하는 역사여, 누가 여기에 불행을 생각하고, 과거를 되풀이 하고자 하는가?

## 사랑과 근로의 교화

희망이 넘칠 정도로 그득 차서 우리들은 학원이 보이는 언덕을 내려가, 가까이 다가가니 소년 한 무리가 도로 개수에 종사하고 있었다. 정연하게 근로하는 소년들의 얼굴 어딘가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을까.

와다 씨를 따라서 쓰카모토 다다노부(塚本忠信)라는 표찰을 단 조선가옥을 빠져 나가자, 따스한 얼굴의 중년 신사가 강건착실한 그대로의 국민복 차림으로, 방문한 뜻을 마음 좋게 받아주셨다. 조금 조금 한 것 같았지만, 예정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원장 쓰카모토 선생에게 학원의 근본정신을 물으니,

“나는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교육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 명랑한 일상을 갖게 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랑하게 말하는 원장의 말의 여운에 불행하나마 소년들의 내일의 희망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것으로 내 희망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자리를 떠나 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밖으로 나가니, 기쁘게 소년들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깡이를 든 손, 삼을 쥐고 있었는지 가느다란 팔들……에 모자를 벗고 환영해 주었다. 한 순간 내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눈물. 어쩔 수 없이 울었다. 우리들 어딘가에 슬픈 음울한 과거가 있었을까. 일그러진 혼의 새벽이 왔다. 끊임없는 향수는 근로하는 육체와, 이 섬의 최선을 다한 풍광이 감정

을 섭리하고, 맹세하는 연성의 팽이가 이 땅에 새로운 애착의 주거를 영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영리해 보이는 눈길, 민활한 행동 …… 잠시 열심히 보니, 옆에 서 있던 교사가,

“어제부터 막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다. 어제부터 했는데도 너무나 훌륭한 도로이다. 폭이 세 칸(間)은 되리라.

“이 중에도 토목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토목학교를 나온 청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나는 굳이 그것을 묻지 않는다. 그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묵묵히 흙을 운반하는 사람, 삽을 움직이는 사람 …… 볼 때마다 진척되는 공사, 돌아오지 않을 날의 역사를 조각하는 소년의 가슴은 얼마나 복잡할까. 태양도 상당히 기울어왔다. 냉각되고 있는 기온, 섬 특유의 바람이 어깨를 친다. 다감한 소년들의 심정에 요염하도록 아름답게 불어오는 바람이 무언가를 호소해 주는 것일까. 일하는 손은 전혀 쉬지 않는다. 다만, 빠져 있다…… 도로는 개수되어 간다.

얼마 지나서,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소년들의 일하는 손은 멈추었다. 재빨리 도구를 놓고 정렬한다. 점호가 여기저기에서 씩씩하게 저녁 하늘에 올랐고, 담당 교사에 이끌려 기숙사로 향한다.

## 학원의 윤곽

“매일 이런 시간입니까?”

“예, 아침 7시 반에 기상, 조회를 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오전 중에는 학과이고, 오후에는 교련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종료, 5시에 식사를 하고, 7시 반에 취침을 시킵니다.

보신 공사는 1년 내내 계속되고, 작물을 만드는 틈에 경지 정리를 시킵니다. 아마 이것은 5년간은 계속되겠지요. 건설예정은 세 간 도로로 하고 간선도로 1리 반, 지선은 2리 이상으로 완성하고, 녹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로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상기시킬 생각입니다.

그와 동시에 5월중에 일부 교사가 완료, 6십만 원의 설비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수용 아동 수는 275명이고, 원장을 포함하여 직원 17명, 보조 16명, 병원에는 의사가 2명(내과, 외과), 앞으로는 성대(城大)<sup>93)</sup>의 정신과 교실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인이 7명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교화 기준(指準)은, 작업은 군대식으로 하고, 서무과장 이하라 에이이치(井原英一) 씨가 대장을 맡고, 회원을 4중대로 나누고, 또 8소대로 세분해서 교련을 합니다. 교사가 소대장이 되어 아동의 지능에 따라서 교련을 합니다. 다른 얘기가 됩시다만, 학원의 조직은 원장 밑에 총무를 두고, 그 밑에는 작업과, 교화과, 서무과로 분담해서 사무의 원활을 꾀하고, ……(판독불가)…… 원아에게 상완(賞玩)시키는 동시에 애口심을 기르고, 열매를 맺지 않고는 거두지 않도록 교화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되지 않았습시다만, 교사를 네 동 만들고, 앞으로는 1천5백 명을 수용하여 교화시설을 완비함과 더불어 아동들을 즐겁게 하고, 선감도를 세계 유일의 부랑소년 교화의 도장으로 할 생각으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3) 경성제국대학.

직원 자녀에게는 초등학교를 설치하여 자녀 교육을 안심하게 함과 더불어, 마음으로부터 이 사업에 종사하게 할 생각이며, 그를 위해 현재도 산파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의를 알게 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것을 천직으로 삼는 진실한 애정의 교육이 실시되면, 우리들 대망의 부랑소년 교화의 고고한 이상은 개화될 것이다. 좀 더 얘기를 진척시켜 현재의 상황을 물어보니, “현재는 기숙사를 11개로 나누어, 한 기숙사에 25명을 수용하고, 기숙사에는 선생 1명과 보모 1명을 두고, 가정의 사랑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보모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라고 하는 애정의 숭고성을 존중하는 까닭입니다. 원장의 주의를 명랑함을 제일의 뜻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원장을 아버지처럼 우러르며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아의 식량입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배급으로 지급되고, 원아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하루 4홉의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요령을 얻은 교사의 설명은 끝날 줄을 모른다.

## 어머니의 가슴에

여기에서 나는 교사의 후의에 감사하며, 일찍이 ‘오사카 수련원’에서의 이러한 곤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총무 후지이 슈이치(藤井祥一) 씨의 부인에게, 내지와외의 기질적 차이에 대해서 질문의 화살을 돌린다.

“나는 오사카에 8년을 재직했습니다만, 아이의 질은 내지보다 훨씬 좋고 사물에 대한 판단력 등 국어해득이 빠른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질이 좋은 아이가 많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애먹어서 고생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수고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울 뿐입니다.” 겸양을 갖추어 얘기하는 부인의 기품에는, 낯은 부모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풍부한 동양 어머니의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자애가, 강한 일본의 젊은 독수리를 낳고, 용장무쌍한 일본을 쌓아올린 것이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동양의 전통인가. 나는 사랑하는 자모관음님의 고귀한 혼의 얘기를 가슴으로 묘사하고, 마음에 넘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손에 안기어 살아가는 옛날의 “집 없는 천사”들이여, 몸은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여기에서 찾아, 편안하게 길러진다.

눈에 감격의 눈물조차 참으며 말하는 후지이 보모의 생애야말로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주위는 신명나서 까불며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가 높아져, “어머니! 식사입니다.” 라고 알리는 원아의 유창한 국어는 나에게 더욱 격한 가슴의 동요를 주었고, 눈물짓게 하는 일이었다. 자세히 식사를 보고, 주어진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해 정적의 잠자리로 향했고, 평화로운 선감도의 밤이 찾아왔다.

방에 불이 꺼져 어두워졌지만, 내 눈에 어른거리고 있는 것은, 거리를 무서워한 영양<sup>94)</sup>처럼 떨며 헤매던 소년들의 무리와, 이곳에서의 내가 본 근로 작업하는 명석해 보이는 소년들의 눈을 관통하는 미묘한 한 선이었다. 부처님, 일찍 돌아가지 않는 소년의 날에 새로운 생명의 샘을 흐르게 하고, 생애의 좋

94) 산양의 일종, 한국 일본 중국에 분포.



은 마음을 가진 반려자가 되게 하소서. 끝없이 기도는 이어진다. 소년이며 편히 잠드소서.

### 밝게 봉창하는 어제 ‘아사미도리(浅みどり)’<sup>95)</sup>

어제 들은 듯한 사이렌이 선잠 자는 신경을 가르고, 눈을 뜨면 소년들이 기쁘게 신명나서 떠드는 소리는 어제와 다를 바 없다. 침상을 빠져 나와 밖으로 나오니, 서리가 이 마을을 덮고, 아침 해가 반사하는 눈부신 광선은, 희구와 기원으로 가득 찬 소년의 하루를 약속하는 상징이다. 조용히 휴식의 눈을 뜬 것 같은, 해면의 고풍적인 심호흡이 표상하는 심연한 행동은, ‘문화’와는 너무나도 격리된 이 섬을 더욱 고고한 것으로 이끌며, 영원한 향수를 잉태하며 신화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 같다.

창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소년의 눈이 보였으며, 동쪽 산꼭대기를 빠져 나가는 태양에 양손을 들어 심호흡을 하는 소년.

우물에 무리를 지어, 얼굴을 씻는 사람들, 다양한 소년의 행동이 나타내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잠시, 각 기숙사 앞에 소년들은 정렬하여, 운동장을 행해 걸어온다, 한 사람도 열을 이탈하는 자는 없다. 말하는 사람도 없다. 오로지 그들은 행진할 뿐이다.

운동장에는 제 1기숙사가 가장 오른쪽에 서고, 그 다음에 제 2기숙사, 다음으로 제3기숙사 이런 식으로 제 11기숙사까지의 정렬이 끝나면, 교사가 제 1기숙사 옆에 원아들을 향해 선다. 얼마나 신선한 울동이고 그윽한 모임인가.

대장에게 료장(寮長)(기숙사장-역자)으로부터의 인원보고가 있다. 그것이 끝나면 대군 계시는 동쪽 하늘로 방향을 바꾸며, 궁성요배, 황대신궁(皇大神宮)으로 합장배례하는 아주 조용해진 이 순간 — 구원받는 기도가 있고, 다가올 영광의 날을 맹세하는 행위로, 너무나도 눈물겨운 의식.

여기에도 육성되어 가는 반도의 믿음직한 창생이 있었던 것이다. 무수하게 황국의 방패가 되어 산화해 간 방인(防人)<sup>96)</sup>들이여. 젊디젊은 아저씨여, 형들이여, 편히 쉬소서.

우리들의 가슴을 속속들이 스며오는 전통의 피가 머지않아 원수를 칠 날이 올 것이다. 가련한 소년들의 합장하는 가슴은 진동하며, 들리지 않는 공간에 범종의 여운이 조용히 흐르는 것 같다. — 깎듯이 경례하는 허리가 올라가고, 합장한 채로 낭랑하게 봉송하는 ‘아사미도리’의 어제. 청아한 공기를 뚫고 부르는 절미의 기백, 우리 민족의 풍요로운 혈통의 신비. 고귀한 결의의 토로보다 높은 야마토 민족의 신념, 개인의 모든 것을 아득히 극복한 정신 전체로 향하고자 하는 영원한 법칙의 맹세, ……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하나가 되어 노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동아의 새로운 생성을 짚어지고자 하는 과감한 의지와 사신(捨身)의 싸이, 소년의 가슴 깊숙이 새겨져 간다. 세계의 하늘에 올려 퍼지라고 부르는 어제가 공손하게 끝나면, 훈화가 행해지고 라디오 체조가 시작된다. —

하나하나에 전혀 무리도 없는 동작. 의기발랄한 육체의 약동. 오늘 그들은 황국신민으로서의 갱생의

95) 메이지(明治)일왕이 만든 ‘천(天)’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말함.

96) 일본어로 사키모리. 옛날에 간토(關東)지방에서 피견되어 츠쿠시(筑紫)·이키(壱岐)·쓰시마(對馬) 등의 요지를 수비하던 병사(3년마다 교대되었음).

모습으로 바뀌었다.

체조하는 손이 내려지면 각 료장이 선두가 되어 기숙사로 향한다. 청신한 얼굴, 원기 가득한 진군, 이것을 보고 있는 나는 너무나도 변모한 그들의 일상이 불러올 한없는 감정 속에 스스로를 몰입시킬 정도였다.

### 안녕히 계십시오! 섬의 학원

다만, 이때에 나에게 위구심을 품게 한 것은 그들의 피부색이었다. 부랑아 특유의 피부병이 많은 것, 몸의 상처가 대단히 회복되기 어려운 것은, 어제 병원 선생으로부터 들었던 바이지만,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들의 피부는 약간 소년다운 광채가 결여되어 있지는 않을까.

지금은 결전으로 일억 모두가 이를 악물어 때다. 조의조식(粗衣粗食)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곤란결핍을 참는 사신의 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다만, 상대가 발육기의 소년일 경우, 그 왕성한 영양흡수에 호응하는 얼마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까.

물론, 일개 견학자인 나의 이런 위구심은, 3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난 후의 이들 소년들의 피부색이 훌륭하게 해소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경기도 당국이 거비(巨費)를 투자해 착수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람을 얻고, 쓰카모토 원장 이하 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멸사의 헌신적 지도로 임하면, 소년들의 몸과 마음은 지고의 사랑을 받아 쑥쑥 자라나 튼튼한 (천황의) 부르심을 받은 신체를 만들 것. 정말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짓는 쓰카모토 씨와, “오늘도 원아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아침 식사를 같이하고, 식탁을 물러가며 학원을 일순하니, 이미 원아들도 식사를 마친 듯하다. 여기저기의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교사(敎士)를 붙잡아, “공부는 언제부터입니까?” 하고 물으니, “낮까지입니다. 오후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은 어제와 같은 도로개수이다. 라고 하니 나는 이것으로 학원 생활의 온하루를 본 셈이다.

차갑게 다가오는 호흡. 위대한 바다가 이 학원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숭고한 바다와 같은 교화 속에, 선감학원을 남기고 간다. 안녕히 계십시오. 갱생을 맹세하는 다가올 날의 정부(征夫)들이여. 인적 자원이 절실한 국가의 요망에, 옥체들도 이제 진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대답해 주세요.

〈출전 : 趙宇植, 「仙甘學園見學記」, 『文化朝鮮』 1943년 4월호, 16~21쪽〉

### (4) 유성 농민도량을 보다

#### 유성(儒城)으로

나는 공무가 있어서 총후의 식량을 짊어지고 묵묵히 쟁기질을 하는 농민의 생활을 기록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다. 가야 할 곳은 충남의 유성 농민도장. 나는 유성은 처음이다.

우선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선배 야마베 민타로(山部珉太郎) 씨의 호남지방 안내기를 펴보니, “유성

온천 — 대전에서 공주 가도를 북서쪽으로 8킬로미터, 수답이 펼쳐진 평야에 있는 온천장. 약 1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 신구(新舊) 양 온천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성천이 흐르며 서쪽 계룡산의 아름다운 자태가 보이는 좋은 환경. 대전과 가깝고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전 통과객의 이용이 많다”라고 적혀 있다.

이 지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나는 사진반의 H씨와 함께 열차를 탔다.

대전에서 덜덜덜덜 승합차를 타고 유성에 도착하니 아름다운 계룡연봉(鷄龍連峰)이 그림처럼 이어져 그 꼬리를 끌고 있었고, 맑은 자연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겪었던 화도(畫徒) 생활을 상기시켰다. 작고 아름다운 마을. 많은 여관이 처마를 나란히 하고 있는 조용한 온천 마을. 여기에서 승합차를 버리고 배운 대로, 남쪽으로 약 20분간, 정연하고 믿음직하게 자라는 신록의 논밭을 벗어나자 예전 내가 내지 생활에서 보고 들었던 일본식 지붕이 보인다. 우리들이 찾아 온 이곳은 오늘날의 국가요청에 부응하여 늙음하고 젊은 청춘을 흠에 바치고 살아가는 반도 농촌청년의 연성(練成)도장이다.

발걸음을 서둘러 도장 구역에 들어가니, 묵묵히 일에 열심인 청년들. 그들이 입은 복장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지만 각반을 차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미 그들은 신농(神農)의 모습에 다가가고 있고, 내일의 반도 농촌을 짊어질 농병(農兵)들이었다.

이 한없이 믿음직한 정경은 틀림없이 비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힘차게 쟁기를 켜 그들의 손이 대지 깊이 파 내려가는 한, 식량부족의 불안, 생산보국의 보물은 그저 착오만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항상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의 사고는 흠의 향기에 젖어들어 풍요롭게 부풀어 오르고, 청춘은 길러질 것이다.

이미 우리들 총후에는 일말의 불안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많은 농촌의 자각과 참가가 필요할 뿐이다.

눈물겨울 정도로 보은의 길에 매진하는 그들의 힘든 노동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내일을 약속하는 빛나는 탈피의 상징이다.

내 가슴은 풍만한 희열에 소년처럼 떨려, 피곤한 내 몸도 잊고 서둘러 젊은 교도(敎導)에게 이곳을 찾은 뜻을 알리니, 조용히 응대해 주었다. 젊은 마쓰바(松葉) 씨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은,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인이다. 것처럼 땅에 생명을 바치고 살다가 쓰러지는 것이 농민의 유일한 혼이고, 이것을 자연과의 약속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농민의 법칙이다.

## 도장의 윤곽

마쓰바 씨는 사무실에서 차를 나오면서 말했다.

이곳은 1934년 6월 1일 설립해서 같은 해 7월 22일 개장되었다. 현재의 위치는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면 구암리. 설립 목적은 물론 그 이름 그대로 농민의 연성도장이고, 농촌의 우수한 청년을 선발 입장시켜 농가에서의 합리적 영농 및 황국신민의 완전 생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견실유위(堅實有爲)한 중견인물을 양성하여 인습에서의 탈피와 비약을 약속하는 것이다. 도장에 수용되는 도장생은 모두 약식으로 지어 놓은 농사(農畝)에서 5명을 한 가족으로 단위를 만든다. 동서 각 6호의 농사, 함께

12호의 정연한 농촌부락을 구성하여 실제 생활의 훈련을 통해 새로운 연성을 체험하고, 내일을 대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훈련조직 속에 있으며, 모두 생활은 농사에서 이루어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숙식을 함께 하는 일상문화교도의 눈물겨운 지도 하에, 그들의 정신생활과 직업에로의 농밀한 실험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획의 수립, 근로호애(勤勞好愛), 청결 정돈, 미화윤화(美化潤化), 명랑화, 시설완비, 준비 철저, 공지(空地) 이용 등에 대해서, 먼저 개선의 길을 개척해 간다.

그 외에 그들은 체력증강을 위해서 스모(相撲), 흙부대 짚어지기, 맨몸 작업, 빗속 작업, 지게 경쟁, 등산, 천렵 등을 총해 체격을 키우고 힘을 기른다. 기백을 왕성하게 하는 운동을 행하고, 수양면학(修養勉學)을 도모하여 청경우독(晴耕雨讀)을 원칙으로, 최소시간에 최다의 활용에 의한 연수의 습관을 길들인다. 이러한 그들은 또한 농가의 실정에 맞추어서, 요일을 없애거나, 혹은 영농 상황에 따라 축제일이라도 작업은 계속된다.

각 농사(農舍)에 가장(家長), 전답작(田畠作), 채소, 사육 시설 담당자를 두고, 가장을 중심으로 협조하며 각각 담당자 책임이 부여되는 토지, 가축시설 등을 통해 합리적 생산 확충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일가(一家)의 경영에 있어 책임생산에 노력하면서, 농사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인습에서 비롯되는 농촌의 결점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여 엄격한 연성이 실시된다.

그들은 이 정신을 철저하게 체득하기 위해 장내에 다이마(大麻) 봉사전(奉祀典)을 건립하고 각 농사에는 가미다나(神棚)<sup>97)</sup>를 설치하여 아침저녁으로 예배하며 황국신민으로서의 국체명징(國體明徵), 경신숭조(敬神崇祖), 감사보은(感謝報恩),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신생활을 수련한다. 그리고 봉사전 앞에서 봄의 기년사이(祈年祭)<sup>98)</sup>, 가을의 사쇼쿠사이(社稷祭)<sup>99)</sup> 그 외 농민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경신(敬神)을 함양한다. 또한 매월 1일, 15일은 각 농사 당면이 봉사전 앞에 첫 이삭을 바치고, 한없는 감사의 제(祭)를 드린다. 17일은 반드시 강당에 제단을 설치해서, 직원 생도 일동의 조상의 영혼을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제를 지낸다. 또한 하루는 축일(祝日)로 정하여 그 달에 태어난 생도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한다.

다음으로 그들의 직업에 대한 정신은 독농가(篤農家)로서 이러한 영농 생활을 실천하게 하며, 합리적 유축영농(有畜營農), 재배 기술의 연마, 토지 이용개선 등을 통해 최고도의 생산에 노력하면서 농민의 행동을 통해 농민도(農民道)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수련은 생활의 쇄신에 대해서도 경주되며, 책임생산, 군수품의 공출, 폐품의 이용후생, □□□□, 정례회의 등을 실시한다. 또한 통제 경제에 익숙하게 하며, 또 방공방첩, 출정 유가족 원호, 근로보국 등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이 계속되고, 시국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 고갈된 농촌에 대한 오락지도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한 주의가 이루어지고, □□□, 민요, 운동회, 품평회, 문고, 영화, 가미시바이(紙芝居)<sup>100)</sup>, 라디오, 축음기, 시음(詩吟), 원예 등을 실천함으로써 농촌의 오락, 위안, 문화 방면에도 그들의 지도 정신은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97) 집안에 신을 모셔놓은 감실(龕室).

98) 음력 2월4일에 신사, 국가기관 등에서 오곡풍요를 기원하는 의식.

99) 토지신과 곡식에게 지내는 의식.

100) 그림 연극,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장의 그림으로 구성하여 한 장씩 설명하면서 구경시킴.

## 정화(淨化)된 지역

그들 도장생은 엄격한 연성 속에 아무런 불만도 없다. 그저 마음 넉넉하게 6개월간의 생활을 감사에 넘치며 수료하는 것이었다. 봄 햇살이 계룡산의 기복(起伏)을 조용히 그림자로 만들며 부조(浮彫)해 가는 장대한 모습은 멀리 역사의 원천으로 수 놓아가는 아름다운 향연일 것이다.

나는 다이마 봉사전에 마음으로부터 그들 젊은 도장생의 건강을 기도하고, 그들 정도(征途)의 날에 새로운 옥토의 열매를 드리워주실 것을 염원한 후, 농사(農畝)를 한번 둘러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농구를 손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종래 반도 농촌에서 볼 수 있던 비통한 표정이나 음울한 분위기는 누구에게도 없었다. 전체를 일관하는 것은 간소하고 명랑하며 신선하는 것이었다. 농촌 재편성의 문제가 식자 사이에 제기되는 오늘날, 이러한 도장생의 너무나도 선명한 탈피(脫皮)작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독자 제현은 나 이상으로 그 답을 말할 수 있을까? 농사의 구조는 12호의 농사가 모두 다른 재료로 되어 있고, 구사(驅使)되며, 토지의 높이, 산악지대 평지들의 특이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이 도장에 수용된 그들은 다각적인 영농에 대해서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실로 평화롭고 축복받은 지역. 이 땅에서 이루어진 직원 생도 일체의 헌신은 머지않아 그 열매를 맺게 되며, 농민 연성에서 더욱 고도의 증산 영농으로 비약하는 날도 이미 눈앞에 두고 있다. 수려한 산맥에 둘러싸인, 부드러운 옥토는 내일을 약속하고, 신생의 노래가 막 흘러내린 논밭에 저녁 어둠의 정적이 날개를 편다. 영겁의 자연의 습성이 영위하는 동안에, 인간은 생명의 희열을 가지며, 취락의 비애를 잉태하고 역사를 엮어 간다.

나는 한없는 토지의 냄새에 취해, 유성농민도장을 뒤로 하고 숙소인 유성호텔로 돌아갔다.

(유성으로의 여행) 초

〈출전 : 趙宇植 「儒城農民道場を見る」, 『東洋之光』 1943년 6월호, 50~53쪽〉

## (5) 흙에 기도하고 단련하는 농민혼 - 유성 농민도량 견학기

### 정화된 축복의 땅

연선(連線)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산악 고유의 격조를 갖추었으며, 우뚝 솟은 고풍스런 역사의 성지대(聖地帶) 계룡산맥의 녹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반도의 곡창으로서의 결전적 책무를 짊어지고, 완만하게 펼쳐지는 평야, 평야…….

이 일각에 자그마한 농사(農畝)<sup>101)</sup>를 조영하며, 새로운 반도 농촌의 힘찬 내일을 약속하고, 엄격한 일상 속에 옥토에 대한 사랑과 열기를 파 들어가는 곳.

오랜 전통으로 성장했고, 민족의 피의 흐름에 영위되어 온 신의 나라, 농업국가로서의 우리 국체가 가지는 근본이념의 비길 데 없는 발전을 위해서 성전 완수의 원천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증산의 큰

101) 간단한 농작물을 처리하기 위한 집.

걸음을 내디디며 깽이를 흔드는 농부들.

우리나라 전체는 신성(神性)에 의해서 시작되고 신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민족의 육체이고 눈꺼풀이다.

“대저 우리나라는 천지와 함께 신이 나타나 앉으시다. 그러므로 나라를 신국이라고 하고, 도를 신도라고 한다. 나라라는 것은 천계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일본이라는 천축한토(天竺漢土)는 달과 별의 무리(衆)이다. 그러므로 원씨진단(月氏辰旦)이라고 한다. 해는 태양, 달은 별의 준기(酸氣)이다. 별은 별의 산기이다. 삼광(三光)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와, 삼신(三神) 이것 위에 드리우다. 신이라는 것은 보통의 신이 아니고, 건곤보다 앞서는 신. 도라는 것은 보통의 도가 아니라, 건곤을 초월한 도를 말한다. 신성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며, 영체 형태 없이 형태를 짓는다. 이것이 즉 불측의 신체이다. (이하 생략)”

이러한 신도(神道)를 몸으로 행하는 자. 땅에 그 생을 받아, 모든 것을 그 신령의 땅. 풍요로운 혼의 고향에 바치고, 노동하는 육체에 한없는 약동과 기쁨을 담아 쉽없이 단련하고, 우주의 근원에 내재하는 영원한 애무 속에 신성한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묵묵히 땅의 신체(神體)에 깽이를 흔들며 오늘도 내일도 청정한 마음의 생성의 기쁨, 자연의 절대적인 존엄에 생명의 염주를 열매 맺게 하는 젊은 농민의 모습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도회인에게 어떻게 자연의 신성을 가르치고, 끝없이 생성하는 지층에 잠재하는 언령(言靈)의 만법에 비추어 어떻게 연성(鍊成)의 진수를 점시(點示)할 것인가.

가만히 나는 청년 연성 갈양(渴仰)의 오늘의 목소리를, 우주 신명이 수적(垂迹)<sup>102</sup>하시는데 땅에서 우러르고자 했고, 조용히 드리우는 화광의 광명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농후한 신록의 풍물이 형성되는 공주가도를 덜컹덜컹 흔들리며, 온화한 풍토가 항상 아취 있는 사적을 점채(點彩)하며 전개되고, 호남의 여정을 한없이 매력 넘치게 하는 수답이 펼쳐진 평야를, 대전에서 승합자동차로 북서 방향으로 8킬로미터, 약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유성천의 흐름이 열린 평야를 꾸미고, 또 지류로 그 여운을 남기는 곳.

시골치고는 너무나 훌륭한 양옥의 온천 호텔, 그것을 중심으로 단층집 여관이 즐비한, 그래서 승합자동차를 포기하자, 눈앞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봄 버드나무가 한없이 계절의 감상을 부조하고, 연한 서정이 가슴 부풀게 ……(판독불가)…… 밭의 아름다운 조망을 안고, 전방 조용한 산 표면의 치마를 □□한 전통의 산 계룡산이 가로지르고 있다. 그 당당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니, 유성 거리에서 약 20분 지점에, 아주 고즈넉한 내지 풍의 농가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정연하게 이어져 있다.

여기가 내 신사(神土)의 신탁(神託)을 듣고자 하는 곳, 옥토를 단련하는 농민도장, 유성 농촌훈련소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민족의 피가 청순하게 우주의 법칙, 자연의 신성을 향해 단련되었고, 신국으로의 귀일이 눈을 떴고, 오랜 습성이 비약을 거부한 미개민의 늪늪한 탈피로, 젊은 성장을 걸고 수련하는 농촌청년들. 그들은 이미 단순한 토착민이 아니다. 동방의 약속된 신농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지역이야말로 반도의 내일을 위해서 정화되어야 하고 향수되어야 할 축복의 땅이 아니고 무엇이라.

102) 부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신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일.

## 내지 새벽에 범주한다

도장 입구에 선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반도의 농촌에 이렇게 간소한 내지 풍의 농법을 영위한 곳이 있었을까.

반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고, 소년부터 청년의 날을 내지에서 길러진 나에게 ……(판독불가)…… 아름답게 되살아나는 그리운 풍습이여. 생활에 쫓겨 자신을 잊고 간소함을 잊고 있던 반도 농가로의 얼마나 커다란 범위인가. 명확하게 신생의 노래를 부르려고 할 것 같은 논밭에는, 분담 기숙사의 명찰도 그윽하게 줄을 맞추어, 그 성과에 힘쓰고 있는 것 같다. 양쪽의 녹색에 호흡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을 내디디는 내 마음은 풍만한 시정에 부풀어 오른다.

여기저기 논밭에서 깽이를 다루는 청년들의 모습이 보인다. 다리에는 각반을 두르고, “언제 부름을 받아 가게 돼도” 그 기백이야말로 일찍이 반도 농촌에 없었던 결의이다. 흙으로 둘러싸여 과학과 문화에서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조국의 내일을 짊어질 그들은 부름을 받아 갈 날을 기다리는 마음 절실할 것이다. 우리 반도에도 신농이 태어날 날이 온 것이다. 선발된 청년들이 여기에서 농가에서의 합리적 영농과 황국신민으로서의 완전한 생활을, 실지훈련으로 수련하는 것이다. 그들은 건전한 정신생활을 영위하고, 자연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독농가로의 미래를 향해서 영농생활을 실천해 간다. 그들의 정진은 농가의 실상에 맞춰 일요일, 휴일 할 것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각 기숙사에는 가장, 전담작, 채소, 사육시설의 담당자를 두고, 가장을 중심으로 주어진 책임을 협의, 분담된 토지, 가축, ……(판독불가)……의 수립을 목표로 해서 일가 경영을 맡고, 책임생산에 힘쓴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져 온 농촌경영의 결점을, 면밀하게 연구 개선하는 것이다.

계획의 수립, 근로호애, 청결정돈, 미화운화, 명랑화, 시설완비, 준비의 철저, 공지 이용 등에 대해서 보도 여러분의 멸사정신에 개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생활하는, 이러한 질서 있는 연성이 이 땅에 행해졌고, 엄격한 정진이 내일의 여 명을 약속하는 것이다.

온상(苗床)처럼 기름종이를 붙인 낮은 창고로 물병을 운반하는 청년, 지계를 지고 ……(판독불가)…… 밝은 예지의 눈길이 빛나는 것이다.

정무총감 각하의 기념수가 있고, 유성 농민도장 간판이 걸린 뜰로 오자, 두, 세 명의 도장 사람이 무척이나 엄숙하게 경례를 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손님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일찍이 없는 경험이었다. 반도 농촌을 내가 찾았을 때는, 늘 촌락민은 응시와 경원의 눈길을 던졌고, 알 수 없는 얼굴을 둘러면서 멀리했던 것이다. 그것이 거짓 없는 고백이다.

동양은 도덕과 예의의 나라가 아니었는가. 아무리 미지의 이방인이 찾아와도 자기 마을로 온 것이 아닌가. 한번 흘깃 목례 정도는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슬픈 내 소망이 오늘은 보상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은?”은 하고 물으니,

“지금 곧 불러 오겠습니다.” 선명한 ‘국어’<sup>103)</sup>이다.

기다리기를 잠시, 젊은 선생님이 오셨다.

103) 일본어.

“잘 오셨습니다.”

정연하게 정리된 사무실로 안내를 받고 마쓰바(松葉) 씨와 마주 앉아 방문한 뜻을 알리니, 그 얼굴에는 농민으로서의 긍지가 주옥처럼 맑고 얹전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다.

### 옥토에 사랑과 열을 바치고 - □□마쓰바 씨에게 듣다

실로 소박한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는 정열이 말없이 빛나는 눈. 옥토의 신령에 청춘을 걸고, 몸을 불사르는 봉사의 꿩이, 영원히 가책없는 사신(捨身)의 열기가, 적토가 스며든 작업복에서 조용히 솟구쳐 오르는 듯한 검손 그 자체의 약관의 선비. 마쓰바 씨의 말은 개인으로서의 자아가 없는, 토지에로의 밀착에 싸여, 자연의 행복과 안정에 길러진 것이리라. “지금은 올해 말까지 보도(선생) 분도 적어서, 현재는 두 명입니다. 그 두 사람이 보도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의 일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상은 일출 30분전이며 각자의 것을 정리하고, 청소작업을 하고, 아침 영기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15분간 ‘작업을 쉬라’는 종이 올리면 5분간 세면대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점호를 하고, 일직 선생님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이마(大麻)봉재전을 배례하고, 궁성요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의 인사가 있고, 정신훈화를 행하고, 국민체조를 합니다만, 특히 농민생활에 필요한 소위 건민운동을 훈련합니다. 이것으로 조회가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식전(食前)의 맹세를 말합니다.

이 음식이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신불의 가호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깊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을 과분하게 생각하고, 맛없다고 꺼리는 일 없고, 맛있다고 하며 욕심 부리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의 말을 나에게 하는 그의 용모는 이미 세속을 벗어난 훌륭한 자비에 넘치고, 소리 내어 외는 그 여운은 우수한 혼의 골짜기에 울리는 리그베다<sup>104)</sup>의 시 구절처럼 영원에 가까운 듯하다.

전혀 과장이 아니다. 도회지에서 자라난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불가사의한 감정이다.

조용히 눈을 뜨고

“이런 맹세가 끝나면 비로소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식사 후의 맹세를 바칩니다. 이것은 항상 농민으로서 가져야 할 토지에 대한 애착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식사마다 한자 지도를 행하고, 한 번 식사 때마다 2자, 1기(2월~12월, 11개월간) 2,000자 이상의 문자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주안점은 국어 상용에 따른 황민화이며, 연성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문자를 익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농민도장으로서 특히 선생님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우선 살아있는 훈련을 행하는 것으로 자급자족을 도모합니다. 현재는 목표를 훨씬 뛰어 넘었고, 올해도 여섯 단계에 3천 7백 엔의 예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에서 유형으로의 진발정신(進發精

104) Rig-Veda, 고대 인도 브라만교 성전의 하나.



神)을 함양하고, 토지에 친숙하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무진장의 토지에 정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과 열정을 집중시켜서 온힘을 기울이고, 최소의 토지를 이용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농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날 요망되는 자연 자원개발에 협력하는 실로 능률한 말일 것이다. 한 평 원예조차도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여. 자연의 풍요로운 토지에 한 알맹이의 전쟁완수를 위한 양식을 뿌리자. 농민은 흙에 살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 좋은 것, 더욱 능률한 것을 향해서 매진하는 도장생 제군이 묵묵히 일손을 계속 놓지 않고 연성하는 모습이야말로, 구투적(舊套的)인 습성의 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병(健兵)으로서 내일을 맹세하는 것일 게다.

흙에 기도하고 단련하는 농민 혼 —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흙의 아름다운 향기가 구현되는 것이고, 육체가 되고, 생성의 반려가 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젊은 반도의 농촌 청년들은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에 말하는 그의 말은 끝없는 애토의 불꽃에 싸인 듯, 열을 내뿜는 창박을 흐르는 장엄한 전원은 유리창에 반영되고, 현란한 미래의 꿈이 영상처럼 하늘을 서쪽으로 향해 변모해 간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이번에는 기숙사를 한번 보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무실을 나온 우리들은 맨 앞의 갱생실로 향했다. 농촌 같지 않은 너무나도 청결하고 아름다운 농사(農舍)이다. 들어온 우리들을 향해 부동의 자세로 침묵하는 청년들의 연성된 율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가 있다.

#### 〈고도국방국가 체제 확립〉

- 사상의 통일
- 국민 총훈련
- 생산력 확충

갱생 애국반 반장 청천원식(靑川原植)

금본영환(金本永欽)

평소월성(平沼月星)

금본백석(金木白石)

유호매(柳昊梅)

#### 〈실천요항〉

1. 일본정신의 양양
2. 내선일체의 완성
3. 직역봉공의 철저
4. 생활 신체제의 확립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내일은 흔들림 없는 반도 농촌의 비약일까!

“지금은 농사를 1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각각 농사마다 특징과 장점을 갖게 하고, 토지와 어울리는 건축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중한 설명에 따르면, 그 풍토가 갖는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 평지, 산협 지대에서의 농사의 개조를 주안으로 한 것이었다.

농사는 갱생, 진흥, 자력, 봉사, 공동, 근검, 현농, 독농, 정농, 존농, 권농, 애농이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농사에 사는 청년들은 그 농사의 이름을 걸고 팽이를 흔들며, 노력하는 것이다. 도장을 둘러본 뒤, 나의 상상이 실현된 기쁨은 토지의 신성에 조용한 기도로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 전원의 저녁 어둠은 새로운 반도의 신생을 약속하는 이 아름다운 일대를 에워싸며 역사로 동화해 간다. 유성의 온천 호텔에서 오늘의 여정을 회상하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기억을 탐내는 것일까.

### 땅으로의 보은을 맹세하며

마쓰바 씨로부터 빌린 연혁지(更生畝)를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막히는 것을 느꼈고, 엄격한 신성의 옥토에 피를 스며들게 하며 수련한 도장생의 맹세의 구호는, 내 각오를 존엄한 경지로 이끌었으며, 반도의 하늘에 여 명의 태양이 되어 울리는 것 같다.

1. 11월 19일, 계룡산의 장작을 운반하러 갔지만 장작은 높은 산 정상에 있었고 우리들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장작 한 짐을 나르며 비탈길 험한 곳을 아래 길까지 걷는데 몸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피곤한 몸으로 어둠 속을 걸어서 오후 8시에 귀소하여 몸이 괴로운 것을 생각하며 장작의 고마움을 느꼈다.

1. 2월 28일, 사랑하는 부모 슬하를 떠나 심신 단련을 하고 탁월한 기술을 익히고, 일가의 갱생뿐 아니라, 나아가 마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며 총후에서의 희망에 불타 입소한 갱생사.

1. 가뭄을 극복할 수로를 팠다. 6월 초부터 수로를 파기 시작해서, 우리들은 어떤 날은 밤을 새우고 어떤 날은 비를 맞으면서 팠다. 그렇게 판 수로는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 팠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1. 파종한 야채는 발아도 하지 않고, 가뭄은 계속되고 유성 온천장(1킬로미터)에서 물을 운반해서 관수(灌水)로 하고, 가을 채소도 예년에 못지 않게 길러내는 데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1. 오늘은 한왕에서 지은 벼 운반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운반했지만, 시간 때문에 3분의 2밖에 운반하지 못했다. 한층 분발하여 밤늦게까지 목표대로 달성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되었다. 일은 해야 하기에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날까지 몸이 피곤했다.

1. 10월 14일 이 날처럼 우리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격에 젖은 날은 없었다. 황궁하옵게도 천황폐하의 명령을 받아, 1개월 전부터 반도를 시찰하고 계시는 오구라(小倉) 시종님은 우리들의 농민도장을 보셨다. 우리들이 시종님을 만날 수 있게 것도 우리들이 유성농민도장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격과 감투로 한번 □□했다.

1. 갱생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취사 당번이 되어, 취사를 체험하며,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을 통절하게 느꼈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어머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고생하신 것을 충분히 알게 되어 우리 갱생사 전원은 각자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충심으로 사죄하면서 자신도 무르게 눈물을

흘렸다.

1. 계사(鷄舍) = 현 농촌의 자급자족을 알리는 데 가장 어울리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의 모델. 벽돌 쌓기로써 운동장 밖은 옥수수를 사용해서 십전 미만으로 완성되었다. 흙이기(모이 주는 도구-역자)는 석유통(石油罐)을 네 등분해서 사용한다. 출입구에 음악당이라고 걸은 것은 닭소리를 유일한 농촌 음악이라고 들으며 하루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의 바탕이다.

1. 다만 지금 연혁지를 기록하는 데 후배들에게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덧붙여 둔다. 우리들이 입소하여 조만간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마약 귀향하려고 하는 기분이야말로 더 이상 비길 데 없다. 본 훈련소 기간에서는 힘들었던 일 괴로웠던 일 그리고 즐거웠던 일이 많았다. 쓰자면 한이 없다. 따라서 붓을 들지 않기로 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쓰고 싶은 것은 '농민의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하나는, '계속(續)'이라는 것이다. 말하기는 쉽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은 어떻게 농민으로서 즐거울 수 있는가, 그밖에는 길이 없는가. 훈련소에서는 품행에 관계되는 것이다. 선생님에게서 지도받은 대로 가면 될 것이다. 어떤 불평불만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면, 그저 예, 예, 하고 참고, 기분 좋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날 그날을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농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계속'인데, 소장 선생님은 '계속'을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누구나 이상을 갖고 있다. 실행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청년은 뜨거워지기 쉬운 것이다. '계속'이라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실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하지 않는 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시노즈카(篠塚).

우리들은 이 훈련기간에 과연 무엇을 얻고 돌아가는가. 전임(前任) 시노즈카 소장 선생으로부터 '농민의 즐거움'을, 현 소장 선생으로부터 '계속' 이것이다. 향후 우리들이 어떻게 '농민의 즐거움'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고 어떻게 '계속'을 행해야 할까. 매일 날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다. 날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나면 경쾌한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그날부터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날이 지면 그 날을 반성하고 내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매일 행하는 것. 즉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농민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틀림없이 파악할 수 있다. '계속'을 이루었을 때 일가는 갱생, 국가가 요구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심할 바 없다. 지금 나는 마을로 돌아가 '계속'을 계속할 것을 단언한다. 이것이 올해 훈련기간에 얻은 커다란 수확이다.

후배 제군들이여, 더욱 더 분투노력하여 이상의 성과를 올려라. 그리고 지친 오늘의 조선농촌을 서로 힘을 합해 일으키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후배 제군의 건강을 빈다. 이상

(원문대로)

문장은 치졸하고, 탈자 오자도 눈에 띄게 보인다. 그렇지만 거짓 없는 그들의 결별의 말은 반드시 자신의 고향에서 눈부시게 행해질 것이다. 그들이 얻은 도장에서의 정신생활과 직업에로의 정진은, 현장에 활용되고, 농업실습 외에 체력증강을 위해서도 단련하고, 스모(相撲), 흙부대 짚어지기, 맨몸 작업, 우중 작업, 지게 경쟁, 등산, 강에서 물고기 잡는 일은 농민의 생활에 새로운 생활소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격은 튼튼하고 힘은 늘고, 기백은 왕성해지고, 또한 영농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천 자의 수양면학은, 그 글자수를 늘려서 더 많이 천 자, 만 자의 숫자가 되고, 문맹의 슬픔은 머지않아 그들의 손에 의해서 퇴치될 것이다. 그들이 농촌에 살고 있는 한 재배, 사육, 생산물 처리 등에 대한 경제관계를 명확히 하는 식산계는 출납부 기장(記帳)을 통해 나타나고, 책임생산, 군수품 공출, 폐품이용후생, 쌀 없는 날, 정례 회의의 실시로 항상 통제 경제로의 길들임(연습)과, 방공방첩, 출정 유가족 원호, 근로 보국 등의 생활쇄신, 시국 인식의 노력은 농촌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농촌오락위원의 지도와 함께 명랑한 농촌 문화 확립의 깃발은 힘차게 반도 산천을 길게 뒤덮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래의 꽃이 피는 날을 향해 염원의 기도를 드렸다. 약속시간에 집을 떠나 도장을 찾았고, 하루의 일과를 빠짐없이 견학하고, 예정된 기록을 쓰고, 그들과 이별의 사진을 찍는 내 마음은 한없이 풍만했고, 작은 새처럼 가볍게 청순한 공기를 나는 것이었다.

독자여. 안심하는 것이 좋다. 이미 반도의 농촌에 증산과 재편성의 문제는, 그들 도장생의 불굴의 연성에 의해서 해결되었고, 일본의 신성이 드리우는 옥토는 이전보다 더욱 번창할 신대(神代)와 함께 경작되리라.

〈출전 : 趙宇植 「土に祈り鍛ふ 農民魂— 儒城農民道場見學記」, 『文化朝鮮』 1943년 6월호, 60~64쪽〉

## (6) 싸우는 항공창

특과기자 백천영이(白川榮二)<sup>105)</sup>

### 생산전사의 모습을

끊임없이 찬바람을 뚫고 올리는 저공비행 소리가 나를 태우고 달리는 차 밖에서 들려온다. 이것은 엄연히 북변의 수호에 임하는 물독수리(陸鷲)의 커다란 건설에 대한 의지이고, 타도 미영의 결의에 불타는 동포의 피의 맥동이다.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올리는 폭음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들 일행을 태운 차는 ○○로 질주한다. 이 들직한 소리에 아득한 전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위문편지보다도 한 대라도 많은 비행기를!”

이것은 전선장병으로부터 총후로 거슬러 올라가는 표어다. 이것을 국민의 전선을 생각하는 충정을 거부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싸움은 가열하다. 숙적 미영은 무모하게 싸움을 감행해 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반도 이천 육백만 동포는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 100 대 헌납에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버렸다. 비행기 증산이 오늘날의 전쟁에서 얼마나 절대적인가에 대해서나 같은 사람이 말할 필요는 없다.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전쟁 완수의 국가적 필연성에 대해서 해설할 만큼의 자격도 나에게는 없다.

105) 조우식(趙宇植)의 창씨명.

내가 감히 당돌하게도 이 증책을 맡아 글을 쓰는 이유는, ‘한 대라도 많이’ 싸움터로 보내서 씩씩하게 봉사하는 생산 전사의 진지한 모습을 전하고자 할 뿐, 다른 뜻은 없다.

### 보급전에서 이겨라

오늘날 전쟁에서 승패의 관건은 항공의 보급전이라는 것은 기노시타(木下) 소좌의 말인데 전선 용사가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후방에서 병사나 식량을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일 당 천의 강인함을 가진 전선 용사에게 절대 안심하고, 우리들 총후 국민은 보급에 전력을 바쳐야 한다. 보급전에서 이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우리 반도에는 이 보급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무진장의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다. 이미 ‘미작(米作)조선’이 갖는 단순한 종래의 사명을 아득히 비약시킨 항공 생산기지로서 발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이것은 전쟁의 숭고한 목적이 낳은 신생 반도에 대한 은혜이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반도는 보답해야 할까! 단 하나, 앞장서서 자기 몸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봉사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이때 나를 숙연하게 하는 것은 황공하옵게도 무한한,

나라를 생각하는 길에 두 가지는 없다

전쟁의 뜰에 나서는 것도 나서지 않는 것도

라고 국민에게 남기신 메이지(明治) 천황의 크고 고마우신 마음이다.

우리 국민들의 비장한 소원은 이제 가열한 전국(戰局)에서 꽃 피워 학도 제군들은 창을 들고 전투 배치에 따르는 것이다.

정벌하는 우리 형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한 대라도 많은 항공 병기를 보내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올바른 사명이고, 나라에 보답하는 국민의 기도이다.

### 정밀기계와 씨름하는 소년공(少年工)

청년 장교 도쿠나가(徳永) 중위의 안내로 현장으로 발을 옮긴다. 우선 기계시험실에 들어가서, 대단히 조용한 것과 청결한 것에 놀랐다. 정연하게 놓인 계기의 정밀 기계류, 남쪽 창에서 비추는 별에 미묘한 빛을 방사한다. 열심히 기계를 바라보고 있는 공원들은 얼마나 젊고 늙름한 청년들이며, 침착한 눈빛을 가졌는가. 자이로<sup>106)</sup> 계기는 지금 무척이나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일까?

아주 가냘프게 움직이는 미터기를 주시하는 눈은, 아득히 포연 속에 조종간을 쥐고, 전방에 집요한 준동을 계속하는 적기를 주시하는 우리 물독수리(陸鷲)의 눈과 무엇이 다른가. 몇 백분의 일 모(耗)<sup>107)</sup>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절대적인 혼이 있어야만, 하늘의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옆에서 부품을 깎는 줄의 소리조차 민족혼의 분신일 것이다. 케가키<sup>108)</sup> 바늘, 드라이버 무수한 기

106) 자이로 스코프나 자이로 컴퍼스를 가리키는 말.

107) 할 폰 리 모의 모를 가리키는 말.

어 …… 이것조차도 항공결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병기인 것이다. 전류의 흐름을 재는 계기는 치밀하게 그 농도를 재며 움직인다. ……

선반에 놓인 ○○식 자동 조종기, 상자에 들어있는 ○○식 조준 안경, ……

승강기를 시험하고 있는 홍안의 소년공들,

“간단한 만큼 정밀기계 이상으로 그 성능을 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담당자가 들려준다. 그것으로 얼마나 그들이 마음을 집중하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들 약관의 소년들에게 “감사한다.”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기분이 가슴에 가득하다.

이어진 전기 실험실로 발을 옮긴다.

고도계를 향해 열심히 메타를 응시하고 있는 몸빼 차림의 뒷모습이 눈에 비쳤다.

여기에서 나는 항공기 증산에 몸을 바치는 황국 여성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황국에 생을 받은 여성들이여. 이것은 이들 딸만의 것이 아니다. 그대들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총후진충(銃後盡忠)의 모습이야 한다.

승강기를 시험하고 있는 것.

산소 흡입기를 시험하고 있는 것…

300까지의 숫자를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바늘이 멈춰지는 장치가 되어 기압의 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회전계, 동요의 여하에 따라서 조종을 증감할 수 있는 것 등…

조그마한 기분의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전선의 상주직장의 감투정신은 그 어떤 곳에서도 가득 차 있다. 전동기 수리장에 들어가니, 어마어마한 전선이 거미줄처럼 배선되어 있고, 최고도의 전류가 배전 판에 의해서 가감되며 그 성능이 시험된다.

넓은 작업장 어디를 보아도, 능률하게 서서 일하고 있는 것은 모두 소년들이다. 용맹한 하늘의 신병(神兵)에 대한 동경은, 끊임없이 하나의 나사, 打金으로 바꾸어 집중된다. 2200 항공창에는 이러한 젊은 국민학교를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 소년 공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치밀하기 그지없는 작업에, 거기에, 마음과 혼을 기울여 씩씩하게 일하고 있다.

경금속의 아름다운 구성미 속에 능률하게 일하는 모습은 얼마나 존경스러운가.

우리들은 이렇게 물질 우위에 취한 적 미국과 영국을 병기 생산 전사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물심양면에 걸쳐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 중에는 지금, 맹훈련에서 기체가 걱정되어 달려 왔을 비행복의 청년 장교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전선과 총후를 이어주는 한 폭의 아름다운 정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장병을 안심하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한 대라도 많은 비행기를 생산하자.

벽에는 군인 칙유가 붙어 있다.

본부장의 훈시 요지, 창장 복무지침이, 공원들의 결의를 견고하게 하려는 듯 붙어 있다.

---

108)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만들 때, 그 재료에 가공상 필요한 (선·점의) 표를 하는 일.

1. 결전의 해다. 전력을 다하라.
2. 칼집에서 뺀 칼의 기백을 견지하라.
3. 삼엄한 군기풍기의 확립

물끄러미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내 옆에 와서 도쿠나가 중위는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항공기 증산이 중대하고, 종사원이 필요한지는 아셨을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반도의 사람들이 이 넘름한 인적 자원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또한 얼마든지 일은 있습니다만.”

말은 간단하지만 전시 증산, 특히 병기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도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요망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징병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미온적인 사고이다. 좀 더 돌진해서, 불덩어리가 되어 전시 생산에 앞장 서서 온몸을 바쳐야 한다.

### 좀더 노력을!

세기의 총아로서 등장한 싸움이 반도가 갖는 무진장의 지하자원, 과학병기에 절대적인 희귀 원소가 우리들의 양팔에 의해 개발되어, 항공결전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를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탄탈(Tantal), 지르콘(zircon), 흑운모 등, 우리 반도에는 직접적인 자원이 얼마나 부존(賦存)<sup>109)</sup>되어 있는가. 남북조선 일대에 걸친 경이적인 전력(電力)은 향후 우리 총후 국민의 각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가능하다.

거대한 망치가 포효하는 단(鍛) 공장에도, 작렬하는 용해된 합금을 틀에 흘려서 속에 집어넣는 주물 공장에도 종업원은 아직 부족하다.

묵묵히 봉사하는 공원은 모두 소년뿐이 아닌가. 도시에서 놓고 있는 막대한 노동력이 여기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감정은 이 소년들에게 죄송한, 아니 그 이상의 기분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프로펠러 수련장으로 들어가도, 그런 기분은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몹시 굴절된 언뜻 보면 우리들에게는 폐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수련장의 손을 거치면 훌륭한 병기가 되는 것이다. 한 장의 판자, 한 장의 알루미늄 판이라도 헛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헛것을 만드는 것은 어딘가에 마음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펠러를 수리하는 작업에도, 운반에도 그것을 다루는 세 명의 혼이 하나의 초점에서 일치하고, 호흡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혼이며, 그 혼이 집중한 곳에서 비로소 정밀한 이 작업은 완성된다.

앞에서 말한 중위님은 계속 되풀이하며 반도가 특수자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과, 베릴륨

109) 부존자원이란,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地殼 안의 지질학적 자원을 말한다.

(beryllium), 청동, 주코륨에 대해서는, 아이를 가르치듯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이것이 물독수리(陸鷲)의 온정이라는 것이리라.

착잡한 감동과 감사의 생각에, 고개를 숙이면서 다음 공정을 향해 걸어간다.

조립된 항공기의 명맥, 발동기의 고장을 분해 수리하고 있다.

우선 운반된 발동기는 몇 간이나 되는 금속 세정기의 세정통 천정에서 드리워져 있는 와이어에 걸려, 탄화수소를 취하기 위한 세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분해되고, 다른 세정작업으로 옮겨가게 된다. 글처럼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땀범벅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 세정액이 내뿜는 악취 속에 노출되는 시간이 계속된다. 코를 찌르는 중유 냄새……냄새……그러나 작업하는 그들은 무아지경이다. 다만 생각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수선되어 이 비행기가 결전의 하늘을 비상하는 날의 기쁨뿐이 아닐까.

조금도 화려하지 않다. 이 근로의 눈물겨움을, 도회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은 많은 경우에 그러하다. 우리들은 좀 더 깨달아야 한다. 살아있는 것처럼 정연하게 놓인 ○○식 발동기 ○○ 마력 발동기가 내일의 하늘을 주시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처럼 소중하게 부분 부분은 빛나고 있다.

이러한 성실함은 어디에도 충만해 있다. 기계공장 안도 다르지 않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놓인 선반, 셰이퍼(shoper), 밀링(milling) 등의 기계.

거기에 부수적인 공구, 잘라서 버려진 알루미늄(aluminium) 판, 듀라늄(Duranium) 판조차도,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용하는 손이 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 담당한 기계를 향해 총후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뺨에 얼굴을 댈 수 있는 정도까지 다가가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잘라 가는 바이트의 끝만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지금(地金. 가공 재료가 되는 금속-역자)이 천분의 몇까지의 정밀한 부분품으로 깎여 가는 기쁨은,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것으로 일단 부분공장은 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완성된 기체의 부분에 손질을 하는 곳입니다. 비행기 공장이죠.”

중위님은 아무진 어조로 말씀하신다. 귀를 압도하는 폭음……맹렬하게 강한 소리이다. 일찍이 이런 음향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보았다. 그 전에는 하와이의 하늘을, 보르네오의 밀림을 하늘의 신병을 태우고 날았을 것이다. 항공 일본의 궁지 정예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은가. …… 여기에서의 작업은 정비작업, 판금작업, 기능 부품 수리 등… 여기저기의 비행기에 조종간을 운반하는 것, 날개를 타고 나사를 끼우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 ……(판독불가)…… 일하는 모습이 늠름하게 보인다.

무엇을 그들에게 들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요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확실히 사람 손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비행기를 만드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유희의 노동력은 여기로 향해야 한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 생각한 것은, 총후의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시각은 16시 20분.

차가 귀로에 올랐을 때도 변함없는 맹훈련의 저공비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 ‘총후의 책임’

나는 결론으로 ‘총후의 책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빌리려고 한다. “총후의 국민 중에는, 옥쇄(玉碎)<sup>110)</sup>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특히, ‘옥쇄를 시키지 않을 길은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생각이다. 아무리 야마토 혼에 불타는 황군장병이라고 하더라도, 근대전투에서는 정신만으로 이길 수는 없다. 거기에는 물질의 양과 질의 한도가 있다. 대항이 그 한도의 최고도를 초과했을 경우, 황군에서는 옥쇄라고 하는 진충(盡忠)의 산화(散華)가 취해지는 것이다. 이에 이번 옥쇄로의 경과를 되돌아 보건대, 적은 우세부대 일개 사단, 거기에 공군의 협력 하에 치열한 공격을 개시했고, 스콜(squall)의 ……(판독불가)…… 어디까지고 물질의 힘을 믿는 맹공은, 적의 유일 최대의 전투적 자신감이다. 이러한 최대의 자신감을 격파 분쇄하고, 결전을 우리의 완승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제일선에 병기를, 탄약을 자꾸자꾸 보내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병풍산<sup>111)</sup> 옥쇄 수비대에서도 탄환 모두를 다 쓴다고 하는 것처럼, 비뚱한 곰(熊)을 만나게 했다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바로 총후 국민이야말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제일선이 ‘한 대라도 좋다. 한시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진의를 지금이야말로 국민은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황군은, 그 전투원의 경우, 일당 십에, 백에, 천에 해당하는 기백과 정신력을 갖고 있다. 그 높은 자질을 갖고 있는 황군장병이 옥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병기와 탄약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언한다면, ‘옥쇄의 책임은 총후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생각을 더 깊이 할 경우, 천황폐하의 병사를 총후 국민의 노력이 미흡해서 옥쇄하게 만든 일이, 얼마나 송구스런 일인가를 마음으로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제일선 장병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후도 군국(君國)을 위해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출전 : 白川榮二(特派記者), 「現地報告・決戦の職場, ○○航空廠見聞記—戦ふ航空廠」, 『文化朝鮮』 제6권 제1호, 1944년 2월, 40~43쪽)

## 10) 주영섭(朱永涉)

### (1) 평양대화숙

우리 평양에서 ‘국어’<sup>112)</sup> 보급 운동이 근래 시작된 것은 지금 대화숙(大和塾)의 전신인 전조선사상보 국연맹 평양지부 시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40년 6월 10일 요다(依田) 전보호관찰소장의 노력으로 시내 명성(明星)학교에서 제1회 국어강습회가 열렸다. 10세 이상의 남녀 50명으로 학과는 국어, 산술, 수신(修身)이고, 별도로 공민과(公民科)를 두어 소학교 졸업과정의 남자도 수용했다. 기간은 6개월이고

110) 옥처럼 아름답게 깨어져 부서진다는 뜻. 명예나 충절을 위하여 깨끗이 죽는 것.

111) Shaggy Ridge.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산.

112) 일본어.

매일 밤 8시부터 2시간마다 수업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 10일에 감격스럽게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어 다음해인 1941년에는 사상보국연맹이 대화숙으로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더욱 태세를 정비하여 시내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의 강당을 빌려 대화숙 국어강습소를 개설했다. 인원은 남녀 15세 이상 각 50명씩이고 과목은 국어만으로 했다.

기간은 1년으로 늘려 매일 밤 7시부터 9시까지로 했다.

이렇게 하여 인정도장에서 국어강습회는 현재까지 제5회째 수업중이다.

지금까지의 졸업생은 남녀 약 5백 명, 현재 수업중인 자 약 100명이다.

평양 대화숙이 지금까지 기초를 굳건히 하여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역대 대화숙 회장을 비롯하여 각 보호사 및 회원 제위의 비상한 노력 덕분이다.

1942년 5월 반도에서 징병제 실시가 공포되고 이와 함께 조선 각지에서 국어보급운동은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지금까지는 배움을 좋아하는 극히 일부 소년 소녀들에 한정되어 있던 국어열이 전 조선의 각 가정에 스며들게 되었다. 평양에서도 마을모임 및 기타 기관에 의해 몇 개의 국어강습소가 개설되었다.

이제 전통 있는 평양대화숙에서는 한 단계 비약을 이루어 시내에 2개소의 도장을 가지게 되었다. 평양대화숙 미즈호(瑞穂)도장(시내 景昌町) 및 세이메이(清明)도장(시내 新陽町)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곳의 건물은 일찍이 미국이 이십 몇 년 간 조선 침략의 수단으로 평양에 개설한 성서학교이다.

1941년 시즈나가(靜永) 전(前) 대화숙 회장 시절에 국어강습회장으로 빌려달라고 신청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성서학교는 신성한 곳이어서 국어강습 따위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마침내 1942년 가을 평양대화숙은 이 건물을 적산관리인으로부터 빌려 두 도장을 만들었다. 대화숙 회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근로작업으로 건물 내외는 깔끔하게 단장되고 정문에는 이름도 유서깊은 미즈호(瑞穂), 세이메이(清明)의 간판이 세워지고 일장기가 하늘높이 걸려, 여기에 대화숙 회원들의 사랑의 가정과 장래 수산장(授産場)<sup>113)</sup> 및 당당한 국어강습소로서 갱생했다.

한편 인정도장에서 국어강습회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을 때 여기 세이메이도장은 징병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응하도록 웅장하게 태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녀 10세 이상의 모집 규정을 고쳐 15세 이상 19세까지의 남녀로 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이메이도장의 제1회 강습은 1942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1회생으로 달려온 징병적령을 앞둔 청소년은 약 100명 남짓. 입소원서를 펼쳐 보니 직공도 있고 점원도 있고, 노무자도 있었다. 더욱 세밀히 구분해 보자면 철공소 직공, 양화수선업, 인쇄소 직공, 고무공장 직공, 직조 공장 직공, 양복점 점원, 인장업, 치과 조수 등등. 기간은 6개월 예정, 매일 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과목은 국어만, 국어를 통해 국체 관념과 숫자 관념을 주입하고 징병제 실시에 대비하도록 기본적 훈련을 실시한다. 교재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국어 교본. 이상 모두 무료로 교본을 제공한다.

〈출전 : 朱永涉, 「平壤大和塾」, 『國民文學』 1943년 1월호, 125~126쪽〉

113) ‘授産’은 실업자나 빈곤층에게 일을 주어 생활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뜻.

## 11) 주요한(朱燿翰, 松村紘一)

### (1) 출범의 정신

송촌굉일(松村紘一)<sup>114)</sup>

배는 항상 바다를, 넓은 바다를 그리워한다. 때문에 입항하는 배는 배꼬리를 육지로 향하게 하고 뱃머리는 출범의 모습으로 대기한다. 이제야 반도는 이 출항의 정신에 노장(老壯) 모두 불타오르고 있다.

육군의 징병은 내년으로 다가왔다. 해군지원병의 훈련은 금년 10월경에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정비도 반도에 오기로 임시의회에서 정해졌다. 정비하면 인적인 자원에 여유가 생긴다. 여유 민력(民力)은 전력의 증강이 되는 것이다.

가혹한 전국(戰局)을 앞에 두고 반도는 바로 출격의 전야에 있다. 지금까지 매우 - 지나사변 이래 7년 간 우리는 열렬하고 힘차게, 또한 강한 인내심으로 싸워왔다. 그러나 이번 싸움은 주로 간접적이었다. 수많은 청춘이 전선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그저 후방을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힘찬 노동력이 군수공장에 집중될 때, 반도는 아직 경공업으로 낮게 헤매고 있었다. 싸우는 문화의 늙름한 모습을 품고 우리는 국어보급이라는 기초공작과 씨름하고 있었다.

엄연한 전쟁의 요구는 드디어 반도에게 그 전력을 직접 전력의 증강에 향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물론 단순한 전쟁의 요구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기도 하다. 그것은 첫째 팔굉위우(八紘爲宇)의 나타남인 것이다. 조선에서 구현된 황토(皇土)수립의 대 정신이다.

징병, 해군지원병, 노무동원은 첫째로 이러한 각도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반도는 이 획기적인 대 영단에 대해서 무한한 감격을 느낀 것이다.

다만 오늘날 반도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대동아전의 화려한 무대로 뛰어나갈 도약의 시점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황은(皇恩)으로 길러졌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 모든 반도의 민(民)은 출항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청년은 군복을 마련하여 소집날을 손꼽아 헤아리고 있고, 부모와 처자는 그들의 출발을 가장 용감하게 축하하기 위해 물심양면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지식이 있는 자는 싸우는 문화전선으로, 기능이 있는 자는 싸우는 산업전사로서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모든 여정에서 내지동포의 발자취를 쫓아가기 위해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때로는 폭탄을 안고 철망을 뚫어야 하고, 때로는 어뢰를 품고 대양을 뚫어 나가야 하며, 때로는 쇠를 단련하여 화약을 개며 배를 만들기 위하여 반도에 축적된 힘으로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눈앞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준비는 되었는가.

---

114) 주요한(朱燿翰)의 창씨명.

현명한 함장은 돌진의 명령을 잘 예측한다. 증기를 잔뜩 끓여 올려서 돌진의 신호가 오르자마자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적 함정을 목표로 돌진하여 그 임무를 다 한다. 현명치 못한 함장은 신호기가 올라간 후에 비로소 증기를 때게 한다. 그래서 이미 늦은 것이다.



반도의 백성이 오늘날까지 전쟁을 비교적 자신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러한 나날은 끝나고 있다.

공채를 사는 일이나 낚시를 바치는 일, 몸뚱이를 입고 물통에 물을 낚는 일만을 전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그러한 날도 끝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반도의 자식들은 실제로 총검을 잡고, 미, 영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우리의 피와 생명으로써, 건설의 악보를 그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 집들에 위패는 용기를 뿜내며, 신사 앞의 묵도에는 육친의 절실함이 깃들 것이다. 전쟁터에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싸우고 있는 친구와 친구사이에 현해탄의 거리를 느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혹한 결전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감격은 우리의 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전쟁을 가깝게 느끼지 않는 자가 있다면 혹은 여 명의 고통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느낌이 없는 자, 사랑할 줄 모르는 자,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자라고 경멸할 것이다.

반도의 어른에게, 반도의 젊은이에게 나는 호소한다. 이 호소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도의 아버지여!

반도의 어머니여!

반도의 아들이여!

반도의 딸이여!

출항할 준비는 되었는가!

조국의 이상과 반도의 역할,

칠생보국(七生報國)의 정성

감투정신, 책임감,

근고결핍을 참는 것,

사생관의 재정립,

이러한 약간의 암호는 깊은 뜻 가운데에 반도의 Z기(旗)를 읽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松村紘一, 「出帆の精神」, 『新時代』 1943년 7월호, 16~18쪽〉

## (2) 직장(職場) · 도장(道場) · 전장(戰場) - 취직하는 지식청년에게 주노라

송촌굉일(松村紘一)

반도의 대학 전문 출신자에게 취직 문이 열렸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하나의 사실이다. 조선통치의 크나큰 부모와 같은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 직장이 조선으로 한정되지 않고 내지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또 민간회사로 한정하지 않고 관청에까지 넓혀지고 있다는 점은, 기뻐해야 할 이유와 크게 반성해야 할 여지까지 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청년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쾌거가 사람을 보충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징병실시의 의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소집은 한 없이 광대한 어버이 마음의 발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지의 관청이나 민간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반도청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반도청년에게 희망을 주며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치는 영광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취해진 정책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번 가을에 직장으로 달려가는 이들 청년학도의 책임은 내년에 군문(軍門)에 선택되는 초년병 아우들에 앞서서 반도의 영욕을 양 어깨에 짊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올릴 실적은 앞으로 그 발자취를 쫓아야 할 후배들 앞길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책임이란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영예에 보답하고, 또한 그 책임을 다하며 후진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것인가.

- 직장을 즉 도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연성 향상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직장을 즉 전정터라고 생각하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 환경을 자각하여 자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관을 돌파하며 1억1심을 자진해서 쟁취할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항상 듣던 조선청년들에 대한 비난은 무엇이었던가. 책임감의 박약이다. 견인불발(堅忍不拔)의 마음이 모자란다. 성실성이 없다. 은혜를 모른다. 자기 합리가 많다. 등등등.

이러한 비난은 일견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와서 이러한 것이 맞고 틀리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오직 실제 폭탄을 갖고 가공의 또는 현실의 장애를 폭파하고 당당하게 대도(大道)로 진격해야 한다. 드디어 반도청년 앞에 그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오로지 사실뿐이다. 그리고 예견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긍정적인 답을 갖고 있다. 영단을 내린 내각 및 총독부당국의 생각도 이와 같으리라고 확신한다.

역사를 만드는 마음

다만 여기 출발점에서는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한 마디가 필요하다. 방향만 올바르다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 방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각도나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나 한 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만드는 마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청년의 입으로 우리는 자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에는 석연치 않은 그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설득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를 만드는 마음”이다. 역사가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를 어떤 곳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마음이다.

일찍이 누군가 말했다 - “신체제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내선일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내선일체, 반도의 황국화, 도의(道義)조선의 건설 - 대 목표는 정해져 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난관을 넘어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발에 물집이 생기더라도 넘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청년 중에는 이러한 이상의 실현에 일말의 의혹을 품는 자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은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길거리에 줄지어 “정말 될 수 있는 것일까”하고 번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실제로 배가 격류에 샷대를 쫓고 있으며 자신도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배는 키와 노의 힘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항구로 가게 되는 것이다. 흐르는 대로 맡겨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선장이다. 결단코 선객이 아니다. 적어도 1억1십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대면할 때, 반도청년은 선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 선장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한다.

선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선장은 견인불발(堅忍不拔)이어야 한다. 가는 도중에 노를 버릴 수는 없다. 선장은 성실하며, 선장은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젓는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책임감이 열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러한 정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차피 나는 내 놓은 물건이다, 앞길은 뻥하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인정받는 길은 없다고 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여러분의 온몸에서 열성과 인내심을 빼앗은 것일 게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큰 잘못이었다. 여러분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 사실 그 길을 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었다. 여러분은 항구가 없는 표박자(漂泊者)였으나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배의 노를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선장이다.

이제 여러분은 선장이다. ‘역사를 만드는’ 젊은이들이다. 여러분 앞에는 힘든 항해가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인정과 풍속이 서로 다르다는 편견을 퇴치해야 한다. 거기에서 기인하는 곡해, 색안경, 편견, 그리고 (뒤편 숨길 필요는 없다) 차별과 같은 요새를 폭파해야 한다. 급여의 차이 같은 것도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걸림돌일 것이다. 이러한 신고(辛苦)를 이겨냄으로써 각 개인도 총체적으로 든든해지며, 일본적인 일꾼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여러분의 수완이다.

여러분의 업적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영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동향(同鄉)의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여러분 후배인 몇 만의 젊은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자각한다면 여러분은 죽음으로써 직무를 대신하는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인내와 성심, 감격성과 실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매일의 직장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닦는 도장이 되고, 일선의 병사에 뒤지지 않는 각오로 황국 천년의 대업을 완수하는 전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청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할 필요를 느낀다.

이미 위에서 암시한 것처럼 과거의 여러 비난은 피상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들 청년에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는 한 그들은 결점 투성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환경의 악조건과 같은 오해를 풀고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말하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다. 역사는 분류(奔流)하고 있다.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성심껏 받아들이며 그들을 감동시키는 큰 사랑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위정자의 아버이 마음을 직장 사람들도 본받아 장관, 상사는 물론 동료인 내지동포에게 보통 이상의 마음가짐으로써 이 새싹을 북돋우기 바란다. 조선청년이 황국의 젊은이로서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받아들이는 쪽의 책무인 것이다.

또한 도매금으로 경솔한 비평은 피해야 한다. 실패하거나 낙제하는 자들은 어느 세계에나 있다. 조선청년이라고 백 명 중 백 명이 모두 성인일 까닭은 없다. “조선인은 어쩐지……”라고 하는 개괄적인 결론이야말로 가장 대국(大局)을 그르치는 것이다. 크게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라도 그러한 뜻밖의 말이 나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청년들의 의연한 용기와, 관민 총의의 이해와 창의와 협력으로 이러한 취직정책이 반도의 황국적인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믿자.

〈출전 : 松村紘一, 「職場・道場・戰場-就職する知識青年(に學ぶ)」, 『新時代』 1943년 10월호, 34~37쪽〉

### (3) 전 국민이 육탄으로 - 먼저 지도자에 필요한 반성과 과단

송촌굉일(松村紘一)

매일 아침마다 전해 오는 신문에 또는 라디오의 보도에 의하여 오키나와의 싸움터로부터 우리 특공대의 혁혁한 전과가 전해 올 때마다 1억 국민은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신문을 뚫어질 듯이 읽으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줄 믿는다. 대동아전쟁이 발발된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의 오키나와 전국(戰局)처럼 국민들의 주목을 끌며 따라서 결사의 각오를 한 때는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밑으로 달려드는 적 미국을 쳐부수기 위하여서는 제1선에서 감투하고 있는 황군 장병과 또는 소수의 관리뿐만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전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적에게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는 물샐 틈 없는 국민조직과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라도 따라갈 만한 지도자가 하루바삐 진두에 서서 지휘하여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내지에 호응하여 조선에도 국민의용대가 조직될는지 안 될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이곳에도 국민의용대가 조직된다면 관민은 과거를 냉정히 반성하고 따라서 철석같은 각오와 큰 영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줄 믿는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피로 물들이고 있는 남명(南冥)의 결전장을 바라다보면서 결사적인 국민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국민운동과 대동소이한 것이라면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제1선에서 감투하고 있는 전선 장병에게 면목이 없을 것이다. 나는 오직 2천 6백만 동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출전 : 松村紘一, 「全 國民이 肉彈으로—먼저 指導者에 필요한 반성과 과단」, 『매일신보』, 1945년 5월 25일〉

## 12) 최정희(崔貞熙)

### (1) 맑게 갠 푸른 하늘

그날, 라디오에서는 미영의 포학(暴虐)을 향하여, 선전(宣戰)의 대조(大詔)가 환발(渙發)되었다는 보고가, 초겨울의 공기를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아주 맑고 푸르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군요.”

“안개가 걷힌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마주치면 서로가 입에 담은 말로, 모두 긴장과 흥분의 소용돌이 속에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를 오고가는 사람도, 전차 안의 사람도, 그날은 서로 노려보는 일이 없이 모두 같은 동포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오늘까지 1년이라는 느낌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역사라고 해야 할지 수확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급격한 전환은, 1년을 백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그날 저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미국 비행기가 날아와서 경성 시내를 폭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 긴장하도록 주의했습니다. 마침 그때입니다. 자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괜찮아요, 일본은 아무리 큰 나라와 싸워도 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말에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쓸데없이 흥분한 제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1년이 지나고 12월 8일이 또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적의 비행기를 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변함없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책을 읽거나 글을 써 왔던 것입니다. 지극히 평화스러운 세월의 흐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만세”를 외치고 싶은 마음으



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항상 진실은 조용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떠들썩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묵묵히 자기자신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웃의 학교 조회에서 부르는 ‘기미가요(君が代)’가 맑게 갠 푸른 하늘에 높이 올려 퍼집니다.

〈출전 : 崔貞熙 「晴れた靑空」, 『京城日報』, 1942년 12월 12일〉

## 6. 일제의 침략전쟁과 ‘대동아공영권’ 지지

### 1) 김기진 · 이무영, 대동아전쟁에 의해 무엇을 배우십니까?

김기진(金基鎭)

1, 대동아전쟁을 통해서 배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10억 민족향상의 성전으로서의, 대동아전쟁의 역사적인 의식 및 빛나는 서전의 전과를 통하여 양양된 숭고한 일본정신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 2천 4백만, 반도에서 생을 향유하고 있는 국민은 진심으로 1억의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대동아전쟁의 완수를 위하여 멸사봉공해야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라도 제3자적인 태도를 갖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작은 반도의 인간이라는 의식을 초월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는 대 아시아의 건설전사로서의 각오와 자부심으로써 비약해야 할 것입니다.

무영(無影)<sup>115)</sup>

프랑스의 패전에서 무력이 따르지 않는 문화가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보게 된 후로는, 방대한 군비만이 이러한 공상을 구해 주는 것이라고 용기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대동아전쟁에서 무기가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가 아닌 것을 배우고, 의기소침해 있는 미영의 오늘날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매우 위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문학에 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의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지금까지 우리들 문학은 조금은 영미에 그 믿음을 양보 해 온 것은 사실이 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관념적인 문학이나 학문 같은 것이 전쟁의 경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위대한 국민정신이 없는 곳에 힘찬 문학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자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투쟁정신을 갖지 않은 숫자뿐인 군인을 앞에 두고, 야단법석을 떠는 영미의 수뇌들을 거울삼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진부한 말씀입니다만.

〈출전 : 金基鎭 · 李無影 「大東亞戰爭に依つて何を教へられたか?」, 『國民文學』, 1942년 2월호, 70 · 72쪽〉

---

115) 이무영(李無影).

## 2) 이무영 · 정비석 · 정인택 · 채만식, 간도성시찰작가단 보고(좌담회)

### 엄청난 교육열

기자 : 이번에 조선문인협회 여러분 중 다섯 분이, 만주국 간도성에서 초빙을 받아, 낱낱이 시찰 하고 오셨습시다만, 가장 강한 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목양(牧洋)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정(인) : 모두가 놀란 것은, 교육열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현재 1946년의 의무교육을 지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취학률이 6할쯤인데도, 그쪽은 이미 7.5할까지 가고 있습니다. 1946년에는 전부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내의 의무교육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조사된 것만으로, 만주에는 백 5십만의 조선인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3분의 1이상인 5십여 만이 간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 그러한 교육열뿐만 아니라 우리 다섯 사람이 모두 간도성에 관해서는 전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작은 마을이라도 훌륭한 학교가 만들어져 있다. 50호의 마을이라면, 한 집에 두 사람 씩 학교에 가고 있다고 해도 생도는 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3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건설합니다. 장래 발전을 위하여 미리 그렇게 해 두는 것이지요. 비용은 극히 일부만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민간의 기부로 합니다. 낙타산이라는 마을의 학교에서는 실습지만 1만 2천평이 있으며 1만 5천 엔을 들여서 교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백호쯤의 사람들이 전부 내고 있을 정도로 열성입니다. 설비 쪽도 체조용의 늑목(肋木), 철봉 등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정(인) : 어느 시골에 가도 학교가 먼저 눈에 띕니다. 대체로 조선의 시골과 다르지 않으나, 보기에 어설피 교사는 계속 멋진 것으로 변해 갑니다.

채 : 현재는 선생이 모자라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촌은 여기의 면에 해당하는데 이쪽은 아직 1면 1교이지만, 그쪽은 1촌 10교일 정도로 대단합니다. 곳에 따라서는 16교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쪽 촌은 이쪽의 군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만.

정(비) : 조금 아쉬운 것은, 같은 교과서를 쓰면서도, 전체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아무튼 작년 1개년 동안에도 4천 학급을 늘렸기 때문에 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년제 중학교 졸업자가 교원이 되고, 때로는 국민우급(優級)학교(고등소학교)를 나온 사람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뒤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 교육에 있어 곤란한 문제는 그쪽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내의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는 길이 거의 막혀 있는 것입니다. 본부(本府)와 만주국 사이에 무엇인가 통일된 연락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락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가 있으며, 춘양촌에서는 일본어강습회가 7백8십 몇 개나 있었습니다.

기자 : 교과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이 : 교육정신도 교과서도 모두 조선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정(인) : 대이수구(大梨樹溝)는 소위 부정 업자를 강제로 입식(入植)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있는 마을인

데 50호 정도가 4년 간 잘 견디며 해오고 있습니다. 마침 도착했을 때 학교의 종이 울려서, 부인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회 사람들과 좌담회를 했는데 영하 30도라는 혹한 속을 맨발로 어린애를 업고 와서 모두 열심히 들어 주었습니다.

기자 : 그래도 어떻게 얼지 않지요.

일동 : 익숙하니까……옷이 모자라는 것은 정말 안 되었습니다.

기자 : 교육열이 그렇게 왕성한 원인은 어째서일까요.

정(비) :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자각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기존 주민은 30년 이상, 더 거슬러 올라가면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오랜 동안 고생을 한 덕분이지요.

기자 : 기존 주민의 생활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비) : 그들은 2세나 3세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합니다.

정(인) : 개척민은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로운 건설시기이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점도 있지만,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기존 주민은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습니다.

채 : 기존주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겠지요.

정(인) :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 힘을 쏟아 부을 여유는 없습니다.

기자 : 이민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 : 본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각도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으로 가고 면으로 가서 직접 모집합니다.

정(인) : 요즘은 간도성에는 그다지 넣지 않습니다. 1호당 4정보의 토지를 주기 때문에, 벌써 그것만으로도 토지가 모자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더 북쪽으로 가게하고 있습니다.

### 고투의 회상

기자 : 건국 이후, 특히 요즘은 치안이 확립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고투는 보통 일이 아니었겠지요.

정(인) : 간도성에는 만주인이 인구의 15%밖에 없습니다. 건국 이전에는 농민이 꽤나 학대 받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완전히 평화로운 마을이 되어서, 농민이 안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채 : 협화회(協和會)가 그 점을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비) : 거기에다가 만주국의 관리는 무척 성실합니다. 국장이나 과장일지라도 자진해서 민간과 친숙해지려고 합니다.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곧바로 그것을 채용합니다. 참으로 의욕이 넘칩니다.

정(인) : 젊은 나라의 발랄함이 모든 곳에서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 어디에 가나, 지도자가 모두 젊습니다. 이쪽의 면사무소와 같은 촌의 관리가 21명이 있었는데, 2명은 전문학교 출신이고, 전부 중학 출신이었습니다. 소학교 출신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 : 좌담회에서나 관청에서 민간인이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건국정신에 불타고 있는 증

거이지요.

정(인) : 이전에는 비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척촌 주위에는 토성을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흙벽돌로 두껍게 쌓아서 높이는 7, 8척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서 10칸 정도의 고랑이 파여져 있고, 그 앞에도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고 망루가 있어서 자위단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 규모의 비적이 기껏해야 10명 남짓의 집단으로, 무기도 권총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왕청현(汪淸縣) 같은 곳은 아직 개척민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 자위단의 무기는 어디에서……

정(인) : 현에서 주고 있습니다. 막상 집합이라는 단계가 되어 종이 올리면,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3분 안에 정연하게 다 모이지요.

채 : 대이수구는 가장 고생한 곳으로, 세 번이나 대 부대의 비적에 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940년 2월에는 3백명이 몰려와서, 농민 80명과 소 16마리를 약탈하고 가재도구나 식량을 실어서 갔다고 합니다.

정(인) : 2년 동안은 밤도 낮도 없이 각반을 찬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채 : 그런 고통으로부터 이제 겨우 벗어나서 들일에 열중하려고 하니 2년이나 계속된 그 냉해를 맞았다고 합니다.

## 간도특설대

정(비) : 화룡현 덕유촌(德裕村)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여기는 함북 무산의 맞은편입니다) 거기의 촌장은 전에 경찰서장을 한 사람으로서, 일대영단을 내려서 스스로 단장이 되어 자위단을 만들었습니다. 비적의 두목이 이것을 알고, 그 촌에서 조금 떨어진 노화둔(蘆花屯)에 있던 가족을 모두 죽이고, 양친과 아우까지 죽여서 식량을 약취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장은 부모의 원수인 비적을 모조리 토벌하여, 지금과 같은 평화 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안이 훌륭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간도특설대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만의 군대입니다. 만주국 군에 편입되어 있으나 자신들만의 힘으로 치안을 확보하려는 사명 아래에 1938년에 새롭게 설치해서, 대장은 일본 군인이나 장교 〇〇명 중 조선인이 〇〇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위단이나 청년대가 자신들을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은 없으리라고 무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비적이 습격해 왔을 때, 특별대 1소대와 일본군 1소대가 5백 명의 큰 적과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마지막 남은 1명이 기관총으로 건디며 적을 격퇴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중은 특별대에 감복하게 되었습니다. 영내를 견학했지만, 일본군과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싸울 적이 없어서 종종 호랑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갔던 전날도 잡아왔다는 호랑이를 보고 왔습니다.

정(인) : 그것은 지원제이지요.

채 : 이쪽의 지원병 같은 것입니다.

정(비) : 훈련을 마치고 귀농하면, 민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인) : 그렇게 훌륭한 군대가 만들어진 것도 조선에서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지 원병도 오지 않게 된 것이지요.

정(비) :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점심밥을 먹고 있을 때였는데, 대장이 장교와 함께 조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험한 식사를 하며 분전하는 것에는 감탄했습니다.

### 공출협력

채 : 공출 같은 것을 보아도 민중과 관리가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면이면 면이, 당신네 집은 몇 정보 심었으니 얼마라거나, 또는 현물을 조사해서 공출시키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내가 이만큼 지었으니, 이만큼은 씨앗으로 남겨두겠다고 신고해 옵니다. 그리고 관리당국은 100킬로에 대하여 1엔의 장려금을 봄에 선불해 줍니다.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자체가 이미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고 있지요. 용정(龍井)의 협화회에서 들으니 올해 조선은 흉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보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비) : 북만촌(福滿村)에서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공출 독려대가 있어서, 탈곡반, 도려반, 감시반의 3반으로 나누어져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 그것은 청년들이 자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인) : 물론 그렇습니다. 자위단 같은 것은, 징병제에 대비하여 특별청년연성제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징병준비에 대해서도, 그 쪽은 실제의 전투경험을 갖고 있는 자위단에 모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점은 만주 쪽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 : 젊은이는 총후는 물론 자진해서 군인이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변방의 수비는 자신들이 맡겠다는 기백에 불타고 있습니다. 참으로 든든합니다.

채 : 공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극적이며, 청년국가의 청년다운 면목을 눈앞에 보는 것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일본적인 매너, 이것뿐 아닐까요.

이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선내의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몸동작이 이쪽은 느릿느릿 하지만 그쪽은 씩씩합니다. 이쪽은 둔중(鈍重)하지만 그쪽은 민첩합니다.

기자 : 그렇게 된 것은 훈련에서일까요, 기분 탓일까요.

정(인) : 둘 다이지요.

### 만주 인식(認識)이 이민을 이끈다.

정(비) : 요컨대, 지금까지 만주의 일을, 가장 가까운 간도성의 일조차도 너무나 몰랐다는 것입니다.

채 : 간도성은 완전히 함경북도와 같은 느낌이 들어, 아무래도 조선을 떠나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지요.

정(인) : 조선과의 오래된 교섭은 3백 년 전부터 있었으나, 정치적인 사정으로 청국과의 사이에 중간 지대로서 한 동안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70년 쯤 전에, 함북에 큰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갔다고 합니다.

이 : 개척민을 받아들이는 방법의 맨 처음 문제는, 만주나 간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해마다 1만호의 5개년 계획으로 5만호를 받아들이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식계급마저도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개척의 의의는 물론 기후, 지리, 풍속, 생활문제 등 전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되는대로 보내고, 되는대로 옮겼다고 하는 데, 이래서는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면 관리 등 직접사무를 맡는 사람에게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곤란하다고 하고 있지만, 방법이 서투르기 때문에 모이지 않을 때에는 옛장수를 모으거나, 호수(戶數)를 늘리기 위하여 한 집의 형제를 둘로 나누어서 호수를 늘리거나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개척의 의의도 성의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전을 영터리로 합니다. 3개월 일하면 1년 간 편하게 살 수 있다거나, 3년을 하면 지주나 부자가 된다는 식으로 말해 줍니다. 그렇게 일확천금(一攫千金)을 할 작정으로 아무런 정신적인 결심도 없이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집을 만들거나, 들판을 깎아 내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담을 하고, 속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직접 관리가 충분히 만주개척의 참뜻과 사정을 이해하고 지도자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인) : 최근에는 개척민도 매우 편해졌습니다. 비적(匪賊) 때문에 개간할 틈도 없었던 초기의 고생에 비교하면 운니(雲泥)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정착하는 힘만 내면 됩니다.

## 가정생활에 대해서

기자 : 가정에도 들어가서 보셨겠습니까만, 그것에 대하여 무슨 느낀 점 같은 것은……

이 : 국어는 아직 상용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보다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에 갈까 말까하는 아이에게 길을 물으면, 반드시 국어로 대답하는 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인) : 확실히 보급하고 있지요. 거리에서는 거의가 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 간추려서 말한다면, 개척민의 입식(入植)은 물론 국책으로 해야 하지만, 기존의 주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호를 해 주어서 개량해야 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인) : 기존 주민을 팽개쳐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아무튼 현재 자력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력이 없는 것이겠지요. 중점주의 쪽이 바쁘니까요.

정(비) : 현이나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원이 하나부터 열까지 개척민을 지도하고 있는데 모두 침식을 잇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락의 보도원은 조선에서 온 지 반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사정에도 어둡고, 농업의 실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으로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인) : 그것은 정치적인 선무원(宣撫員)이고 농사 지도원과 다른 사람 아니었나요.

정(비) : 아니, 농업까지 모두 함께 하고 있었습니까만, 오히려 지도 받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경의를 표하지는 않았습니까.

채 : 주택에 대해서 느낀 것입니다만,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니까 방한설비를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벽 같은 것은 나무와 흙만으로 두껍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들지 않았습니까. 보건 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인) : 그런 것은 모두 본인들이 세우기 때문에, 될수록 싼 비용으로, 품을 적게 들이려고 하기 때문이겠지요.

채 : 그래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인) : 처음 집을 지을 때는 항상 비적이 와서, 파괴하거나 약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단히만 들었던 것도 원인이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건국 당시에는 비적들이 30만 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것이 지금은 겨우 5백 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비) : 생활과 방위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니 저 두께 2칸의 토성 방벽을 전부 연장하면 만리장성이 되겠지요.

정(인) : 비적이 가장 많이 나오던 시대에는, 아침 10시가 되지 않으면 들에 일하러 나갈 수가 없었으며, 저녁에는 4시경에 돌아오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농경기간이 짧은 곳에서 일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도 고생스러웠다고 합니다. 방호 때문에 부역이나 -근로봉사도 많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오로지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으니 잘 되었습니다.

기자 : 음식물 같은 것은 어떤가요

정(비) : 쌀, 조, 고량, 강냉이.

정(인) :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채 : 무는 붉은 무지요.

기자 : 여러분은 마침 추울 때 가셨기 때문에, 농경장면은 볼 수 없었겠지만, 겨울철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비) : 숯구이, 숯 부대, 거기에다가 통 재료의 제조 같은 것……

채 : 그리고 목재운반이 있습니다.

정(비) : 그 부락은 특별한 경우였겠습니다만 둔장(屯長)의 이야기에 의하면, 1년간의 수입이 천 5백 엔에서부터 3천 엔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 그것은 독농가(篤農家)의 경우이지요. 저희 쪽은 그만큼은 안 되었습니다.

채 : 목재운반으로 월 8십엔 정도는 번다고 했습니다.

### 분촌(分村) 계획의 필요성

채 : 저희들이 출발할 때에, 모리(森) 도서과장은 어디를 가나 황국신민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 이제는 이치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인) :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육체적으로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연마를 해야 할 시기가 되고 있지요.

이 : 거기에다가 그쪽 청년들은 기대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좋았습니다.

정(비) : 비적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좋았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싸워 나간 것이, 그 기개(氣概)가 벌써 습관이 된 것이지요.

이 : 내지에서는 분촌(分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 사람으로서 새롭게 고향을 옹기는 일 같은 것 말입니다. 조선 이민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정(인) : 내지에서도 아직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고이소(小磯) 씨와 다나카(田中) 씨도 금년에는 분촌을 계획 중이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실현되겠지요.

이 : 그렇게 하면 개척지의 정착성도 좋아지고, 친화나 단결 같은 것도 대단히 잘 되겠지요.

정(인) : 현재의 생활이 향상되면, 정착성은 충분히 확보되겠지요.

이 : 그것은 물론 그렇겠지만, 앞집은 숙부네 집이고, 뒷집은 사촌네, 이런식으로 이웃에 친척이 있으면 든든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 적지(適地)배치(配置)

정(인) : 간도성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남선 지방에서처럼 논농사만 해 왔던 농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밭작물을 시키게 되면 능률상으로도 기분에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채 : 남선 사람들은 밭농사는 농사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이니깐요.

정(인) : 지금 만주에는 안전 농촌이 5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경지가 논으로서 밭은 2부 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 근처의 생활은 윤택하여 농사꾼의 딸이 그런 시골에서 하이힐을 신고 있기도 합니다.

채 : 논 가경지(可耕地)가 전연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적지(適地) 배치(配置)가 필요한 것이지요.

정(인) : 이제 간도성에서도 농기구를 개량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다면 대 농법을 배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북만처럼 트랙터는 필요 없지만, 부라우 농법은 필요하지요. 그것으로 경작하면 파 일어난 흙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집에 한 개씩이라도 준다면 증산의 능률은 눈에 보이듯 올라갈 텐데요. 요즘 같아서는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채 : 만주는 광막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도성은 산 또 산이군요.

정(인) :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산이 있습니다.

정(비) : 저 산 꼭대기가 오히려 비옥하여 경작하기 좋다고 합니다.

채 : 아직 경작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정(비) : 원래는 나무가 있던 산을 비적의 소굴과 떨감으로 베어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운 커다란 나무를 장작으로 써버린 거지요.



## 신붓감 기근(饑饉)

기자 : 개척지의 신붓감 부족은 대단히 급박한 문제 같은데, 일전에 이주협회에서 부인지도원을 알선사절단으로서 시찰시켰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 : 북만촌(福滿村)에는, 결혼 적령 남자가 5십명에 여자는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10명이 또, 전부 현지에서 시집을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조선에 보내고 싶어하고, 딸도 역시 도회지의 월급쟁이에게 시집가고 싶어합니다. 갈수록 모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개는 결혼을 할 희망이 없다는 것이, 슬픈 상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 : 원기 왕성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성의 사랑에 굶주리면 기분이 거칠어져서 일에도 흥미가 줄어들습니다.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도현(安圖縣)의 모범촌에서는 술도 못 마시게 하니까, 생활에 아무런 윤택함이 없다는 불평도 나오게 됩니다.

정(비) : 여기에서 갈 때도, 딸만은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시집을 보낸 후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생활의 안정성이나 의의를 잘 이야기 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지부락에서는, 농한기인 겨울에는 일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내선 개척촌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정(인) : 원인은 여자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데 있는데 기존 주민들은 현재 아직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채 : 제가 볼 때는 남자 10명에, 여자 5, 6명쯤이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 : 거기에다가 여자의 지식이 남자보다도 높다고 하는 알맞은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는 일반적으로 허영심이 아니더라도 눈이 높지요. 젊은 남자들은 들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공부할 틈이 없고 여자는 그 틈에 국민학교는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배우지 못한 남편은 싫다고 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며느리는 되도록이면 먼 곳에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조건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분촌(分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인) :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니, 대책으로서 뭔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비) : 딸이 하나 있으면 대단한 것이지요. 마을 청년들이 모두 와서 일해 주거나 해서……

일동 (웃음)

## 위문운동을 일으키고 싶다

기자 : 선내(鮮內)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정(비) : 간도성에서 모리(毛利) 홍보고장(股長)과 다케나카(竹中) 씨가 주장하여, 작년 9월 3일에 학생특별공작대를 만들었습니다. 공작대는 교장이 추천한 가장 우수한 남녀생도로 조직되어 있고, 한 대가 30명으로 4대가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가서 강연이나 종이연극, 연극 등을 하면서 계발과 위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0개 소대로 늘리고, 앞으로는 전 만주에 보급하고 싶다고 합니다. 독일의 청년 돌격대 같은 것이지요.

정(인) : 여기에서도 가끔 하고는 있으나, 위문을 하거나 위문품을 보내거나 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쪽의 신부와 옷의 부족은 심각합니다. 아녀자들이 국어강습회에 오고 있으나, 영하 30도의 밤길을 맨발로 오고 있습니다. 보기에 딱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를 새끼로 업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주협회에서 옷을 모으고 위문품을 보냈으나, 이주협회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대규모 민간 운동으로 끌어올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 : 이 이야기를 기사에 꼭 넣어 주십시오.

정(인) : 그리고 읽을거리가 없습니다. 항학열이 왕성한 곳에 긴요한 책이 없습니다.

기자 : 국어(일본어) 책이라도 괜찮겠지요.

일동 : 예, 물론입니다.

이 : 한 부락에 겨우 10권씩이라도 보내면 돌려서 읽게 되지요.

이 : 학교에 보내도 좋을 것입니다. 밤에는 집회소가 되고 있으니까.

기자 : 고향과 편지는 주고받고 있겠지요.

정(인) : 그건 하고 있지만, 자기가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비) : 우리가 가도 무척 기뻐하더군요.

이 : 모든 방법은 역시 간도의 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슬픔도 즐거움도 함께 한다고 하는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정(비) : 그 점에서 잠깐 여담입니다만, 그쪽의 관리가 왔는데(본인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이쪽의 어떤 관리가 명함을 보고 '간도쇼(間島省)'를 모르고 '마지마쇼(間島省)'<sup>116)</sup>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동 : (웃음)

정(인) : 위문운동을 언론기관 같은 곳과 협력해서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싶습니다.

일동 : 이번 기회는, 홍보위원회의 모리 씨를 비롯하여 여러분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감사의 말도 부탁드립니다.

기자 :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전 : 李無影 · 鄭飛石 · 鄭仁澤 · 蔡萬植, 「間島省視察作家團報告」(座談), 『綠旗』 1943년 2월호, 102~110쪽〉

116) 間島라는 한자는 일본어식으로 읽을 때 간도, 마지마 어느 쪽으로나 읽을 수 있지만 마지마로 읽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 3) 계정식(桂貞植)

#### (1) 음악은 군수품이다(음악시평)

음악은 일반적으로 한인(閑人)의 도락예술이라고 석인(昔人)들은 말하였다. 그리고 평화시대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또는 창작되는 줄만 알았다. 이것이 음악예술에 대한 일반적 견해였다. 지금같이 전쟁시대 즉 대포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공습으로 폭탄의 세례를 받게 되는 때는 음악예술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관념도 한 시대에 있었다. 그리고 현대 전쟁에 있어서는 이런 그릇된 예술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때이며 이런 관념을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왜 그런고 하면 음악이 전쟁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는 지금까지 한일이 위대한 까닭이다. 비상시국에 처한 민중의 태도와 심정이 거칠어지기 쉬워서 당국에서는 전력을 경주하여 여러 번 친절운동을 실시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즈음 국민총력조선연맹 및 조선음악협회 주최로 국민개창운동을 경성을 위시하여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총후 국민을 위하여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음악의 힘으로 애국심을 기르며 멸사봉공의 정신을 굳게 하여 국가의 유익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므로 불가결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총력연맹에서는 시국에 가장 적당한 곡을 선택하여 곡집 『우리들의 노래(我等의歌)』를 발간하여 누구나 손쉽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사기를 고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음악이라는 것은 청각을 예민하게 하는 예술만큼 귀의 훈련은 매우 필요하다. 귀가 무딘 인간은 음악을 즐길 수도 없고 하기도 곤란하다. 청각을 통해서만 운동도 되고 쾌감도 느낄 수 있느니만치 음악예술은 시중 귀의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안다. 그러므로 음의 식별이 대단히 중요한데 독일국민이 일반적으로 귀가 펴 발달된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보았다.

그들은 음악전문가가 아니라도 음청(音聽)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함을 느꼈다. 필자가 재독시대 독일인 동무 4, 5인과 같이 하이든의 3중주곡을 하는 중 돌연히 첼로 주자가 연주를 중지하고 하는 말이 어떤 육하는 말이 귀에 들려와서 연주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이 합주하던 사람들도 정지한즉 과연 옆 방에서 무슨 소리 지르는 음성이 들려왔다. 주인에게 물어본즉 그의 아들이 설교연습 하노라고 음성을 높였다 낮추었다 하던 것을 첼로 주자가 알게 되었던 것이다.

다른 외국에 없는 음감교육을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여 아동에게 철저히 훈련시키므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 위대한 음악가도 많이 날 것이며 음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서 모든 방면에 유익할 점이 많을 것이며 대동아전쟁 결전을 완수하며 앞날의 건설이 튼튼해질 것이 틀림없는 줄 생각된다.

음악은 사치품이 아니고 군수품이라고까지 말한 것이 아직 귀에 쟁쟁하다.

〈출전 : 桂貞植 「音樂은 軍需品이다(音樂時評)」, 『新時代』 제3권 제6호, 1943년 6월, 129쪽〉

#### 4) 김관(金管)

##### (1) 전쟁과 음악(1939)

음악의 종중상(種種相)은 여하한 시대에서든 그 사회의 기구를 암시하는 하나의 특징이다. 국가의 비상시에 당하였을 때 국민은 군가를 환영하고 애창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국민의 감정이 표현된 진정한 소리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음악은 구체적인 어떠한 사회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한 것이다.

순수음악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음악 작품 가운데에 어떠한 정치적 관념이나 감정을 직접 관련시키는 일은 예술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람버트」의 말과 같이 여하한 정치적인 선동을 위한 팜플렛이나 포스터라고 할지라도 코르넷이나 태고(太鼓)의 힘(즉 음악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 군대응모병 수의 백분지일이나마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예술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음악의 도움이 없다면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다. 전쟁과 음악은 음악미학상의 논란은 고사하고 비상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인류전쟁이 전쟁이란 대규모의 형태를 갖추기 이전 즉 원시시대에 있어서 이미 음악은 음악이란 형식을 갖지 못한 일종의 음, 또는 성음이 전쟁의식을 고취하였던 것이다.

전쟁과 행진곡은 현대의 관계이지만 전쟁을 고무하기 위한 정신적인 감동을 환기시키는 힘으로서 음악의 이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는 일반의 무관심한데 비해서 주목되어야 할 문제인줄 안다.

음악재래의 정서적인 감정표출설에 입각하여 볼진대 음악양식 가운데는 어떤 혁명적인 성질이 함유되고 있다. 과거 서구음악의 예를 빌어본다면 오오베르의 ‘마사니에로’가 혁명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라던가,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아 등이 가진 혁명적인 상징은 베토벤의 전쟁교향곡이나 차이코프스키의 서곡 1812년과 같은 공용주의인 전쟁음악과는 달리 음악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전쟁음악이라 하면 전쟁시 전쟁문학이란 말과 동양(同樣)으로 전쟁을 테마로 한 것이고 전쟁을 묘사한 음악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전쟁과 음악의 관계에서 논구할 수 있는 일종 음악본질적인 고찰과는 다른 것이 전쟁음악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음악은 협의로 해석될 전쟁과 음악의 관계에서 생기게 되는 것임으로 이것을 혼용해서는 아니될 줄 안다. 전쟁과 음악을 논구할 외래문고에서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은 전쟁음악에 관한 논설뿐이다. 전쟁과 음악을 설명하는 일이 순수음악미학에 관련되는 것이 되고 형식논자나 관념론자나 하는 각기의 입장에 따라서 전쟁을 고무하는 정신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시비 논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전쟁음악은 전쟁문학과 같이 허다하지는 못하다 해도 역사상에서 보면 18, 19세기 간에는 상당한 작품이 있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베토벤의 전쟁교향곡이라던가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같은 것이 오늘날까지 전쟁음악의 표본으로서 선전되고 연주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주제취급에 있어서는 미약하고 결국 전쟁묘사음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묘사음악은 산문적인 것이고 단지 전쟁의 경과를 음으로 읽는 류의 음악에 견혀진 것임에 불만이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쟁의 의의를 확호하

게 파악하고 그 필연적인 인과를 인식할 때 비로소 전쟁문학이나 전쟁회화의 존재가 중대한 전쟁문화로 비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음악 또한 그러하여야 될 것인 줄 안다.

(출전 : 金管, 『戰爭과 音樂』, 『매일신보』, 1939년 11월 1일)

## (2) 전쟁과 음악(1~2, 1940)

### 1

전쟁과 행진곡, 전쟁과 군가 - 이것은 전쟁과 음악의 관계에 있어서 보편적인 통속견해 인 것 같다. 더구나 우리와 같이 동양전성기에 태어난 젊은 시대의 사람으로 말하면 군악대와 군가 레코드에서 받는 무의식적인 음악관념과 금일과 같은 전시 체제의 사회상태에서 표현된 전쟁음악의 징후에 대하여는 심리의 수연을 요치 않아라만치 컨지니알한 감을 가질 수가 있던 것이다.

원시민족에 있어서 물자생활을 막아하고 있는 노동과 거기서 오는 전쟁과 음악은 전혀 융합된 것이 있었다. 칼보헬은 노동은 꺄의 근원이고 노동의 절대적 경제범위가 아닌 점을 역설함으로써 심리학적, 미학적 입각점에서 고찰하고 있지만, 첫째 음악의 생명이고 또는 예술의 진꺄이기도 한 리듬은 원시노동의 보편적 특성이다. 원시민족이 그들의 생활 전반을 리드미칼한 상태로 구성하려 한데서 그들의 각종의 행동과 일과 단결을 리듬에 의해서 조장하고 또는 서로서로 사이의 융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노동의 피로의 경멸과 정신의 위안 그리고 용기를 고취시키는 등 그들의 생명의 진수에 음악적 요소가 불가결인 것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은 명백한 일이다. 수렵민족의 무담은 그 대부분이 이 집단인 것이었고 일종족 또는 꺄족들이 함께 추는데서 일치단결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은 하나의 법칙에 쫓아서 하나의 리듬에 의하여 연동을 한다고 하는 구룳체의 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놀랄만한 집단적인 통일과 일치된 감정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 가운데서 우리는 수렵민족과 같은 불확정 불규칙한 생활과 무질서한 즐레가운데에 하나의 정해진 의지 - 즉 정해진 감정을 가지고 동동으로 강요하는 위대한 힘을 음악은 가진 것을 본다.

그럼으로 인류전쟁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그 전쟁을 고무하기 위한 일종의 음과 성음이 사용된 것을 추지하기는 용이한 일이다.

전쟁과 군가의 시대인 금일의 시기는 사회의 중대한 어떠한 순환기에 선 것이다. 전국민이 꺄현하는 활력이 하나의 실체가 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국적 가용의 유행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의미로서 음악은 이러한 사회상태의 하나의 꺄꺄란 징후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과거의 예를 구라파에서 몇 개 들추어 보기로 하겠다. 역사상에서 보면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에 가장 많이 그러한 전쟁음악의 예를 찾아낼 수 있다.

### 2

베토벤의 전쟁교향곡과 상관되는 것은 차이코프스키의 서곡 1812년이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베토벤의 것보다 유명하다.

이 작품은 순수한 의미로서 프로그램 뮤직(표제음악)으로는 가장 규범과 격조를 가진 것이다. 「1812년」은 나폴레옹의 유명한 모스크바 공격전이 있던 때로 나폴레옹 군은 러시아 군의 기계에 빠져 들어 패배하고 말았지만, 차이코프스키는 그것을 주제로 하고 전쟁의 승패를 묘기한 것이다. 영국군을 주제로 한 베토벤의 전쟁 심포니 보다는 일대의 영웅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은 다분히 다라미틱할 뿐더러 또한 작곡상에서만 보더라도 석금으로 애호되는 라마르세이유를 사용한 것이 득책이었던 것이다.

「1812년」은 프로그램 음악으로서 우리에게 감명이 깊은 이유는 차이코프스키 자신 러시아인이었고 고국 러시아에 승리에 감격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라마르세이유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불란서 국가에 대한 보불전쟁 당시 파리가 프러시아 군에게 포위되었을 때의 음악기록과 기록하면서 몇 가지 더 적어보기로 하겠다.

나폴레옹 3세가 프로시아의 향하여 선전포고를 한 것은 1870년 7월 19일. 그러나 전쟁은 불란서에 불리한 정세였었고 마구마홍 원사의 군이 라인 하방에서 패전한 것이 8월 7일. 9월 3일에는 나폴레옹 황제는 제단 항복을 하였고 마츠는 포위되고 말았다. 급보가 파리에 전해지자 시민은 황제를 버리고 공화체 형식의 국가방위정부를 조직하고 독립강적에 당할 각오를 한 것이다. 프러시아 군은 수도 파리로 공격을 하여오고 불란서의 흥망은 목전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9월 18일 최초의 대포알이 파리에서 발포되었고 드디어 파리는 포위망내에 빠지고 말았다. 10월 30일 메츠가 함락하고 파리의 포위진은 배가 되기 시작했다. 식량공급의 결핍가운데서 세모는 닥쳐오고 흑한의 겨울인 파리는 기아의 거리로 변하고 말았다.

프러시아황제에 대하여 불란서가 선전포고를 하였을 때 시중연한 가운데서 어디선지 모르게 들리워지기 시작한 것이 라마르세이유다. 당시는 물론 불란서국가는 아니었다. 도리어 국기의 노래에 관한 것이었다.

마르세이유에 대하여는 이설이 구구하지만 1792년 4월 리루가 작곡한 것으로 최초에는 라인군을 위한 군가라고 이름붙여지던 것이 파리에 선전된 것이 동년 8월 환불연합군이 불란서에 침입하였을 때 마르세이유의 건아들이 행진곡으로서 이 군가를 합창하였기 때문이다.

고금 무비의 군가 마르세이유의 노래는 이 노래가 가진 격렬한 고무의 힘과 내재적인 탄력을 가진데서 전쟁과 깊은 관계를 가진 점에서 단연 제일위에 속하는 것이다. 1792년에서 마르세이유의 노래 때문에 프러시아 사상자가 오만인이라고 한다. 그럼으로 프러시아 군에 있어서는 위협천만한 마르세이유의 노래였지만, 불란서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포탄일뿐더러 사기를 진흥 고취하는데 강압적인 흥분제였던 무형의 무기였던 것이다.

음악이 인심을 고무하고 동일한 의지로서의 아지텐손의 효과를 십이분 발휘하는 예는 마르세이유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태리의 파시스트의 성가인 「청춘의 노래」, 또는 나치 독일의 군가 등 힘찬 음악이 그들의 민족국가 건설에 무형의 무리로서 큰 힘을 발휘함을 볼 때 우리들의 금일의 음악이 단지 총후적 존재에만 미치지 말고 전진적인 음악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아서는 천만의 슬로건보다 일층 긴급하고 급무의 일인 줄 안다.

〈출전 : 金管, 「戰爭과 音樂(1~2)」, 『매일신보』, 1940년 1월 5~6일〉

## 5) 김동인(金東仁)

### (1) 태평양송(太平洋頌)

지구의 위에 대양이 다섯이 있다. 하지만 그 넓이에 있어서든 부(富)에 있어서든 태평양이야 말로 그 대표의 것이다.

근이만방천(近二萬方杼)이라는 광대한 면적을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타고 앉아서 능히 동서를 아울러 호령할 수 있으며, 소위 오대양중의 남수(南水), 북수(北水), 인도의 삼양(三洋)의 종속자인 듯한 빈약한 이니 단 하나 대서양만이 태평양과 대등권을 주장할지 모르나 단적으로 벌써 도히려 태평양과 어깨를 겨눌 수 없으니, 태평양은 이 지구를 대표하는 바다라 하여도 항의를 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 생긴 이래, 태평양은 지금껏 인류를 먹여 길러왔다. 그 기럭지가 북수양(北水洋)에서 적도(赤道)를 지나 남수양(南水洋)까지 달한 이 기다란 바다, 그 넓이는 또한 동양에서부터 서양까지 걸친 이 넓은 바다는 그의 연변(沿邊)에서 또는 그의 해도상(海島上)에서 나는 가지각색의 과일과 곡식이며 그 물 가운데서 나는 무수한 수산물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왔다

태평양이며 그 연변에서 차출되는 물자는 결코 산액(産額)의 몇 할 혹은 몇 분의 일이라는 빈약한 것이 아니라 80몇 할 혹은 90몇 할 이라는 지구산액의 대부분을 점하는 분량이다. 단 몇 할이라는 빈약한 분량은 산출하기조차 부끄러히 여긴다.

그러면 이러한 대양을 내 것이라고 큰소리로 외칠 권한을 가진 인종은 누구냐. 일곱 바다의 주인이라 자칭하고 유니온 잭의 기하(旗下)에 해가 지는 일이 없다고 자랑한 대영제국(大英帝國)도 아직 감히 태평양 내 바다라고 고함쳐 보지 못하였다. 그 몸의 반신과 및 수다한 반도를 태평양에 잠그고 있는 미합중국(米合衆國)도 감히 이 소리를 외쳐 보지 못했다. 그 밖 다른 작은 나라들은 거듭 말할 것도 없다.

태평양은 내 바다다. 인류에게 향하여 큰소리로 능히 이렇게 부르짖고 이 권리를 주장할 지위와 실력을 가진 자는 오직 우리 일본밖에 없다. 태평양의 소재가 동양이고 서양이고를 막론하고 태평양상의 영토가 영인(英人)의 것이고 미인(米人)의 것이고를 막론하고 모두 이를 품에 품은 거광(巨廣)한 태평양은 일본의 것이로다. 여기 반대할 자 누구며 항의할 자 누구랴.

태평양의 영토로서 아직 그 땅 부귀를 자랑하던 화도, 또는 유니온 잭의 기(旗)에 해가 안진다고 외치던 영국도 이제는 태평양을 제 주인에게 돌려줄 날이 이르렀다. 그 반신(半身)을 태평양에 잠그고 무뢰(無賴)한 비도(飛鳥)를 태평양상에 갖고 전 태평양을 노려보던 미국도 이제는 영해태평양선(領海太平洋線)의 이의를 한눈 팔도 던지지 못할 날이 이르렀다

캠브릿지를 본위(本位)로 한 위도도 장차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을 0도 하여 그 이동(以東)을 동양 그 이서(以西)를 서양이라 하고 우리나라를 대중원(大中原)이라 마땅히 불러야 할 것이다. 태평양은 지구의 중심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태평양을 나의 바다로 지금 어린애까지도 부르는 이 대행진곡은 우리의 외침인 동시에 우리 태평양연변의 전국가의 태평양 주권 주장의 부르짖음이다.

태평양 내 바다

태평양 일본의 바다

〈출전 : 金東仁, 「太平洋頌」, 『매일신보』, 1942년 1월 6일〉

## 6) 김동환(金東煥, 白山靑樹)

### (1) 내외 동포에 호소함

본사 사장 백산청수(白山靑樹. 金東煥)

『대동아』라고, 본지 제호를 고친 이 기회를 빌어서 저는 세 가지 점에 관해 우리들 내외에 있는, 반도 민중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 1. 조선내의 형제에게

지금 조국일본은 칼과 피로써 ‘신성 아시아’를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 같은 큰 적을 맞이하여 대전완수를 위해 한창인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적어도 국민사상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내외의 모략에도 가담하지 않고, 나아가 단호하게 격파하기로 서로가 맹세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걱정되는 것은 조선내의 여러분들 중에 만의 하나라도 편협한 민족자결주의를 아직도 꿈꾸며 또 미, 영 지상(至上)의 악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엄한 투옥, 문책의 전시국법이 내려지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보내는 이러한 충고를 들으며 지금 즉각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청산하기 바란다. 국민사상 분열은 참으로 국내질서의 교란을 초래하고, 그대로 국가를 패전, 붕괴의 길로 서두르게 하는 것이다.

(중략)

실제로 전선 장병의 역할을 분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를 통하여 식량, 탄환을 생산하는 것이며 우리가 한 섬의 쌀을 더 수확하면 한 사람의 병사는 1마일 더 전진 할 것이다. 한 덩어리의 석탄을 더 파내면 적진에 한 발을 더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온힘을 다해서 저축을 하고 공채를 사며, 물자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5. 이제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을 뿐

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선전(宣戰) 대조(大詔)를 받들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마움의 눈물로 감읍했을 것이다. 참으로 대 어심(御心)은 전 아시아의 강토(疆土)와 학대 받은 13억의 민초를 구해내시는 데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세아의 손발은 미, 영의 독즙(毒汁)에 부란(腐爛) 당하고, 미, 영의 마약에 혼수상태가 되어 있다. 우리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의 모습은 너무나도 학대를 받아 상처가 나고, 여위고 병들어 있지 않은가.

또한 루즈벨트가 강제하는 미 침략주의의 식량창고로까지 되어 버렸다. 필리핀과 진주만이 있지 않은가. 또 처칠로 표상되는 영 제국주의의 노복(奴僕) 공급지로 허덕이는 인도, 이란, 버마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미, 영은 그 자원과 노복을 역이용하여 오늘날은 그것으로 아시아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자 우리 황국에 대항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화근을 끊지 않으면 우리 동아시아민족은 영원히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각각의 영



토, 인구, 자원을 도로 빼앗아 13억 민중이 공영(共榮)적으로 배합되는 신질서를 창건하기 위하여 대조(大詔)의 환발(渙發)이 되어 대동아전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드디어 대동아건설의 문은 12월8일 진주만, 말레이 바다의 맨 처음 포성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 영의 아성(牙城)을 무너뜨리는 포탄을 신호로 3백 년 동안의 침략의 전당은 기와가 무너지듯, 급속히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미 홍콩, 마닐라, 괌, 웨이크, 싱가포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가 함락되었고, 진주만,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곧 이어서 함락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함락의 끝날이 우리 건설의 첫날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동쪽 문이 우리의 서쪽을 지키는 문이 된 것은 기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전진이 있을 뿐이다. 성조기와 유니온 잭의 깃발이 동아시아의 땅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될 때까지 전진이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 황성의 이중고 앞에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이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할 때까지 우리들 각자 5척의 몸을 나라에 바칠 따름이다.

그리하여 곧 모든 억압민족이 대동아공영권의 빛나는 구성분자로서, 갱생하는 새벽에 비로소 포화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화(戰火) 속에서 일본인이 완전한 일본인이 되자.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길을 우리 자신의 노력을 10배 100배 크게 하여 급속한 황민화의 길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자. 소송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자. 작은 차별, 작은 고집을 버리며 허심탄회하게 빈손이 되어 야마토(大和)정신 속으로 뛰어 들어가자.

내선일체가 완성된 모습만을 그리워하며, 도중의 작은 불편, 작은 불만에는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때는 지금이다. 생명을 뛰어 넘어서 나아가자. 한 몸을 희생해서 나아가자. 내선일체야말로 우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

전쟁은 길어지고 앞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일본과 함께 생성(生成)하고 조국과 함께 융체(隆替)할 각오를 갖고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2천 6백만은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하여 신의 가호를 빌자.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도 국민으로서의 최대의 양식과 희생을 바치자. 이러한 것을 본지가 새로운 구상 아래 재출발하는 오늘, 열의로써 재삼 고한다.

〈출전 : 白山靑樹, 「内外同胞に訴ふ, 本誌「大東亞」と改題 再出發に際して」, 『大東亞』 제14권 제3호, 1942년 3월, 14~18쪽〉

## 7) 김문집(金文輯)

### (1) 조국에 목숨 바친 최초의 반도 지원병, '축하해야 할 죽음!', 피로 살다간 우리의 이인석 군

1

차분한 가운데서도 정말이지 맑은 아침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날이 7월 7일의 흥

아기념일(興亞記念日), 일역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침묵의 무장’을 응집해 저 멀리 니주바시(二重橋)<sup>117)</sup> 너머를 경배하고, 머리를 돌려 이번에는 또 4백여 주의 중국대륙에 어능위(御稜威)를 넓혀 근엄한 진영을 펼치고 있는 수십 수백만 황군(皇軍) 장병들에게 하루 종일 경례하고, —나 자신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피우지 않고(담배) 마시지 않고(술) 어떠한 오락도 즐기지 않고 국 하나에 반찬 하나로 숨 막히는 흥아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저녁이 깊어지고 날이 밝아 이윽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는 그 아침이다. 차분한 가운데서도 맑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날 아침, 가장 먼저 나는 그야말로 당연한, 아니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소식을 신문에서 읽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나 자신도 모르는 감정으로 하루 종일 흥분해서 뛰어다녔다.

솔직한 말로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는 바로 하루 전 일인데도 전혀 기억할 수 없다. 그만큼 실은 나 자신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날 나는 보이는 우체국마다 들러 오늘 아침 이 당연한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구로 전보를 친 것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조선의 아버지인 미나미(南) 총독 각하에게 보낸 전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천삼백만보다 한발 앞서 이인석(李仁錫) 군 떠나다. 아아, 각하, 우리와 함께 개가를 올리지 않으려나.”

이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 이인석 군이 이천삼백만 조선신민(朝鮮臣民)의 여망을 짊어지고 홀로 장렬하게 천황폐하께 생명을 바친 생생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날이다.

7일은 숨 막히는 자숙의 날, 8일은 광란의 자축의 날. 게다가 7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8일은 내 어머니의 기일이다. —충효가 하나인 것처럼 축(祝)은 숙(肅)으로 귀일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날 낳아준 어머니의 기일이자 지원병 최초의 전사를 알게 된 날이다. 1939년 7월 8일을 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에 우리 이천삼백만의 충성이 반영되고 희망이 표징(表徵)되어 있는 것이다!

## 2

죽음을 축하한다? 물론이다. 세상에 축하해야 할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천황의 어능위 아래 황군의 한 사람으로서 흥아전선, 멀리 북중국의 황야에서 쓰러진 이인석 군의 죽음을 축하해야 할 것이고, 이인석 군의 죽음을 두고 조선 어디에 우리 조선 자신을 위해, 황국 전체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의 집(一宇)인 전 세계(大八紘)를 위해 축하해야 할 죽음이 있겠는가!

아직 자세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군의 훈공이나 전사 상황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 하나만은 추측할 수 있다.

즉 이군은 “천황폐하만세”를 외치고 최후의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만은 의심할 만한 그 어떠한 여지도 근거도 없는 우리 조선 전체의 순수 상상이다.

이인석 군 한 명의 전사를 두고 이리도 광분하듯 자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도 실은 이런 상상에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반도는 폐하를 받들고 충의를 다하고 국가 유사시에는 충용(忠勇)을 다 바치는

117) 황거(皇居) 정문 앞에 걸려 있는 철제 다리.

데 있어서 결코 지금까지의 일본 내지에 비해 더 나으면 나왔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다짐을 이군의 죽음에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두고 보라!” 백 명의 이인석, 천 명을 죽이는 제2의 귀신 이인석 등등 계속해서 어떤 자들이 뛰쳐나올지 모르는 호국의 귀신들이 이제부터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의 방을 신청하기 위해 예약이 쇄도하는 왕성함을 보일 것이다.

지원병훈련소 소장인 시오바라(鹽原) 학무국장이나 동 훈련소의 가이타(海田) 대좌 이하 교관일동은 충북 옥천에 있는 명예로운 부친 이천전(李千典) 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전(弔電)을 부쳤다.

“자녀분의 명예로운 전사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한다. 호국의 주석(柱石)이 된 것에 감사드리고 영령의 명목을 빈다.”

이는 천하의 명문이다. 명문이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성실함의 다과강약(多寡強弱)으로 결정되는 법이다. 이 전문은 키운 부모 된 자가 그 자식에게 보내는 절실한 사랑(愛惜)과 안타까움(悼情), 그리고 참되고 엄숙한 송찬(頌讚)과 위사(慰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명문인 까닭이다.

하지만 역사적 현 단계에서 이군과는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 ‘반도인’(半島人)은 과연 위와 같은 ‘조전’을 이군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을까? 이는 델리케이트 하고 다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의문이다. 일본 내지인끼리라면 적어도 감정상으로는 당연히 조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한 명의 전사자가 나왔을 뿐인 우리 ‘반도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전은 될 수 없고 하물며 축전은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축전은 타인칭의 경사를 축하할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군의 죽음은 이군 자신의 기쁨도 슬픔도 아니다. 우리 조선 전체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넘쳐 슬픔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역시 자축의 축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축의 축배를 들며 말하길,

“우리 인석 군을 보라!”

### 3

이군은 앞서 언급한 천전 씨(이 아버지에게 명예 있기를!)의 장남으로 올해 24살의 모범청년이다. 옥천공립농업실습학교 조수로 봉직 중에 일단 지원병령이 반도에 시행되자 솔선해서 여기에 몸을 던졌고 염원이 이루어져 선발되는 영예를 입자 예상대로 훈련소 내에서는 조장, 반 총대 등을 맡고 마침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소를 떠난 독실명민(篤實明敏)한 ‘병대(兵隊)’였다. 훈련소 개소식이 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날 나는 이 역사적인 광경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일부러 대구에서 임성해서 역에 트렁크를 맡기고 서둘러 식당으로 차를 달렸다.

카키색의 허름한 제복을 입은 시오바라 소장과는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아버지” 미나미 총독의 온화한 얼굴을 직접 뵈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마지막까지 나는 그저 □□해서 □□ ‘동안(童顔)’ ‘동안’이라고 전해지고 있던 총독님의 얼굴은 결코 동안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자안(慈顔)’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이천삼백만은 저 품에 뛰어들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과연! 이백 명의 건남아(健男兒)들이 “뛰어든다!”라는 것 외에 달리 형용할 방도가 없는 의기와 자세로 시종일관 우리 반도의 전 적성(赤誠)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하늘을 찌

르는 저 눈빛의 폭풍! 땅을 가르는 저 보무의 당당함! 비평가의 이성도 예술가의 감성도 모두 집어삼키고 오직 하나 황홀한 영혼이 신들린 듯이 그들 이백 명의 얼굴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로 그 중 하나가 이인석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얼굴을 물론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문에서 이군의 사진을 봤을 때 반사적으로 나는 외쳤다.

“그래! 자네야!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자네의 얼굴을 알고 있네!”

이쯤 되면 이야기는 광기 어린 것이 된다. 그러나 변명할 방도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다.

영원히 사는 자 이인석 군—일본은 『만엽집(萬葉集)』에 있는 것처럼 ‘언령(言靈)이 풍부한 나라’이고 『고사기(古事記)』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맺음’의 나라이다. 다시 말해 영육일치(靈肉一致)의 국체이고 무한화(無限和)를 향하 생성 발전체이다. 그 피가 국체에 용해됨으로써 이인석은 생성 발전으로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신령(惟神)한 이 생명철학 외에 조선인이 구원받을 길은 없음을 이인석 군이 직접 몸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고맙다고 할까 황송하다고 할까, 아무런 □□□ 할 말을 찾을 수 없다.

#### 4

이런 감정으로 오늘 나는 지원병을 낳은 부모인 시오바라 학무국장과 조선의 아버지 미나미 총독을 만나러 총독부를 방문했다. 대중을 대신해 들은 말을 대중에게 그대로 전하면 그것으로 내 임무는 끝난다.

국장은 □□□□□□을 새로이 했는지, 아니면 많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는지, 내 무언에 대해 무언으로 대답하기를 수십 초가 흐른 뒤 단 한 마디 □□처럼 내뱉으신다.

“이군이 흘린 피는 일본과 조선을 하나의 몸으로 합치는 풀이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가슴속에 남은 침묵, 옷을 단정히 하고 식사 중인 총독각하를 비서관실에서 기다리기를 40분. 이윽고 나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고 공손하게 그 그림자로부터 물러났다.

“이인석 지원병의 전사는 군인으로서 반도 동포 최초의 전사이고, 일반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내선 일체의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사의 □□□□□□□□을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용감 분투, 제국 군인으로서 훌륭한 최후를 맞이했으리라 확신하고 충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고마운 말이라고 하는 것 외에 나 같은 사람이 달리 어떤 말할 수 있겠는가.

마침 전차 요금에 없었던 나는 어느새 내리기 시작한 빗속을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만 머리를 숙이고 비 맞은 생쥐 풀이 된 것도 모르고 숙소까지 걸어온 것이다.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쓴 것이 이 글이다. 다시 읽어볼 시간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가슴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 천황(大君) 곁에서 죽어도 후회하지는 않으리”—가장의 노래다. 아니 지원병 제군들의 노래다. 사실 또 이군은 몇 번이나 이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겠는가!

겻쇼(月照)<sup>118)</sup>의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대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는가. 사쓰마(薩摩)의 해협에 몸이 잠긴다 해도.

이에 대한 이인석 군의 답가.

—대군에게 바친 목숨이다. 지나(支那)의 광야에서 몸이 사라질지라도.

그렇다. 이군의 몸은 절대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5

이인석 님 만세!

희망의 이천삼백만 만세!

[7월 10일 기]

[주장] 이 상등병의 전사

제1기 특별지원병 상등병 이인석 씨는 북중국 의 ○○전선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이 소식은 반도의 이천만 민중들의 뇌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상등병의 전사가 알려진 지 벌써 여러 날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최초의 경험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오랫동안 수면 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 영혼에 너무나 큰 충격이자 감격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 한마디 “이군 고맙네. 이군 고맙네”를 반복하는 것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이 상등병 이전에도 반도 출신으로 육군 장교 출정자도 있고 몇 명의 전사자도 있어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모셔져 있으나, 폐하의 군인으로서의 전사는 이씨가 효시이다. 마찬가지로 제국의 신민이고 숫자에 있어서 전 국민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이번 같은 대사변을 맞이해 피의 봉사를 할 수 없었던 우리 ‘반도인’(半島人)의 미안함이 이씨의 용감한 전사에 의해 조금은 경감된 듯한 느낌이다. 국가가 이 상등병에게 보내는 영예는 우리 전체의 것이다. 이 상등병은 그 죽음으로 일본 전체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식이 되었는데, 특히 전 조선 6백만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식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 경우 두 가지 맹세를 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 폐하의 군인으로서 바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상등병의 유족을 위해 성심성의 후원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맹세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진정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될 것이다.

이인석 상등병이 학생시절에도 훈련생시절에도 모범청년이었던 사실을 듣고 한층 더 친근감과 존귀함을 느낀다. 평소 의무에 대한 생각이 깊고 능률한 인격자였던 그였기에 용감하게 ‘적진에 돌진해서’ 장렬하게 싸울 수 있었다는 배움을 우리는 얻은 것이다.

“이인석 군, 고맙네!”라고 독자들이여 한 목소리로 감사하지 않겠는가.

〈출전 : 金文輯, 「祖國に殉じた最初の半島志願兵祝ふべき死!」 血に生きたわれらの李仁錫君, 『國民新報』, 1939년 7월 16일〉

118) 1813~1858. 에도(江戸) 말기의 법상종(法相宗)의 승려.

## 8)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 (1) 전선을 순례하고

이번에 우리가 북지(北支)로 조선문단의 사절로 갔다 온 것은 물론 황군위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임무는 위문과 동시에 시찰이었던 것이다. 또 시찰만이 아닌 전선의 황군의 용감한 생활과 또 그 고생 등을 문장으로 엮어서 반도 민중에게 읽히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뜻으로 혹시 종군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일부사람은 종군이었다고 했다.

사실은 우리도 북경에 도착하기까지는 자신들이 종군으로 가는지 혹은 시찰로 가는지는 확실한 짐작이 안 갔다. 다만 저는 비공식 종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우리 증명서에는 여행과 시찰이라고만 명기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므로 현지에서도 그대로 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현지에서 우리에게 대한 대우는 매우 좋은 것으로 우리는 감격했던 것이다. 현지는 매우 바쁜 곳이어서 잠시도 함부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면회를 허용하거나 군 자동차로 전적지를 보여 주거나 군 트럭으로 안내를 해 주며, 어떤 때는 부관되는 분이 장시간에 걸쳐 전선의 설명을 해 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 각하가 친히 우리들에게 전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며 또 감격했던 것이다.

우리가 출발 할 때에는, 총소리를 듣고 오라라거나, 또는 대포소리를 듣고 오라라거나, 참호생활을 하고 오라라거나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것이었다. 부탁 받은 것은 충분히 다 하지 못했지만 무엇이든지 조금씩은 견학 했다고 생각한다.

조선에서는 한 달 예정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한 달이면 너무나 짧은 기한이었던 것이다.

북경에 4, 5일간 묵고, 전선에 다녀오니까 금세 20일 이상이 되었다. 거의 설 사이도 없이 바쁜 여정이었던 것이다. 우리 여정은 자연히 단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겨우 열 군데를 돌아 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빴던 여행 중에도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다. 지금 그것을 정리하여 집필 중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공표할 작정이나 아무튼 짧은 기간에 비하여 커다란 수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극히 간단하게 감상을 말하면, 북지의 치안은 가는 곳 마다 회복되어 있던 사실이다. 북경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전선기분은 조금도 없다. 오지(奧地)에 가 보아도 거의 마찬가지로 밤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화려한 곳이 있다. 이것은 모두 황군의 충용한 결정(結晶)으로 우리는 크게 감사하는 바였다.

그것과 동시에 지나의 새로운 건설이 눈앞에 보인다. 선무(宣撫)공작의 눈물겨운 활약이 있는 것이다.

또 북지에 진출하는 조선인의 증가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반도인은 어디를 가나 안 간 곳 없는 것이다. 최전선에도 몇 백이라는 반도인이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황군과 함께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현지에 가니까 모두가 반도인들의 애국심에 감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매우 용기가 났다.

〈출전 : 朴英熙 「戰線を巡りて」, 『京城日報』, 1939년 5월 25일〉

## 9) 신고송(申鼓頌)<sup>119)</sup>

### (1) 성난 아시아 - 연극인총궐기예능제 기(記)

지난달 12, 13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조선연극사 이래 처음으로, 연극인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한 예능제가 열렸다. 이것은 「성난 아시아」라고 하는 제명에서 보듯이 단순한 축제의 소란함이 아닌, 전연극인을 자극시키는 탄환이 되어, 적 미영의 철의 반공진(反攻陣)을 무너뜨리는 성난 아시아의 의지의 탄환이자 쇠뿔이였다. “전국일(戰局日)에 긴박의 도를 더해, 일대결전기를 앞에 두고, 1억이 모두 흑독한 생산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지금, 전국(戰局)의 변전에 따라서, 잘못해서 추호라도 인심의 위축과 심정의 황폐가 있다고 한다면 큰일이다. 이 가을에 우리 예능인은 이같은 격동의 역사의 물결을 바르게 파악해, 우리들이 가진 한에서 힘을 집중하고, 국민의 모든 계층에 침투해서, 국민의 혈액 안에 흐를 감격과 기쁨을 주고 불을 밝혀, 더욱 올바른 꿈으로의 정열을 환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본래의 사명이면서 또 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모든 반도 예능인은 모든 헛된 행동을 버리고, 비상한 고난과 희생을 바치며, 전원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황도문화의 의양에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한 조선연극문화협회장 아베 타츠이치(阿部達一) 씨의 인사는, 이 예능제의 목적과 이것을 열기 위해 바친 많은 노력을 말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이 행사는 세 가지 점에서 반도연극사상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극인 또는 극단은 서로 뉘가 사정과 이해가 상반되는 뉘가가 개재되어 있었지만, 이것을 선명하게 씻어버리고, 모든 장애와 이해를 초월해서, 오로지 국가목적 위해 결집했다는 것이 그 첫번째이며, 반도에서 일류라고 불리는 전 연극인을 한 곳으로 모아 하나의 무대 위에서 노련하고 원숙한 연기를 경연시켜 호화찬란한 에마키모노(繪巻物. 그림두루마리)를 펼친 것이 그 두 번째이고, 이들 동안 4회의 공연에 1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해, 미영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고 감격을 준 것이 그 세 번째이다.

여기에 「성난 아시아」의 내용의 줄거리를 적어, 지방에 있어서 이 역사적인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먼저 편의상 기획의 경위에 대한 개략을 소개하고 싶다.

이러한 행사는 연극문화협회가맹의 20여개 단체가 진행하던 공연 등을 중단하고 참가해야 하는 관계상, 장시간의 기획연습이 불가능하여 10일간이라는 단시일에 만들어 올린 까닭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각본의 구성은 당시 경성에서 활동 중인 현역작가의 합작이다. 송영, 유치진, 김태진, 임선규, 박영호,

119) 본명은 申末贊, 필명은 申贊.

조명암 등이 이것을 맡아 3일간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것이다. 안영일, 이서향, 박춘명, 신고송 등이 이것을 공동 연출하고, 원우전, 강호, 김일영, 김정환 등이 장치 제작을 맡고, 작곡 편곡은 서영덕, 송희선, 박시춘 등 세 명, 무용은 조택원, 김민자, 정정승(貞井昇) 등 3명, 조명 아마노(天野進), 효과 이강복, 무대감독에 채정근, 한병욱, 박상진, 김정섭, 유일, 윤세중 등 6명, 홍보에 마사(眞城修石), 박두용, 김득창, 야노(矢野學彦) 등 4명이다.

이와 같은 기획진용을 보면, 현재 반도연극의 모든 두뇌를 모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 주요한 연기자를 소개하겠다. 황철, 서일성, 박창환, 한일송, 장진, 박제행, 김동규, 손일평, 이동호, 이몽, 이정훈, 김종협, 최근방, 허영진, 손보라, 이복본, 이종철, 전방일, 전흑천(田黑泉), 강호성, 전운봉, 고설봉, 박영신, 김양춘, 한은진, 김선초, 남궁연, 김복자, 최은연, 임효은, 문정복, 진랑, 조용자, 김용환, 김정구, 김안나, 남인수, 이난영, 송달협, 백년설, 백난야, 이성운, 남방용, 신불출, 이동백, 오태석, 박록주, 조상선, 한준호 등 총 출연인원 150인, 연출인원 350인이고, 관현악도 20여 명이나 되는 호장(豪壯)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획을 진행하고 연습할 때 조선총독부 정보과장으로 있고, 또 주최자인 조선연극문화협회 회장으로 있는 아베 타츠이치(阿部達一) 씨가 항상 진두에 서서 같이 밤을 세우고 지휘한 것은 물론이다.

각본은 2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미영의 동양침략과 그 비인도적인 죄악의 역사를 폭로하고, 아시아 민족을 속인 학대와 압박을 보여주며, 분노를 일으키는 아시아의 과거 모습을 보여준다. 제2부에서는 우리 제국이 미영에 전쟁을 선언한 이래, 잡에서 깬 반도가 폐하의 적자로서 진충(盡忠)에 불타는 모습과 의기를 나타내고, 강력하고 믿음직한 충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개막에 앞서, 150명의 출연자와 50여 명의 기획참가자가 무대에 서고, 아베(阿部) 회장이 전원을 대표해 인사를 했는데 이때 관객은 이미 압도된 기분으로 대단한 기쁨의 함성을 올렸다.

1부의 개막은 먼저 싸우는 무대인의 결의를 나타내는 합창시(詩)로 시작하여 남녀 30여 명의 배우가 우리의 사명을 외치는 정열을 내뿜었다. 이것이 끝나면 무대는 화원(花園)으로 바뀌고 천사 같은 소녀 20여 명의 군무가 되어 그 옛날 평화로운 동양이라고 하는 화원을 상징한다. 이 화원에 갑자기 태풍이 일고 악마 하나가 나타나 화원의 평화는 깨진다. 이것은 미영의 동아침략 평화교란을 표상한 것이다. (조선악극단 무희 전원과 정정승(貞井昇) 씨 출연)

다음 무대는 해적선으로 바뀐다. 이 배에는 여러 동양인 노예 이외에, 미영이 동양침식의 무기로 이용한 선교사가 타고 있다. 이 해적선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영의 모습이다. 어느 부인(남궁연 분)은 죽은 아이의 사체를 안고, 목사님이 빵과 약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고, 아이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른 한 부인(최은연 분)은 이것이 모두 놈들의 기만이라는 것을 설파하다가 미국인 선원에 의해 사살 당한다. 이 사람들에게 목사(한일송)는 의연하게, 현재의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는 행복이 올 수 있다고 설교한다. 이 목사의 한쪽 손에는 독 꽃이 들려져 있다. 이 꽃을 받은 한 명의 여자 노예(문정복)는 악마에게 홀려 남편의 애정을 배반하고 목사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서를 멋대로 이용한 목사가 가져온 자유와 사랑이다. 여기에 반항한 남편은 미국인 선원에게 사살 당한다.

다음은 인도로 바뀐다. 영국부인 레레나(한은진)의 과수원에 관리인으로 와 있는 브렛트(김동규)는 자신의 딸 대신 레레나에게 채찍으로 맞는다. 장녀(진랑)의 연인인 청년(한일송)은 이 비인도적인 일을 질타하고 레레나의 손에서 채찍을 빼앗아 대항하다 쫓기는 몸이 된다. 사과 하나를 훔쳤다는 작은 죄를



씩워 그들 영국인은 부모에게서 자식을 뺏고, 딸에게서 연인을 뺏는 극도로 비인도적인 짓을 저지른다.

물레를 돌리며 평화로운 리이트<sup>120)</sup>를 부르는 가련한 아가씨(이난영)도 정의와 자유를 주장하다 쫓기는 몸이 된 연인(박창환)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무대는 남방으로 바뀐다. 평화로운 꿈과 예술의 섬 발리에도 게토진(毛唐人)<sup>121)</sup>의 침략이 있었다.

다음은 제1부의 백미로 인기를 집중시킨 중국의 장면, 아편전쟁 장면이다. 약 40분에 걸친 전체 4장의 연극이다. 광동의 항구, 영국세관 부두에는, 아편을 쌓은 영국선 수척이 정박해 있다. 광동 정부는 아편의 밀매를 금지, 다수의 관리를 쿨리<sup>122)</sup>로 꾸며 밀매자를 적발했다. 그중 한 명인 오정(황철)은 오늘도 이 부두에 잠입해 있었다. 아버지(서일성)인 쿨리에게 도시락을 가져온 딸 난방(임효은)은 연인 오정을 만나 영국인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동에서 떨어진 북방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정에게서 건네받은 것은 폭탄 꾸러미였다. 세관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난방에게, 아편 더미에 던지라고 부탁한다. 난방은 두려워서 이것을 망설였지만, 오정의 사랑과 중국을 생각하는 열의에 마음이 움직여 이것을 승낙한다. 아편을 옮기는 쿨리들(서일성, 박창환, 김동규, 박제행, 이동호)는 상자 안에서 아편을 꺼내 감춘다. 이것을 발견한 영국인(장진)은 허리띠로 때린다. 영국인은 그곳에 나타난 난방을 희롱하려고 하지만 이때 나타난 쿨리 두 명(서일성의 처(박영신)와 아이)에 의해 무산되고, 아이가 출입증이 없는 것을 알고 심하게 매질을 한다. 영국인이 사라진 후에 오정은 달려 나가 모두의 뒤에 숨지만 쫓아온 영국인에게 발견되어 출입증을 조사받는다. 다른 쿨리들의 재치로 오정은 구조된다. 이 사이에 난방이 장치한 폭약이 터진다. 오정은 도망치고, 쿨리들은 잡힌다. 범인 대신에, 두 명의 쿨리를 사형하기로 결정한다. 제비를 뽑은 결과 쿨리 두 명과 나이든 쿨리(김동규)가 뽑힌다. 두 명은 사형 당한다. 비분으로 미친 그 아내와 아이, 격분한 다수의 군중에게도 귀축(鬼畜) 영국인의 총탄은 발사되었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오정이었다. 이것이 영국의 모습이라며 외치고 그 또한 사살당한다. 세 명의 청년(한일송, 박창환, 이정훈)이 차례로 일어나, 열 명을 죽인다면 열 명, 백 명을 죽인다면 백 명, 천 명, 만 명, 아니 4억의 중국민이 있고 4억의 백성 뒤에는 동양 10억의 백성이 대기하고 있다고 외치면서 쓰러진다. 이것은 광동 시민의 피의 외침의 위에 영국이 아편을 뿌려 침식해 갔다는 것이다.

제2부에서는 처음에 처칠(손일평), 루즈벨트(이복본), 서양인의 처(이종철, 전방일)등이 나와 그들의 해적사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알려진 것은 하와이 진주만 전멸의 소식이다. 이에 드디어 일본은 일어난다. 그리고 반도에서는 징병제가 공포되어, 애국의 피에 불타는 학도들이 책과 연필을 던지고 전장에 출진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 무사도 정신을 역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화랑도를 창극화하고 이동백, 오테석씨 등이 출연했다. 무대는 반도 총후진의 강한 힘을 보이기 위해 한준호 일행의 실내체조와 조택원, 조용자씨 등의 무용을 보여준 다음, 전선과 직장에 보내는 희망음악회가 되어, 대단원의 선서시에 전원이 출연하며 이 감격 넘치는 막은 내려갔다.

〈출전 : 申鼓頌 「怒りの亞細亞—演劇人總蹶起藝能祭記」, 『新時代』 1944년 11월호, 60~64쪽〉

120) lied.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 독일에서 일어난 독창용 가곡. 서정적인 것이 많음.

121) 외국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 예전에는 중국인을, 나중에는 서양인을 가리켰다.

122) coolie. (중국이나 인도의) 하층 노동자.

## 10) 양훈(楊薰)

### (1) 전쟁과 음악

#### 음악도 군수품

군수품이라 하면 철강, 금속류만 생각하는 이에겐 ‘음악도 군수품이다’하면 좀 기이하게 들릴지 모른다. 전시하 음악이 총후 국민의 정신 작흥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가, 혹은점령지역의 문화 선전 공작, 선무공작 등에 음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잠시 불문에 부치고 제1선, 즉 포탄이 퍼붓는 전장에 있어 음악이 훌륭한 군수품으로 직접 전쟁과 관계하고 있는 점을 이하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말하려 한다.

현대 전쟁은 다각적 입체전이다. 그러므로 ‘비행기의 전쟁’, ‘전파의 전쟁’, ‘페리스코프의 전쟁’ 등의 새 말이 속출하지만 최근에는 ‘음악의 전쟁’이란 말이 생겼다. 제1차세계대전에 출정한 유명한 바이올린 거장 크라이슬러가 천성(天聲)의 데리케트한 청각으로써 날아오는 탄환의 소리를 듣고 거리를 측정하여 적의 소재를 알아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제작년 초 영불해협에 다음과 같은 실례가 있었다 한다.

독일잠수함이 있는 곳에 영국 구축함이 나타나 폭뢰를 떨어트리기 시작했다. 이것을 안 잠수함은 물속 깊이 침입(沈入)하여 피해 달아나므로 구축함은 청음기를 들으며 그 뒤를 추행하여 폭뢰를 떨어트렸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잠수함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쏘았기 때문에 폭발하는 소리가 잠수함 뒷쪽에서 밤새도록 들렸다 한다. 이것은 물론 구축함의 청음부원의 음감이 좋지 못하여 180도 틀린 결과이다.

최근 음감교육의 중요성을 부르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청각 훈련이 필요하여, 현재 국민학교에서도 이 훈련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음감이 발달하면 청음기만으로서 적의 비행기, 군함의 거리, 종류, 속력 방향, 침로 등을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망망한 대해에서 적함을 찾아서 싸우는 해전에 있어서는 더욱이 음감발달 여하가 승리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야말로 음악이 전쟁을 좌우한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나하면 정확한 귀, 정확한 음감은 음악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감이 고도로 발달하면 여기 따라 음악도 발달되어 직접 간접으로 고도국방 국가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육해군 다 군악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군악이 전쟁하는 용사의 정신적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작년 아이슬랜드 앞 바다에서 독일해전이 있었을 때 독일의 사룬호르스트호와 구나이제나우호가 출동할 때 대본영으로부터 라디오를 통해 보내온 용장한 군악을 듣고 사기는 더욱 왕성하여 나아가 적함을 격침시켰다 한다.

이와 반대로 전선에 있어 음악의 역효과도 볼 수 있다. 제2차 구주대전, 독불전에 있어 이런 실례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오랫동안 지그펠드선과 마지노선에서 서로 버티고 있는 중, 처음엔 육탄전은 볼 수 없었고, 서로 적의 신경을 소모하는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즉 서로 선전 사상전에 들어갔다. 적의 염전(厭戰)을 꾀하는

것이였다. 이때 독일편에서 효과를 본 것은 선전 뼈라와 아울러 불란서측으로 들려 보내는 불란서 민요, 유행가 등 그들의 그리워하는 음악이였다. 들려오는 상송에 몬파르나스의 거리를 못잊어하는 파리 출신 병사가 전의를 잃었을 것은 상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투항병, 탈주병이 많았다 한다.

이것은 음악의 역효과지만 좌우간 음악이 전쟁에 대하여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라 하겠다.

전쟁과 음악 - 전선에 있어 전진하는 병사의 마음을 얼마나 고무하는가 하는 점은 멀리 나폴레옹 시대 소년 고수 피에르의 유명한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소학 수신서에도 실린 일청전쟁시 나팔병 기쿠치 고헤이(木口小平)의 장렬한 전사(戰死) 이야기로도 넉넉히 알 것이다.

### 지나사변 이후의 군국조 가요

1937년 7월 7일, 지나사변이 발발되어 유사 이래의 중대 시국에 직면한 결과 국가총력전체제는 필연적으로 국민대중과 가장 관계가 깊은 레코드로 하여금 국책의 일선에 따르게 하며, 종래의 유행가는 가사, 곡조 다 현저히 강건하여져 점차 새로운 군국조 가요를 탄생케 하였다. 첫번이며 대표적인 것이 유명한 「이기고 돌아오마(勝って来るぞ)」의 「노영(露營)의 노래」이다.

이 「노영의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청전쟁 전기에 유행된 「적은 기만이라 해도(敵は幾萬有りとも), 일청전쟁 시 유행된 「하늘을 대신하여 불의를 무찌르다(天に代りて不義を討つ)」의 「일본육군」, 「여기는 고향에서 몇 백리(ここは御國の何百里)」 등의 명군가가 대중의 입에 올랐으나 다 군대에서만 불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와 같이 레코드를 통하여 군가가 유행되기로는 실로 이 「노영의 노래」 부터이다.

사변발발 직후, 대해(大海)·동일(東日)과 콜럼비아가 제휴하여 일천엔 현상으로 군가를 모집하였다. 당선된 것이 「진군의 노래」와 「노영의 노래」인데, 이것을 A,B 양면 취입하여 동년 9월 1일 발매한 결과 2석으로 당선된 B면의 「노영의 노래」가 고세키 유지(古關裕而)의 명곡을 얻어 거리거리에, 역두(驛頭)에서 출정병사를 환송하는 데까지 불리워져 전국적으로 대유행하여 일본음반계 개시 이래의 최고 판매 기록을 작성하였다.

총후는 물론이며 전선에 있어서도 현재에도 「바다에 가면(海行かば)」와 함께 이 노래와 같이 감격하여 불리워지는 것은 없다. 「보리와 병정」을 비롯하여 여러 전쟁 문학, 혹은 뉴스 영화를 통하여 이 노래를 부르는 감격적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노영의 노래」에 뒤미쳐 1937년 12월에 나온 것이 군가며 애국가인 「애국행진곡」이다.

내각정보부의 찬정(撰定)으로 명(名)레코드가 전부 발매하였으며 라디오 방송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유행을 보여, 전국에 범람하였다. 「애국행진곡」은 유명한 「군함행진곡」의 작곡자 고(故) 세토 구치(瀬戸口) 씨가 현상 모집에 응모하여 당선된 것인데 하여간 군함행진곡에 지지 않는 걸작이다.

그후 각사는 거의 전부 다 신문사와 제휴하고 군 가사를 모집하여 가곡을 발매(황군대첩의 노래, 히노마루행진곡(日の丸行進曲) 등)하였는데 1939년 정월에 나온 「아버지여 당신은 강하였다(父よあなたは強かった)」의 「아버지여 당신은 씩씩하였다」가 총후 국민 각층이 열창을 보게 되었다. 「노영의 노래」

가 전선에 있는 용사의 감정을 노래한 것인데 대하여 이 「아버지여……」는 제1선에서 용분건투하는 황군 장사에게 바치는 총후 국민의 감사의 마음을 노래한 가곡이다.

그 후 「출정병사를 보내는 노래」, 「애마진군가」, 「새벽에 빈다」, 「불타는 대공(大空)」 그리고 대동아 전쟁 발발 후 「대동아결전의 노래」, 「마레 해전의 노래」, 「싱가폴 함락의 노래」, 「특별공격대의 노래」, 「대일본 육군의 노래」 등등 다수의 군가가 나왔고 현재 나오고 있으나 곡에 난점(難點)이 있어 역시 전지에서나 총후에서나 애창되고 있는 노래는 「노영의 노래」와 「아아, 저 얼굴에서 저 목소리에서(ああの顔であの声で)」의 「새벽에 빈다」일 것이다.

## 군가와 음계문제

현재 일본의 군가를 음악적으로 좀 검토한다면 그 9할 이상이 다 단음계의 노래라 하여도 가당하다. 서양에선 사자(死者)의 영(靈)을 조상하는 엄숙, 장송행진곡 외엔 보통 행진곡의 거의 다 장음계로 쓰여 있다.

장음계와 단음계와는 음악의 표정이 틀린다 한다. 즉 장음계는 쾌활 명랑하나 단음계는 애수를 띠어 어둡다고들 한다.

그러므로 혹 어떤 사람은 군가란 반드시 장음계로 써야한다고 하는 폭론(暴論)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곡의 표정은 멜로디의 형식에도 의하지만, 화성방법, 곡의 템포, 전조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음계의 장단만으로 그 곡의 표정을 말할 수는 없다.

출정병사환송에, 혹은 전선 행군 속에서 애창되는 군가가 거의 다 단음계로 쓰인 것이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좋을까— 하는 것은 국민음악문제와 관련시켜 흥미 있는 문제이지만 우선 비근한 실례를 들어 해답하고자 한다.

「노영의 노래」 작곡자 고세키 유지가 당선된 가사에 맞춰 처음 작곡하여 온 것은 장음계의 것도 있었고 단음계의 것도 있었다 한다. 문예부에서 신중히 들어본 결과 당시 문예부장인 외국인 에드워드는 장음계의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결국 단음계의 것으로 결정 되었다. 이 단음계 「노영의 노래」로써 일본 레코드사 유사 이래의 기록적 판매 성적을 작성한 사실을 생각할 때, 반대하던 외국인은 그 후에 쓴웃음을 웃었을 것이다.

요컨대 장음계, 단음계의 음악표정은 감수하는 민족성에 따라 다르다 하겠다. 동양민족에겐 단음계로 쓰인 것이 장음계보다 친근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전투적인 마르세이유의 노래

마르세이유의 노래는 현재 불란서 국가(國歌)지만 처음엔 군가로서 불리웠다. 국가(國歌)라면 국가(國家)의 존엄을 찬미하거나, 성은의 홍대(洪大)함을 감사하며 보산(寶算)의 무궁함을 비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불란서 국가는 격렬한 반항심과 적개심을 불지르는 전투적 가곡이다.

1792년 4월 20일에 불란서가 독·오 양국에 대하여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지 나흘 후 24일 밤, 스트라스부르시도 전화 속에 쌓여 새로운 수비병이 필요할 지경으로 위기가 절박하였다. 이때 명시장 디트릿히 남작은 애국가 작사 작곡을 루제도리르 공병대위에게 부탁하였다.

대위는 시적 재능과 음악적 재능이 겸비한 사람으로 밤새도록 생각한 결과 지금 「라마르세이스」로 유명한 가사 6절과 선율을 써서 이튿날 1792년 4월 25일날 아침 시장덕에서 발표하였다.

전투적인 멜로디는 곧 시민의 열광적 환영을 받아 스트라스부르시에 거리거리 골목골목에 이 노래가 범람하여 6백 명 의용병 모집에 9백 명이 응모하였다는 일대 반향까지 있었었다.

이때 파리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빠졌었는데, 이중삼중의 적의 포위진의 일각을 돌파하고 수도로 들어온 일대의 원병이 있었다. 이 원병으로 해 기적적으로 수도를 지킬 수 있어 조국을 구하고 말았다. 이 원병은 마르세이유의 병사들로 그들이 진군할 때 높이 부른 노래야말로 루제도리르 대위가 작곡한 애국가였었다. 불란서 국민의 애국심에 합치된 이 노래는 곧 전불란서를 풍미하여 동년 8월엔 드디어 국가로 제정되었었다.

이 노래는 그 후 불란서 혁명 시에도 열창되어 시민으로 하여금 무기를 잡고 일어서게 한 침예한 노래로 처음 명쾌하게 시작되어 다음 타는 듯한 정열, 그리고 격정에 옮기기 직전의 음참(陰慘)한 기분—이 선율은 음악가들의 주의를 이끌어 슈만이 「두사람의 병정」, 차이코프스키가 서곡 「1812년」에 이용하였다.

너무나 전투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현재 불란서에서도 특히 엄숙한 식전(式典)에는 가사를 빼고 곡만 연주한다고 한다.

## 포염속에서 생긴 국가

「성조기」. 이것은 미국 국가인데 가사가 되기까지엔 재미있는 삽화(挿話)가 있다.

1814년 9월 미국 독립전쟁 중 코크렌경이 지휘하는 영국함대가 체사피크만에 들어와 발티모아 시를 포격하고 있었다. 9월 13일 발티모아시 프란시스 스코트 케이라는 청년 변호사는 동무가 영국군에 잡혀있는 것을 석방하고자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영국군함에 갔었다. 가보니 포격은 개시되어 오도가도 못하고 하룻밤 적의 군함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때 영국군의 포화는 시의 중심 요새인 마크헨리 포대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 이튿날 새벽 먼동이 터올 때 불안 속에서 하룻밤을 밝힌 두 사람은 갑판에 나아가 보았다. 그것은 포대가 함락되어 성조기가 영국군 손으로 내려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펄럭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먼동이 차츰 흰하고 포연인가 아침안개가 걸히자 그들은 성조기가 어제와 다름없이 아침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다감(多感)한 두 청년의 감격은 대단하였을 것이다. 이때 케이의 입에서 문득 나온 것이 저 유명한 “야! 보이는가” 하는 가사였다.

자기 나라 군대의 성공을 기념하는 애국가를 적함 속에서 만들었고, 그 작곡으로 말하면 적국 영국인 스미스 손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기이하다면 기이하겠다.

## 「티페라리의 노래」

제1차구주대전 시 영국이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불란서와 공동전선을 치고자 군대를 최초로 수송한 날은 1914년 8월 12일이었다. 이날 불란서 부로뉴항엔 영불해협을 무사히 건너오겠지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영국군대 도착을 기다리는 군중으로 꽉 찼다. 이어 군대가 다어 시내로 행진을 하고 있었다. 스코트랜드 병이 지나가고, 웰스병이 지나가고, 아일랜드병이 지나가고 있다. 이때 그들이 부르는 것은 「티페라리는 멀다. 티페라리는 멀다……」의 「티페라리의 노래」였었다. 호텔 계단에서 이 병사를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남편을 전지에 다 잃고 검은 상복을 두른 불란서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인은 애조를 띤 이 「티페라리의 노래」를 듣고 감격에 못 참아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다 한다. 이 삽화(挿話)가 영국에 건너가자 이 「티페라리의 노래」는 더욱 유행되어, 영국은 물론이며 불란서, 화란, 일본에까지 유행되었다. 이 아일랜드병이 부른 유행가가 제1차 구주대전 때의 대표적 군가가 되고 말았다.

이번 제2차 대전에 있어 구주에 풍미하고 있는 노래는 역시 「티페라리의 노래」, 「오버제아」, 그리고 독일을 풍자하는 「삐루통폴카」 영국을 조소하는 「수병의 노래」 등의 유행가라 한다.

이번 구주전쟁도 벌써 4년째 들어서 장기전이 되어가는 데 따라 그간 각국 다 새로운 유행군가가 생겨났을 것이다.

### 군국조 가요와 방송

연이어 전첩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 귀에 전해진다. 뉴스와 뉴스를 잇는 음반 방송도 「군함행진곡」, 「애국행진곡」 등 씩씩한 멜로디뿐으로, 1억 국민의 사기는 더욱 고무되었다. 용장한 행진곡은 레코드실에서 전부 동원되었다.(동일(東日), 1941년 12월 9일부 석간에서)

이것은 작년 12월 8일의 보도이다. 이날 결전 태세에 들어선 방송국은 승전의 전황 고지(告知)에 뒤미처 부단히 음악을 방송하여 전국민의 사기를 고무하였다. 이날 아침 일곱시 대본영 육해군부 발표의 임시 뉴스 직후 연이어 나오는 군함행진곡을 얼마만한 실감으로 들었는지 스스로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음악이 얼마나 전후 국민의 정신적 양식이 되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음악을 전파하는데 있어 유력한 매개물은 두말 할 것 없이 라디오와 음반이다. 지금까지 「노영의 노래」 이후의 군국조 가요, 기타 가요는 제일 먼저 음반화되어서 이 세상에 나온다. 어떠한 음반과 같이 탄생한 가곡의 보급률은 「나마」로 방송되거나 혹은 음반 방송이 되면 더욱 확대된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에게 깊이 삼투(滲透)된 가곡이나 혹은 삼투시킬 가곡을 라디오가 방송하려면 필연적으로 음반의 힘을 빌어야 목적을 이룬다. 이와 같이 음악전파에 있어서 라디오와 레코드와는 관계가 깊다.

이런 점에서 잠깐 조선원반계와 이곳 방송국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최근 4, 5년간 교류 관계가 없어 왔다.

4, 5년 전부터 방송국에선 유행가는 비속한 것이라 하여 가요곡 시간을 삭감하여 오다가 나중에 폐지하는 한편 가정가요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요 정화를 목표로 작사, 작곡, 가창 지도를 경음악계를 제외한 악단, 문단에서 구하여(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현역 음반계인으로 여기 참가한 이는 작사에 조명암, 작곡에 이면상 두 분뿐이다) 그간 수십 곡이 되었으나 대중의 입에 오른 것은 「역마차」의 천분지일도 못된다.

국민총력연맹 문화부 추천의 명곡(?)이 있었으나 대중의 귀에 익지도 못한 채 이 가정가요도 작년 12월 이후 스러져버렸다. 강건하고 용장한 가곡을 요구하는 때 있어 우아한 「자장가」, 「눈오는 밤」 등

보모(褸母)님 목표의 4년 동안 한결같은 노래는 존재 의의를 스스로 태반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청취자의 가요에 대한 요구는 다대하지만 이 때문에 방송국은 현재와 같이 음악 빈곤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음반계는 어떠한가? 방송국에서 보이코트를 당한 음반계는 예의 가정가요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간스메」 취입이란 악조건 하에 있어서도 시국이 요구하는 건전 음악선에 따라 가정가요 이상의 가곡까지 상승하고 있다. 재료도 총후에 혹은 대동아권내에 찾아 참신한 작품을 내놓고 있다.(지원병의 어머니, 총후의 기원, 사막의 환호, 남양통신, 소주 뱃사공 등등)

음악빈곤에 해매이는 방송국에 대하여 나는 뉴스 가요방송을 제언하고 싶다. 라디오는 두말할 것 없이 박물관이 아니다. 저널리즘이다.

우선 뉴스가요에서 군국조 가요를 찾아야 한다. AK의 발자한 뉴스가요는 찬할 말하다. 작년 12월 8일 밤 8시 20분의 노무라 도시오(野村俊夫) 작사, 고세키 유지 곡 「선전포고」, 9일 밤 「태국진주」와 「황군의 전과 빛난다」, 10일 밤 「영국 극동함대 괴멸」, 「필리핀 추격」, 12월 밤엔 「동경, 백립도쿄, 베를린, 로마」, 「세기의 결전」, 2월 1일엔 「조호루바트 공략의 노래」 등등 전황의 확대됨에 따라 우리 육해군의 혁혁한 대전과를 노래한 뉴스가요가 뉴스에 감격한 가슴을 더욱 감동케 한다.

경성방송국이 AK의 흉내는 다 못내더라도 그 반이라도 해 보아야 한다.

더욱이 제2방송 뉴스는 난삽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점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도 뉴스의 연예화, 더욱 뉴스의 가요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뉴스가요는 소위 빅뉴스만 채택하여 조속히 가요화 하느니만큼 청취자의 효과 문제는 두말할 것 없다.

과거 가정가요 시에 보면 작사에 세 분, 작곡에 두 분이나 직접 방송편성에 관계하고 있으며 부속 관현악단, 합창단, 기타 여러 가지 호조건 하에 있음으로 「뉴스가요」 방송도 그리 난사(難事)가 아닐게다. 뉴스가요에서 새로운 군국가요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출전 : 楊薰, 「戰爭과 音樂」, 『朝光』 1942년 11월호, 164~169쪽〉

## 11) 이무영(李無影)

### (1) 이 날이 되어

기차 통근자에게는 토요일과 월요일은 바로 수난의 날이다. 가스와 연기와 목청 높은 사투리에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느낌이 드는 소란이다. 한 달에 두 세 번은 반드시 소란이 일게 되는데, 그것도 대체로 월요일에 일어난다.— 그날이 마침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짐 선반까지 사람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어쩐지 이상했다. 사람들의 입은 한 일자로 다물어졌으며, 자칫 건들기만 하면 금세 덤벼들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그 아침의 일을 알고 있을 리는 없지만, 위대하고 감격적인 일

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다. 올 것이 왔다고는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은 굳이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강당에 긴급정보를 붙이고 있던 내 손이 몹시 떨고 있었다고 한다. 생도들도 수업을 할 경황이 아니라 얼골로, 종이 울려도 전황판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는다. “드디어 왔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말했다. 가끔 전화로 말해 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드디어 왔다는 말 뒤에는 커다란 각오가 숨어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나는 감지했다. 그리하여 어쩐지 나만이 그 각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용히 내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커다란 각오에 비해서 우리는—적어도 나는 너무나도 적은 노고로 이것에 보답한 느낌이 든다. 안이(安易)에는 익숙하고, 조의조식(粗衣粗食)에는 고통을 느끼며, 나 몰라라 느슨해지는 긴장의 이완을 다시 조이는 것에 소홀한 점이 없지도 않다. 이런 것이 인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맹세한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위축되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생업의 영예를 받아야 할 어린애의 무심한, 자는 얼굴을 보며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람직하지 못한 삶은 살지 않겠다고 어린애와 내 마음에 맹세하는 것이다.

이 날이 되어 생각한다, 대동아건설의 성업(聖業)에 작은 조약돌 한 개라도 가질 수 있는 오늘날 조선동포의 행복을—

〈출전 : 李無影, 「この日にして」, 『京城日報』, 1942년 12월 16일〉

## 12) 이석훈(李石薰, 牧洋)

### (1) 전시하의 만주

“만주는 괜찮은가?”

나는 만주에서 돌아와서 오랜 만에 어떤 친구와 만났다. 그는 모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문화인인데 만나자마자 “만주는 괜찮은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 만주국은 일본과 함께 싸우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만주는 괜찮은가?”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갖는 뜻은 대단히 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친구의 질문은 극히 단순하며, 별로 원대한 설명을 내게 기대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가 즉석에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려니, 그는 오른 주먹으로 권총을 쥐는 흉내를 내면서, “이게 없으면 위험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었다. 즉 그의 질문을 분석해 보니까, 오늘날의 전국(戰局)이 대단히 심각하게 되었으므로 만약의 경우—이러한 일은 생각만 해도 불길한 일이나— 일부 만주인들 사이에 동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만 동포의 생명재산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뜻과 또 하나는 만주에는 마적이 언제나 따라다니며, 전국이 불안하게 되면 그들이 덤벼들 틈이 생기기 쉽고, 지금도 지방여행에는 호신용 권총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의 질문에 오히려 어이없어 하며 “그렇지 않아. 어딜 가든 괜찮다구”하고 웃었으나 그는 좀처럼 내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질문을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교제하는 범위 안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받았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경성으로 철수하세요”라고 진지하게 걱정을 해 주는 지인도 있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류 지식분자, 최고의 문화인으로서 소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조선 문화인의 시야는 하찮을 정도로 좁기는 하지만 조선동포만 백5십만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만주에 대한 인식이 위와 같은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어떤 학자의 설에 의하면 지금 상태로 조선인이 불어나면 50년 후에는 놀랍게도 1억 가까운 인구가 팽창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조선의 지식인이 문화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조금 더 진지하게 만주 및 조선인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흥미위주로 “만주는 괜찮은가?”하는 식으로 남의 일 얘기하듯 냉담해서는 안 될 터이다. 정말로 진지한 의미에서 “만주는 괜찮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모든 문화인이 해야 할 것이다. 나는 문화인 여러분이 더 진지한 기분으로 만주 및 조선인의 일을 생각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 도회지와 지방

만주국의 도회지라고 한다면 먼저 수도 신경(新京)을 비롯하여 봉천, 하얼빈, 목단강을 4대도시라고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신경에 반년 이상 살았으며 하얼빈에는 6, 7차례, 봉천에도 가끔 갔었다. 목단강은 그냥 지나쳤을 뿐이다. 누군가 신경은 일본 내지인의 거리, 하얼빈은 러시아인의 거리, 봉천은 지나인의 거리, 목단강은 조선인의 거리라고 했는데 목단강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대로 알맞은 평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안산(鞍山)에 적기(敵機)가 오면서부터 방공훈련은 더욱 더 본격적이 되었는데 그것도 조선에 비교하면 여간 진지한 것이 아니다. 내지에서 온 어떤 여행자가 만주에서 방공훈련을 본 감상에, “방공훈련을 뭐가 자랑하는 도구로 쓰듯 특권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참으로 진지함 바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민족협화(民族協和)의 나라인 만큼, 특히 만주계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기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설명하였다.

아무튼 방공훈련의 날은 할일 없이 외출하는 것도 기가 죽을 정도이다. 금년은 보지 않았으나 작년 여름 신경의 변화가를 지나치러니까, 파출소 앞에 많은 통행인이 줄을 서 있었다. 교통 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화성기에서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버리며 멍청하게 서 있는지 아는가. 그들은 방공복장을 하지 않고 나다녔던 한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나무라는 소리가 길거리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얼굴을 붉히면서 쓴 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이 만주계 사람들인 것은 압도적으로 수가 많기 때문에 위반자도 많은 것일까.

옛 만주계의 사람은 시국인식에 유감스런 점이 있으나 젊은 청년남녀는 여간 발랄한 것이 아니다. 방공일 등에는 젊은 만주계의 여학생이나 부인단체의 사람들이 길 모퉁이에서 지키고 서 있어서, 만약에 방공복장에 결점이 있는 부인이 지나치기라도 하면 확실한 말소리로 불러 세워서 주의를 주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도회지의 진지함에 비교하면 지방은 아직 한가하다. 그러나 금년 여름 북만주의 일면파(一面坡)라는 곳의 거리에 갔더니, 만주계의 전족(纏足)부인들까지 길거리에 나와서, 비틀비틀 달리는 모습은 위태로웠으나, 열심히 물 걷기 훈련을 하고 있었다. 또 초가을 쫓 나는 동변도(東邊道)로 여행했는데 중강진 건너편 기슭의 임강(臨江) 뒷거리에서도 만주계의 부인들이 꽤 진지하게 물 걷기 훈련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안산의 적 공습 이후 만주국민의 긴장 상태를 알 수 있었다.

나는 두 번째 안산 적기 내습 때는 마침 봉천에 가 있었다. 안산과 봉천은 비행기로 날면 눈과 코 사이의 가까운 거리인데 시민들은 참으로 침착했다. 처음 공습 때 나는 북만주의 신흥 촌이라고 하는 조선인 개척지에 있었는데 저녁 때 10리 떨어진 '야즈리'라는 거리에서 돌아온 마을 공소(公所) 사람이 겨우 '라디오 뉴스'를 전해줘서 알게 되었다. 나는 그후 경성으로 돌아와서 친구들로부터 "안산공습 때 괜찮았느냐"고 하면서, 마치 내가 안산공장에라도 있었던 것처럼 질문을 받고 쓴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일부러 "만주는 일본전체의 4배 정도나 된다구. 한 군데나 두 군데 쫓 당한다고 해도 뺨이 모기한테 꼬리를 물린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큰소리쳤다. 아무튼 조선 안의 온실의 꽃 같은 지식인들은 더욱 기개를 크게 가지고, 만주를 걸으며, 먼저 그 넓이부터 인식을 깊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조선인 개척민

'개척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 묘한 말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만주에 있는 조선인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극히 적은 소수인 개척민인 것으로 자칫하면 잘못 알기 쉬운 것이다. 소위 개척민이라는 것은 전체의 숫자에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아서, 백5십만에 가까운 조선인의 태반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이다. 즉 조선인구의 8할이 농민인 것처럼 재만 동포의 약9할이 농민인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개척민'만 혹은 '개척지'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만주의 개척을 문제 삼을 때는 위와 같은 9할의 조선농민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재만 조선인문제는 지금은 만주개척의 문제이며 만주의 토지문제이며 소위 하나의 농촌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재작년의 한 겨울 간도성 정부의 초청을 받고 간도 내의 조선인개척촌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내가 본 범위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동시에 그것으로 미루어 만주의 조선인농촌 전체를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올 여름, 빈강성(濱江省)의 신흥촌을 보고, 지난해의 나의 인식을 정정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커다란 기쁨이었으며 정말로 좋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초가을에 걸쳐서 봉천 근처(撫順 교외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만)의 이석새(李石塞)농장을 보고 자유이민 쪽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재만 조선인농민 위에 밝은 희망이 이미 비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나는 여기에서 일일이 숫자를 들고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지만 오히려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만

둔다. 아무튼 이주 당초에는 몸에 걸친 옷밖에는 아무것도 없던 신흥촌의 개척민들이 최저 4, 5천엔의 재산을 가지며, 완전히 정착해 있었고 이석새 쪽에서는 당당한 붉은 벽돌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꽤 호사로운 생활을 한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그만두겠다.

올해는 건국 이래의 대 풍작이다. 작년에도 신흥촌은 풍작이었다. 이미 어떤 재난이 와도, 그들이 곤궁의 밑바닥으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만주인민의 황금시대가 올 것임을 자신있게 단언한다. 그리고 만주의 어디에 가도 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동포가 있으며, 우리 동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논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 농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기분에 휩싸였다. 다만 신경과 길림(吉林) 사이에서는 그다지 볼 수 없었으나, 길림으로부터 통화(通化)에 이르는 저기 동변도(東邊道)의 산 속에도 조금 평평한 들에는 반드시 논이 개척되어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북만 쪽에서도 자칫하면 조선시골을 여행하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힐 만큼 여러 벽지에 동포들이 들어가서 논을 개척하고 있었다. 참으로 눈물겹게 만드는 일을 여러 차례 경험한 것이다. 우리 동포는 만주에서도 오늘날의 시국에 적지 않게 식량보국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그네의 집”

마지막으로 소설쟁이다운 내 공상의 일단을 피력하고, 유지 여러분들의 분기(奮起)를 촉구하고자 한다.

나는 남북만주의 여러 곳을 상당히 많이 여행했다. 나의 주머니 사정은 언제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고맙게 여기며 어떤 경우에도 3등석을 고집했다. 사실 처음 북만에 가서 한밤중에 등화관제 때문에 어두컴컴한 3등차에 탔을 때, 우글거리는 만주인 노무자들 속에 끼어서 마늘 냄새와 그 외의 악취로 괴로워 하면서 알아 듣지 못하는 말 속에 꼼짝 안 하고 있으려니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한다.

그러나 얼굴생김이 지나인과 닮았는지 아니면 3등 여행객으로 보고 만만하게 생각해서인지, 모르는 그들이 쉽게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비교적 기분이 편해졌다. 지금은 완전히 3등 여행에 익숙해졌는데, 올해 초여름의 일이었다. 빈수선(濱綏線)의 3등 차 속에서 조선인 남자 한 명이 다른 나라 승객에게 고향에 갈 여비보조를 구걸하고 있었다, 그는 50쯤의 중 노인으로 행려(行旅)병자였으며, 매우 수척해 보였다. 나는 완전히 우울해져버렸다. 또 금년 2월 말의 어느 추운 밤, 하얼빈역의 3등 대합실에서의 일이다. 어두운 구석에 흰 옷을 입은 젊은 농사꾼 여자 한 명이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땅바닥에 드러누운 채 끙끙 앓고 있었다. 나는 그녀 곁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경상도 사투리로 송화 강의 통하(通河)라는 곳으로부터 온 것, 내일 아침 부산행 ‘히카리’를 타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합실에 있다는 것, 도중에 감기가 들어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 등을 대답했다. 나는 역 근처에 조선여관이 있으니 거기에 가서 자라고 권했으나, 일어날 기력마저 없어 보였다. 구내(構內)에는 사람이 많아 복잡하고 어두워서 가끔 남의 발에 몸을 밟히거나 했다.

나는 머나먼 이국의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불쌍한 정경을 보고, 내가 여행 중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을 함께 생각하면서, 문득 ‘나그네 집’을 세우고 싶다는 공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에 든 여러 가

지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여행 중 여러 곳에서 남루하고 나이 많은 여행자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할지 몰라 역 한귀퉁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건 그렇고 나의 '나그네 집'이라는 것은 대강 이러한 것이다. 먼저 조선의 여행자가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봉천, 신경, 하얼빈, 목단강의 4대도시 역 근처에 근대식 건물을 소유한다. 그 안에는 호텔식의 깨끗한 숙소를 비롯하여 식당, 휴게실, 오락실, 도서실, 욕실 등을 설치한다. 휴게실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이용하도록 하고, 도회지에서 시골로, 조선에서 만주로, 아무튼 가난한 동포 여행자가 잠깐 짐을 내리고 차를 마시거나, 도시락을 먹거나 하도록 하며 안내자가 역에 항상 대기하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특히 특별계약한 의사에게 출장을 의뢰해서 진료 등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참으로 자선적인 문화사업을 우리들 힘으로 갖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영리사업으로서도 물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나는 유지 여러분이 뜻을 갖고 일어서기를 기다리며 하나의 문화 사업으로서 이것을 제창하는 바이다.

지금 신경 고다마(兒玉)공원 앞에는 5층으로 지은 당당한 '관광호텔'이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듣기로는 화교 사이에서는 상호부조가 철저히, 사업자금 대출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만주에서 일단 돈벌이에 성공한 조선인 여러분은 금의환향 같은 하찮고 낡은 관념을 버리고, 만주에서 번 돈을 만주에서 쓸 작정으로, 재주(在住) 동포를 위하여 또 새로 만주로 건너오는 사람을 위하여 이상과 같은 사업을 갖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는가. 입만 열면 해야 할 사업이 없다면서 부정 업자로 전락하거나, 기껏해야 물장사가 되는 것이 보통인 것처럼 되고 있는 재만 동포여! 그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동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주의 동포를 악한처럼 취급하고 싶어하는 조선 내의 양반들이여! 그 긍지를 뜻을 갖고 일어서십시오 보여주기 바란다. (10월 11일)

〈출전 : 物洋, 『戰時下の滿洲』, 『朝光』 1944년 11월호, 26~29쪽〉

### 13) 임학수(林學洙)

#### (1) 북지(北支)에 심부름을 하고(상·하)

우리들에게 전쟁문학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은 우리가 갔을 때는 북지에는 거의 전투다운 것이 없으며, 군데군데에서 패잔병의 소탕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내세워서 중군이라 할 만큼의 일도 없으며, 또 지금은 치안상황도 좋으므로, 모색창연(暮色蒼然)한 오랑캐 땅에서 산 위에 기가 죽어서 서 있는 보초라거나, 아직 날이 새지 않았는데 진지를 떠나서 연락하러 가는 군인 아저씨의 구두소리를 듣고서는 가슴이 찢릿 하는 일도 있었으나 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용사들의 참담한 고생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야 바로 신동아건설의 기치아래에서 군민이 일치해서 현지에서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긴장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관해서 느낀 일을 2, 3가지 솔직하게 말 해 보고자 생각한다.

현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원(太原)에서 외국인 선교사와 중국인의 몇 사람의 기독교도가 타는 것을 보았다. 외국인은 별도의 칸인 역시 3등에 탔으나, 중국인들은 마침 옆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그중 한 중국인은 얼굴색이 나쁘며 가끔 헛기침을 하며, 어쩐지 결핵성의 환자처럼 보였다. 또 나와 마주보고 있는 자리를 잡은 것은 부부사이로, 남편은 가슴에 갖다 붙인 양민증(良民證)을 보고 46세의 王 모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여선교사의 간병(看病)은 철저했으며, 10분마다 와서는 환자의 용태(容態)를 엿보며 북쪽을 되돌아보고 왕타이다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애교를 보인다. 아직 30 쯤의 젊디젊은 미혼자 같으나, 그 얼굴색도 타고 있어서 지나말도 능숙한 중국인은 모두 그 사람을 존경하며 그 사람은 중국인을 사랑한다.

나는 잠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선무(宣撫)공작이라는 것도 실은 선교사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먼저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자국의 자금을 가져와서 문화시설을 베풀며, 이것들과 종교의 선포(宣布)와를 병행시킨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도 있으나, 선교수단으로서 먼저 사랑을 말하며, 인류평화를 부르짖고, 그 나라의 민정풍속을 어느 정도까지 존경하며 착수한다. 이러한 속셈은 무엇인지 모르나 표면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점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민중은 대체로 외국인의 말을 신용한다. 지금까지라도 특히 일본이 외국인보다도 중국에 형편없이 대했다는 일도 없는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문(同文)동족이면서 동아건설에 협력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항일의식을 심는 것에 의하여 자가의 정책발판으로 삼고, 민중을 획득하려고 하는 잘 못된 정치가에게도 의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지나에서 다년간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것은 평소 개인적으로 친하게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져 있으며,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으로써 대한다면 지금쯤은, 그러한 숫자도 상당히 많으며, 이러한 것이 일지(日支)제휴에 좋은 결과를 남기고 있을 터인 것이다.

물론 그들의 민족성은 복잡하며, 단순히 흥금을 열고 무릎을 맞대며 서로 섞일 수는 없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해도, 사변 전까지 질이 좋은 사람들만이 많이 건너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은 선교사가 처음에 왔다. 일본은 질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인들이 처음에 많이 갔다. 이것은 어쩌면 일본의 민족성을 오해시키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이상 상〉

그러나 역사적으로 피로써 망한 자는 피로써 양값을 하고자 하는 원한을 갖는다.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건설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자국의 정책이 나빴다면 이제부터 불평이나 원한을 갖지 않고 예를 들면 패전국일지라도 과거역사는 깨끗이 물에 흘려버리고 명랑하게 신 이상 건설을 위하여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좋고나쁨은 별도로 하고 먼저 자신이 패한 자임으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시원치 않다고 하는 뼈침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이 지상에서 참다운 평화는 만들어 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도의 한 지식인으로서 예를 들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북지여행이었으나 중국사람들에게 일본의 흥아건설 이상(理想)의 참모습을 소개하며 충고할 수가 있었다. 지나는 무한한 부(富)와 광대한 영토

를 갖고 있다. 일본은 그것을 개발하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능과 동양을 방호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외국은 여러 방면에 중국 내에서 이권을 가지며 우리를 더욱 더 위협하고자 하고 있다. 황인종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두뇌가 백인에게 우수하기는 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손을 잡고 무한한 부를 발굴하고 명랑하게 살아 보자고 하는 것이 이상이 아니겠는가?

중국의 위정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민중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5억의 민중은 야산에 방대한 부를 묻어놓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보기에 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불행히도 하늘이 그러한 부와 넓이를 주는 영토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솔직한 사랑과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가지며 끈질긴 잔학성을 안 갖는 우리와 함께 자원을 발굴해서 모두가 안심하고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낙토(樂土)일 것인가. 일본이 영토적인 야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동문(同文)동족의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시대는 너무나도 진행하고 있으며, 인지(人智)는 너무나도 발달하고 있다.

덧붙여서 나는 반도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하고 싶다. 북지에서는 일반 민중이 반도인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있다. 반도인이라고 하면 인력거에도 태워 주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그 기분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군. 반도인의 직업은 모르핀 밀매라는 것이 많으며 또 세력을 빌어서 민중을 기만하거나 공갈하는 자도 많다. 부끄러운 사연인 것이다. 나도 그들을 혐오하고 침을 뱉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한 과도기의 현상일 따름이다. 언젠가는 행복할 날이 아세아에 밝아 올 때는 모두 형제이며 동포인 것이며 친구가 아닌가. 또 나는 반도인의 체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국의 위정자도 동정을 가지고 고려 해 주실 것을 바란다. 반도인은 사변 전부터 많이 건너가서 말도 상당히 능숙하며 중국인의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실에 즈음하여서도 군속으로서 생사를 함께하면서 활약한 충성스러운 청년이 많지 않는가. 물론 북지 4만 명의 반도인을 모두 돌볼 수는 도저히 없을 것이지만 질이 좋은 자는 특히 힘을 써서 지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지도의 정도에 따라서 대국민다운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활동을 꼭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북지에 가 있는 자는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반도 내에는 훌륭한 자도 많이 있다.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산업회사라거나 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민간의 유력단체의 이해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당국에서는 산동성에 반도인의 농장을 건설한다는 것을 듣고서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있다.

〈이상 하〉

〈출전 : 林學洙, 「北支へ使して(上·下)」, 『京城日報』, 1939년 5월 23~24일〉

## 14) 장혁주(張赫宙)

### (1) 대동아전쟁에 즈음하여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는 해도, 선전포고를 알게 된 순간, 나는 크게 충격을 받고 어안이 병병해 있

었다. 지나사면 발발 당시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긴 말은 빼고 한 마디로 말한다.

이번에야말로 일대성전(一大聖戰)은 시작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 유색인들 전부는 영국과 미국 기타 백인의 완전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반도인 여러분들은 왕년에 원산 해수욕장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참학(慘虐)을, 구세군의 모 영국인 대장이 조선에 왔을 때의, 영국인 사관의 횡포를 확실히 상기하라. 그들의 인도주의적인 가면의 선전에 춤추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전 동아시아인의 적인 것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인들이 300년 동안 받아온 압박의 역사는 이번 성전에서 승리하는 날이 곧 해방의 날이며 자유를 약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오늘(14일)까지의 혁혁한 전승에, 만약의 기우는 사라졌다. 하지만 앞으로 올 것으로 생각되는 그들의 후방 교란의 모략에 우리를 지식인은 온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부딪쳐야 할 것이다.

〈출전 : 張赫宙, 「大東亞戰爭に際して」, 『文藝』 1942년 1월호, 12~13쪽〉

## (2) 역사에 불멸할 일순 -야마모토(山本) 원수 국장 참배기

왜 이렇게 오늘따라 하늘이 높을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바람이 쓸쓸할까? 쳐다보면 볼수록 높은 하늘. 그 속에서 무엇인지 나타날 것만 같다. 은행나무 그늘에 부는 바람이 무엇인지 속삭이는 것만 같다.

바다의 거인이 길이 잠드시는 1943년 6월 5일 어찌 하늘인들 슬픔이 없을 것이냐? 세기의 영웅을 보내는 장렬을 배관(拜觀)하려고 나는 지금 장렬이 지나갈 도모에정(巴町, 도쿄의 한 지역 - 역자) 연도에서 있다. 바른편을 보아도 왼편을 보아도 그리고 앞과 뒤를 보아도 사람의 물결이다. 이 사람의 물결을 두 갈래로 좌악 갈라서 끝없이 길게 한 줄기 빛이 흐른다. 첫여름의 강렬한 태양이 미리부터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치우고 물을 뿌리고 사람과 차마(車馬)의 통행까지 막아 놓은 포도(鋪道) 위에 고요히 내려 쪼여 눈이 부시도록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익찬장년단(翼贊壯年團), 경방단(警防團), 부인회(婦人會), 각 남녀학교 아동생도 등! 수십만의 표정이 이 한 줄기 포도의 한쪽 끝을 지키며 숨결을 죽이고 있다. 헛되이 웃는 웃음소리 하나 없고 주고받는 말 하나 없다. 누가 이르는 사람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건만 모두 마음과 마음을 혈맥과 혈맥을 무슨 굵다란 밧줄로 한데 이어 맺어 놓은 듯 똑같은 표정 똑같은 숨결로 고요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소리 내어 울기만 하면 붓물처럼 통곡이 터져 나올 것 같다. 모두 참느라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설움을 참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이다. 그 참는 힘 그것이 분함에 떨리는 감정이고 그 감정이 지금 우리들의 손과 손을 뜨겁게 쥐게 한 것이다.

오! 이 크나큰 애도의 표정! 어느 때 이 거리에 이다지도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 있었던가?

오전 9시! 나는 시계를 꺼내 보고 시간이 드디어 가까웠음을 깨닫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벌써부터 내 손은 나도 모르게 모자를 벗어들었다. 나는 7시도 되기 전부터 이 자리에 와서 있다는 것을

조금도 지루하게 생각 안 되는 것이 이상하였다. 나는 이 크나큰 사람의 물결과 함께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서 있고 싶었다. 어디든지 같이 휩싸여 흐르고 싶었다. 그리고 이 군중이 짓누르고 있는 불길을 나도 함께 마음껏 폭발시켜 버리고 싶었다.

9시 20분— 드디어 저 멀리로부터 흐느껴 우는 듯한 음들이 그치는 듯 흐르는 듯 아득히 새어 왔다.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싸늘한 찬물을 흘리는 듯 — 흘러들었다.

선행하는 기마 경관이 앞을 지나 멀어졌을 때 그 슬픔을 들은 못사람의 애수의 물결을 고요히 흔드는 듯하며 가까워왔다. 해군군악대의 「이노치오스테테(生命を捨てて, 목숨을 버려—역자)」의 애끓는 곡이었다. 우리들의 성장(聖將)은 목숨을 바치고 여기에 돌아왔다. 폐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의 모든 것을 깨끗이 바치고 지금 돌아왔다고 하는 듯! 사람사람의 간장을 우벼내는 것 같이 슬픈 곡이었다. 그 곡은 고요히 나직이 또 드높이 구천에 사무쳐 흘러가는 것이었다. 의장병이 숙연히 발을 맞추어 움직여 오고 있다. 사제장(司祭長)의 얼굴이 엄숙하고 침통한 위엄을 갖추고 그 뒤에 섰다. 그리고 한 가닥 기다란 명기(銘旗)가 향기로운 바람에 드리워 있다.

‘고 원수 해군대장 정3위 대훈위공1급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관(故元帥海軍大將正三位大勳位功一級山本五十六(야마모토 이소로쿠)之柩)’

그 뒤에 원수도(元帥刀), 훈장 등이 찬연한 빛을 발하며 따른다. 그러한 행렬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움직이는 것 같지 않게 고요히 내 앞을 지났다. 요코스카(横須賀)해병단이 이끄는 영차(靈車)가 그 뒤를 이었다.

‘탈모!’

조용한 말소리다. 모두 머리를 수그렸다. 새카만 해군 포차 위에 눈빛같이 흰 보를 덮은 영구(靈柩)는 고요히 구르고 있다. 바위가 포도에 닿는 소리조차 슬픔을 주는 것 같다. ‘오! 우리들의 제독… 우리들의 사령장관…’ 남명(南冥, 남녘의 大海 — 역자)의 흰구름을 붉게 물들이고 사라진 바다의 거성(巨星)은 지금 우리들의 앞을 지나간다. 7대양을 좁다 하고 제국 해군을 이끌던 함교(艦橋) 위의 우리 제독은 말없이 저 영구(靈柩) 속에 누워 계신다. 개벽 이래의 역사를 뒤집어놓았고 제국의 승리를 위하여 기초를 닦아 놓고 지금 여기를 지나간다. 수십만의 사람의 마음은 영차의 1점으로 쏠리어 엉키어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 하얀 영차 위에 얹어놓은 해군장교의 검정 옷저고리가 못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였다. 가슴을 떨리게 하였다. 두 주먹을 부르르 떨게 하였다. 오! 원수가 생전에 입었던 옷저고리. 원수의 살이 닿고 손길이 가고 체온이 스며 있을 저 옷저고리… 나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눈을 찢끔 감았다. 주르르… 눈물 두 줄기 눈물이 내 옷섶에 떨어졌다. 내 곁에서 있는 부인도 흑흑 느끼고 있다. 내 눈물 어린 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희끗희끗 빛나 보였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나는 구태여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못사람과 함께 울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스러운지를 알았다. 나이 어린 생도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아버지에게 안기어 있는 어린 아기가 아직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날 이 순간의 이 모습을 아이들의 기억 속에 살리어 전하려고 늙은 할머니도 안았던 손자를 높이 들었다. ‘악아, 잘 보아 두어라. 우리들의 위인이 지금 지나가신다. 너도 크면 저 뒤를 따라야 한다.’ 할머니는 말 없는 가슴의 통곡을 이렇게라도 외치는 것일까? 이미 아들을 손자를 남편을 저 성장의 부하로 바친 그 부모형제일는지도 모



른다. 폐하의 방패로 싸움터에 내보낸 용사들의 부모친척인지도 모른다. 영차 뒤에 요나이<sup>123)</sup> 장의위 원장이 따르고 있다. 그 뒤에 레이<sup>124)</sup> 미망인 이하 친족이 따르고 있다. 장렬은 한없이 계속되었다. 한 줄기 빛이 되어 끝없이 흘러가고 있다. 인파의 사이로 한줄기 바람이 되어 흐르고 있다. 오! 이 뒤를 지금 1억의 숙연한 걸음이 따르고 있다. 미영필멸(米英必滅)의 투혼이 되어 불길로 타오르며 흐르고 있다. 오! 장엄한 1억의 장렬이여, 구적필멸(仇敵必滅)의 굳은 맹서가 가슴가슴에 얹히어 영원불멸의 혼을 안고 흐른다. 1억의 야마모토(山本) 충혼이 흐른다!

〈출전 : 張赫宙, 『歷史에 不滅할 一瞬 —山本元帥國葬參拜記』, 『매일신보』, 1943년 6월 6일〉

## 15) 정인섭(鄭寅燮, 東原寅燮)

### (1) 싱가포르 함락과 문화인의 감격

망망한 인도양을 건너 기선(汽船)은 말레이(馬來) 반도의 남쪽 해안을 가까이 스쳐 지나갔다. 바닷가에는 야자수의 삼림이 우거져 있는데 나무줄기는 죽죽 뻗어있고 그 꼭지에 푸른 잎을 엮은 무성한 남국의 하늘가는 남국의 환상을 분수같이 품고 있었다. 나는 싱가포르가 무척 보고 싶었다. 부두에 내려서 한참 걸어 시가지로 들어가니 지나인들의 상점이 즐비해 있다. 그리고 말레이인들의 얼굴이나 머리카락이나 신발 같은 것이 동아 족속인 것이 분명하다.

영국의 동아침략의 심장 싱가포르(新嘉坡)는 이미 황군의 칼에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말레이반도는 참된 이웃이 되어 공영권 수립에 큰 역할을 할 줄 안다. 싱가포르 하(河)에 가득 찬 무수한 정크선도 미소를 띠우면서 남국의 보배를 싣고 올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고무도 석유도 넉넉할 것이고 그리고 용안육(龍眼肉)<sup>125)</sup>도 몽(檬) (레몬-역자)도 우리의 밥상에 오를 수 있고 진어(珍魚)를 유리 항아리에 넣어 서재를 꾸밀 것도 꿈이 아니다.

〈출전 : 鄭寅燮, 『新嘉坡陷落과 文化人의 感激』, 『매일신보』, 1942년 2월 20일〉

### (2) 위대한 새벽

동원인섭(東原寅燮)<sup>126)</sup>

12월에는 망년회라는 것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괴로운 기억을 잊으려고 한다. 사실 이 달을 지나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다. 기분상으로 말하면 종래 12월은 일년 중에서 제일 허무한 달

123) 요나이 미쓰마사, 米内光政, 1880~1948.

124) 야마모토 레이코, 山本礼子, 1897~1972.

125) 나무인 용안(龍眼)의 과육인데 약으로도 쓰인다.

126) 정인섭(鄭寅燮)의 창씨명.

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작년 원단(元旦)부터 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올해 12월 8일 아침부터 이 새로운 마음이 굳세졌던 것이다. 이날은 참으로 대조 환발의 날이요, 미영귀축(米英鬼畜)에 대한 성전의 탄생일이요, 대동아의 원단이기 때문이다. 망년회 같은 것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바보 같은 크리스마스 대소동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12월이라는 달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뚜렷하게 그 용자를 드러내며 다른 달을 지도하는 것 같다.

대동아전쟁 제2년을 맞이한 12월 8일의 이른 아침 6시, 아직 어두운 속을 반리(半里) 정도 걸어서 전차에 올라 혼마치(本町) 입구에서 내려 아사히마치(旭町)로 가는 지름길을 지나 조선신궁(朝鮮神宮)에 참배하러 갔던, 7시 경이었던 것 같다. 도중에 아파트 조금 전의 대저택에서 나이 많은 여성 한 사람이 국기를 들고 나와 현관 처마에 계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미소를 띠며 명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가 아는 이웃집 노인에 대한 것이었다. 남자도 50세 정도로 보였는데, 실로 원기 있는 목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답하였다.

이 두 사람의 인사는, 원단의 인사와 완전히 같은 기분이었다. 12월 8일 아침의 감격 때문이었다. 그 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나도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중얼거렸던 것이다. 둘 다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나도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아는 사이도 아닌 사람에게, 나는 한번 더 뒤돌아보며 ‘안녕히 계세요.’를 말할 것 같이 목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유쾌하기도 했다. 이것은 참으로 원단 아침의 풍경이어서, 정말로 위대한 여 명의 축복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신궁 광장에 올라 도착한 것은 7시 15분. 산 위 공기는 차가웠으나 하늘은 맑았고,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참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걷고 있었다. 북한산은 웅연하게 솟아 있고, 한강은 고요히 흐르고 있고, 모든 것이 원단의 분위기에 움직이고 있었다. 어제 본 「하와이, 말레이 앞바다 해전」이라는 영화에서, 12월 7일 한밤중 □□ 중에 최후로 □□□하면서 장사(將士)들이 ‘오늘밤은 대晦일(大晦日)<sup>127)</sup>의 밤—’이라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그대로이다. 12월 8일은, 위대한 원단이었다. 동쪽 하늘에는 벌써 태양이 떠올라 혁혁한 황군의 무운(武運)을 상징하였다. 바로 위대한 새벽이다.

〈출전 : 東原寅燮, 「大いなる暁」, 『京城日報』, 1942년 12월 17일〉

## 16) 정인택(鄭人澤)

### (1)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1944.2)

정인택(鄭人澤, 조선문인보국회 소설회극부 간사)

다케야마 다카시(武山隆)(구 崔鳴夏) 대위의 생애에는 거짓이 없었다.

---

127) 12월 31일.

불과 25년의 짧은 생애였으나, 진실 한가지만으로 일관한 삶에 나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다. 고 다케야마 대위의 전기 집필을 즉석에서 받아들인 것도,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자료수집에 열중한 것도, 이 짧은 반도태생의 무인이 체득하고 있었던 진실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호국의 영령에 대한 의례적인 찬사를 써 갈겨 놓은 즉흥적인 전기에 끝내지 않고, 살을 붙이고, 피를 통하게 하고, 진실된 무인 다케야마 대위의 일생을 생생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 나는 최근 두 달 가까이 그것만을 계속 생각해 왔다.

자료만 갖추어지면 단숨에 써내려갈 요량이었던 나는 고 대위의 사람됨을 깊이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진 내 자신을 깊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했다. 충군애국의 지성에 철저한 고 대위의 생애는, 추상과 같이 예리하고, 내려 찌는 태양과 같이 엄하며, 토끼 털로 찌를 정도의 틈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익살이나 농담을 할 일이 아닌 것에, 나는 완전히 몸서리를 쳤다.

군신 가토 소장의 동료 비행기로서 대동아전쟁 발발과 함께 말레이 항공작전에서 빼어난 수훈을 세우고 아깝게도 남부 수마트라의 밀림 속에 산화한 고 대위의 전공은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아는 바이다. 성장과정이나 사람됨에 관해서도 수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단편적인 기록은 지나치게 개념적 이어서, 하나의 체계가 있는 전기로 만드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열하게 살았던 전기의 재료로는 부족하다. 막상 붓을 내리고자 하는 순간까지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모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마저 잊어버리고, 나는 약간은 망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하찮은 나를 위하여, 자료수집에 여간 편리를 주지 않았던 고 대위의 주위 여러분들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이것은 물론 고 대위의 여덕(餘德)의 하나이고 말하자면 나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나, 나는 나 나름대로 힘껏 일을 해서, 그러한 분들에게 인사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있다. 힘도 없는 나에게서 짐이 너무 무거우나, 이렇게 된 이상 오로지 정혼(精魂)을 쏟아 부어, 최선을 다하는 도리밖에 없다. 여기에서 일생일대의 끈질김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로 문학자로서의 명리(冥利)는 이제 끝이다.

특훈(殊勳) 갑, 공(功) 4 옥(旭) 6의 은명(恩命)을 입은 고 대위의 빛나는 훈공을 추모하는 의미로라도 생전의 언동을 나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 대위의 일을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의 표정에서 나는 재빨리 그 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생전의 대위의 진지한 성격을 생각해내고는 내 일처럼 기뻐했다.

고 대위의 중형 수하(樹夏) 씨와는 그 전부터 아는 사이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 대위와 나 사이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 일에 착수하기 이전에도 나는 한번 ‘다케야마 다카시 대위’라고 이름 붙인 소 전기풍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방송국의 위촉에 의한 방송용의 이야기로 불과 15, 6매의 정도의 소품이었으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고 다케야마 대위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흥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손한 표현이지만— 이때부터인 것이다.

그때 방송국이 모아 준 자료는 작은 전설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만으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고 대위의 사람됨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던 나는 아무래도 그대로 그 자료를 버리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살리고 싶어 밤낮으로 궁리하고 있었다.

상세한 전기를 쓸 정도의 여유는 없고, 생각 끝에 나는 소설 형식을 빌어서, 고 대위의 열렬한 기백

을 반도의 청소년들에게 전하겠다고 혼자 결정하고 있었다. 그 준비를 하던 중에 다케야마 대위의 전기를 쓰라는 회사의 명령을 받고, 즉석에서 승낙하고 맡은 것이다.

반도의 청소년들은 왜곡된 오랜 세월의 풍습 때문에 자칫하면 문약에 기울기 쉽지만, 그들이 이어 받은 피는 결코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무의 기백에 충만한 것일 터이다. 나는 그 구현을 고 대위의 생애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징병제가 실시된 오늘날의 반도에서, 잠류하고 있는 이 상무의 기풍을 불러 깨운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나는 다케야마 대위를 완벽하게 그림으로써 반도의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주고 황민으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한 번 죽어서 나라에 보답하는 남아의 기개를 고취하고 싶은 염원이었다.

그런데 그 염원이 다할 때는 왔으나 이제 와서 용기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내 자신이 싫어졌다. 그러나 둔한 말에 채찍을 때리고 또 때려서, 나는 몸을 부딪쳐서 이 의미 있는 일과 싸울 각오이다. 서투른 표현으로는 저 융통성 없이 성실한 고 대위가 땅속에서 고향칠 것 같다. 첫째 그것이 두렵다.

〈출전 : 鄭人澤, 「武山大尉のことども」, 『朝鮮』 1944년 2월호, 56~57쪽〉

## (2)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1944.9)

다케야마 대위를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옛 무사를 연상한다.

적속에서 조용히 자결한 그 장렬한 최후뿐만 아니라, 무용을 숭상하고 체면을 중히 여기며 애오라지 대의를 위하여 살아 온, 진솔함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군신(軍神) 가토(加藤) 소장의 동료 비행기(僚機)로서 대동아전쟁 발발과 함께 말레이 항공작전에 종사하며, 험격한 전공을 세우고 안타깝게도 남부 수마트라의 밀림 속에 산화한 고(故) 대위의 훈공은 세상 사람들이 널리 아는 바이나, 그것을 빼고도 진실 한가지만으로 일관한 삶에 나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는다.

이 젊은 반도 태생의 무인이 체득하고 있던 진실은 천품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격렬한 자기단련을 거듭한 끝에 체득한 것이다. 그만큼 한층 존귀한 것이다.

사관학교시절에는 물론, 전지에 나간 이후에도, 칙유(勅諭)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루라도 봉송을 거른 일이 없었다는 것, 밤에 숙소에 돌아오면, 취침 전에 반드시 단정히 앉아서 묵상하며 반성하고, 때로는 깊은 밤까지 그렇게 한 일 등, 목숨을 건 자기단련을 통해서 ‘공중 선(禪)’이라고 할 만한 깨달음 즉 우리나라 항공 혼의 진수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가혹할 만큼 스스로를 채찍질함으로써, 천성의 미질(美質)은 더욱 더 빛이 났으며 향당(鄉黨)을 분기(奮起)시킨 저 장렬한 전사가 된 것이다. 실전보다 심한 훈련도 이러한 마음가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중학교 시절, 유도에만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케야마 대위는 검도를 잘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잘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것과 상대하여 정복하지 않으면 개운치 않은 다케야마 대위였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맹렬하게 검도에 정진하여 늦게까지 도장에 남아서 죽도를 휘둘렀다.

다케야마 대위는 나중에 술회하기를

“검도 수업은 힘이 들었다”고 한다.

다케야마 대위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유명한데, 위와 같은 이야기도 그러한 그의 성격을 보여준다. 지기 싫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것은 세찬 공격정신이 되어 불타 올랐다.

고 대위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맞춘 듯이 대위의 왕성한 공격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격정신의 덩어리입니다. 지게 될 것 같으면, 끄꿍 앓으니까요.”

이것은 사관학교시절의 동기생인 이마이(今井) 대위의 말인데, 중학교의 은사, 사관학교의 교관, 전지의 부하 모두가 한결같이 칭찬하는 것은 대위의 용맹 과감한 ‘공격자세’였다.

‘코뿔소’나 ‘호르몬 탱크’ 같은 별명이 붙은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공격정신이 너무 왕성해서 때로는 지나친 적도 있었다.

판자 율타리를 뛰어넘다가 발을 빠거나, 착륙 때 눈대중을 잘 못해 애기(愛機)를 전복시키기도 했는데, 결코 겁먹는 일이 없었다. 붕대를 감고서도 태연하게 다음 훈련에 뛰어나오곤 했다.

말레이 제1선에서 적의 습격을 받은 일이 있다. 다케야마 대위는 적기가 기지의 하늘을 더럽혔다며 열화와 같이 화를 내고, 비 오듯 하는 탄환 속을 무릅쓰고 애기 곁에 달려가려고 했다.

“다케야마! 기다려! 지금 날아 올라가면 위로부터 공격당하거나, 동지끼리 부딪히거나 해서 손해를 본다.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

가토 군신에게 나무람을 당하고 다케야마 대위는 매우 황송해 했다고 한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온순하지만 막상 여차하면 겁나는 것이 없는 다케야마 대위이다. 다소의 실패담도 평소 근엄하기 때문에 귀여운 것이다.



그래서 다케야마 대위는 전투기 조종사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신예 전투기 ‘하야부사(隼)’를 받은 대위가 기뻐 날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남지나 작전에 종군하고 있을 무렵이다.

광둥(廣東) 비행장에서 이 ‘하야부사’를 제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전투 틈틈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 훈련이 계속되었다.

얼마 안가서 말레이에 진주(進駐), 미영의 제1선기를 모기나 잠자리처럼 때려 떨어트리면서 다케야마 대위는,

“적기의 출동이 적어 비육의 탄식(촉나라의 유비가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날이 적으므로 넓적 다리의 살이 찌서 한탄했다는 고사)에 견딜 수 없다”고 고향에 써 보내고 있다. “비행기로부터 떨어져서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필승의 신념이 완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도의 청소년들은 왜곡된 오랜 동안의 풍습 때문에 자칫하면 문약에 기울기 쉬운데, 이어 받은 피는 결코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무(尙武)의 기백에 가득 찬 것일 터이다. 나는 그 구 현을 다케야마 대위의 생애에서 찾아냈다.

징병제의 실시된 오늘날의 반도에서 잠류(潛流)하고 있는 이러한 상무의 기풍을 불러 깨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다케야마 대위는 25년의 짧은 한 평생을 바쳐 그 도표(導標)가 된 선도자이다.

〈출전 : 鄭人澤, 「武山大尉のことども」, 『國民總力』 1944년 9월호, 7쪽〉

## 17) 현제명(玄濟明)

### (1) 싱가포르 함락 감상

싱가포르의 마침내 함락되었다. 앵글로 색슨의 동양 침략의 최대 아성(牙城)인 싱가포르의 황군의 수중으로 돌아와, 찬란한 일장기는 적도(赤道)의 일광에 빛나며, 밀림지대와 남쪽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전승(戰勝)용사들의 승리의 환호인 나팔 소리는 싱가포르의 푸른 하늘에 높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싱가포르의 푸른 하늘에는 찬란한 일장기, 싱가포르의 푸른 하늘에는 높이 울리는 승전의 나팔 소리, 그건 내 눈과 귀에 똑똑히 보이고 들린다. 희열의 가슴과 감격의 가슴은 약동한다.

그들 미·영이 비인도적인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동양을 침략하고 동양인을 멸시하고, 착취한 죄는 우리 황군의 신검(神劍)에 의해 벌을 받았다. 이보다 장쾌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팔굉일우의 어능위(御稜威) 아래 동양인을 지도하고 동양인의 행복을 꾀어준 우리 황국은 새로운 대동아를 건설하고,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운 세기를 건설하는 것이다. 무적 황군의 정의의 전진 앞에서는 1백 년의 세월을 들어서 쌓아 올린 싱가포르도 아침 이슬로 사라져버렸다.

아아 마침내 함락, 싱가포르 함락, 감격, 희열, 장쾌가 내 가슴에 가득 찬다.

〈출전 : 玄濟明, 「新嘉坡陷落感想」, 『東洋之光』 1942년 3월호, 48쪽〉

## 18) 홍난파(洪蘭波)

### (1) 사상전향에 관한 논문

홍영후(洪永厚)<sup>128)</sup>

무릇 사상에 대한 운동은 그 내용 및 종류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그 시대에 역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상이나 민중의 마음과 떨어진 운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해악을 초래하여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민족적 역사나 문화사적 지위 등을 생각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민족운동 등을 모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족 전체에 행복을 가져오기는커녕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선은 5,000년에 가까운 역사와 오랜 문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민족이지만, 한편으로 조선의 지리적 상태와 인민의 관계를 고찰할 때 적은 인민과 협소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성주(聖主)인 일본제국과 만주국,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민족운동이나 독립운동을 꿈꾸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허망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방해하고 일본의 국시(國是)를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현재 세계열강의 국토, 재력, 군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선과 같이 협소한 토지와 적은 인민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하등의 군대도, 경제력도 없는 약소한 민족이 설사 하나의 독립국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도저히 세계열강의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위를 선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국가가 눈독을 들이며 정벌(征伐)의 목표로 삼아 동아시아는 전란(戰亂)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며 일본제국의 미래까지 위기에 빠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은 옛날과 같은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시대가 아닙니다. 백색 인종이 동양 민족의 세력확장을 막고 동아시아를 영원한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에 우리는 물론 무릇 동양인이라면 일본제국을 도와 일본을 동아시아의 성주(聖主)로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일지(日支-일중)사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중국은 중국인들만의 중국이 아니며 동양인의 중국이며 또한 세계 여러 열강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은 중국의 민중지도자들은 폭거망동(暴舉妄動)하며 일본제국을 모멸하고 있고 이이제이(以夷制夷)의 간책을 드러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일본제국이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연하고 용감하게 폭력적인 중국에 대하여 응징의 철퇴를 가한 것은 국민 전체가 감사하게 여기는 바이고, 이때 반도의 인민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바로 조선인의 황국에 대한 정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고 일부 지식인 중에 향후 조선민족운동을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조선민족 전체를 위하여 또한 일본제국을 위하여 한탄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8) 홍난파의 본명.

여기에서 민족운동을 표방하는 어느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는 필자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는 논할 것도 없고 그 활동의 유무를 물을 것도 없이 후회하고 있는 바이며, 동시에 민중의 지도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상전향을 결심한 이 때 저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견해와 마음가짐을 고치고 과거를 청산하며 향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온건한 사상과 정확한 시대 관찰 하에 나라에 충성하고 민중에 대해서는 선량한 지도자가 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1937년 11월 4일

경성(京城) 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홍영후(洪永厚)

〈출전 : 「同友會事件關係者ノ思想轉向誓約書提出並敎職辭職ノ件(京鍾警高 第14868號)」, 1937년 11월 24일

## 7. 지원병·징병동원의 선전·선동

### 1) 명사, 징병의 감격을 말하다

#### 나는 다섯 아이의 애비

매일신보 주필 서춘(徐椿)

주필이라는 직함이 아무래도 무서운 인상을 줄 텐데 노크를 하니 뜻밖에도 “네”라는 여성적인 대답이 들려서 일단 안심했다.

“……무슨 일이시죠?”

“저…… 실은 징병의 감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제분은 몇 명이십니까?”

“다섯 명입니다만, 그 중에 네 명이 남자 아이입니다. 장남은 징병령이 실시된 지 2년째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까?”

“글쎄요, 폐하의 방패로서 소중하게 키우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도는 어떤 영향을 반도의 문화에 줄까요? 어떤 새로운 의의를 갖게 될까요?”

“문화라니, 역시 주필은 주필이다. “인류의 경험의 집적이죠. 따라서 반도의 청년들이 일본제국의 군인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된다면 반도 문화는 지금과는 질을 달리해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징병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귀하의 소신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국 군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심신을 닦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평범한 말이지만 정말이지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귀와(鬼瓦) 같은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남주(南洲)<sup>129)</sup>를 연상케 한다.

## 돌격의 심리

작가 유진오(兪鎭午)

장방형의 온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벽면에는 장서들로 가득 차 있다. 그야말로 지성이 넘치는 방이라는 느낌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키가 큰, 멋진 중년신사가 나타났다. 미소를 짓고는 있었지만 범상치 않은 눈빛이다. 이른바 문학정신이라는 것이 방사되고 있기 때문이리라.

“징병제가 실시되었지요.”

“네, 문화인들의 마음가짐도 진지해질 것입니다. 우리 말도 앞으로는 단지 조선의 문명뿐만 아니라 직접 제국의 국방, 동아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제분은 몇 명이십니까?”

“둘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단련에 대한 마음가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젊은이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각오를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틀에 박힌 탁선(託宣)이나 건성으로 하는 안이한 논리가 아니라 진정 피가 통한 영혼에 철저히 입각한 지도가 바람직합니다. 교련을 잘하는 병사는 전 세계 이디든 있죠. 하지만 돌격을 할 수 있는 병사는 황군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돌격의 심리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마음가짐, 모든 것을 내놓고 이슬만큼의 잔재도 남기지 않는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연성(鍊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이다. 그래서 유진오 씨는 보성전문의 법과 과장이라는 중량감 있는 부업(?)도 거뜬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리라.

## 억울하였다

시인 모윤숙(毛允淑)

…… 여보세요 …… 모 선생님이시죠? 여긴 『국민문학』인데요. …… 오랜만이죠. 그건 그렇고 징병의 단적인 감상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 네, 분했다? 딸이어서? 그렇군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 어떤 걸까요? 딸에게는 딸로서의 장래의 직역(職域)이 있지 않습니까? …… 네, 네, 사내아

129) 메이지유신의 3걸 가운데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의 별명이다.

이가 있는 친구가 잘난 척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 딸이어서 분했다는 심리에도 일리가 있었군요. …… 그래도 모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니 …… 아뇨 농담이 아닙니다. …… 네, 군국의 어머니로서 키우십니까. 그럼 그 정도로 해서 사내아이가 있는 친구와도 타협하는 게 어떻습니까?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백성인 우리

시인 송촌굉일(松村紘一, 마쓰무라)<sup>130</sup>

그리스도를 최상급의 저널리스트라고 갈파한 사람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적 정신이라는 것은 상재(商才) 안에 적용되어도 제일급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19세기 시인의 풍모와 비교하면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런 새로운 타입의 시인이 나타나도 좋을 시대가 아닐까. 방문 목적을 알리자, 일찍이 제일급 시인이었고 지금은 제일급 실업가인 송촌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군요. 가게(화신)에서 동맹통신으로 알게 되었는데, 저 자신이 병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지를 힘차게 내딛고 길을 걸어가니

백성인 우리 살아 있는 징표가 있으리

사내아이는 세 명, 제일 큰 녀석이 12살입니다. 저와 아내는 세 명의 호국영령의 부모가 될 때의 마음가짐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 문화도 모든 점에서 신생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한 수 선사하도록 하죠.

○분명 충을 잡는 모습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목숨을 바치는 마음을 배우라

그 옛날 창성기의 반도 시단의 혜성으로서 사랑받고 있던 이 노시인이 단호히 익숙하지 않은 국어<sup>131</sup>)로 단가를 노래하고 있는 모습에는 어떤 비극적인 위대성마저 느껴졌다. 빌딩 창문에는 남산이 보이고 있었다.

## 감히 초들어 말씀드립니다

사상가 장덕수(張德秀)

풍채도 좋고 사유도 뛰어나고 휴화산 같은 인물이 있어서 굳이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보성전문)에서 들었는데, 그 순간 마침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도의 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130)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131) 일본어.

“글쎄요…… 어쨌거나 국민으로서 생활에 한층 더 적극성이 나올 테니깐 말이죠.”  
“아버지로서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로 만 17개월이 되는 여자아이밖에 없어서, 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직 멀다는 느낌입니다. ……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빛나는 영광에 감응해야 할 겁니다.”

## 아이를 데리고

작가 최정희(崔貞熙)

아이를 데리고 오랫동안 험난한 문단생활을 해온 한 명의 여류작가가 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이지만, 그녀의 근무처인 방송국 ○응접 의자는 제법 편안하다. 2분 30초 정도 기다리자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어머, ○씨,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 그건 그렇고 징병의 감격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음 …… 어렵네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애매했던 신념이 한순간에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념이 된 것 같은 밝은 기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이 얼굴, 그렇군요.”

“아이를 더 소중하게 키워야 할 것이고, 좋은 의미에서 더 엄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아무래도 응석받이가 되기 쉬울 테니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지는 군인이 되면 어떡하지 하며 마치 시골 할머니 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한 명뿐입니까?”

“네, 그래요.”

“아직 젊고 아름다우신 당신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히어로이즘에 대해 이처럼 저는 수신 과목 선생님처럼 머리를 숙입니다.”

호호호 웃는다. 그 웃음이 연둣빛 치마와 쌀색 저고리의 색채의 배합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생명력의 겸손함을 발산한다. 그리고 마치 탄식을 달래기라도 하듯,

“실은 저도 ……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 얼굴을 보면 결국 무서워져서 …… 그래도 이걸 기사로 쓰지는 마세요.”

“네, 안심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어떤 기사가 되죠?”

“〈명사, 징병의 감격을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명사라는 말이군요. 그건 아닌데.”

“뭘, 그렇습니다. 여류작가는 명사인 셈이고 명사란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꽃처럼 저널리즘에 만개하는……”

“그런가요?”

“그게 풍속이라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 이 한 목숨 나라에 바치라

작가 조용만(趙容萬)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요점만 몇 가지 적겠습니다.

1. 회사 주필실에 불려가서 들었는데, 크게 감격했습니다.
2. 사내아이가 두 명 있는데, 갑종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 반도 문화의 비약적인 향상을 촉진하는 박차가 될 것입니다.
4. 한 목숨 나라에 바치라, 젊은이들이여.

## 장남의 검무자세가

경성 제2방송 부장 팔번창성(八幡昌成, 야하타)<sup>132)</sup>

“……9일 오후 방송자료로서 들었는데, 순간 일본 내지와 조선의 지도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반도의 산야가 갑자기 군국색(軍國色)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다음으로 장남의 검무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다음으로는 군복차림으로 바뀐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로써 정말 황국신민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방송에서 다룰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가정교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동안 가정교육에 무사도정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남녀에게 검무와 시음(詩吟)을 선생들이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는 남자아이는 제국의 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자아이에게는 군국의 어머니다운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에게 한 마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의 특색은 감격성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이 영광스러운 감격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신의 연성(鍊成)은 물론이거니와 건군(建軍)의 본의를 깨닫고 자신의 몸은 폐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132) 노창성(盧昌成)의 창씨명.

## 국민적 문화의 수립

문인협회 간사장 방촌향도(芳村香道, 요시무라)<sup>133)</sup>

“아, 그렇습니까. …… 국민총력연맹의 사무국에서 듣고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신의 피가 끓어오르는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반도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정신에 기초하는 국민적 문화가 수립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제분들의 사랑을 한마디……”

“저는 두 명의 사내아이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 충절을 다하도록 교육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황군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연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육체도 정신도.”

## 철모의 노래

대륙광고 사장 김호영(金浩永)

이봐, 자네, 이래봐도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 자네가 도쿄에 있을 무렵 들고 온 투구 말이야, 그걸 장남 녀석은 지금도 깊게 눌러쓰고는 매일 전쟁놀이를 하고 있지.

누구나 과거는 있잖아.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이야기고 어리석은 것이지. 전향한 뒤 나는 이렇게 광고쟁이가 되었지만, 무시하지는 말게 자네, 투구를 쓴 내 자식을 보면 나에 대한 자네의 견해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아깝군, 아까워. 자네, 이렇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조선이기에 가능한 일이야. 도쿄는 말이지, 살아가기 더 힘들어. 뭐, 아무래도 좋고, 어쨌거나 건배나 하지.

(비전옥에서)

## 조선신궁 앞에서

대동아 사장 백산청수(白山靑樹, 시로야마 세이주)

“……조선신궁 앞에서 수만 군중들과 함께 ‘저는 세 병사의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훌륭하게 다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장남은 17살이니 아마 제1회에 부름을 받을 겁니다. 새로운 반도는 이러한 아이들의 시대에서 진정한 발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존귀하고 늠름하게 보였습니다.”

“그럼 문화에는 어떤 영향이나 새로운 의의를 가져올까요?”

---

133) 박영희(朴英熙)의 창씨명.

“새로운 ‘문예부흥’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 때부터의 ‘순국정신’을 칭송한 것 같은 피의 문화가 일본정신에 의해 재편성되고 일본 문화 속의 가장 늙은 일익이 되어 새로운 발족을 하리라 봅니다.”

야소 빌딩의 계단을 세면서 젊은 필자는 북받치는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밖으로 나오니 신록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출전 : 崔貞熙 「名士・徵兵の感激を語る」, 『國民文學』 제2권 제5호, 1942년 5·6월, 42~49쪽〉

## 2) 김동환(金東煥, 白山靑樹)

### (1) 애국정신과 지원병

#### 1

전임 총독 우가키(宇垣)님이 일러전쟁 당시, 육군소령으로서 러시아 군대를 추격하여 제 고향에 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30년이나 지난 꽤나 옛날의 진기한 이야기지만, 그때의 러시아는 봉천(奉天)의 대회전(會戰)을 앞두고 북조선 일대를 상치내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특별히 1개 사단을 조선 국경에 침입시켜, 그중 1만 여의 많은 군대가 두만강을 건너 한때는 남쪽은 원산으로부터 북쪽은 청진, 회령까지 점령해 버린 일이 있습니다. 우가키 소령도 포함된 우리의 일본군대가 와서 구해 줄 때까지 우리는 약 3개월 동안 저 횡포와 막무가내의 러시아 군대 지배 아래에 완전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3개월 동안의 고통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비참한 것으로 우선 밀물처럼 쳐들어 온 로스케<sup>134)</sup>는 지금의 도지사에게 해당되는 관찰사를 곧바로 영내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군수와 면장은 총검을 갖다 대고 자신들의 하인처럼, 백성에게 모든 물품의 징발을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남았던 구한국의 수비대는 반항하는 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무장을 해제하여 식량품의 운반인부나 말 다루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보다 한층 참혹한 것은 일반백성들의 모습으로 총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두 산산이 흩어져서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간 뒤, 그들은 농사꾼 집에 제멋대로 들어가서 만만한 물건은 남김없이 약탈하며, 마을에 있던 소나 돼지나 닭을 모조리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물론 돈은 한 푼도 변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려고 하면 때리고 차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리하여 제 귀에 들리는 소문은 매일같이, 오늘은 개천가에 빨래하러 간 여인 세 사람이 강간을 당했다든지, 누구 집 소가 도둑맞았다든지, 또 군수가 오늘도 감자 2백 섬의 징발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소문이 마을을 놀라게 하고 어둡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혈기 왕성한 청년이 사단장이 있는 곳에 가서 호소하면, 오히려 본보기로 마을 사람들을 많이 모

134) 러시아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이놓고 연병장에서 기둥에 묶어서 찢러 죽이거나 총살해 버렸습니다.

‘죽음의 마을’이란 바로 우리 마을을 나타낸 말일 것입니다. 제 고장, 경성(鏡城)이라는 곳은 그때까지는 북선 제일의 대도회지로 인구가 1만 정도가 있고 관찰부의 소재지로서 북선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상 매우 중요한 도회지였으나 불과 3개월 뒤에는 백성은 식량을 남김없이 빼앗기고 마을마다 죽임을 당한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텅굴고, 거기에다가 러시아 군대의 횡포가 날이 더 할수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일본군이 앞에서 말한 우가키 님도 포함된 우리 일본군이 러시아 군대를 격파 하면서 규율 정연, 위풍당당하게 우리 마을에 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제가 사는 마을과 그다지 멀지 않은 길주(吉州)라는 곳의 격전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곧바로 쫓겨서 두만강까지 결눈질도 하지 않고 도망가서 시베리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겨우 우리 마을의 백성도 다시 살아나, 산속 깊이 도망간 마을 사람도 되돌아오고, 관찰사나 군수도 목숨이 살아나고, 학교나 관청도 다시 열리며, 거리에는

“일본 이겼다, 일본 이겼다, 러시아가 졌다”

라고 하는 기쁜 군가를 소리 높이 부르짖으며, 사람들 얼굴은 비로소 웃음이 감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 고향뿐만 아니라 아마도 함경남도도 함경북도의 2백만 주민이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 세월은 빨라서 30년의 세월이 흘러 1937년 8월, 또다시 제 고장의 강 건너인 장고봉(張鼓峯)에 난폭한 러시아 적군(赤軍)이 또다시 침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장고봉에 적군(赤軍)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북선 사람들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처음에는 열린 입이 안 닫혀졌으나, 30년 전의 저 일러전쟁 당시의 참담한 기억을 되살리며 “좋아 이번에는 로스케를 쳐부숴 보자, 한 발짝도 국경에 들어 놓지 않겠다” 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그들이 두만강 이남을 침입해 들어온다면 이번에는 30년 전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들은 입겠지, 땅도 곡식도 빼앗기며 부모쳐자는 죽임을 당하고, 아마도 살아남는 자는 거의 없게 될 것이다. 30년 전의 원수를 갚는 것은 이때다 하고 백만의 도민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참으로 경찰서장이나 군수의 명령,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하며 우리 황군을 도왔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렇게 총알이 비 오듯 하는 속을 예사로 무기탄약의 운반에 종사하거나, 여인들은 주먹밥을 만들고, 자경단은 소방대로 급히 탈바꿈 하여 화재를 막았습니다. 누구 하나 도망가는 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 튼튼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응원하러 밀려 왔습니다. 비행기가 올 듯하다 하기에 밤새도록 마을에서는 입초를 서고, 정말 정연한 활동으로 일동은 황군을 도우며 눈물겨운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의 일은 당시의 신문에도 상세하게 실려 있어서 세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겠으나 아무튼 백만의 국경 주민은 군대를 도와 국경을 훌륭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백 몇 대인가의 비행기가 날아오고, 무작정으로 쏘아대는 대안(對岸)으로부터의 포격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참으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로스케를 격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국경을 지켜내는 이러한 힘! 이러한 용기! 이러한 신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는 굳은 애국심의 발현(發

顯인 것입니다.

이 땅과 인민과 대군(大君)을 지켜 받들고자 하는 이러한 정열이야말로 훌륭한 애국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국정신의 내용은 “우리 조선인은 살거나 죽거나 내지인과 함께 한다, 야마토(大和) 남아(男兒)가 되어서 군대와 그 운명을 함께” 한다는 굳은 결심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면 이 만큼 확실해지는 사상은 없습니다. 즉 총알이 날아온다, 맞으면 옆에 있던 내지인도 조선인도 함께 당한다, 하늘에서 만약에 폭탄이 떨어진다면 앞에 있는 내지인의 저택에도 뒤쪽의 조선인 지붕에도 같이 떨어진다, 결국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내선은 공동운명이라고 이 만큼 절실하게 내선 양 민중의 생사일체를 설명하는 현실은 지금껏 없었던 것입니다.

애국심은 이와 같은 것으로 30년 이래 예전에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열렬하고 진지한 힘으로 장고봉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북조선 전체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로스케를 나라 안에 들여놓지 말라, 붉은 사상을 두만강 이남에 건네지 말라고 하는 참으로 목숨을 건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애국심이란 대학의 교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어려운 철학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전쟁이나 사변, 이와 같은 비상시에 잠자는 듯이 보이는 애국심이 가장 순진하고 소박한 모습이 되어서 이토록 넓게 대중의 가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선지방의 실제로 생생한 한 실례에 지나지 않으나, 지나사변 이래 이러한 정신은 13도에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항일정권인 지나의 장개석을 두들겨 없애고 동아시아 착취의 원흉, 영국을 치라고 하는 진지한 부르짖음은 2천 3백만 민중 누구에게도 부르짖는 바로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제 반도 전반에 애국의 정열이 불로 타 올라서 그 나타남이 혹은 지원병이 되고, 혹은 국방헌금이 되며, 혹은 센닌바리(千人針)가 되어 기타 출정병사에게 위문의 모습이 된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2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위대한 성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미 백만의 야마토남자는 총을 들러메고 대륙에 건너가 있다. 팽이를 쥐고 개척민이 되어 소만국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일선에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바쳐 봉공 드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반도 민중만은 총알이 도달하지 않는 후방에 있다. 원래 후방에 있다고 하며 농촌에서 쌀을 만들고, 공장에서 군수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뿐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우리 반도에는 40, 50만의 튼튼한 장정이 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신속하게 군대교육을 받고, 야마토(大和) 남자들과 어울려 전쟁터에서 일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다. 이러한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조선인 식자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우리의 희망을 살피서 2, 3년 전부터 지원병제도가 공포되고 우리에게도 제국 군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쁜 일입니다. 저는 지난 날 군사령부의 가모(蒲) 소령의 안내로 가이다(海田)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성 동대문 밖에 있는 훈련소를 견학하고 그 정신과 모든 것이 철저한 훈련의 됴됨을 보고 참으로 경탄했습니다.

이것은 1천이나 2천의 지원병뿐만 아니라 반도인 전부가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군사적 훈련을 받으



면 좋겠다고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반도인에게는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요소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 세 개란 용기와 훈련과 조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훈련소에서는 지금 훌륭하게 조선청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묵묵히 죽는 것이다, 우리 일본 무사도의 진수인 묵묵히 정부의 뜻에 따라 죽는 것이다. 생명을 내던져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일러전쟁 당시의 히로세(廣瀨) 중령의 최후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상해사변의 폭탄 3용사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장고봉(張鼓峯), 노몽한, 가는 곳마다 충용(忠勇)자약(自若)하게 최후를 마친 야마토 사나이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본 사나이는 모두가 결사대라고. 아니 결사대 정도가 아니다. 반드시 죽어서 봉공하는 필사대인 것이다. 세계에 자랑하는 우리 황군의 혁혁한 전과는 참으로 묵묵히 죽어 주는 이러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정신이 모자란다, 또 그와 같은 정신훈련을 받을 기회마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선에는 옛날부터 대군(大君)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숭고한 정신이 한 번도 없었느냐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소의 모리모토(森本) 교수는 일본의 무사도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저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도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다, 스파르타식의 당시의 용기와 일본의 무사도적인 목숨을 건 희생적인 정신은 신라시대에 훌륭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남자는 국가를 위해서는 불속에도 물속에도 뛰어 들어가도록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그 한 예를 말하면,

1천 2백년의 옛날, 백제가 빈번히 신라를 침범해 오고 백제에는 계백이라고 하는 참으로 용감한 장군이 있어서 대적할 수가 없었다, 계백이라는 장군은 나중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 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해서 미리 검을 빼들고 자신의 처자를 죽여 버리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유명한 사령관이지만 처음에는 이 장군을 쳐 부셔서 이길 만한 대장이 신라조정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물도 되지 않은 황창량(黃倡郎)이라는 무사가 스스로 나아가서 이 어려운 큰 임무를 받고 출정하게 되어, 집에 이별인사를 하러 갔더니, 부모는 “산 모습으로는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고, 처는 처대로 용감하게도 “이것으로 이승에서는 이별이니 나라를 위하여 미련을 두지 말고 봉공하시라”고 하며, 남편의 검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죽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소년무사는 전쟁에 나가서 세가 불리하여, 드디어 적의 포로가 되었으나, 적 장군 계백은 적 이면서도 너무나 훌륭한 전투에서의 모습에 감탄하여 죽이지 않고 억지로 말에 묶어서 다시 신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왜 죽어서 돌아오지 않았느냐며 그대로 적진으로 쫓아 보냈습니다. 또 포로가 되어, 다시 말에 묶어 신라로 돌려보내지고, 이렇게 하기를 세 번째에 황창량은 훌륭하게 싸우다 드디어 전쟁터의 꽃으로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죽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 부모도 처도 모두 훌륭합니다. 모두 무사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신라의 부녀자들은 아이들을 이와 같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오른 쪽 유방을 눌러서

납작하게 만듭니다. 마치 지나의 구식 여자가 발을 딱딱한 구두 속에 억지로 밀어 넣어서 작게, 작게 하는 것처럼 신라의 여자와 어머니는 자신의 한쪽 유방을 짓눌러서 납작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하면 그들은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경우,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처럼 활을 당겨서 활약한다, 활을 당길 때는 유방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와 같이 뿌리부터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어쨌거나 유방이 두 개까지는 필요 없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 시에는 돌을 던진다, 그러한 돌을 모아서 쌀 필요가 있다고 치마 위에 또 튼튼한 천으로 앞치마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도 입고 있다. 참으로 신라 전성시대에는 마치 가마쿠라(鎌倉)시대의 무사교육처럼, 부모도 아이들도 국민 전체가 이와 같은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묵묵히 군국(君國)을 위하여 죽을 용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참으로 반도청년은 이제 1천 몇 백 년 만에 지원병훈련소를 통하여, 그와 같이 고귀한 무사교육을 받고 있기에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도 그렇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보니까 소화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옷통을 전부 드러낸 농촌 청년들이 처음에는 예의라고는 전혀 없어서 벗은 옷은 내던지고, 밤에 덮는 이불을 함부로 개키고, 그 밖에 방청소나 밥 먹는 방법, 걷는 방법, 줄을 서는 방법, 완전히 부끄러울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그것이 2, 3개월의 훈련으로, 체중은 2, 3관이나 늘고, 몸은 똑바로 되며, 걷는 보조는 정식이 되며, 눈은 지평선을 노려보고, 넓은 교실에는 티끌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걸레나 옷이나 이불 개키는 방법이 정말 몰라 볼 정도로 제대로 고쳐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낭독, 또 활발한 황민(皇民)체조를 하며 목검체조도 강행군도 한다, 1천명 이상의 청년이 모여 있으나, 여기에는 한 치의 잘못된 행동이나 소란이 없는 참으로 고요함 바로 그것입니다. 또 교육도 잘 되어서 국어, 역사, 지리, 수학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무사의 집에 10년 봉공하는 것 보다 나은 신체, 정신, 지식을 여기에서 단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소의 훈련이 그와 같이 철저한 결과, 졸업생들이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대개 모범병사가 되거나 상등병까지 진급합니다, 가는 곳마다 연대에서는 칭찬을 받고, 특히 제가 훈련소에 갔던 날, 우연히도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은, 그날 한 생도가 잘 못해서 실책을 하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었더니, 교관은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잔소리 하나 하지 않고 저쪽 산기슭에 가서 모래를 한 줍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다, 저는 그 생도가 자포자기하여 걷는 방법도 엉망으로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그러기는커녕 정말 규칙 바르게 땀박질하면서 한 줍의 흙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교관은 한 번 더 되풀이 시킨다, 다시 생도는 가지고 온다, 세 번째에 용서를 받고, 교관은 빙그레 웃으며 끝내는 용서한다, 생도도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간다. 이것은 부자간에 서만 볼 수 있는 자애에 찬 훈육방법이다. 무사와 무사사이의 온화한 분위기에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한 가지 일로 다른 만사가 모두 명백합니다. 훈련소란 이와 같이 훌륭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훈련소는 청년에게 천황을 위하여 묵묵히 죽어가는 존귀한 용기를 가르치며, 중요한 훈련을 시키고, 군대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중요한 조직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독일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폴란드에 일을 일으켜서 눈 깜짝할 사이에 8개국을 정복한 저 엄청난 맹방(盟邦)인 독일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독일의 강대함은 참으로 오늘날 지원병훈련소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용기와 훈련과 조직을 끊임없이, 힘차게 누구하나 빠짐없이 전 국민을 가르쳐 넣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18세가 되면, 누구든지 6개월간 훈련소에 넣어서 훈련을 시킨다. 또 1주일에 2, 3번은 반드시 군사강연과 국방강화(講話)를 듣게 한다. 젊은 사람에게는 검을 가지고 하는 결투를 시킨다. 학교에서도 검도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한다. 이와 같이 해서 7천만 국민은 철같은 단결과 불같은 용감한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스가 정권을 잡은 이래 7개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되풀이 또 되풀이 해 왔던 것입니다. 승리하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승리의 방법과 그 준비가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저토록 세계를 놀라게 하는 승리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원병훈련소에서 열심히 두들겨 집어넣는 이 용기와 훈련과 조직의 정신이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대군(大君)과 나라를 지켜 받드는 뿌리이며 준비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러한 교육이, 우리 반도 청년 전체에 빨리 보급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 3

내 친구 중에 만주국 중령이 있다. 이 사람이 작년 여름 상해 광동을 거쳐 홍콩에 갔다고 한다. 홍콩 거리는 대부분 화려장대하며 저 넓은 해안 일대에 5층, 6층의 양옥이 즐비하게 있다. 길은 넓고 가는 곳마다 공원이 있고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며 새가 노래를 불러 이 세상의 천국이며 인간세계의 낙원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나(支那)거리는 어떻게 하고 보니까 산꼭대기에 돼지 움막처럼 밀어 놓여지고 있으며, 어느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빈민굴 그 자체로 냄새나는 인간이 마치 돼지나 개처럼 가득 차서 뒹굴고 있는 것이다, 여름에는 전염병의 소굴이 되어 시체가 거리를 굴러다니며, 겨울에는 굶어 죽은 인력거꾼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영국인은 시가를 몰고, 인력거에 유연하게 타고 있으며, 한편 인력거꾼은 땀을 흘리며 인력거 손잡이를 쥐고 달린다, 2십리나 3십리를 가서 10전이나 20전을 받아 쥐고 그것으로 개집승 같은 생활을 한다, 이 모양을 보고 앞에 말한 만주국의 중령 이 군은 분개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아, 동양인종이면 꼭 홍콩에 가서 보라, 단 한 번만 보아도 영국을 쓰러뜨리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이 말은 정말이었겠지요, 그들은 동양인의, 지나인의 피를 빨아서 저러한 호사한 생활을 한다, 불과 하루에 2, 3시간 일한 뒤는 해수욕이나 댄스나 술에 젖는다, 모두 바보스러운 지나인을 속여서 환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홍콩이란 어떤 곳인가, 유명한 저 아편전쟁으로 대포로 무리하게 뺏은 지나의 영토인 것이다, 이 아편전쟁은 금년으로 꼭 백 년째가 된다, 영국인은 실로 백년이라는 오랜 동안 지나인을 매질하고, 속여서 그 달콤한 국물을 빨고 있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가 그렇고, 마닐라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착취의 근거지는 동양에 이른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나인은 바보이며 인도도 오스트리아도 이집트도 바보 중에 큰 바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횡포를 하는 영국을 동양에서 쫓아내며 우리 동양인이 서로 즐기는 대아세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날, 해군무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양 저쪽의 뉴질랜드 주민들은 풍속, 습관까지가 우

리 일본사람들과 흡사하여 혼도시<sup>135)</sup>를 매는 방식까지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들 주민은 일본을 매우 의지하고 매우 좋아한다. 우리 일본을 좋아하며 의지하려는 나라들은 유독 뉴질랜드뿐이 아니다. 태국이 그렇고, 지금은 인도차이나도 그렇고,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이 남김없이 그런 것이다.

이러할 때에 대제국의 동아공영권건설의 대 이상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아시아인 10억만의 행복은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는 무력을 키우고 반도인 전부가 야마토민족의 피 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함께 손을 잡고 직접 일선에 나서서 매진해야 할 천우(天佑)의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의 지원병 수가 작년의 2배, 3배가 되고, 아니 반도 50만 장정이 남김없이 지원해서 국가에 충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슴에 제가 지금 느끼는 것 같은 애국의 열정이 끓고, 모두가 지원병의 길을 통하여 군국(君國)에 이바지 할 것을 절실히 부탁하며, 이 단상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끝)

〈출전 : 金東煥 「愛國精神と志願兵」, 『三千里』 제13권 제6호, 1941년 6월, 72~77쪽〉

### 3) 김종한(金鐘漢)

#### (1) 병제(兵制)와 문학

최근에 나는 잠깐 여행을 했다. 그 여행지의 등불 아래에서 우에다 히로시(上田廣)의 『건설전기(戰記)』와 히비노 시로(日比野士朗)의 『오송(吳淞) 크리크』를 읽었다. 후자는 다시 읽은 것이나, 전자는 이전집에서 처음 접한 것이다.

오랫동안 문학수업을 해 온 무명작가가 한 차례 전쟁이라고 하는 특이한 소재에 부닥쳐져서 형성할 수 있었던 문학적인 현실의 멋짐이라고 하는 것에 압도당하여, 그것을 읽고 있던 비가 오는 오타(太田)의 나가가와(中川) 여관에서 하룻밤은 꽤나 탄력 있는 기억이 되어 버렸다.

문학소재로서의 전쟁의 풍부함이라고 하기보다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과 마주하게 된 하룻밤이었다.

원래 문학은 인간을 그리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상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 『건설전기』나 『오송 크리크』에는 히노(火野)문학과 함께 확실히 새로운 타입의 인간의 전형(典型)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전기(戰記)문학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학 그 자체의 본질적인 영역의 전개라고 해야 할만한 것을 느끼게 한다.

소재에 대한 감동의 밀도, “전(全)”에 있어서의 “개(個)”의 구중적(具衆的)인 파악, 집단미(集團美)의 발견 등 순수한 의미로 일본문학의 본질에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에다 히로시 씨가 지난번에 경성에 왔을 때, 어떤 문학좌담회에서 자리를 같이 한 저는 그로부터

135) 남자의 음부를 가리는 폭이 좁고 긴 천.

“시가 나오야(志賀直哉)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심경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감탄을 한 것이었으나, 그것은 우에다 씨이기 때문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오랫동안 시가 나오야에 경도되었던 우에다 씨이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시가 나오야로 고심하지 않았던 인간이 시가 나오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박야 문학적인 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내가 하명 받은 것은 병역제도와 문학과의 관계인데 이것을 읽어 주실 독자는 어떠한 새로운 문학도 투기로부터는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줄 것을 바란다.

낡은 전통을 체득하고자 부심(腐心)해 왔던 사람들이 한번 전쟁이라는 시간의 작렬(炸裂)과 부닥쳐서 형성할 수 있었던, 덧셈과 뺄셈처럼 확실한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기적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최재서 씨의 「보도연습반」 등은 문제로 삼아도 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이 발표된 국민문학 7월호는 필자가 편집하고 있었던 관계도 있어서, 편집 후기에서도 말한 적이 있으나, 오랫동안 평론만 써왔던 사람이 평론이라는 표현형식으로서는 뜻을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고 느껴, 문학의 기성형태의 한 걸음 앞에서 토사(吐瀉)를 한 것과 같은 작품인 것이다.

스토리는 지금까지 가로글자만 연구해 온 중년의 반도지식인이, 조선군보도연습반이 되어 중군했을 때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소설적으로 구성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전체 문장이, 작가의 감격의 침잠(沈潛) 부족으로 작가와 소재의 거리정착성이 위협을 받아 상실되려고 하는 점에서도 조선문학의 중대한 당면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 안에서 최재서 씨는 “총에 대하여” 정성을 들여 상념(想念) 묘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 순간에는 “새로운 조선의 모습 여기에 있다” 하고, 문학을 무시하고 결론의식을 서두르기도 한다.

이 결론의식이라는 것은 혁신했다고 보이는 조선문학에 따라다니는 숙명적인 불행인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목양(牧羊)<sup>136</sup> 씨의 「고요한 폭풍」도 그랬다. 그 주인공인 박태민은 결론 때문에 출발하고 결론 때문에 투쟁하고, 결론 가운데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라는 것은 “결론”하는 것이 아니다. 소재와 결론의 중간 표현이 문학인 것이다. 우리가 「고요한 폭풍」에서 느끼는 얼마간의 반발과 “보도연습”에서 느끼는 인간상의 부정확성에 대한 불만은 이러한 결론의식에 대한 혐오인 것이다.



드디어 조선에서도 육군과 해군의 병역제도실시가 결정되었다. 군인으로서의 생활, 대륙에서의 생활, 해양생활 등 그것이 조선문학의 소재영역에 놀라울 정도로 큰 것을 부가한다는 사실은 기쁠 따름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문학적 수리(受理)에 있을 것이다. 문학이라는 것은 고마운 것으로 주어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화야말

136)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로, 리얼티라는 것이며 문학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인 것이다.

「고요한 폭풍」과 「보도연습반」은 그러한 의미에서는 “유령”은 제시해 왔으나, 참다운 새로운 “인간”은 제시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이 작가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제시해 온 “유령”을 밟고 넘어서서, 다음 작품에서는 참답고 새로운 “인간”을 제시해 줄 것임 틀림없다. 이러한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제부터의 모든 조선작가들은 독자에의 책무로서 그 고난스러운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독자는 문학을 통해서만 향유할 수 있는 징병문제의 희열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출전 : 金鐘漢 「兵制と文學」, 『新時代』 1943년 8월호, 32~34쪽〉

#### 4)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 (1) 자만보다도 연성(鍊成)

5월 9일 반도에 징병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큼 내 생애에서 심한 충격을 받은 일은 없었다. 감격과 감사를 입에 담을 정도를 훨씬 넘어서 신비와 숭고한 경지를 경험한 것이다.

이 순간이 지나자 내 세계는 새벽처럼 새롭게 명랑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황국신민의 신념에 휘감겨 있던 어떤 부족함의 검은 그림자가 말끔히 아침 햇살 아래에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도대체 누구의 내선일체론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황국신민이 되기 위하여 답답한 이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여기에는 논쟁도 반박도 있을 수 없다. 반도인이 가야 할 길은 하나이며 신념은 진실한 것이다.

이 몸도 나라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 또 내 자식들이 큰 보배가 된 이 감격과 고마움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숭고한 감격 뒤에 오는 것은 당연히 중대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인은 일본정신에 사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육탄 삼용사나 하와이 진주만의 9군신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심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쇠와 같은 정신력을 갖고 있어도 정신력이 약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철석(鐵石)같은 정신력과 함께 건전한 육체를 단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의 감격과 기쁨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홍대무변(鴻大無邊)한 황은(皇恩)에 죽음으로써 보답하고 받들어 오늘날의 이 감격을 영원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은 자만하기 전에 먼저 황국신민에의 연성(鍊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출전 : 芳村香道 「自慢よりも鍊成」, 『京城日報』, 1943년 1월 31일〉

## 5) 송영(宋影)

### (1) 영원한 충성

내 나이 20 전후 때 동경에서 고학(苦學)한 일이 있다.

어느 초자공장(硝子工場)의 아습직공(兒習職工) 노릇을 해가면서 그때 그 공장에는 반도인이라고는 나 같은 청소년이 수십인(數三人)있었을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가 내지인(內地人)이었다. 그때 우리들은 단 1년이 못되어서 훌륭한 숙련공(熟練工)들이 되었다. 그래서 공장장한테서 내지소년이면 2, 3년 걸려야 될 노릇을 너희들은 단 1년밖에 안 된 동안에 숙련공이 되었다고 하는 칭찬을 받 은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 동료(同僚)끼리 앉으면 그들은 자네는 언제 적(適)기(適口期)지, 나는 벌써 작년에 끝이 났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자랑삼아 했다. 그리고 그 반면 너희들은 병역(兵役)의 임무도 없는 게 무슨 국민이나 하는 듯한 조소(嘲笑)를 받은 일이 있다. 그 뒤 나는 경성에 와서 어느 일등우편국(一等郵便局)에 판임관심득(判任官心得)으로 다닌 일이 있는 그때에도 우리들 반도인국원(半島人局員)은 내지인 동료들한테 그러한 눈치를 받고 지내왔다.

이것은 금년 봄에 동경 갔을 때 이야기다. 동경에는 우리 강가(姜家)가 있고 강형(姜兄)집도 있다. 강형은 동경재가이십여년(東京在佳二十餘年)에 아주 내지인 부인으로 ( )했다. 물론 그의 가정도 동서(同婿)되는 군(君)은 어느 공장의 공장장이며 동네 안에서는 린조장(隣組長)(여기에 애국반장)이 되어있고 강형이 되는 분은 부인회장 또 그 큰아들은 중학생인데 소년단(少年團)부(少年團口部)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고녀생, 국민교생들이 ( )있는 그야말로 익찬(翼贊) 일가(一家)였다

나는 매우 감격했었다 그러나 중학생군(내 조카놈)에게는 불평이 있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수위(首位)며 오장(伍長)이며 소년단장까지 되어있었으나 학우들에게 ‘君はいくやかんぼつでも 志願兵しかれない’라는 눈치의 없이 여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숙원(宿願)이 이루어졌다.

8월 1일 이하로의 감격은 반도전민중의 감격이며 성취며 기쁨이다.

골목 안에서 이( )하는 아이들의 모양이 처음으로 자연스러워졌다.

머리 쪽진 부인들이 흔드는 적은 자장가도 멋쩍지 않게 되었다.

우리들은 언제이나 이러한 감격을 영원 무궁히 식히지 말고 나아가자 충성을 다하자.

〈출전 : 宋影, 「永遠한 忠誠」, 『매일신보』, 1943년 8월 5일〉

## 6) 오정민(吳禎民)

### (1) 징병제와 연극

작년에 개최된 제1회 경연대회를 경계로 조선의 신연극은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까지 무엇보다도 위대한 역할을 다해 온 것은 극작가이다.

지난 5, 6년 동안 연극부문에 그 누구보다 극작가야말로 무거운 임무를 짊어지고 초려와 고투를 계속해 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동안 연극의 추진력으로서 비할 바 없는 정진에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난다.

그러나 나는 현상을 보았을 때 국민연극이 의도한 만족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의 극작부진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국민연극의 일환을 이루는 조선 신연극이 오랜 모색과 시련 뒤에 이제 와서 겨우 궤도에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해도 오히려 여러 가지 불만인 점을 지적하자고 하면 끝이 없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반도적인 현실은 유사 이래 격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만큼은 긴박감을 체득하지 않고 있으며, 전선과 총후의 연결이 직접적이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당면한 제재의 적극성을 찾아내는 데 극작가가 항상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의 해방과 연애이상주의를 유일한 신조로 하여, 익숙해져 있던 작극술(作劇術)이 국민연극으로 전환된 후에는 그 뿌리부터 뒤집혀져서 심한 주관의 동요가 일어났다. 그 동요를 다시금 채찍질 하는 듯한 시국의 추이는 극작가가 반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따라서 한 때는 극작가가 현실에서 매우 뒤쳐졌다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시국의 요청은 신체 제적인 작품생산을 재촉하는 데 급하여 극작가에 집중된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극작가도 저돌적으로 떨쳐 일어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온적인 현실로부터 튕겨져 돌아오는 것은 깊은 실망이며, 따라서 작품의 미숙함 때문에 받는 일반의 냉조(冷嘲)였다.

이렇게 극작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구각(舊戩)을 벗어던지기 이전에, 무엇보다 외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데 급급한 현상 속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만들어낸 것이 작년도 경연(競演)의 성과였다. 그 경연에서 일단 무난하게 취급된 것이 생산면에서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인간상이다.

실제로 반도적인 현실로서 주제의 적극성을, 전시하라는 것과 맺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전쟁 그 자체를 반도가 혈액으로서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건이 너무나 간접적이었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극작가들은 도회지의 소비생활에서보다는 농산어촌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재 속에서 신시대의 호흡을 베껴내고자 온 힘을 경주(傾注)해 왔는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재의 정리방법에서도 어떤 인물의 형상(形象)에 관념적이거나 작가정신으로서의 높이와 깊이가 모자랐다는 것은 줄고(拙稿) 「극작가에 대한 희망」에서도 설명한 대로이다.

아무튼 경연대회에서의 성과는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며, 거기에서 드러난 극작가들이 오랜 시련과 모색을 한 뒤에 도달한 일종의 확신이야말로, 다음 전진을 위한 태엽이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걸 수 있다.



박영호(朴英鎬) 작 “조선은 내년으로 다가온 징병제 실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작자가 대담하게 시도한 신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의 현실 속에서 징병제와 연극이 어떻게 맺어져 있을까라는 의문을 극을 관람하기 전에 나는 품고 있었다. 우선 신라시대의 화랑제도를 취재하는 것도 직접적인 감명을



불러일으키기 곤란할 것이며, 현대를 무대로 삼았다면 지원병을 취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그 외에는 징병제에 관련한 과거사례를 우리가 가진 적이 없다.

그러나 “아랑(阿娘)”이 상연되고 보니 작가는 관객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장소는 만주의 조선인 생활을 취재하며, 시대는 1944년과, 그 19년 전에 발단을 두고 뺏어 나가고 있다, 그렇군! 달세계를 가상한 영화가 있으며, H. G. 웰즈에게는 백년 뒤의 인류를 그린 소설도 있으니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징병제와 연극”이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매우 재치 있는 답안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연출된 무대를 통하여 느낀 것은 다른 작가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플롯의 교묘함, 징병제 취지의 철저, 거기에다가 연극으로서의 흥미 깊은 재미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 일반에게 주는 인상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도를 가야 할 국민연극일까 하고 생각했을 때에 유감스런 점이 없지는 않다.

작가 박영호는 오랫동안 상업연극을 해 왔기 때문에, 관객을 싫증나게 하지 않는 기술은 누구보다 잘 포착하고 있다. 참으로 경탄해 마지않을 정도로, 그의 작품에는 오락과 교훈이 잘 조합되어 있다. 그러나 참다운 국민연극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국민연극에는 그것에 더하여 향기를 뿜어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손재주만으로 만들어진 꽃이 아니라 작가의 혼이 피게 한 꽃으로서, 스스로 향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작가가 외부요청에 응한 나머지 조금해서, 내면적인 향내가 모자랐던 것은, 당시의 정세로서 할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보다 더 깊은 신념에 바탕을 둔 광범한 제재(題材)가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것은 “조선”의 작가가 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대개의 극작가가 내면성이 모자라는 조금함만으로 비약해 왔다. 따라서 윤리적인 뒷받침이 없고 현실생활에 뿌리를 내린 향기 높은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징병제실시일은 다가오고 있다. 우리로서도 이 새로운 획기적인 제도를 앞에 놓고 지금까지의 방향으로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커다란 희망을 품으면서도 미온적으로 악덕에 찬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분함이 끓어오르기도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시하에 있으면서 전쟁터와 직접 연결을 안 가졌던 반도적인 현실은 신문화의 이념에 불타고 있었던 자에게 몹시 뜨뜻미지근한 것이었다. 관념으로서는 남태평양의 격렬한 전투상황을 연상할 수도 있었다고 하나, 우리 주위는 무엇에 홀려서, 현상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전쟁터가 있고 비로소 총후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아무튼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국(戰局)의 긴박화와 함께, 물질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단절하는 부동의 생활신조를 확립해서 절대불패의 마음가짐을 각자가 체득해야 할 것이다. 가난을 이겨내는 동양고래의 길, 병사의 마음을 새기는 겸허하고 헌신적인 기백이야말로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시국에 대한 피동적인 지금까지의 생활태도로부터 적극적으로 국가목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율성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작가도 마찬가지다. 피동적으로 시국적인 과제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내년도에는 징병제가 실시된다. 그와 동시에 전쟁터는 우리들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되며, 우리들 속에서 혹은 우리들 주위에서 소집을 받아 종군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일상다반사에도, 또는 뉴스를 접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쟁터의 생각일 것이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의 순간이 많아지고,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지함이 생활에도 반영되어 나갈 것이다.

연극의 취재범위도 확대되고, 무대에서는 청신한 활기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의 마음가짐으로 극작가는, 역사의 흐름의 진수를 파악해야 하며, 전시생활의 참으로 건전한 것을 취급해야 할 것이다. “조선”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구(假構)의 소재보다도, 더욱더 내면적인 진실성을 가진 제재(題材)가 작품화되어야 한다. 즉 교훈과 오락과 향기를 저절로 갖춘 우수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가 높은 정신성 위에 서서 세상을 날카롭게 비판해 나가는 기백이 필요하게 된다.

징병은 연극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뜻을 가지는 것이다. 반도의 신연극이 전쟁터와 맺어짐으로써 참다운 국민연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앞길에 대한 희망은 심대하다.

〈출전 : 吳禎民, 「徵兵制と演劇」, 『新時代』 제3권 8호, 1943년 8월, 34~36쪽〉

## 7) 이석훈(李石薰, 牧洋)

### (1) 징병 · 국어 · 일본정신

여기에 든 제목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뿐이다. 따라서 나 같은 사람이 용훼(容喙)하는 것은 너무나도 짐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일단 부딪혀서 옥쇄할 각오가 없으면 아무래도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이다.

미리 양해를 받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문(一文)은 학술적인 논문의 종류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수상(隨想)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꽤나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그렇게라도 말해 두지 않으면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목에는 징병과 국어와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 개를 따로따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나, 결국 이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한 마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조선의 지식청년들은 적어도 지나사변 전까지는 일본이라는 것이 안중(眼中)에 없었다. “안중에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으나, 요는 그다지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일본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도 않았으며, 일본에 관한 일은 일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린위탕(林語堂)은 “지나인의 가장 큰 결점 중의 하나는 모든 것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들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것은 일본을 멸시한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너무나도 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우리가 항상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생활하고 또한 행복을 꿈꾸어 왔던 것이다. 저 유명한 붓세<sup>137)</sup>의 시에,

산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아아! 나는 멀리 찾아가며  
눈물겨워 돌아오지 않는  
산 저쪽에 아직도 멀리  
행복이 산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라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과거시대의 몽상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시는 그런 좁은 뜻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저 시대의 몽상과 동경 등을 노래했다고 한다면, 이 시가(詩歌)로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저 툄틸과 미틸 자매가 행복의 “파랑새”(메텔링 지음)를 찾아서 사방을 헤맨 결과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찾은 것이었으나, 우리가 산 저쪽의 하늘 멀리 생각을 치닫게 하는 몽상으로부터 깨어나서, 언제나처럼 태양이 지붕으로부터 뜨고, 먼지투성이인 공기 속에 우글거리는 인간 세상에 섰을 때, 일본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아무래도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면 이 엄연한 현실부터 도피하는 것과 같은 비겁한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진지하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식인에 의해 문화는 추진되는 것으로서, 도피하는 자들에게서는 아무 것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일본을 알아야 한다. 일본을 알라 -이것은 지금 세계의 슬로건이 되고 있다. 말레이부터 자바에 걸친 지역을 2, 3개월 동안에 석권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하와이 기슭에 산화(散花)한 9군신(軍神)은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일본정신의 비밀은 거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정신은 무력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무력이라면 그것은 야만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일본정신은 즉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화(和)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글자는 필요하지 않다. 유구한 신화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연면하게 계속되어 온 국체와 야마토(大和) 민족의 그 가족적인 국가생활과 충군애국을 보면 그것만으로 가장 웅변적인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물론 일본만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넓게 말하면 동양의 특성이다.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이 “동양의 이상”에서 “아시아는 하나다. 히말라야 산맥은 두 개의 강력한 문명 -공자의 공동주의를 가진 지나문명과 에다의 개인주의를 가진 인도문명을 다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눈다. 그러나 이 눈의 장벽은 저 궁극과 보편에 대한 넓은 사랑의 확대를 단 한시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전 아시아민족 공통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사상인 것이다. 이 사랑이야말로 그

137) Carl Busse(1872~1918), 독일의 시인. 소설가.

들에게 세계의 모든 대 종교를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정신을 기다릴 것까지도 없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전 아시아민족 공통의 상속재산”인 사랑이, 특히 일본에 있어서 자랑해야 할 국체를 만들어내고 그 국체와 맺어져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인 것이다. 즉 그것이 일본정신인 것이다.

징병도 국어 상용도 철저히 일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이며 실천이 없이 아무리 희망만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부처님에게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현실에 살아가는 자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1년 반 뒤부터는 모든 우리 아들이 우리 아우가 일본 군인으로서 폐하에게 소집되는 것이다. 우리 자제뿐만이 아니다. 현재 내지에서 시행 중인 징병령이 가령 그대로 조선에 적용된다면, 남자 40세까지는 예비로서 병역을 짊어지는 것으로 40세까지의 조선남자는 일단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멈추라, 징병제는 내선관계에 가장 중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며, 드디어 양 민족의 운명이 바람직하게 밀접해지는 것이다. 장차 많은 동포가 천황폐하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치는 경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조국이라는 뜨거운 피 속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없이 징병제를 생각하는 것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일 게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들에게 부과된 문제를 가장 성실하게 풀어나가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건 정해진 이치이다.

……(판독불가)…… 필경 국어생활은 강제 된 기분으로는 부자연스러워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일종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기분이 아니고는 오히려 정신적으로 고통인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압력을 느끼면서 할 수 없이 의리로 쓴다면 쓰이는 국어 쪽이 비참할 것이다.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향상한다는 식으로, 밝은 기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어떤 이상 때문에 한다고 하는 방편적인 사고방식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요컨대 무의식적인 의식 속에 “일본이 있다”고 하는 경지까지 수련해야만 한다.

〈출전 : 牧洋, 「徵兵·國語·日本精神」, 『朝光』 1942년 7월호, 28~31쪽〉

## 8) 장혁주(張赫宙)

### (1) 입소일기 - 육군병 특별 지원자 훈련소(상·하)

성동역을 9시 40분에 출발해서 30분 만에 묵동역에 도착한다.

차내에서 훈련소의 모리모토(森本) 교수를 만나고 口을 통하여 안내를 청한다.

기동차 탔인지 차내의 혼잡은 심하다.

하차하자 모리모토 교수 외에도 5, 6명의 교관과 동행이 되었다.

아사히(朝日) 신문사의 사진반이 가까이 와서 나와 앞을 바꾼다.

붉은 벽돌의 참으로 당당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작은 길을 걷기를 몇 백 미터.

푸른 하늘에 솜구름. 내가 입소하는 날이기에 맑은 아침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른다.  
 보초 앞을 지나니까 몸이 긴장된다.  
 본부에서 이시다(石田) 교관에게 인계되고 다시 가타부치(片淵) 교관에게 인도된다. 입소 중의 과정을 전달해 준다.  
 가이타(海田) 소장에게 인사를 갔으며 주의를 받았다.  
 회계실에서 훈련생복을 빌려 받고 모자, 완장, 군화, 각반까지 일체가 지급되었다.  
 옷을 갈아입으니 어엿한 훈련생이 완성된 것이다.  
 벗어던진 양복이 절도가 없어 보인다. 그것을 안고 배당된 방에 가는 도중 소집되어 입영하는 자신을 상상해 본다.  
 가타부치 교관으로부터 복장과 실내 실외의 규칙을 배운다.  
 점심. 이번만 응접실에서 먹었다.  
 누마타(沼田) 아사히 기자가 내방.  
 가타부치 교관이 나타나서 소년을 안내한다. 구석구석까지 보여 준다. 덕분에 몇 달 동안 입소한 것처럼 사정을 알 수 있다.  
 연병장으로 나온다. 총을 빌려 받고 어깨총을 해 본다. 각반을 차는 데까지는 잘 되었으나, 어깨총은 도무지 잘 안 된다. 하사관님이나 선배인 반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으나 이것도 정말 잠시. 다음 총검술의 기본동작의 지도를 하고 있는 데로 옮겨 갔으나, 이번에는 견학뿐이다. 보기 사납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된 것이다.  
 3시 반부터 실습이다.  
 모리모토 교수담당의 9평을 책임졌다. 갈고, 밭이랑을 만든다. 손바닥에 못이 박혔으나 전부를 완성하고 안심한다. 훈련생의 도움을 받고 분노를 주며 씨앗을 뿌린다.  
 땀에 흠뻑 젖는다.  
 욕실에 간다.  
 목욕을 마치니 정말 상쾌하다. 함께 목욕하는 교관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모두 정들기 쉬운 사람들이다.  
 배가 고파 힘들어 하고 있는데, 7시경 저녁식사가 된다.  
 가이타 소장님도 함께 한다.  
 메이지(明治)대제 어제(御製)를 근창(謹唱)하고 식사를 시작한다.  
 소장이 앞으로 나오신다. 교관 분들은 서서 경례를 한다. 자비로운 아버지를 전송하는 것 같다.  
 방으로 돌아와서 한숨 놓으려니 자습시간을 보러 데리고 간다.

〈이상 상〉

내 당번의 생도가 두 사람이 온다. 나는 한명의 훈련생으로 있으려 했지만 훈련소에서는 교관대우이다. 당번 한 사람은 내 희망으로 도쿄의 소아이(相愛) 학원 출신자로 부탁했다. 내 잠자리를 보거나 양복을 개키거나 손수건을 빨거나 세수의 뒷바라지까지 해 준다.

청결하고 정돈을 바르게 하고 조용하다.  
 이것은 벌써 만점이다. 잘못을 찾아 낼 것이 없다. 낮에 총검술을 할 때 기합이 모자란다고 생각했으  
 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장면을 본다.  
 점호이다.  
 반장의 절도 있는 보고와 호령에 깜짝 놀란다. 1, 2, 3……하며, 마치 기관총의 사격과 같다. 커다랗  
 고 강한 소리가 총알과 같이 빠르며 규칙 바르게 튀어나온다.  
 11구대 전부를 순찰하는 동안에 나는 완전히 자신을 잊어 간다.  
 복도에 집합. 서사(誓詞) 제창. 생도감의 훈시. 고향으로 향하여 묵념. 쫓하고 가슴이 뭉클해진다. 눈  
 물이 뻐다.  
 입실.  
 내 침대는 관처럼 좁다. 담요를 집어 올리지 말고 폭 들어가라고 한다.  
 고생해서 들어갔으나 미라가 된 기분이 들었다.  
 밤새도록 잠꼬대하는 버릇이 있는 나는 참으로 고생스럽다.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각반  
 도 좁고 고생스럽다.  
 하지만 꿈도 꾸지 않고 잠을 잔다.  
 살짝 일어나서 옆에서 자고 있는 가타부치 교관의 잠을 깨우지 않도록 살금살금 걷는다.  
 문을 열고 가만히 복도에 나온다.  
 깜짝 놀란다. 검은 그림자가 나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하며 심문하려고 하다가 입을 다문다.  
 그이야말로 불침번이다.  
 나는 울고 싶어진다. 이렇게 조용히 잠든 곳에서 그는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인고, 지구(持久), 책임감.  
 그는 벌써 훌륭한 군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 완성된 군인이야말로 훌륭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제 좀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다. 꾸벅꾸벅하거나 깜짝깜짝하고 있는 사이에 기상하는 소리로 튀어  
 일어난다.  
 얼굴을 씻는다.  
 조례에 나온다.  
 엄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이 시작되었으나 낮이 될 때에는 졸려서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참는다.  
 (지면도 적고 둘째 셋째 날까지도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

〈이상 하〉

〈출전 : 張赫宙, 「入所日記—陸軍兵特別志願者訓練所(上·下)」, 『京城日報』, 1943년 4월 10~11일〉

## (2) 조선 징병제 실시(1~2)

1

조선에 징병제 실시가 드디어 이번 8월 1일부터 발족했다. 각의결정이 발표된 작년 5월과 마찬가지로 나는 감격한 나머지 흥분했다.

도쿄에서는 1일 오전 8시부터 야스쿠니신사 앞에서, 징병제발전기념대회가 개최되었으나, 내선의 장정을 앞에 두고, 谷萩 소장이 준 격려사를 전하는 방송원의 말을 빠트리지 않겠다고, 나는 잘 들리지 않는 수신기를 앞에 두고 집착했다.

나는 이 감격을 가장 소박하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어쩐지 잘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의 감격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징병제가 요청하지 않고 주어진 것이라면 나는 결코 이러한 흥분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청해도 좀처럼 주어질 것 같지 않았던 징병제이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다.

구하지 않았는데 준다고 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는데 강요하는 서구류의 모병 같은 것을 예로 드는 것조차 우리들의 이 징병제를 더럽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사양하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징병제 하나만 보아도 그들과 우리의 정신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해되는 것이다.

반도가 일본의 일환에 들어와서 34년째가 되었으나, 지나간 34년의 반도 성장에도 자연히 우여곡절은 있었다. 그 하나하나를 들어서 논할 필요는 더 이상 없으며 표면현상에 구애 받을 만큼 우리 조국의 정신이해에 불철저하지는 않은 것이다. 2천6백년의 역사의 표면에 파란은 있어도 호국정신은 일관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미래 영겁에 이를 것인 숭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반도통치의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는 확실해질 것이다.

이 34년간의 황민연성으로 우리는 보국정신의 실체가 결국 귀일과 일체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국체의 숭고한 사연을 깨닫고, 요구하고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떠들어댄 것이 얼마나 호국정신에 반대되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우리는 권리관이라거나, 단순한 의무관이라는 식의 서구류의 사상을 극복함으로써 조국정신의 체득을 갖추었다. 선사시대의 삼한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권리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나는 믿으나, 근대 조선인에게 그러한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면, 서구문화가 유입해서 들어 왔거나 유교문화의 잘못된 채택방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는 이 민족적인 결함의 극복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대어심(大御心)에 귀일하고 받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거듭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표야말로 징병제 실시였던 것이다. 징병제 실시의 날이 조선의 황도화를 인정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2

이 일은 어려운 이치를 댈 것 없이 소학생 시절의 우리가 군인이 될 수 없는 자신을 얼마나 쓸쓸하게 생각했는지, 오늘날 조선 국민학교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심정이 얼마나 치열

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조선이 자신의 황민화를 위하여 연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현상으로 1940년에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자, 초년 도에는 불과 3백 명의 모집인원에 그 20 배의 지원자가 쇄도하고, 작년도에 모집인원이 4천 5백 명으로 확충되자 25만 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숫자발표가 형식에 흐를 염려가 있다 하여 금년도는 발표를 그만 두기로 한 것을 안 지원자가 격증한 예로써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망에 불타서 채용된 청소년이라면, 지원병훈련소 출신자가 군무에 복무하는데 성적이 좋은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지만, 전선에 나가서 충용한 역할을 하고 전사한 지원병에게 김시(金璫)훈장을 받을 정도로 발군의 성적을 올린 지원병의 일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이다.

그리고 이 두 군대의 훈련소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졸업자로 중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자를 수용하는 청년훈련소의 12만의 생도, 1944년도의 제1회 징병적령자로서 국민학교를 미수로 혹은 미취학자를 수용하는(조선에서는 1946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청년특별연성소의 11만의 생도가, 병역에 복무할 수 있게 된 환희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반도민이 이번 징병제 실시를 어떤 기분으로 요망하고 있는지는 저절로 실증될 것이라고 믿는다.

징병제 실시를 즈음하여 우리들의 감격은 이것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황민화연성이 이 징병제 실시를 기해서 한층 촉진될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이미 우리의 황민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될 기운을 이 징병제 실시에 의하여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 이후에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결함은 아직 많이 남겨져 있으나, 그것이 군무에 복무함으로써 급격히 제거될 것을 생각하면, 징병제 실시의 뜻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이번 8월 1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기념해야 할 날이다. 이날부터 해군특별 지원병제도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렇게 뜻이 있는 날을, 우리는 깊이 새겨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을 보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층 자신의 연성에 노력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끝)

〈출전 : 張赫宙, 「朝鮮の徵兵制實施(1·2)」, 『朝日新聞』, 1943년 8월 5~6일〉

### (3) 지원병훈련소

지원병훈련소에 입소하고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훈련생이나 훈련소출신자의 행동거지가 내지병과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그렇지 않은 것이 우스운 것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상으로는 얼굴이나 동작 기타 여러 면에서 내선인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쓴 탓이다.

가네시로(金城) 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안내해 주고 있는 가타부치(片淵) 교관과 총검술 지도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지도자인 그 하사관을 내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행한 A사



의 기자가

“저 사람은 내지인이지요?”라고 물었더니 가타부치 씨는,

“아닙니다. 당 훈련소 출신자입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다.

지금은 제대를 해서 교관조수로 와 있지만 성적이 좋아서 병장까지 승진했다고 한다.

나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그리고 대단히 기뻐다.

눈이나 입이나 동작이나 웬지 이마까지 내지인 그대로였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현역병으로 훈련생의 지도를 위하여, 부대에서 파견된 상등병이 있었다. 이름은 잇었고 아침체조의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병사도 나는 내지병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내가 저 사람은 내지병, 이 사람은 반도병이라고 하나하나 구별을 해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가타부치 교관은 그 상등병도 당 훈련소출신자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나는 저런저런 하며 놀랐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자신을 얻게 되었다.

가타부치 교관의 설명에 의하면 훈련을 통해 맨 처음 변하는 것이 눈 색깔이며 다음으로 동작, 그리고 목소리나 전체의 동작이 어느 사이엔가 내지병과 똑같아지는 순서라고 한다.

반도출신병이 내지병을 닮아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역설하면 조금 미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도병이 만약에 반도색이 농후해져서는 큰일일 것 같다.

훈련목표는 같은 황국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같은 정신훈육을 받은 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를 보아도 쌍방의 옛날 민족구성을 조사해 보면 8할이 같다.

이렇게 같은 피를 받은 자가 같은 정신훈육을 받고 닮아 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

제1선에 세워져 반도병이 내지병과 똑같이 감투정신에 불타고 충분히 봉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종종 실증되고 있다.

다만 문제인 것은 군대교육을 받지 않는 것인데 차차 탈피할 것일 게다.

〈출전 : 張赫宙, 「志願兵訓練所」, 『新太陽』 1943년 11월호, 57~58쪽〉

## 9) 조우식(趙宇植, 白川榮二)

### (1) 뚝뚝한 마음에 부처

편집부가 나에게 의뢰해 온 것은 징병실시에 관한 집필이었다. 고백하자면, 내가 관계한 잡지 쪽에서도, 이번에 실시되는 징병법 발표를 앞두고 특집으로 하기 위해 바쁘게 쫓기는 와중에, 이 얘기를 들어

보니 의리상 거절할 수는 없다. 의뢰를 받기는 했지만, 매일 철야를 피할 수 없는 내게는 이 의뢰야말로 연성(鍊成) 그 자체이다.

그것은 의무로 원고를 쓴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나 같은 사람에게, 시가(詩歌)의 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징병제 실시의 감격을 노래해 달라고 들었을 경우는, 듣기 이전에 나는 나 나름대로의 감정을 노래한 노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대답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정말이 아닐까? 영광스런 징병을 맞이하여 우리 시를 쓰는 자들의 커다란 기쁨은 원고를 향해 한없이 쓰이고, 그것으로의 역누를 수 없는 마음은 가성(歌聲)이 되어 대상을 찾고, 국민의 감정을 드높이고 고취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징병이 실시되니 어떤 기분이나는 질문을 받고 쓰게 된다면, 새삼스레 딱딱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평론가의 담당이지 시를 쓰는 사람의 기분일 수는 없다. 이 원고를 부탁받기 전에, 우리들은 징병제 실시 감사 결의 선양을 위해서 시인들은 모두 붓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이런 것을 써서 나열하면 편집자의 의향에 반하는 것 같고 참으로 황송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웬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시를 쓰는 사람만이 뒤쳐지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징병제 실시가 있었던 그날부터 내 기분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감정의 싹이 돋아나는 동안 그 구체적인 국민의 감정을 없애려고 했고, 없앨 수 있었던 것을 더욱 더 고양해야 했고, 지도적이라고 하면 주제넘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무언가 거기에 가까운 것을 국민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 했던 화살촉인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징병제 실시의 발표는, 이전의 것처럼 가슴이 막히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둔감함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 같지만, 진짜 내 기분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국민적인 감동에서 정리하고, 징병에 준비해야 할 길에 서서, 연성의 길에 오로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적령 청년 제군의 결의를 더욱 더 고취하고, 그들을 보내야 할 부모들의 새로운 자각을 요망하고자 해서 노래를 찾아왔던 것이다. 이미 국민의 각오는 되어 있고, 남겨진 문제는 더욱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길일뿐이다.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하루만이라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노인도 어린애도 그저 오로지 연성의 길을 더듬어 가며, 국민개병의 국가적 요청에 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은 경주되어 있다. 나 자신은 부름을 받는 날의 기쁨을 가질 수 없는 비애를 느끼는 사람이며,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징병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나인 것이다.

이미 내지에서 동급생이었던 친구들은 숭고한 성전 덕분에 사라져간 사람이 많고, 지금도 광범위한 전장 속을 달리면서, 생사의 길에 서서, 조국 일본의 절대적인 승리를 맹세하며 싸우고 있다.

나는 징병 실시의 지연을 생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대망(待望)이 다할 수 있었던, 징병 실시 발표 날의 환희는 절대적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좋은 병사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일전에 관계하는 잡지의 위촉을 받아, 징병제에 대비하여 연성하는 반도 청년의 현상(現狀)을 견학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때에도 솔선하여 이것에 찬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완전한 황민의 길이 있을까를 궁리했다.

요컨대 문제는 없다. 이론이라든가, 변명은 필요 없다. 다만 실천이다.

몸을 바쳐 살아가는 길로 가는 방법이다. 특히 군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복종이고 멸사(滅私)이다. 그 령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복종하는 정신과 봉공할 수 있는 육체의 연성만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말하는 나의 장황함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나는 해야 할 말을 모른다.

지금 여기에 많은 요설은 필요하지 않다. 내 감상을 물어온다면 이상과 같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대답할 것은 없다. 복종하는 것과 멸사하는 것 …… 여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실로 눈물겨운 것이 있다. 징병제 발포와 함께 반도에서 생을 받은 우리들의 더없는 영광에 대한 열기는 언어를 아득히 초극한 것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부름을 받아 가는 날을 대비하여, 적령 청년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연성에 힘쓰고 있다. 이 영광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는 되돌아보지 않고 대군(大君)의 미천한(醜 耻. ‘나의 낮춤말-역자) 방패(御楯)<sup>138)</sup>로 일어설 것이다, 나는”<sup>139)</sup>이라는 노래가 오늘 우리들 반도 청년의 뱃속에서 낭랑하게 낭송하게 될 날이 드디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반도에서 생을 받은 청년들에게는 황병이 되기 위해서 내지의 청년은 알 수 없는 고뇌와 어려움의 길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건방진 얘기지만, 나 같은 사람처럼 이미 오랫동안 국어에 의한 문필로 살아온 사람도, 항상 고뇌하는 언어의 길이 있다. 어느 국가 말의 경우도 그렇듯이 말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진수에 다가서는 길이다. 즉 오늘날 우리 반도에도 이 문제가 가장 절실하게 대두하게 되었다. 더욱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중대한 길. 하루라도 빨리 적령 청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맹을 타파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해서 성전은 나날이 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징병 영광의 날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잠깐 유예할 마음도 없는 것이다. 이 때, 이 한없는 영광의 날을 대비하여, 부름을 받을 수 있는 혼과 육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반도의 이천오백만의 동포가 총을 들고 외치는 온 땅을 울리는 연성으로서의 열렬한 기합, 이 필사(必死)의 때에 필사해야 할 행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비장한 결의의 모습, 눈물겹고 그리고 믿음직스럽다. 이 한없는 조국 일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길로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비약해 가는 우리 반도의 낭랑하고 위대한 서사시가 아닐까.

이 안타까운 감정에 감루하는 일부 문화인은 대동단결의 손을 잡고 협력을 맹세하고, 그들의 내일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는 경주되고 있다.

종래, 자기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만 생존의 의의를 찾으려고 했으며, 그것에 의해서만 개인주의적인 행동은 행해져 왔지만, 돌연 그것을 청산하고, 국가의 사명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지금은 모두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황국 1억 국민단결의 위력은 지금 천자의 위광 아래 하나가 되고, 대동아 전쟁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반도에 펼쳐진 징병의 영광을 입은 총력을 다해서 이 준비는 착착 그 열매를 거두고 있고, 시정당국의 방침도 우리 반도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보은하려는 열의를 이해하여, 하루라도 빨리 황국신민의 길을 실천할 기회와 방법을 주어야 할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선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이며, 이에 응하여 이미 5년, 여기에 지원병 훈련소에 방패가 될 심신을 닦고 부모 곁을 떠난 사람 몇 천, 성전의 들판에 저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 향기를 풍기는 자도 있다. 징병제의 전구(前驅)로서 젊은 반도의 피를 끓게 해 마지 않는 지원병, 이것이 바로

138) 천황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서 외적을 막아내는 자, 병사.

139) 『萬葉集』 노래 중 한 구절.

반도 청년의 꽃인 것이다. 이것을 비롯해서 청년 훈련소가 있고, 초등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을 그 문하에 모아 4개년의 기간에 걸쳐 착실히 단련한 청년 훈련소야말로 반도 청년 연성의 중추이며, 여기에 심신을 단련하는 청년들이 와야 할 징병에 반도 장정의 주체를 구성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청년단의 활동과 표리일체, 차세대 반도의 중견층으로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 사명·의의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의무제가 없었던 우리 반도의 당연한 소산으로서 거리에 마을에 미취학인 채로 문맹의 비애를 가지고 자라난 다수의 청년들이 많다. 영광의 징병제는 그러한 청년들을 황병으로 부르기 위한 특수한 조치로서 청년특별연성령이 생겼으며, 우선 국어, 기초가 되어야 할 훈육훈련, 군무에 복무할 자에서 이것은 절대적이다. 문맹과 불규칙에서 청년훈련소 제1년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결같은 연성은 10개월 후 그들을 훌륭한 군국의 장정으로 만드는 특별 연성소이다. 또한 분야는 크게 학적의 연성이 있고, 농촌 청년의 연성이 있다. 일찍이 배움의 자유라는 미명에 숨어서 미영 사상 침투의 온상이었던 학교교육은 지금은 성전을 통해서 황국의 숭고한 도의에 눈뜨고, 징병제 실시의 발표를 만세 환호하며 맞았다. 어제 그들에게 그 세계관을 심어준 미영에게, 오늘은 파사(破邪)의 칼을 가지고 공격해 마지않는 투혼을 연마하고 있다.

〈출전 : 趙宇植 「曇りなき心に寄せて」, 『朝光』 1943년 8월호, 31~35쪽〉

## 10) 주요한(朱耀翰, 松村紘一)

### (1) 다섯 가지 사명

싸움이 한창인 태평양에 청년반도의 힘찬 모습이 군함을 띄우고 있는 성으로 쏟아지는 총흔을 신고 9군신의 뒤를 쫓아 미, 영 격멸, 대동아건설의 위업에 직접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 해군 지원병제의 발표는 끝없는 환희와 감격을 불러 일으켰다. 무적 해군의 군문을 향하여 혈서의 탄원서가 계속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육군특별지원병제로부터 징병제로, 의무교육의 실시, 포로감시인의 등용, 청년특별연성의 실시 등 계속 이어지는 감격은 반도의 산하를 들끓게 하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반도만의 끝없는 영광이며 새로운 여 명을 알리는 종소리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대동아건설의 역사적인 전개의 한 장면으로서 중대한 뜻을 가지는 것이다.

### 아시아 단결의 실증

즉 아시아 부흥의 대업을 성취하는 데는 동아시아 10억의 백성이 황국 일본을 맹주로 추앙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일대 단결을 형성할 각오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전 동아시아가 황국일본을 맹주로서 추앙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받는 자의 무조건적 신뢰와 지도하는 자의 무한대의 포용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포용력에 대한 그러한 절대 신뢰는 오로지 황국일본의 지도자적인 능력에 대한 실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실증이야말로 병합 30년의 역사를 갖는 조선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황국일본이 조선동포를 세계무비(無比) 황군의 일원으로 맞아들인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의 2천 5백만이 진충보국의 정신을 갖고 황국의 군문에 달려가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아 10억의 백성들에게 동아공영권건설의 대 이상의 실현성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조선의 빛나는 모습은 부흥 아시아의 철의 단결의 선구이고 모범이며 아시아는 하나라고 하는 이념의 산 실증이며 표준이다.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신뢰와 존경을 황국일본에 초점화(焦點化)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영광은 내일에 있다

군문으로 참여하는 영예와 그리고 역사를 만드는 영예, -반도 젊은이의 영예는 엄격하며 역사 이래 처음인 것이다.

그러나 영예에는 책임이 따른다.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결행을 요구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상 지금까지 보지 못한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을 받는 것이며 그 명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본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안팎이 모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대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고도(後藤) 진해 경비부사령장관은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제도의 발표에서 보는 영광은 오늘의 영광이 아니며 어제의 영광도 아니고, 바로 내일의 영광이어야 한다.”

무엇을 가리켜 내일의 영광이라고 하는가.

고이소(小磯)총독은,

“시정 이래 30 여년, 조선동포가 통치의 근본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로지 황국신민으로서 수련에 노력하고,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황국일본의 이상인 팔굉일우의 성업완수에 몰신을 다해서 공헌해 온 애국의 지성이 하늘에 통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도의 봄은 저수지로부터 온다. 겨울 사이에 채워 놓은 번쩍이는 물이 모내기 때를 맞이하여 수문을 열며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30년간의 축적이 오늘날의 열매를 맺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물이 아름다운 논을 적시고 풍년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홍수가 되어 푸른 들을 황무지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양 어깨에 있는 것이다. 오로지 내일의 실현에 있는 것이다. 성은의 광대함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본 제도가 유종의 미를 맺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군합기를 동경하는 반도청년은 남김없이 스스로의 사명의 무게에 자성과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요건은 충성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일본적인 충성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충성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나무병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독을 가져 오는 자이다. 대담 솔직하게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고 황도정신을 체득하여 무사무아(無私無我)의 일본적인 충성의 참된 가치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적인 충성의 유래는 유신(維新)의 태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 만 년의 신화세계에서 자라온 신들의 길은 곧바로 황국의 애국정신의 기초이며, 진무(神武)천황의 동정(東征)의 무훈에 빛나는 사적(史蹟)으로부터 2천 6백여 년의 그리고 무사도의 화려한 무가(武家)정치 7백년의 훈도(薰陶)나 불교 전래 이래 동양적인 초월을 특색으로 하는 생사관의 체득, 유교가 전래한 지 천년의 대의명분에 의한 국민정신의 양양 또는 다이세호칸(大政奉還)<sup>140)</sup>에 의한 메이지의 일신(一新)에 꽃을 피운 일청, 일러의 전쟁을 거쳐 오늘날 세계를 진감(震撼)케 하는 무적 황군의 의기, 가깝게는 워싱턴 군축회의 이래 절치부심, 속적 미, 영을 격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해군의 혼, 이와 같이 형언 할 수 없는 웅혼한 정신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짧은 시일 안에 몇 분의 일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독일청년은 “내가 죽을지라도 독일은 영원하다”라고 외치며 전쟁터에서 쓰러진다고 하지만 황국의 용사는 단 한 마디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며 기꺼이 생명을 바친다. 천황께 귀일하는 이 정신! 이것을 우리 정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첫째 요건인 것이다.

## 살아 돌아올 것을 약속하지 않는 출격

황군이 한 번 전쟁터에 가면 살아 돌아올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하와이 특별공격대의 용사는 “이제 가겠습니다”고 말하며, 결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생환을 기약하지 않는 출격은 황군에게는 다반사인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생은 낭비되고, 범인의 생은 집착하여 추하다. 달인의 생은 체념으로 아름다우며, 용사의 생은 희생에 빛이 난다.

생의 가치는 이것을 살리는 데 있지 않고 이것을 바치는 데 있다. “목숨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다는 사나이만큼 세상에 무서운 남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사이고 난슈(西郷南洲)가 야마오카 텃슈(山岡鐵舟)를 평한 말이라고 한다. 오늘날 황국은 목숨도 이름도 필요 없는 사나이들이 산더미처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초의 대업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생과 죽음의 대 진리를 변연(翻然)히 깨닫고 생의 가치를 알며 죽음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젊은 반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40) 정권을 천황에게 돌려주는 것. 1867년 10월14일, 에도(江戶)막부의 제 15대 쇼군(將軍)인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돌려주기로 하고 조정이 다음날인 15일 그것을 받을 일.

## 책임관념의 투철

해군특별지원병지원자에 대해서 경성 해군무관부의 마쓰모토(松本) 대령이 해준 말 중에 해군병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자질을 4가지 들고 있는데 -

1, 책임관념에 투철할 것

2, “폐이후기(斃而後己)”의 투혼과 희생적인 정신의 소유자라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의 향토, 조선의 지나간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숨길 수 없다. 오래된 문약의 폐단, 당쟁과 구환심(求宦心)의 작은 세계에 국척(跼蹐)한 3백년의 암흑 사마저 우리는 정면에서 인식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책임관념, 감투정신처럼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천년의 옛날 신라시대에 불과 16세 소년의 몸으로써 백제대군과 싸우기를 세 차례, 장렬하게 전사한 관창과 같은 용맹을 근대는 잊고 있는 것이다.

## 책무와 생명을 바꾼다

1940년 8월 26일 동경만 남방 해상에서 해군의 연습이 있어서 잠수함 ○○호가 막 잠수를 시작할 때 밀려 든 커다란 물결이 열려진 해치 위로부터 함내로 흘러 들어가려고 했다. 마지막에 해치로부터 함내로 들어가려고 하던 한 사람의 병사는 이미 자신이 들어갈 틈이 없고, 만약에 굳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순간 커다란 물결이 함내로 들어가 침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함 밖에서 해치의 뚜껑을 꼭 잠그고 위로부터 나사를 박은 것이다.

사령관은 급히 잠수를 중지하고 다시 물 위에 함을 띄웠으나 이때 이미 수병은 물결에 휩쓸려가서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이름은 해군일등병조 나루세 마사오(成瀬正雄).

책무와 생명을 바꾸어서 굳이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책임관념이 투철한 경지인 것이다.

반도의 젊은이가 해군군문에 달려가거나 혹은 함상에 혹은 기상(機上)에 혹은 육상에 배치되었을 때, 여러분의 양 어깨에는 향토의 명예가 있는 것이다. 향토의 체면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조선전체가 성격적인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젊은 반도의 향토적인 사명인 것이다.

## 동아시아로부터 세계로

바야흐로 태평양의 결전은 무르익었다. 포악한 미, 영은 그 물자력을 믿고 반격의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쪽은 알류산으로부터 남쪽은 뉴기니아 혹은 지나대륙 혹은 인도와 미얀마 국경에서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 1억 동포는 미 본토를 우리 말발굽 아래 유린하고 원흉 루즈벨트를 군문에 끌어내리기까지는 절대로 간과(干戈)를 쉬지 않을 각오로써 분진하고 있는 것이다.

저 미, 영은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인도(人道)를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동양침략의 마수를 돌아보면 두려워 떨만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양의 부가 있을 뿐 동양의 백성은 없다. 그들이 동양의 백성을 가르칠 때는 어떤 때는 돼지라고 말하며, 또는 원숭이라고 하고 있다. 얼마나 무례지극한 일

인가. 지나와 인도를 아편으로 반죽음시키고 병원선을 폭격하고 학생을 소사(掃射)하고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만약에 그들이 야망을 달성할 때가 온다면 아시아의 고향은 제2 아프리카 대륙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반도에 아직도 미, 영 숭배의 미몽에 해매는 자가 있다면 단순히 동양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자 하는 치인(痴人)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를 구하고 성려(聖慮)를 편하게 받들며 찬연한 황도문명을 아시아의 땅에 박아서 세우는 빛나는 사명을 내지의 동포와 함께 짊어지고 동아시아의 지도자로서의 영예를 함께 향유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젊은 반도의 양 어깨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아가서는 황도질서를 세계에 세워서 팔괘(八紘)을 집으로 삼으려는 조국의 대 이상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은 황군의 이상이며 책무인 것이다.

일찍이 역사에는 “웅혼”한 도의가 나타난 일이 없다. 칭기즈칸은 유럽과 아시아 양 대륙에 대제국을 건설했으나 만방에 그것을 얻었다는 이념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마호메트는 한 손에 경서 한 손에 칼을 쥐고 온 세상이 회교를 신봉하게 하려고 했으나 그의 천국은 또 사후(死後)였던 것이다. 혹은 종교, 혹은 철학, 이상을 설파하는 것은 많으나 실력이 수반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력에 의한 화(和)의 세계의 실현 - 이것이야말로 황국의 “도의”의 참뜻인 것이며, 성전의 세계사적인 의의가 여기에 있다.

황국궐기의 세계적인 사명을 인식함으로써 젊은 반도는 참다운 황민으로서 출발하는 것이다.

### 젊은 반도는 짊어진다

이상 다섯 가지의 사명은 우리들 양 어깨에 걸려 있다.

단연코 팔괘일우의 조국정신에 자각하고 성전의 세계사적인 의의를 체득함으로써 천업을 익찬하고 받들고자 하는 젊은 반도의 세계사적 사명

단연코 적 미, 영을 격멸함으로써 성려를 편하게 받들며 황국의 영예를 보전하며, 아시아 부흥의 희생이 되고자 하는 젊은 반도의 동아시아적 사명

단연코 국체본의에 투철하고 완전무결한 황국신민으로서 충절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의 일본적인 사명

단연코 간난신고에 견디는 책무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으로써 황국의 한 구성분자로서의 아름다운 국민성을 발휘하여 향토의 명예를 양양해야 할 젊은 반도의 향토적인 사명

단연코 멸사보국, 생사를 초월한 새로운 인생관 아래에 황군의 진면목을 발휘할 젊은 반도의 인간적인 사명

이 다섯 가지의 길을 깊이 새겨 밤낮으로 이것을 노력하면 틀림없이 세계에 비할 데가 없는 황군해군의 일원으로서 임무와 영광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또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

이제야 조선동포는 내지동포와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책무를 나누고 곤란을 함께 하며 또한 영광을 함께할 완전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천재일우, 조선이 일어설 절호의 기회인 것



이다. 반도의 봄은 눈부시게 밝아졌다. 이때를 맞이하여 젊은 반도가 내장하고 있었던 싹을 틔우지 않으면 아마도 그러한 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환희작약하기 전에 책무의 중대함을 올바르게 심사(深思)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영예가 있는 시대에 생을 받은 것이다. 살면서 사는 보람이 있는 생이며, 죽어서 죽는 보람이 있는 죽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는 고마운 시대이다.

바라건대 반도의 2천5백만 동포는 천재일우의 이러한 봄을 헛되이 하지 말고 커다랗게 열린 이 길에 양양한 전도를 바라보면서 열혈, 불덩어리가 되어서 일장기 아래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뗏자리로 삼아 동아부흥의 희생이 되는 영광을 향하여 대 진군을 개시하지 않겠는가.

〈출전 : 松村紘一, 「五つの使命」, 『新時代』 1943년 6월호, 22~26쪽〉

## 11) 최정희(崔貞熙)

### (1) 어국(御國)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하늘이 더 푸른 듯했습니다. 창에서 보이는 새 잎의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반짝이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웃고 싶습니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손을 뻗어 만세를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5월 9일, 이날부터 저는 누가 무어라 해도 위태로운 자세를 취하지 않을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도 틈이 없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구석에서 구석까지 조그마한 불만도 없이 마음이 맑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비틀어짐 없이 남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아이가 “제가 전쟁에 가서 죽어도 어머니는 울지 않으시겠죠?”하고 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겠습니다.

“어머니, 돈이 없고 아버지가 없어도 제가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어도 저는 이제 어두운 얼굴을 하지 않고 명랑하게 자신과 용기를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는 아이가 전쟁에 가서 죽어도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아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 어찌 할 줄 몰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군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들이 불쌍해서 어두운 얼굴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갖는 희망이 이루어질지 어쩔지, 그것이 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출전 : 崔貞熙 「御國の子の母に」, 『京城日報』, 1942년 5월 19일〉

## 12) 함대훈(咸大勳)

### (1) 전시에 책무익다(責務益多)

경애하는 지원병 제군!

제군은 조선의 특별육군지원병으로 엄선되어 병역의무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였소, 4개월의 훈련이 비록 짧은 기간이나 그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훈련은 보통교육으로는 1년 이상으로도 얻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오. 지금 전선은 확대되어 일본 전 국민이 이 전장으로 나가는 때 우리 반도청년으로서도 이 광영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크게 감격되고, 더구나 제군이 이 임무를 수행할 중요한 존재요, 그러니만치 내지 병사에게 조금도 손색없는 훌륭한 병사가 되어 반도청년의 기개를 전장에서 뽑내 보시요, 정동암(鄭銅巖) 군 같은 나남부대(羅南部隊)의 상등병은 벌써 정근장(精勤章)을 네 개나 받은 모범적 지원병으로 귀소(貴所) 출신이라는 것은 제군 후배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 믿고 이미 전사한 이인석(李仁錫) 상등병의 충렬을 또한 본받으시오, 강력 육군의 일본자로서 제군의 무훈이 빛나기를 바라오.

〈출전 : 咸大勳 「戰時에 責務益多」, 『三千里』 제12권 10호, 1940년 10월, 65~66쪽〉

## 찾아보기

### 【ㄱ】

- 가게사와 세이(影沢清) 207  
 가나이 세이이치(金井成一) 203, 207  
 가나자와 미쓰오(金沢光雄) 206  
 가나자와 세이칸(金沢正換) 207  
 가나자와 이사무(金沢勇) 207  
 가네다 겐지(金田健次) 235  
 가네다 도요미쓰(金田豊実) 252  
 가네하라 요시마사(金原義政) 197  
 가노 간라이(加納莞薔) 406, 410  
 가도와키 하쿠후(門脇白風) 364  
 가도카와 야쿠젠(角川躍善) 207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 35, 47, 66, 74, 80, 119, 129, 150, 204, 260, 346, 350, 356, 357, 358, 361, 363  
 가라시마 다케시 89, 128, 159, 276, 296  
 가라시마(幸島驍) 347, 361  
 가리야 다로(狩谷太郎) 205  
 가마다 사와이치로(鎌田澤一郎) 343  
 가메야마(龜山來刀) 159  
 가모 마부치(賀茂真淵) 113  
 가모이 요시카즈(鴨井吉一) 230, 234  
 가스하라(楠原元壽) 412  
 가쓰우라 센타로(勝浦仙太郎) 203  
 가쓰우라 센타로 204, 205, 206  
 가와기다 나가마사(川喜多長政) 209  
 가와모토 다케요시(川本武吉) 410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38, 491  
 가와사이 이쓰오(河濟逸男) 203, 207  
 가와하라 다카오(川原隆夫) 409  
 가타야마 히로시(片山坦) 319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601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107, 472  
 간구 다다오(簡牛凡夫) 148, 154  
 간도 우메기치(間島梅吉) 222, 230, 235, 237, 240, 250  
 간도특설대 692  
 간쇼 요시구니(甘蔗義邦) 173  
 강노석(姜魯石) 537  
 강장일 591  
 강정애(姜貞愛) 207  
 개조사(改造社) 127  
 게르라하 베르나우 527  
 게이사쿠(岩村耕作) 408  
 겐페이 요시로(源平義郎) 80  
 겐쇼(月照) 709  
 경기중학교 206  
 경성발성영화제작소 167  
 경성상공회의소 184  
 경성영화제작소 167, 191, 192  
 경성일보사 222  
 경성제국대학 35, 47, 80, 121, 276  
 경성취주악단 552  
 경성호텔 200  
 경성후생실내악단 556, 559, 578, 590  
 계정식(桂貞植) 361, 396, 546, 557, 584, 591, 699  
 고가 구니코(古賀隼子) 408  
 고노 아키오(河野秋夫) 235

- 고노 요시타케(河野義武) 234  
 고노 운조(河野雲造) 207  
 고려영화사 509  
 고려영화협회 167, 190, 192  
 고마키 마사미(小牧正美) 409, 410  
 고모리 소타로(小森宗太郎) 313  
 고모토 준세키 199  
 고무라 셋타이(小村雪塔) 586  
 고무라 소준(梧村相俊) 207  
 고바야시 겐로쿠(小林源六) 197, 199, 206  
 고바야시 쓰보조 252  
 고바야시 호조(小林豊三) 238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119, 476  
 고설봉 712  
 고세키 유지(古關裕而) 715  
 고아이(小合理喜造) 408  
 고안(弘安)전쟁 321  
 고원승(高垣昇) 207  
 고이데 아게유키(小出學之) 222, 234  
 고이소 료헤이(小磯良平) 586  
 고인문(高仁文) 183, 231  
 고정(古丁) 153  
 고조 토요시게(五条豊茂) 235  
 곤다 야스노스케(權田保之助) 589  
 곤도 레이치(近藤廉一) 194, 197, 199, 206  
 곤도 히로시(近藤弘) 234  
 관가재홍(管家在弘) 411  
 관동주시화회(關東州詩話會) 158  
 관창랑(官倡郎) 466  
 광원성준(廣原成俊) 408  
 괴테 478, 486  
 교야마 헤이유(京山平雄) 206  
 구니모토 다케오(国本武夫) 167, 185  
 구니키다 돗포(國木田獨步) 146  
 구라시게 슈조(倉茂周藏) 260, 273  
 구로가와 간사쿠(黒川官作) 197  
 구로다 쇼조(黒田省三) 259  
 구로세 도요구라(黒瀬豊蔵) 252  
 구로키 유타카(黒木豊) 234  
 구로타니 구니조(黒谷国蔵) 197  
 구리오카 주유(栗岡忠雄) 235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60, 124  
 구미(荒井組) 173  
 구보 요시오(久保義雄) 167, 185, 203  
 구보 헤이지로(久保兵二郎) 252  
 구본웅(具本雄) 428  
 구사부카 쓰네지(草深常治) 172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 84  
 구와하라 히켄 252  
 국민시가연맹(國民詩歌時聯盟) 360  
 국민연극연구소 55, 66, 54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345, 544  
 국민총력조선연맹 47, 66, 78, 92, 99, 143, 148, 154, 329, 405, 544, 587, 591, 617  
 권영팔(權寧八) 207  
 그렌차 316  
 극단 현대극장 539  
 극연좌 543  
 극예술연구회 542  
 극작가동호회 55  
 글래드스틴 92  
 금강광일(金岡光一) 408  
 금경례자(金慶禮子) 207  
 금광용칠(金光容七) 207  
 금본규평(金本奎平) 406, 408  
 금본정강(金本正康) 406  
 금촌영치(今村榮治) 159  
 금택완식(金沢完植) 207  
 금해종성(金海鐘星) 207

기노시타 후쿠겐(木下福憲) 204  
 기노시타 후쿠기(木下福技) 207  
 기도 시로(木戸四郎) 205, 209  
 기무라 겐지로(木村健次郎) 207  
 기무라(木村巴茂) 237  
 기사다 구마오(岸田態雄) 409  
 기요시(佐藤清) 155  
 기요하라 강이치(清原寛一) 195, 206  
 기쿠치 간(菊池寛) 108, 119, 144, 292  
 기쿠치 고헤이(木口小平) 715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 361  
 기쿠치(菊池月日子) 363  
 기타가와 후유히코(北川冬彦) 499  
 김갑기(金甲起) 167, 185  
 김강 579  
 김경승(金景承) 411  
 김관(金管) 396, 428, 700  
 김관수(金寬洙) 380  
 김기림(金起林) 347  
 김기진(金基鎭, 金村八峰) 207, 347, 428, 622, 631, 689  
 김기창(金基昶) 412, 623  
 김기호(金基鎬) 207  
 김남표(金南杓) 411  
 김대우(金大羽) 342  
 김동규 712  
 김동인(金東仁) 347, 428, 433  
 김동진(金東進) 47  
 김동환(金東煥, 白山靑樹) 47, 55, 74, 119, 345, 346, 347, 349, 356, 358, 361, 362, 363, 428, 704, 742  
 김득창 712  
 김만형(金晩炯) 404  
 김메리 396  
 김명수 546  
 김문기(金問基) 207  
 김문집(金文輯) 35, 346, 348, 426, 428, 430, 592, 705  
 김민자 712  
 김백소(金白笑) 399  
 김복자 712  
 김부식 464  
 김상용(金尙鎔) 347  
 김생려(金生麗, 金山生麗) 318, 546, 557, 559, 576, 581, 588, 591  
 김선초(金仙艸) 377, 712  
 김성태(金聖泰, 金城聖泰) 558, 581  
 김성호(金聖浩) 197, 199, 206  
 김소영(金素英) 193, 203, 204, 207  
 김소운(金素雲) 347  
 김승구(金承久) 428  
 김시중(金時鍾) 412  
 김안나 712  
 김양춘(金陽春) 377, 712  
 김억(金億) 343, 347, 358, 428  
 김연수(金季洙) 197  
 김영(金玲) 203, 207  
 김영길(金永吉) 428  
 김영두(金永斗) 207  
 김용제(金龍濟, 金村龍濟) 145, 346, 347, 356, 358, 361, 418, 422, 423, 428, 608  
 김용환 712  
 김원복(金元福) 553, 584  
 김인승(金仁承) 404, 410  
 김인식 579  
 김일영 712  
 김일해(金一海) 203, 207  
 김재훈(金載勳) 55, 396, 428  
 김정구 712  
 김정섭 712

김정혁(金正革) 193, 203, 508  
 김정현(金正炫) 412  
 김정환 712  
 김종한(金鐘漢) 107, 129, 434, 748  
 김종협 712  
 김종훈(金宗訓) 207  
 김진수(金鎭壽) 543  
 김천애(金天愛, 龍宮天愛) 558, 582, 591  
 김태진 711  
 김한(金漢) 193, 203, 207  
 김한경(金漢卿) 428  
 김형원(金炯元) 347  
 김형준 579  
 김호영(金浩永) 741

【ㄴ】

나가다 세이고(中田清康) 207  
 나가야 쇼사쿠(長屋尙作) 141, 149  
 나가야마 가즈오(永山和男) 412  
 나가야마 린세이(永山麟成) 207  
 나가히사 요시오(長久義雄) 207  
 나루세이 다케마쓰(成清竹松) 237, 252  
 나리이 사부로(成井三朗) 234  
 나베다 마사모토(鍋田正元) 206  
 나쓰메 세이(夏目正) 206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69, 491  
 나운규(羅雲奎) 58  
 나웅(羅雄) 377, 428  
 나카가와 요이치(中河與一) 497  
 나카노 고키세이(中岡孝正) 259  
 나카노 미노루(中野實) 119  
 나카다 세이고(中田晴康) 193, 199, 206, 252, 254, 260  
 나카시마 다로(中島太郎) 237, 252  
 나카시마 메이문(中島命門) 218

나카야마 도세기치(中山東世吉) 234  
 나카오 기요시(中尾清) 159  
 나카이쓰 에이지(若松栄兒) 207  
 나카조노 겐조(中園源藏) 302  
 나카타 하루야스(中田晴康) 269  
 남국사(南國社) 297  
 남궁연 712  
 남방문화위원회 111  
 남방웅 712  
 남승민(南承民) 203, 207  
 남인수 712  
 남홍일(南弘一) 207  
 네즈 소이치(根津莊一) 408, 410  
 노구치 미노루(野口稔) 622  
 노구치 히사미쓰(野口久光) 259  
 노노무라 고헤이(野々村康平) 234  
 노무라 도시오(野村俊夫) 719  
 노부오 에이이치(伸夫英一) 207  
 노부하라 히지리(信原聖) 179, 181  
 노자키 신조(野崎真三) 199, 206, 230, 234  
 노창성(盧昌成) 740  
 노천명(盧天命) 80, 159, 356, 358  
 녹기연맹 80, 95  
 니시가메 겐테이(西亀元貞) 161, 203, 207, 252, 258, 259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52  
 니시무라 고히(西村公鳳) 361, 363  
 니시키 모토사라(西木元貞) 514  
 니시하라 다케에이(西原武栄) 207  
 니시하라 히로토미(西原弘富) 406  
 니와 후미오(丹羽文雄) 130, 153  
 니이 이타루(新居格) 476  
 니폰영화사 222  
 닛카쓰 다마가와(多摩川) 194

【ㄷ】

- 다가와 쓰넨지로(田川常治郎) 171, 173  
 다구치 테쓰(田口哲) 192, 206  
 다나카 가즈오(田中和夫) 47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149  
 다나카 도타로(田中遼太郎) 192  
 다나카 미노루(田中稔) 410  
 다나카 사부로(田中三朗) 160, 171, 184, 192, 197, 199, 204, 205, 206, 228, 230, 234, 250, 260  
 다나카 스테히코(田中捨彦) 146  
 다나카 하쓰오(田中初夫) 78, 343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 80, 356, 358  
 다나하시 상유(棚橋三雄) 234  
 다니야마 반(谷山蕃) 258  
 다다 에이키치(多田栄吉) 171, 173  
 다다 유케이(多田裕計) 88  
 다다 준사부로(多田順三郎) 197  
 다무라 나오타로(田村直太郎) 252  
 다무라 준(田村峻) 215  
 다미야 쟁이치(田宮建一) 206  
 다카고 요시노리(田籠敏徳) 206  
 다카기 데이이치(高木定一) 197, 199, 206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343  
 다카다 도모이치로(高田知一郎) 343  
 다카마쓰 세젠(高松世賢) 197  
 다카마쓰 히데오(高松秀雄) 409  
 다카모토 지다카(高本千鷹) 343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 117  
 다카미 준(高見順) 132  
 다카미야 다이헤이(高宮太平) 234  
 다카시마 가네쓰구 169  
 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 159, 167, 185, 203, 205, 222, 255, 260, 263, 268  
 다카시마 이사오(高島功) 409  
 다카야마 가이신(高山海振) 207  
 다카야마 미쓰루(高山貢) 211, 216, 222  
 다카이 다케오(高居武雄) 197, 199, 206  
 다카하시 다케시(高橋武) 406, 408, 410  
 다케다 도시히코(竹田敏彦) 126  
 다케무라 에이사쿠(竹村英作) 238  
 다케이 요시코(竹井吉子) 396  
 다키모토 사부로(龍本三郎) 412  
 다테노 노부유키(立野信之) 107  
 단계 이쿠타로(丹下郁太郎) 204  
 단광회 403  
 단바 후미오(丹羽文雄) 259  
 단잔 무네요시(丹山宗義) 408  
 단테 498  
 대일본문화영화협회 209  
 대일본영화인협회 521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51, 57, 145, 301, 322, 544, 587, 591  
 대화성(大和聖) 321  
 대화숙(大和塾) 552, 591, 681  
 데라다 고류시(寺田五柳子) 362, 363  
 데라다 나쓰노스케(寺田夏之助) 158  
 데라다 마사요시(寺口正義) 235  
 데라다 미쓰하루(寺田光春) 234  
 데라다 아키라(寺田瑛) 46, 47, 119, 204, 347, 350, 356, 357, 358, 361, 363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107, 114, 320, 356, 358, 360, 361, 363, 492  
 데라모토 유타카(寺本寛) 315  
 텔리우스 316  
 도미나가 메이고(富永明豪) 207  
 도미나가 붕이치(富永文一) 173  
 도미이 지쓰타로(富井実太郎) 237  
 도바리 유키오(戸張幸男) 320, 411  
 도야마 마사하루(遠山正治) 410  
 도오다 가즈오(遠田運雄) 319, 410

도요타 마사코(豊田正子) 259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601  
 도이 세이이치(土井誠一) 197  
 도조(東條) 수상 98  
 도즈카 쇼조(戸塚壮三) 252  
 도지마 텅이치(戸島典一) 197  
 도지마 사쿠사로(戸島作太郎) 197  
 도쿠나가 스스무(徳永進) 119  
 도쿠다 사토시(徳田三十四) 343  
 도쿠야마 도시오(徳山敏雄) 207  
 도쿠야마 요시타미(徳山義民) 195, 203, 207  
 도쿠야마(徳山文伯) 650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309  
 도호영화조선출장소 222  
 독은기(独銀麒) 203, 207  
 동우회(同友會)사건 348  
 동화상사 222

**【ㄹ】**

라미라 546  
 라이지마 유키오(来島雪夫) 259  
 로젠베르 497  
 로쿠샤 오사무(六車修) 205  
 루덴도르프 장군 483  
 루쉰(魯迅) 87  
 리코란(李香蘭) 125  
 리큐(利休) 497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313  
 린위탕(林語堂) 754

**【ㄴ】**

마금희(馬金喜) 361, 591  
 마나베 하쓰요(真鍋八千代) 205  
 마루야마 기사오(丸山雅生) 412  
 마르크스주의 138

마사(眞城修石) 712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434  
 마사키 사카시(正木近) 408  
 마사키 스스무(正木進) 406  
 마스다 미치요시(増田道義) 119  
 마쓰나가 시게루(松永茂) 237, 252  
 마쓰다 레이코(松田黎光) 47  
 마쓰다 요시오(松田義雄) 234  
 마쓰모토 다카아키(松本高明) 197  
 마쓰모토 이치로(松本一郎) 151  
 마쓰모토 테이쿄쿠(松本貞玉) 207  
 마쓰무라 하쿠주(松村百守) 207  
 마쓰바라 겐조(松原健造) 406  
 마쓰바라 마사히코(松原正彦) 406, 408  
 마쓰바라 시게이치(松原繁一) 237  
 마쓰바라 히사오(松原壽夫) 409  
 마쓰시마 히로타케(松島弘武) 235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500  
 마쓰자키 기미(松崎喜美) 410  
 마쓰하라 간쇼(松原寛昌) 207  
 마쓰하라 도시코(松原敏子) 207  
 마쓰하라 소토쿠(松山相徳) 207  
 마에다 세이손(前田青邱) 586  
 마우리스 바레스 436  
 마키야마 시게루(牧山茂) 207  
 마타하리 454  
 민주문예가협회 148, 153, 361  
 민주예문(藝文)연맹 450  
 맥도웰 316  
 메이지천황(明治天皇) 142  
 명보영화사(明寶映畫社) 509  
 명보영화합자회사 167  
 모리 오가이(森鷗外) 436, 491  
 모리 유키오(森行雄) 407  
 모리 이와오(森岩雄) 205



모리 히로시(森浩) 173, 222, 225, 260  
 모리구와 이치(森鞆市) 238  
 모리야마 도시히코(森山俊彦) 207  
 모리야마 사부로(森山三朗) 234  
 모리타 묘진(森田茗人) 159  
 모리타 주(森田樹) 203, 207  
 모모세 지히로(百瀬千尋) 158, 346, 350, 358, 362, 363  
 모윤숙(毛允淑) 358, 737  
 모차르트 552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13  
 무라다 하루오(村田清治) 234  
 무라세 이테나오(村瀬秀治) 234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 35, 72, 258  
 무라카미 겐(村上健) 203, 207  
 무라카미 세이지 222  
 무라카미 추구(村上忠久) 259  
 무로 미쓰코(室満子) 409  
 무솔리니 57  
 무토 히로유키(武藤弘之) 406  
 문예봉(文藝峰) 125, 193, 203, 204, 207  
 문예춘추사(文藝春秋社) 127  
 문원영석(文元永石) 207  
 문정복(文貞福) 536, 712  
 미나미(南) 총독 119, 184, 706  
 미쓰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174  
 미야모토 겐지(宮本元治) 207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蔵) 263  
 미야모토 사부로(宮本三郎) 586  
 미야모토 야스오(宮本康夫) 407  
 미야시게 교우이치(宮茂恭一) 411  
 미야우치 기노스케(宮内巳之助) 207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 501  
 미야자키 고로(宮崎五郎) 407  
 미야자키 세이타로(宮崎清太郎) 129, 356, 358

미야하라 신타(宮原眞太) 343  
 미와 다이이치(三和泰一) 197  
 미요시 다쓰지(三好達治) 502  
 미우라 이사무(三浦勇) 234  
 미즈이 레이코(水井れい子) 259  
 미즈하라 기요시(水原清) 407  
 미치다 마사야(道田昌彌) 347  
 미치히사 료(道久良) 361, 363  
 미카미 료지(三上良二) 206  
 미키 기요시(三木清) 444, 486  
 미키 히로시(三木弘) 204, 319, 409  
 미키(三木尚) 340  
 미테아라이 다쓰오(御手洗辰雄) 173  
 민규식(閔奎植) 197  
 민정식(閔政植) 207

**【ㅁ】**

바그너 549, 577  
 박경호(朴慶浩) 343, 579  
 박기채(朴基采) 203, 207  
 박기효(朴基孝) 197  
 박두용 712  
 박래현(朴峽賢) 412  
 박록주 712  
 박명철(朴明哲) 409  
 박봉수(朴奉洙) 411  
 박상진 712  
 박시춘 712  
 박영선(朴泳善) 404, 409  
 박영신(朴永信) 536, 712  
 박영철(朴榮喆) 343  
 박영호(朴英鎬) 537, 711, 752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46, 119, 204, 345, 346, 348, 356, 357, 358, 361, 363, 428, 437, 710, 741, 750

박완희(朴完熙) 428  
 박원철 340  
 박제행 712  
 박진(朴珍) 380  
 박창혁(朴昌赫) 207  
 박창환 712  
 박춘명 712  
 박충국(朴忠國) 406  
 박태원(朴泰遠) 347  
 박태현(朴泰鉉) 552  
 박학(朴學) 377, 428  
 박흥식(朴興植) 171, 173, 197, 199, 206  
 반도악극단 546  
 방대영(方台榮) 197, 199, 201, 206  
 방덕천(邦德天) 407  
 방응모(方應謨) 343  
 방의석(方義錫) 197  
 방인근(方仁根) 347  
 방한준(方漢駿) 203  
 배렴(裴濂) 412  
 배운성(裴雲成) 407  
 백난아 712  
 백년설 712  
 백우 579  
 백철(白鐵) 47, 347, 358, 428, 442  
 베레슈 산도르 314  
 베르디 577  
 베토벤 478, 549, 577  
 변동욱(卞東煜) 428  
 보성전문 47, 448, 449, 737  
 복혜숙 207  
 부민관 249  
 불국사 109  
 붓세(Carl Busse) 755  
 브람스 548

【사】

사나카(佐仲三森) 411  
 사다함(斯多含) 466  
 사마온공(司馬溫公) 87  
 사쓰키 쓰기코(皇月つぎ子) 207  
 사에키 노부코(佐伯ノブ子) 406, 409  
 사에키 데로카즈(佐伯輝一) 411  
 사이고 난슈(西郷南州) 84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737  
 사이토 기요에(齋藤清衛) 158, 361, 363  
 사쿠라테이 후지오(桜庭藤夫) 237, 252  
 사토 곤조가즈(佐藤今朝一) 234  
 사토 기요시(佐藤清) 343, 347, 358, 363  
 사토 다케오(佐藤武雄) 361, 363  
 사토 데루오(佐藤照雄) 408, 409  
 사토 도라유(佐藤虎雄) 234  
 사토 에이지(佐藤英次) 407  
 사토 이치에이(佐藤一英) 498  
 상원광은(桑原光殷) 207  
 셸리번 316  
 서광제(徐光霽) 161, 203, 207, 252, 257, 428, 512  
 서두수(徐斗錫) 358  
 서영덕 712  
 서월영(徐月影) 203, 207  
 서일성(徐一星) 377, 712  
 서재헌(徐載憲) 204, 207  
 서춘(徐椿) 736  
 서항석(徐恒錫) 167, 287  
 서해강평(曙海康平) 207  
 석굴암 109  
 선만기록영화제작소(鮮滿記録映画製作所) 167  
 성낙인(成樂寅) 408  
 세토 구치(瀬戸口) 715  
 세토 아키라(瀬戸明) 203, 207  
 셋슈(雪舟) 497

소노다 지쓰세(園田実生) 215, 222, 237, 252  
 소산유성(小山有聖) 558, 591  
 소크라테스 98  
 손기정 36  
 손보라 712  
 손응성(孫應星) 404  
 손일평 712  
 손일포(孫一圃) 207  
 송달협 712  
 송본상진(松本相辰) 412  
 송영(宋影) 428, 537, 711, 751  
 송직혁 591  
 송희선 712  
 스키모토 나가오(杉本長夫) 46, 119, 129, 158,  
 343, 346, 347, 350, 356, 358  
 스키모토 에이조(杉本英三) 259  
 스타 소타로(須田鐘太郎) 205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尊) 141  
 스시다 마사오(須志田正夫) 286  
 스에다 아키라(末田晃) 364  
 스이겐 중이치(水原純一) 207  
 스즈키 마사후미(鈴木正文) 616  
 스즈키 미사호(鈴木美佐保) 343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 435  
 스즈키(鈴木國郭) 408  
 스지다 마사오(須志田正夫) 234  
 Stephen Collins Foster 317  
 스플딩 316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130, 749  
 시게노 다쓰히코(茲野辰彦) 259, 260  
 시노 시게사부로(佐野重三朗) 222  
 시라가와 메이겐(白川明鉉) 207  
 시라이 신타로(白井信太郎) 205  
 시마다 미노루(島田実) 235  
 시미즈 쇼(清水晶) 259  
 시미즈 쇼우조우(清水正蔵) 160, 222, 252  
 시미즈 시게히데(清水茂秀) 407  
 시바야마 료지(柴山量二) 216, 222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119, 301, 346,  
 350  
 시카타 겐(四方健) 211, 216, 230, 234  
 시타미 다다오(筈見恒夫) 258, 259  
 신고송(申鼓頌) 711, 712  
 신불출 712  
 신키 마사노스케(新木正之介) 406  
 신타양사(新太陽社) 112, 278, 286  
 신흥영화예술가동맹 513  
 심영(沈影) 380  
 심재흥(沈在興) 207  
 심형구(沈亨求) 55, 66, 404, 408, 585  
 쉰만수(蘇曼殊) 87  
 쓰다 가타시(津田剛) 44, 66, 95, 99, 143, 346, 350,  
 358, 360  
 쓰다 세쓰코(津田節子) 204, 206  
 쓰루다 요시오(鶴田義雄) 207  
 쓰무라 이사무(津村勇) 167, 169, 185  
 쓰무라 헤이지로(津村兵次郎) 159  
 쓰카모토 다다노부(塚本忠信) 662  
 쓰카모토 슈사쿠(塚本周作) 407  
 쓰쿠다 준(佃順) 207  
  
**【오】**  
 아규일(阿奎一) 343  
 아나미 미치헤이(阿南道平) 234  
 아라야마 유키코(荒山雪子) 408  
 아라이 가에이(新井嘉英) 207  
 아라이 도시쓰기(新井俊次) 197  
 아라이 도시즈기(新井俊次) 199  
 아라이 쇼타로(荒井初太郎) 171  
 아라이 하쓰타로(荒井初太郎) 197

- 아라키유에몬(荒木又右衛門) 261  
 아라타니(新谷周九郎) 80  
 아랑 536  
 아리가와 이사무(蟻川勇) 234  
 아마노(天野進) 712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 141  
 아메미야 후미(雨宮史) 318  
 아미야 기이치(阿宮儀一) 343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347  
 아베 타츠이치(阿部達一) 711, 712  
 아사노 마사오(淺野正夫) 407  
 아사오카 간이치로(朝岡寬一郎) 409, 410  
 아사지마 호즈이(朝島芳堆) 206  
 아사하라 류조(淺原隆三) 215, 221, 222, 226, 230, 233  
 아오키 히데오(青木秀雄) 406  
 아이다 호료(藍田保亮) 234  
 아이자와 노리코(相澤徳子) 407, 409  
 아카야 쓰루(丹山鶴) 234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 265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 35, 121  
 안기석(安基錫) 428  
 안도 도시에(安藤敏枝) 412  
 안도 요시아키(安藤芳亮) 343  
 안도 히데나리(安東秀成) 206  
 안석영(安夕影) 203  
 안석주(安碩柱, 安田榮) 518  
 안영배(安英培) 407  
 안영일(安英一) 377, 712  
 안정원(安錠遠) 197  
 안중화(安鍾和, 安田辰雄) 47, 55, 66, 390, 521  
 안톤 드보르작 547  
 애국조선박람회 40  
 야규우 세키슈유사이(柳生石舟齋) 261  
 야기 노부오(八木信雄) 222  
 야기 아키조(八木秋三) 234  
 야기 호타로(八木保太郎) 206, 258, 515  
 야나가와 미노루(柳川実) 207  
 야나가와 초안(柳川長安) 278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國男) 436  
 야나무라 기치조(梁村奇智城) 167, 169, 170, 185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47, 62, 75, 92, 148, 173, 201, 206, 230, 234, 356, 360, 361  
 야노(矢野學彦) 712  
 야다 나오유키(八田尚之) 206  
 야마구치 기교(山口起業) 658  
 야마구치 나가오(山口長男) 319  
 야마노 히로시(山野広) 207  
 야마다 기미(山田キミ) 407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403, 406  
 야마다 에이(山田衛) 206  
 야마다 주지(山田忠次) 157  
 야마다 혼지(山田凡二) 362, 363  
 야마모토 기지(山本季嗣) 209, 215, 230, 234  
 야마모토 긴고로(山本金五郎) 234  
 야마모토 도시무쓰(山本時睦) 207  
 야마모토 레이코(山本礼子) 729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728  
 야마베 민타로(山部珉太郎) 278, 666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一彦) 409  
 야마자키 마사오(山崎正男) 409  
 야마키 시게마스(山木重益) 411  
 야스다 미노루(安田實) 283  
 야스다 에이(安田榮) 207  
 야스다 지카요시(安田近義) 412  
 야스카와(安川商穆) 407  
 야스쿠니(靖國) 129  
 야스타케 요시오(安武芳男) 408  
 야스하라 가이준(安原海潤) 206  
 양세웅(梁世雄) 203, 207

양주남(梁柱南) 207  
 양주동(梁柱東) 343  
 양훈 714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郎) 320, 412, 623  
 에리히 폰 호른보스텔 547  
 에밀 야닝스(Emil Jannings) 61  
 H. G. 웰즈 753  
 에치치 겐조(越智源三) 252  
 엔도 고이쓰(遠藤悟逸) 159  
 열가 316  
 염갈오(閻拏梧) 298  
 영공상회(映工商會) 509  
 예술극사(藝術劇社) 296  
 예술사(藝術社) 509  
 예원좌 536  
 오가자키 고이치(岡崎康一) 197  
 오노 도시유키(小野利幸) 230, 234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265  
 오덕섭(吳德燮) 192  
 오리하타 세이조(降旗清三) 167, 170  
 오미네 헤이조(大峰丙朝) 197  
 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 312, 343, 396, 579  
 오바라 쇼분(小原昌文) 234  
 오병규(吳炳圭) 238  
 오사카 히사마쓰(保阪久松) 343  
 오소라 히사호로(大空久幌) 207  
 오야마 쇼고(大山承鎬) 207  
 오에 류노스케(大江龍之助) 607  
 오영진(吳泳鎭) 207  
 오오노 싱이치(大野真一) 207  
 오오에 미츠오(大江滿雄) 498  
 오오이(大井手東人) 407  
 오오코시 토오요(大串兎代夫) 434  
 오오타 고지(太田恒彌) 258  
 오이시 데이시치(大石貞七) 222, 230, 234, 237, 252  
 오자키 기하치(尾崎喜八) 135  
 오정민(吳禎民) 523, 751  
 오카다 중이치(岡田順一) 204, 229, 230, 233, 234, 252, 256, 286  
 오카모토 세지로(岡本清次郎) 237  
 오카자키고로 마사무네(岡崎五郎正宗) 525  
 오카지마 마사모토(岡島正元) 406, 407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755  
 오쿠야마 센자(奥山仙三) 119  
 오쿠이 도요조(奥井豊藏) 197  
 오타니 다케지로(大谷竹次郎) 205  
 오타니 웅요(太谷雲用) 197, 199, 206  
 오태석 712  
 오토 산지(大音三二) 234  
 오토·바우엘 538  
 오후지 이사무(大藤勇) 197  
 오히라 게이지로(大平敬次郎) 410  
 오히라 기즈로(大平喜重郎) 173  
 와세다대학 85  
 YMCA 71  
 와타나베 강이치(渡辺寛一) 195  
 와타나베 나오타로(渡辺治太郎) 238  
 와타나베 쇼타로(渡辺庄太郎) 207, 209  
 와타나베 신타(渡辺新太) 197  
 와타나베 요시오(渡邊義雄) 406  
 왕조명(汪兆銘) 444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729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307  
 요시모토 흥업(吉本興業) 205  
 요시무라 도요코(吉村豊子) 411  
 요시자와 미노루(吉澤實) 343, 396  
 요시타케 데루오(吉武輝芳) 222  
 요코다 다쓰유키(横田達之) 187, 201, 206  
 요코야 다케오(横矢武男) 342

요코야마(横山巷頭子) 363  
 우도 마사코(有働正子) 406  
 우메하라(梅原逢春) 408, 411  
 우에다 히로시(上田廣) 129, 364, 748  
 우에무라 다이지(植村泰二) 209, 221, 225  
 우에무라 아키오(上村明雄) 409  
 우치다 곤고로(内田鯉五郎) 197  
 우치다 기사오(内田崎三雄) 258, 259, 260  
 우치다 다카시(内田隆) 410  
 우치오 히데후미(内尾秀文) 406  
 원우전(元雨田) 377, 712  
 위다푸(郁達夫) 87  
 유경애(俞敬愛) 377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148, 153, 474  
 유억겸(俞億兼) 428  
 유여옥(柳如玉) 207  
 유은경 584  
 유일 712  
 유장안(柳長安) 286  
 유진오(俞鎮午) 35, 47, 74, 107, 119, 129, 143, 155,  
 345, 347, 350, 357, 358, 361, 363, 367, 421, 446,  
 448, 484, 737  
 유천성연(柳川成淵) 407  
 유천장안(柳川長安) 286  
 유치진(柳致眞) 35, 144, 158, 204, 206, 283, 286,  
 358, 361, 363, 368, 377, 380, 526, 543, 711  
 윤규섭(尹圭涉) 428  
 윤기선 546, 584  
 윤기정(尹基鼎) 428  
 윤두헌(尹斗憲, 平沼文甫) 363, 451, 640  
 윤상열(尹相烈) 207  
 윤성덕(尹聖德) 343  
 윤세중 712  
 윤효중(尹孝重) 411  
 의본인범(義元仁範) 591  
 의본인형(義元仁亨) 591  
 이가 코가(伊賀甲賀) 261  
 이가국삼랑(李家國三郎) 409  
 이가영죽(李家英竹) 286  
 이강복 712  
 이건영(李建英) 411, 412, 622  
 이권우 565  
 이경호(李景浩) 412  
 이광래(李光來) 543  
 이광수(李光洙, 香山光郎) 119, 148, 345, 346, 347,  
 348, 357, 361, 363, 428, 464, 521  
 이국진(李國鎔) 411  
 이규희(李圭熹) 428  
 이극로(李克魯) 347  
 이근택(李根澤) 197  
 이금룡(李錦龍) 203  
 이기성(李基星) 207  
 이기세(李基世) 211  
 이기영(李箕永) 346, 347, 428  
 이난영 712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123  
 이노우에 고분(井上康文) 129, 364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傳) 406  
 이데 긴지(井手金治) 412  
 이데 도시이치로(井手年一郎) 234  
 이데 이사무(井手勇) 345  
 이도미야 가쇼(伊都宮嘉昭) 207  
 이동규(李東珪) 428  
 이동백 712  
 이동수용(伊東壽容) 412  
 이동호 712  
 이마다 게이이치로(今田慶一郎) 412  
 이마무라 요시오(今村嘉男) 207  
 이마부치 부주(今淵武寿) 197  
 이몽 712

이무영(李無影) 107, 111, 155, 358, 471, 543, 690, 689, 719  
 이바야시 시게루(井林茂) 234  
 이방녕(李邦寧) 207  
 이병길(李丙吉) 230, 234  
 이병일(李炳逸) 167, 185, 193, 203, 207  
 이복본 712  
 이봉상(李鳳商) 404, 410  
 이상범(李象範) 412  
 이상준 579  
 이상협(李相協) 343  
 이서구(李瑞求, 牧山瑞求) 47, 55, 66, 380, 528, 623, 628  
 이서향 712  
 이석훈(李石薰, 牧洋) 80, 129, 356, 358, 363, 419, 434, 474, 543, 612, 632, 636, 720, 749, 754  
 이성근(李聖根, 金川聖) 234  
 이성운 712  
 이성희(李聖熙) 197  
 이수근(李秀根) 207  
 이시다 기소쿠(石田義則) 259  
 이시모리 히사야(石森久彌) 343  
 이시바시 료스케(石橋良介) 216, 222, 230, 234, 237, 252  
 이시바시 유타카(石橋豊) 222  
 이시이 고로(石井五郎) 68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 643  
 이애내(李愛內) 396  
 이영선 591  
 이와미 시즈에(石見靜江) 411, 412  
 이와사 시케이치(岩佐重一) 197, 201, 206  
 이와사키 아키라(岩崎昶) 258  
 이와이 가네오(岩井金男) 203, 207  
 이룡선(李龍仙) 206  
 이원용(李源鎔) 203, 207  
 이유성 546  
 이유태(李惟台) 412  
 이이다 신비(飯田心美) 259  
 이이다 히데요(飯田秀世) 259  
 이이지마 타다시(飯島正) 258, 259, 275  
 이인범(李仁範, 義本仁範) 568, 581  
 이인석(李仁錫) 706, 770  
 이인형(李仁亨, 義本仁亨) 557, 582  
 이자와 겐지(伊澤健治) 408  
 이재명(李載明) 170, 203, 207  
 이정훈 712  
 이종룡(李錦龍) 207  
 이종철 712  
 이종태(李鍾泰) 343  
 이천전(李千典) 707  
 이천정범(利川貞範) 407  
 이철(李哲, 靑山哲) 55, 66, 340  
 이치무라 요시코(市村淑子) 207  
 이치무라 유로(市村佑郎) 207  
 이케나가 와에이(池永和央) 205  
 이케다 구니오 204  
 이케다 조쿠(池田属) 187, 205  
 이케사와 쇼이(池沢勝意) 234  
 이케우라 낭요(池浦南洋) 207  
 이케타니 신사부로(池谷信三郎) 80  
 이키 하쓰요시(壹岐初好) 216, 230, 234  
 이타이 고이치(板井幸一) 234  
 이태준(李泰俊) 35, 347, 358, 435  
 이토 겐지(伊藤元治) 234  
 이토 고유(伊東恭雄) 205  
 이토 마사아키(伊東正明) 407  
 이토 에이치(伊藤榮一) 408  
 이토 키사쿠(伊藤喜朔) 281  
 이하라 에이이치(井原英一) 663  
 이하운(異河潤) 347, 356

- 이헌구(李軒求) 358  
이홍근(李弘根) 428  
이화삼(李化三) 428  
이효(異曉) 207  
이흥렬(李興烈, 清木興烈) 361  
인정식(印貞植) 428  
일데브란도 피체티 314  
일본감독협회 515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學報國會) 106, 148, 153, 357, 361  
일본미술보국회(日本美術報國會) 106  
일본영화미술감독협회 515  
일본영화배우협회 515  
일본영화작가협회 515  
일본영화조감독협회 515  
일본카메라맨협회 515  
일본활동사진주식회사 186  
일진회(一進會) 616  
임동혁(任東赫) 565, 588  
임병호(林炳鎬) 207  
임서방 340  
임선규 711  
임학수(林學洙) 347, 428, 724  
임화(林和) 35, 347  
임효은 712
- 【ㄷ】**
- 자크 이베르 314  
장덕수(張德秀) 428, 738  
장동률(張東律) 409  
장선영(張善永) 171, 185  
장여(長與) 416  
장우성(張遇聖) 412  
장제스(蔣介石) 76, 88, 89, 272, 353  
장진 712  
장혁주(張赫宙) 35, 110, 145, 259, 428, 726, 756  
재조선문화단체 148, 154  
전방일 712  
전영택(田榮澤) 347  
전운봉 712  
전일본영화인연맹 515  
전일본영화인평의회 516  
전조선사상보국연맹 681  
전한(田漢) 296  
전흑천(田黑泉) 712  
정교원(鄭橋源) 345  
정국학모(鄭國鶴謨) 626  
정몽주 464  
정백기(鄭伯奇) 297  
정비석(鄭飛石) 428, 485, 634, 645, 690  
정영재 591  
정온녀(鄭溫女) 409  
정인섭(鄭寅燮, 東原寅燮) 74, 119, 204, 345, 346, 347, 356, 358, 488, 729  
정인택(鄭人澤) 358, 484, 690, 730  
정정승(貞井昇) 712  
정종여(鄭鍾汝) 412  
정지용(鄭芝溶) 35, 347, 435  
조규봉(曹圭奉) 411  
조남표(趙南杓) 407  
조덕환(趙德煥) 410  
조명암 712  
조병덕(趙炳憲) 406  
조복순(曹福淳) 411  
조상선 712  
조선교향관현악단 66  
조선구귀영화사(朝鮮九貴映畫社) 167, 509  
조선담우협회(朝鮮談友協會) 399  
조선문예회 340  
조선문인보국회 106, 128, 152, 360, 361, 463, 730



조선문인협회 45, 55, 80, 104, 119, 345, 360, 437,  
 439, 448, 449, 607  
 조선문학자총궐기대회 152  
 조선문화영화협회 167, 190, 192, 509  
 조선미술가협회 55, 66, 106, 403, 405  
 조선미술전람회 70  
 조선상공회의소 204  
 조선연극문화협회 278, 286, 361, 712  
 조선연극협회 47, 286, 527, 528  
 조선연예협회 55, 66, 340  
 조선영화배급사 204, 213, 225, 228, 256, 286  
 조선영화예술협회 513  
 조선영화인협회 514, 521, 527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195, 254, 257, 269, 275  
 조선영화주식회사 167, 190, 192, 509  
 조선영화협회 47, 55, 175  
 조선예흥사(朝鮮藝興社) 167  
 조선음악협회 55, 361, 548, 555, 585  
 조선일보사 200  
 조선천류협회(朝鮮川柳協會) 360  
 조선하이쿠작가협회(朝鮮俳句作家協會) 360  
 조선흥행연합회 222, 235, 252  
 조선희망음악연구소 546  
 조영은(曹永恩) 428  
 조용만(趙容萬) 347, 622, 740  
 조용만 630, 647  
 조용자 712  
 조우식(趙宇植, 白川榮二) 492, 648, 761  
 조정호(趙鼎鎬) 207  
 조준호(趙俊鎬) 197  
 조천석(朝天石) 159  
 조택원 545, 712  
 John Philip Sousa 316  
 주영섭(朱永涉) 499, 531  
 주요한(朱耀翰, 松村紘一) 158, 346, 350, 362, 363,

502, 535, 683, 764  
 주인규(朱仁圭) 428  
 중앙협화회(中央協和會) 112  
 지지로쿠온코(時事録音子) 259  
 진경생(陳勁生) 297  
 진량 712  
 진홍왕 600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 290

【\*】

차욱(車旭) 207  
 채남인(蔡南仁) 428  
 채만식(蔡萬植) 622, 690  
 채정근 712  
 척무성(拓務省) 178  
 청춘좌 536  
 최규순(崔圭淳) 207  
 최근방 712  
 최남선(崔南善) 343  
 최남주(崔南周) 167, 169, 170  
 최명하(崔鳴夏) 730  
 최무성(崔茂盛) 340  
 최병한(崔丙漢) 428  
 최상덕(崔象德) 380  
 최순흥(崔順興) 207  
 최승희(崔承喜) 38, 69, 428, 546  
 최연규(崔演奎) 207  
 최영린(崔永麟) 207  
 최영선(崔榮善) 537  
 최운봉(崔雲峰) 207  
 최은연 712  
 최인규(崔寅奎) 203  
 최재서(崔載瑞) 99, 107, 129, 143, 286, 345, 347,  
 349, 358, 361, 362, 363, 367, 419, 504, 749  
 최정희(崔貞熙) 80, 356, 358, 688, 769

최한조(崔漢兆) 207  
최현배(崔鉉培) 428  
추밀원(樞密院) 123

【ㄱ】

카와카미 테츠타로우(河上徹太郎) 476  
카펜터 316  
칸트 98, 434, 478  
강야마(完山康月) 206  
캠벨 454  
쿠센 316  
키네마순보(キネマ旬報)사 200  
키쿠치 간(菊地寛) 60

【ㄴ】

넨잔 마스미(天山益進) 269  
토월회(土月會) 542  
토키영화촬영소 167

【ㄷ】

파스칼 454  
퍼셀 316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02  
평본재준(平本載俊) 207  
평소경기(平沼京基) 411  
평소형렬(平沼亨烈) 409  
포스터 316  
프란츠 리스트 548

【ㅎ】

하기야마 히데오(萩山秀雄) 343  
하기와라 사부로(萩原三郎) 197  
하나호 미치오(花圃美地雄) 407  
하라다 고도(原田公道) 230, 234

하라모토 세이완(原本聖完) 207  
하루야마 준(春山潤) 207  
하본준석(河本駿錫) 197, 206  
하부 요네사쿠(土生米作) 343  
하산상복(夏山上福) 410  
하시모토 고토야(橋本言也) 364  
하시모토 중이치로(橋本順一郎) 234  
하야시 도시오(林敏夫) 406, 408, 410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148, 154, 173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476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35  
하야시 히로다카(林弘高) 205  
하야카와 쓰요시(早川巖) 408  
하이든 549  
하타노 게이조(波多野敬三) 205  
한병옥 712  
한상건(韓相建) 428  
한상룡(韓相龍) 171  
한상직(韓相稷) 543  
한성준 340  
한스 신들리 551  
한양영화사 167, 509  
한은진 712  
한일송 712  
한준호 712  
한홍택(韓弘澤) 406, 410  
함대훈(咸大勳) 55, 66, 347, 358, 538, 770  
함세덕(咸世德) 543  
함화진(咸和鎭) 343  
हत도리 게이에이(服部惠英) 203, 205, 206  
हत도리 쥬산(服部壽山) 411  
향산광랑(香山光郎) 148, 157, 361  
향촌실(香村實) 66  
허달(許達) 207  
허버트 316

허영진 712  
 헤세(Hesse) 497  
 현영섭(玄永燮) 426, 428  
 현제명(玄濟明) 343, 428, 546, 734  
 현충섭(玄忠燮) 407, 410  
 호리 지에코(堀千枝子) 407  
 호리코시 유지로(堀越友二郎) 237, 252  
 호소카와 준(細川順) 411, 622  
 호시노 시게미쓰(星野重光) 411  
 호시노 쓰기히코(星野二彦) 409, 410  
 호시데 주오(星出寿雄) 222  
 호시무라 토시오(星村俊夫) 207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204  
 혼다 다케오(本田武夫) 173  
 혼다 지카오(本田親男) 80  
 홍개명(洪開明) 399  
 홍영후(洪永厚, 홍난파) 343, 428, 579, 591, 735, 736  
 홍원홍작(洪原弘作) 409  
 홍종우(洪鍾羽, 青木洪) 159  
 홍창회(紅槍會) 86  
 홍청자(洪淸子) 203, 204, 207  
 홍태민(洪泰民) 407  
 황도문화협회 204  
 황도조선연구위원회(皇道朝鮮研究委員會) 111  
 황문평(黃文平, 檜原文平) 281  
 황창량(黃倡郎) 745  
 황철(黃澈, 黃轍) 377, 536, 712  
 후나고시 유지로(堀越友二郎) 222  
 후루야 쓰나타케(古谷綱武) 107  
 후루카와 가네히테(古川兼秀) 35, 617  
 후루하타 세이사부로(降旗清三朗) 175  
 후루하타 세이조 185  
 후생실내악단 589  
 후지가와 긴조(藤川欽三) 235  
 후지야 다쿠조(藤谷拓藏) 206  
 후지와라 슌이치(藤原恂一) 406, 409  
 후지이 슈이치(藤井祥一) 664  
 후카다 규야(深田久彌) 136  
 후쿠다 기요토(福田清人) 107  
 후쿠다 히데오(福田秀夫) 203, 206  
 후쿠시 고키로(福士幸次郎) 436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477  
 히구치 고조(樋口甲子藏) 252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52, 364  
 히라네 가쓰오(平根勝男) 411  
 히라누마 에이지(平沼永次) 406  
 히라데 히데오(平出英夫) 589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299, 300, 301, 361, 549, 585  
 히로가와 소요(廣川創用) 167, 169, 170, 185, 193, 197, 206, 211, 216, 222, 230, 255, 258, 259  
 히로다 가즈아키(廣田一明) 207  
 히로다 요시오(廣田義雄) 204  
 히로다 조쿠(廣田屬) 183  
 히로타(廣田正尙) 408  
 히비노 시로(日比野士朗) 108, 748  
 히요시 마모루(日吉守) 319, 409  
 히카 에이타로(日夏英太郎) 259